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5. 12.

(재)희망제작소

◦ 발행일: 2025년 12월

◦ 문의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 전화: 032-562-5301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 홈페이지: www.seo.incheon.kr

[(재)희망제작소]

- 전화: 02-6395-1421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 홈페이지: www.makehope.org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재)희망제작소 소장 이은경

책임연구원

정창기 (재)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팀장
이은경 (재)희망제작소 연구위원/소장

참여 연구원

박자행 (재)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김세진 (재)희망제작소 부연구위원
한상규 (재)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송정복 (재)희망제작소 연구위원
방연주 (재)희망제작소 부연구위원
최나현 (재)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이규리 (재)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안영삼 (재)희망제작소 부연구위원

목 차

제 1 장

I. 연구배경 및 목적	3
II.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I. 청년 관련 법률	11
1. 청년기본법	11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2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13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
II. 상위 추진체계 및 관련 계획	15
1. 중앙정부 기조 및 주요과제	15
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기조 및 주요과제	23
III. 청년정책 사례	25
1. 국내 청년정책 사례	25
2. 해외 청년정책 사례	33

제 3 장

I. 일반 현황	39
1. 지리적 현황	39
2. 고용 및 관광	41
3. 인구 특성	43
4. 서구 경제활동 및 산업 특징	46
5. 정책 현황	51
II. 청년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53
1. 청년 현황	53
2. 조례 및 추진 체계	57
3. 청년정책 추진 및 성과	60

제 4 장

I. 청년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설문조사)	67
1. 조사 개요	67
2. 청년 실태조사 응답	69
3. 취약계층 청년	183
II. 심층인터뷰	198
1. 조사 개요	198
2. 응답	199
III. 분석 및 시사점	213
1. 페르소나 분석	213

2. 시사점	220
--------------	-----

제 5 장

I.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227
1. 서구 청년정책 조사 종합 및 SWOT 분석	227
2.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229
3.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 방향	230
II.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목표	231
1.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231
2.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목표 및 영역별 전략	232
3. 영역별 전략 및 정책 과제	235
III. 청년친화도시 서구 방향성	237
1. 청년친화도시 서구 배경	237
2. 청년친화도시 서구 기본방향	242
3. 청년친화도시 서구 추진전략	243

제 6 장

I. [일자리] 재직·창직·창업기반 조성	247
1.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기회 제공	247
2.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 및 환경조성	253
3. 청년 창업 촉진 및 정착 지원	255
II. [자립기반] 건강한 자립지원	262
1. 생애주기별 주거·독립 비용 지원	262
2.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69
III. [생활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273
1. 청년 생활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	273
2. 사각지대 없는 청년 복지 실현	283
IV. [문화여가] 문화·여가로 삶의 질 향상	290
1. 서구 청년 여가공동체 활성화	290
2. 서구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활동 참여 촉진	296
V. [사회참여] 교류 및 관계망형성 기회 확대	299
1. 청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299
2. 청년생태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301

제 7 장

I. 예산 계획	309
II. 예산 확보 방안	311

부록

참고문헌	317
서구 청년 실태조사 설문지	318

표 목 차

[표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체	17
[표2-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18
[표2-3]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안	19
[표2-4] 보건복지부 청년복지 5대 과제	20
[표2-5] 인천 청년정책 수정계획 전략 및 전략과제	23
[표2-6]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사업	24
[표2-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	24
[표2-8] 서울시 2024년 고립청년 지원정책	27
[표2-9] 유럽국가들의 청년보장제 주요 내용	34
[표2-10]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지원 사업 개요	36
[표3-1] 인천 서구 분구 개편 예정안	40
[표3-2] 서구 소재 지정유산 현황	42
[표3-3] 2025년 11월 기준 서구 동별 인구 및 세대수	43
[표3-4] 생활업종 산업별 입지계수	49
[표3-5] 기술업종 산업별 입지계수	50
[표3-6] 서구 연령대별 청년 현황	54
[표3-7]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7
[표3-8] 서구 청년 기본조례 내용	57
[표3-9] 청년센터 서구1939 개요	59
[표3-10] 인천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1기 우선과제	61
[표3-11] 서구 청년친화도시 신규 사업	62
[표4-1] 서구 청년 실태조사 개요	67
[표4-2] 서구 청년 실태조사 주요 조사 내용	68
[표4-3] 서구 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조사 결과	184
[표4-4] 서구 고립청년 규모추정 결과	184

그림 목 차

[그림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정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6
[그림2-2]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22
[그림2-3] 2025 서울 청년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	25
[그림2-4] 수원시 청년정책 주요 과제	28
[그림2-5]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흐름도	31
[그림2-6]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훈련 프로세스	31
[그림3-1]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행정동	39
[그림3-2] 인천 서구 분구 예정도	40
[그림3-3] 서구 사업체 수 현황	41
[그림3-4] 서구 종사자 수 현황	41
[그림3-5] 2025년 9월 기준 고용보험 피고용자	42
[그림3-6] 2025년 11월 기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43
[그림3-7] 연령대별 인구 현황	44
[그림3-8] 서구 세대수 및 1인가구	45
[그림3-9] 연령대별 1인가구 증가	45
[그림3-10] 서구 및 유사 규모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비교	46
[그림3-11] 경제활동인구 중 서구의 청년 고용률	47
[그림3-12] 서구의 통근인구 현황	48
[그림3-13] 서구 구정방침	51
[그림3-14] 청년정책일자리과 주요과제	52
[그림3-15] 지난 5년간 인천광역시 청년인구	53
[그림3-16] 지난 5년간 청년인구 비율	53
[그림3-17] 서구 연령대별 청년 인구 현황	55
[그림3-18] 인천광역시 지역별 1인가구 현황	55
[그림3-19] 연령대별 서구 청년 1인가구 현황	56
[그림3-20] 서구 기초생활수급 청년 현황	56
[그림3-21] 청년정책 전담팀 구성(2024년 6월 기준)	59
[그림3-22]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1차 비전체계도	60
[그림3-23] 청년친화도시 TF 조직도	62
[그림5-1] 서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240
[그림5-2] 서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241
[그림6-1] 서구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사업	305
[그림7-1]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311

서론

제1장

- I. 연구배경 및 목적
- II. 연구범위 및 방법

I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명: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 연구기간: 2025년 5월 ~ 2025년 11월

3. 연구배경

- 저성장·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해 청년층은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1인가구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청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희망(맞춤형 지원), 공정(기회 보장), 참여(참여의 장 확대) 3대 기조 아래 청년정책 추진 중
- 2025년 1월 기준 서구 청년인구(19~39세) 253,346명¹⁾, 청년비율은 27.8%이며,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유출되는 동적 특성을 보임. 이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4. 연구목적

- 쉬엇음 청년의 증가,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정책 트렌드 및 청년 정책 수요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서구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함
-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결과 분석 및 환류를 바탕으로 인천 서구의 지역적 특성 및 서구 청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1)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2025년 3월)

II |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 분석 및 환류(2021~2025)
- 제2차 기본계획 수립(2026 ~ 2030년 5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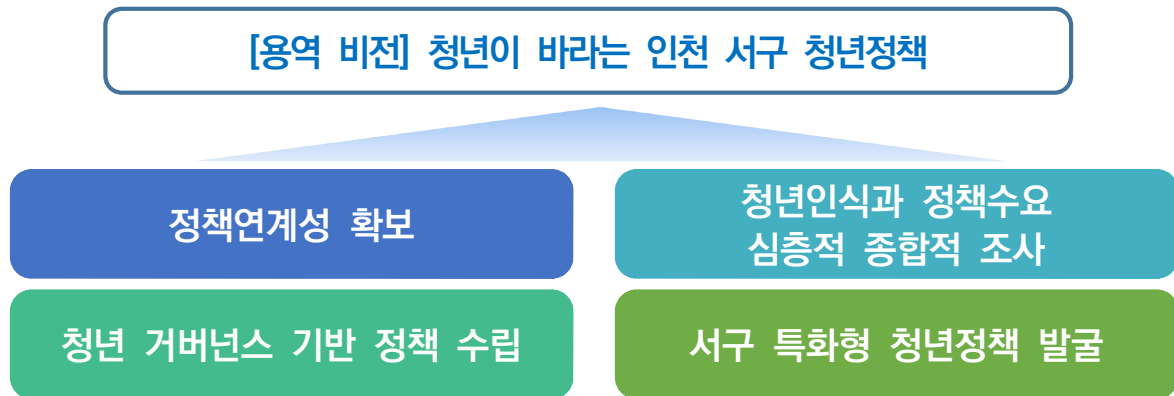
나.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다. 내용적 범위

- 서구 청년 여건 및 지역적, 인구적 특성 분석
-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서구 청년 대상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FGI, 온라인 설문, 토론회 등)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 결과 분석 및 환류
- 서구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제시
-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전략, 이행) 도출 및 발굴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제시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2. 연구 방향 및 방법



가. 연구 추진 방향

1) 정책연계성 확보

- 중앙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2021~2025),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성, 관련 부처의 주요사업 방향 등 대내외적인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민선 8기 서구 공약 및 구정 방향,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사회적경제, 인구정책 종합계획 등 분야별 주요 중장기 정책 등과 연계

2) 청년인식과 정책수요에 기초한 청년정책 발굴

- 인천 서구 통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사회조사), 인천광역시 통계, 정부 통계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삶의 종합적·심층적 분석
- 청년의 관점을 반영한 정량적(설문조사) 및 정성적(심층면접, FGI) 조사를 통해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과 수요 파악

3) 청년 거버넌스 기반 정책 수립

- 관련 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청년주체 참여 거버넌스 구성
-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참여형 연구를 통해 청년 당사자가 소외되지 않는 당사자 중심의 청년 정책 수립

4) 서구 특화형 청년정책 발굴

- 1기 인천 서구 청년정책 분석 및 평가
- 청년 보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함께, 직장인·소상공인·지역창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등 특화 정책을 포함한 서구 특화형 전략 마련
- 타 지방정부 및 해외 사례 발굴하여 서구 청년 정책의 차별점 및 연계지점 발굴

나. 연구 방법

1)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진단 및 분석

-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 및 2025년 부처별 예산사업 분석을 통한 새로운 청년 정책 트렌드 분석과 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
- 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청년 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 정책 확산 방안 및 발전 방향 모색

2) 면밀한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서구 청년현황, 특성 및 수요 파악

- 통계청, 인천광역시 통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사회조사), 서구 통계, 한국은행 고용정보원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서구 청년 기초통계 분석
- 권역별, 성별, 연령별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 및 태도, 정책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직장인, 소상공인, 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표적집단 심층면접을 통한 청년층 유형 및 정책 수요 발굴

3) 종합분석을 통해 서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비전 제시

- 2021~2025년 서구 청년정책 성과 분석·평가 및 연계
- 통계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트렌드의 종합 분석을 통한 2026~2030년 서구 청년정책 비전 및 정책 목표 제시

4) 청년 삶의 보장을 위한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 청년의 욕구, 필요, 수요와 전문가 검토,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실행성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 서구에서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취·창업, 교육, 주거와 복지, 문화와 건강, 청년 참여 및 권

리 증진 등 5대 영역의 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구축과 청년 유형별 프로그램 구상, 소통 및 홍보 방안 개발

5)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 중앙정부 및 서구 예산 현황을 반영해 단계별, 연차별 사업비 제시
- 단기, 중장기 청년정책 과제별 실행 로드맵 작성

환경 분석 및 청년정책 사례

제2장

- I. 청년 관련 법률
- II. 상위 추진체계 및 관련계획
- III. 청년정책 사례

I | 청년 관련 법률

1. 청년기본법

가. 배경과 목적

- 길어지는 취업 준비 기간, 불확실하며 불안정한 미래, 사라지고 있는 평생직장과 좁아지고 있는 취업 문, 높은 장벽이 되어 가고 있는 주거 등 청년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다종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
-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청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을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나. 주요 내용

- 동법 제3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연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청년정책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법 제11조에서는 기본계획 등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을 명시함
-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을 명시. 제15조 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을 명시함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가. 배경과 목적

- 2004년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8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되어 2010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명칭 수정. 2018년 말 종료 예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6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
-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주요 내용

- 동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협조,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함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의 고용지원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소요 비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추가 고용할 경우의 소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가. 배경과 목적

- 농업 분야 고령화의 지속, 후계인력 규모의 감소 추세에 따른 장기적인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년의 농업 진입 과정에서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취약한 농촌 인프라 개선, 초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요구됨
- 이에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던 ‘후계농어업경영인’에 청년농어업인을 확대하여 2020년 5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정
-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후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50세 미만, 총 영농(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
-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40세 미만으로 정의
- 동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을 꼽고 있으며, 후계농어업인의 역할로는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 구축 노력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선정 및 지원(발전단계별 자금, 컨설팅, 경영교육, 영농영어정착지원금),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함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배경과 목적

-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고자 제정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위기아동·청년에 대해서는 34세 이하의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정의
- 이때,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
- 기본 원칙으로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하며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
-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또한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II | 상위 추진체계 및 관련 계획

1. 중앙정부 기초 및 주요과제

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1) 배경 및 추진방향

- 「청년기본법」 이념(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야하며, 이를 근거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수립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포스트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의 정책환경 변화와 청년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으로서의 전환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청년참여 확대방안, 지역균형발전 대책 등이 포함됨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하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두고 총 270개의 세부과제를 두고 있음

2) 기본계획 수정 ('23.03.)

- 새정부 출범과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를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
- 계획과 집행간 정합성 확보, 희망·공정·참여 등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수정 방향은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 확대·실질화', '청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책의 효능감 제고', '인프라 보강 통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2023.3.29.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



[그림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정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3.3.29.)

나. 청년정책 시행계획

1) 배경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청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표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체

구분	기관
중앙행정기관(3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수청
지방자치단체(17)	17개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보도자료. 2022. 02. 14.)

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 2025년 4월 2일 정부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함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연결망 단절 및 약화 위기에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시설(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이 외에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해외진출 지원, '대한민국 청년총회'와 청년 위촉대상 정부위원회 확대를 통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의견수렴 창구를 확장함

[표2-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선발 •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쉬는 청년’ 발굴 및 취업 지원 • 구직단념청년 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 빈일자리업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 창업중심 대학 확대 • 청년 창업 펀드 조성 • 청년창업 기업의 지자체 수의 계약 허용금액 상향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청년대상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통합으로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확대 •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매칭 지원금 확대 •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 청년신문고를 통한 청년 의견 수렴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보도자료, 2022. 02. 14.)

다. 중앙정부 기조 및 주요 과제

1)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 국민주권정부에 들어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9월 청년주간(9.20~26)을 맞아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
 - 이번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및 정책 대상별 FGI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 등을 통해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 청년들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확대를 중점기조로 추진
 -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확산
 -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 마련
 -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
- 중점기조를 기반으로 청년의 생애주기별 세부과제 추진
 -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 자립기반 마련 →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과제를 마련
 - 사회진입 시기에는 청년들의 사회 첫 진입과 함께 재도전 기회를 집중적으로 지원
 - 자립기반에서는 사회에 진출한 이후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 생활을 지원
 - 사회참여에서는 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개선

[표2-3]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안

영역	추진방안
사회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창은 일터 확산 • 쉽→회복→재진입 기회 마련 • 역량개발 기회 확대 • 창업생태계 구축 • 다양한 도전 지원 • 지역 일자리 정착→확산
자립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 안정 보장 • 생활비 부담 완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 마음건강 지원 강화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청년 공동체·교류 활성화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5. 09. 22.)

2) 보건복지부 「청년복지 5대 과제」(2023)

-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취약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의 미래 기반 조성(자립)’, ‘심리·정서적 안전망 지원(안정)’, ‘자산 형성 토대 마련(출발)’을 위한 통합 정책 수립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청년 등의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 심리·정서 돌봄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
-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여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표2-4] 보건복지부 청년복지 5대 과제

주요대상	사업내용
가족돌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 •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
고립·은둔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유형화-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 고립·은둔 계기, 복지욕구 파악 위한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 추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가족·경험자·지원자 등 협력 체계 구축 • 초기 상담(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 유형화 • (청년)자기회복, 사회관계,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운영, (가족)소통교육·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 정기면담, 모임 등 통해 지속 사후관리
자립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주요대상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자립지원 서비스 다양화 •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과제 마련 및 정책 보완 추진
청년 마음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신설 • 청년층(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 •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 강화
청년 자산형성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 모집, 가입자 중심 편의 개선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대상 확대 및 취약청년 공제 강화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공제 신설

(출처: 보건복지부 청년 복지 5대 과제 (2023.09.19.) 재구성)

3) 관계부처합동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2023)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은 관계부처합동으로 23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함
 - 23년 기준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취준-적극형', '취준-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등으로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여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쉬었음 청년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학·재직·구직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함
 - [재학]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직]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 [구직]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단념 예방 및 청년도전 지원
 -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설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 해소
 - [발굴 및 전달체계]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 신설 및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니트청년 발굴방안 모색
 -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빈일자리 청년치업지원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강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내용

- 쉬잇을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강화
- 발굴·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등 인프라 개선 병행

	취준 적극형	취준 소극형	이직 적극형	이직 소극형	취약형
직장경험	x	x	o	o	환경적 취약성
구직의욕	↑	↓	↑	↓	

1 재학

재학단계 조기개입을 통한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촉진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대학생 50개 대 38개	고등학생 20개 소 신설	지역청년 60개 대 11개
---------------------	---------------------	----------------------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민간 4.8만명 2.2만명	중앙부처 5천명 3천명	공공기관 2.1만명 0.1만명	대학(위탁) 18개 대 5개
----------------------	--------------------	------------------------	-----------------------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취업역량 제고

고등학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75개 학과 20개	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9개교 4개 부트캠프 42개교 32개	일반청년 K-디지털 트레이닝 4.4만명 0.8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할인
--	--	---

2 재직

직장적응 지원 및 기업문화 개선으로
노동시장 이탈 방지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44억원)

입직청년 직장적응교육 450회	기업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 160회
------------------------	--------------------------------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850개소 800개소	유연근무 컨설팅 400개소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설 1인당 30만원
------------------------------------	----------------------	-------------------------------

3 구직

특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을 통한
쉬잇을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

구직단계 예방: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설(281억원)

미취업청년 대상 **일상유지·자조모임·심리상담** 제공(10개 지자체)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지원사업 강화

지원인원 9천명 1천명	프로그램 중기 과정 (3개월)신설	수당체계 구직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훈련비 자부담율 인하
--------------------	--------------------------	-----------------------------	-------------------

특화 일경험 및 경력재설계 지원

니트 특화 일경험 신설 6천명	이직청년 경력재설계 서비스 신설
------------------------	-------------------------

4 취약청년

특성별 장애요인 해소 + 고용서비스 연계

특성별 지원 강화

고립둔청년 사회복귀·재적용 프로그램 신설 13억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설 연 2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0만원	장애일병청년 자활근로 6.9만명 장애인 취업패 1.3만명

고용서비스-민간 인턴십 연계

발굴·전달체계 강화

쉬잇을 관계기관
정례 협의체 신설

공공데이터 활용
발굴방안 모색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 산리단길(1,867억원)
-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2.4만명, 신설)
-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지원(317억원)
- 상생연대형성 지원(50억원)

[그림2-2]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3.11.15.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기조 및 주요과제

가.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

- 인천광역시는 2020년 제1차 인천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인구 감소, 코로나 19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계획 발표
 -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비전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청년에게 날개를)”임
- 4대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지원 △청년 문화여가지원 △청년시설 공간구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함
 - 4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 전략과제를 살펴보면 일자리, 주거, 여가, 4차산업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환경분야 참여 지원 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표2-5] 인천 청년정책 수정계획 전략 및 전략과제

4대 추진전략	20대 중점 전략과제	구분
취·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확대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육성 (소셜벤처, 청년 농업인 등)	신규
	창업 벤처파크 조성	신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신규
주거·생활 지원 지역사회 안착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지원	신규
	청년 대상 전·월세 임대	확대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신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확대
문화 참여 지원 일과 휴식의 균형	청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신규
	청년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신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신규
	청년센터 구축	신규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 구축	확대
4차산업 인력 양성 청년인프라 구축	직업계고 학생 MRO 교육지원	신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육성	신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확대
	AI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대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청년 참여 지원	신규

(출처: 인천 청년정책 수정계획 2021~2025)

나. 2025년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년도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비전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행복도시 인천 구현”

- 5대 분야에 따른 목표는 △(일자리) 구직, 재직, 창업 청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 정착도모 △(주거)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육)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역량강화 △(복지문화)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참여권리) 청년참여 확대 및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등

[표2-6]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사업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청년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 • 재직청년을 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 청년창업 육성 및 성장 지원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인턴십, 직업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반도체,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혁신인재 양성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자립준비, 자산형성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청년의 건강한 삶 지원 • 취약청년 지원 강화로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 청년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 강화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및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출처: 2025년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세부 시행계획으로는 5대분야의 100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26개 (일자리 2, 주거 3, 교육 7, 복지문화 7, 참여권리 7)임.

○ 전체 예산은 234,853백만원으로, 이 중 청년 관련 예산은 191,873백만원임

[표2-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

(단위:백만원)

분야	사업수(개)	2025년 사업비					청년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기타	
일자리	31	16,220	4,482	9,985	303	1,450	14,225
주거	10	90,640	69,814	19,026	1,800	0	72,580
교육	24	42,621	29,921	9,020	0	3,680	40,304
복지·	23	83,760	40,730	37,815	1,187	4,028	63,152
참여·권리	12	1,612	0	1,542	70	0	1,612
합계	100	234,853	144,947	77,388	3,360	9,158	191,873

(출처: 2025년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

III | 청년정책 사례

1. 국내 청년정책 사례

가. 서울특별시

1) 개요

-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청년정책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수립함
- 2022년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통해 50개 사업, 6조 3천억(5년) 예산 계획을 확정하며 3대 추진방향 '청년 도약(JUMP), 청년 구출(SAVE), 청년 기회(CHANCE)'를 제시함



[그림2-3] 2025 서울 청년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

(출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2) 주요정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기구로, 청년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을 추진. 특히,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
- 오프라인 활동인 분과 활동은 6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로 구성. 각 분과의 논의 및 숙의 과정을 통해 신규정책 및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의결권을 가진 청년시민회의에 제안함

○ 청년자치정부

-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 권한까지 부여한 '청년자치정부' 출범(2019년 3월). 청년의 시정 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정책 집행 행정조직인 '청년청'이 이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됨
- 그동안 청년이 간접적 정책 제안의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의 당사자 참여도를 높임

○ 청년자율예산제

- 시장 권한인 예산편성권한을 청년들에게 이양하여, 차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제안 참여. 2025년의 경우, 총 10개 사업, 5,133백만 원 규모로 편성
- 새로운 의제 및 가치 중심의 사업 설계를 시도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지 않고 숙의와 토론을 통한 문제 발굴과 진단 과정을 통해 선정

3)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 서울시에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고, 2023년 4월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4월부터 종합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추진되었던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고립·은둔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화한 지원 정책을 추진
- 서울시가 제시한 종합대책 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고립청년을 활동형, 비활동형, 은둔형 청년으로 구분하고 복지 및 일자리 등 전분야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표2-8] 서울시 2024년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분		지원내용
은둔형 청년 (고립 상)	일대일 회복관리	• 개인별 시간사용, 재정관리, 사회활동, 예술활동 훈련 등
	일상회복	• 기초체력, 유연성 회복, 감정 표현방법 배우기, 내면 치유, 소통과 배려 학습, 소속감 증진, 성취감, 자신감 획득
	공동생활	• 은둔청년 또래집단 공동생활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
활동형 청년 (고립 중)	일대일 맞춤 사례관리	• 담당 매니저와 함께 자기성장계획서 수립
	흥미유발 참여유도	•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습관형성 회복	• 개별 건강상태 파악을 통해 건강한 습관형성 지원
	사회기술성 향상	• 자기인식 증진을 통한 사회기술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활동형 청년 (고립 하)	직무교육 기초	• 개별상담: 욕구 기반 개인별 계획 수립 • 기초교육: 취업루틴 만들기(자기이해 기반 생활습관 형성)
	직무교육 심화	• 심화교육: 진로탐색, 조직 내 대인관계기술 훈련 • 취업지원 교육: 구직활동 기술 향상(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
	일 경험 기초	•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관련 일 경험(공간관리, 행사 보조 등) • 자원봉사, 기업탐방, 진로직업 박람회
공통지원	은둔고수 활동	• 고립·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멘토가 되어 고립청년 발굴 및 감정나눔
	전용공간	•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라운지, 공유주방, 소모임공간 등 운영

(출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

나. 수원시

1) 개요

- 수원시는 청년정책의 초기 단계인 2017년 부터 '수원 청년 움(WU:M) 트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년도시 희망 수원'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음
- 수원시의 청년정책 주무부서는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청년실에서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함
- 그 외 청년참여기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참여기구가 협력체계를 구성
- 2020년 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기 남부권 청년활동의 중심지 및 청년정책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청년 정책을 새롭게 개선함

2) 주요 정책

- 2025년 현재 청년친화도시 수원의 비전은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이며 정책목표는 △구직하기 쉬운 환경조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문화참여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계층별 맞춤형 교육지원 △청년소통과 시정참여 기회보장이며 추진과제는 5개 분야 62개 추진과제임



[그림2-4] 수원시 청년정책 주요 과제

(출처: 수원시 청년포털 웹사이트)

3) 청년친화도시 수원시 정책 방향

- 수원시에서는 청년친화도시를 위하여 ‘청년이 만드는 수원, 수원에서 행복한 청년’의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 지원’으로 제안
- 5대 분야의 전략목표는 ▲(일자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구직하기 쉽고 양질의 일자리에 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 ▲(교육) 청년들이 역량을 기울 수 있는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계층별 맞춤형으로 제공 ▲(문화·복지) 청년들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문화 참여기회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참여·권리) 수원시 시정 전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
- 수원시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경기남부권 청년정책 선도도시로서 청년이 유입되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특히 연령대별, 개인 상황별 차이가 큰 청년을 유형별, 집단별로 구분하여 지금까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주시

1) 개요

- 2016년 5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 2017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18세에서 만39세까지로 확대 규정. 2018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 정책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은 '청년과 동행하며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전략과 32개의 정책 신규과제가 제시
- 2025년 3월 현재 청년정책과 산하에 4개 팀(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교육지원팀, 청소년팀)을 두고 있음

○ 전주형 청년창업센터

- 지역연고기업인 '스마일게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지역 유망 청년창업가들의 전문화된 단계별(예비·초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창업팀에는 입주공간 제공 외에도 월간면담, 멘토링, 간담회, 창업특강, 창업스쿨 등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청년심포

- 전주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심적치유와 삶 비전 수립에 도움을 주는 심리상담 및 활동수당 지원. 기수별 60명으로 1년에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3회에 걸친 개인심리상담, 그룹별 집단상담, 청년캠프 등을 통해 심리치유 및 자존감 고취. 월 50만원의 수당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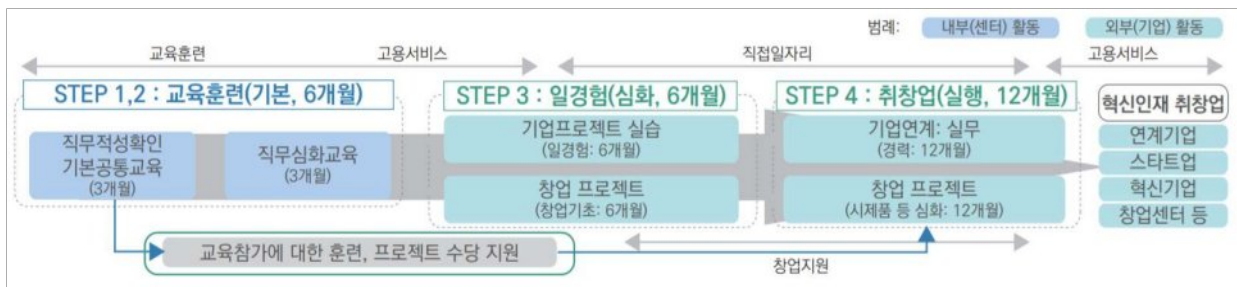
○ 사회혁신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 일상 속 모임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목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혁신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청년으로 구성된 50개 팀을 선발하여 사회문제 발굴 및 탐구 활동을 지원하며, 참여자의 역량 강화교육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네트워킹

라.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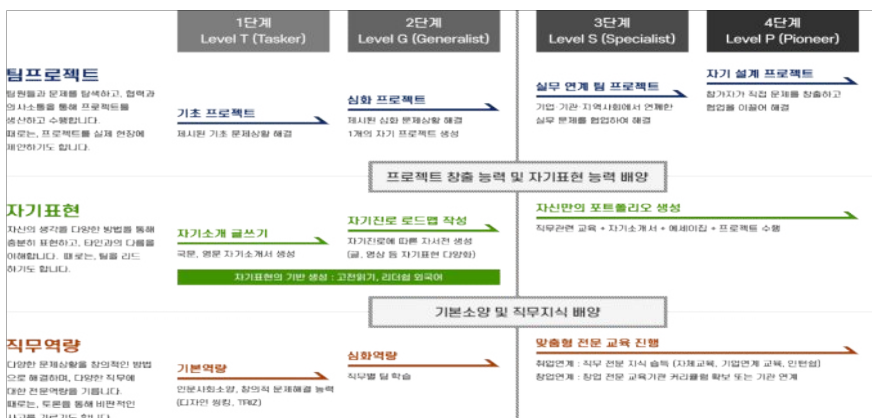
1) 제주더큰내일센터

- 청년의 취업·창업 지원 및 혁신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9년 9월 센터 개관. 2019년부터 5년간 자체 재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 150명 가량의 만 15~34세 도내외 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 지역 최초 도외 청년 선발하여 프로그램 제공(선발 인원의 25%이내)
- 6개월간 교육훈련(기본), 6개월 간 일경험(심화), 12개월 간 취창업(실행) 등 청년의 취·창업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센터 프로그램 참여기간인 최대 2년 동안 훈련 및 프로젝트 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포함해 동료 커뮤니티 형성, 멘토·기업·조직과의 커뮤니티 확장 등 지원



[그림2-5]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흐름도

- 센터 프로그램 참여기간인 최대 2년 동안 훈련 및 프로젝트 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포함해 동료 커뮤니티 형성, 멘토·기업·조직과의 커뮤니티 확장 등 지원



[그림2-6]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훈련 프로세스

(출처: 제주더큰내일센터 웹사이트)

2) 청년 인제 육성 정책

- 전국 최초 ‘청년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제주청년에게 도전과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인재의 체계적 육성 추진
-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제주청년통계’ 개발 및 공표
-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ICT·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등 추진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2018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일하는 청년 제주로’ 사업을 시작으로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사업’, ‘이주 청년 레벨업 지원사업’,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제주형 청년인재 육성사업’, ‘제주형 창업청년 육성사업’, ‘제주형 청년 R&D인력 육성사업’, ‘제주 산업단지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추진
- 또한 ‘제주형 청년 R&D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매칭을 돕고 있으며, 인건비, 교육, 교통비, 행복포인트, 네트워킹 5가지 분야의 지원으로 월 180만 원의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3) 제주도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

- 제주도는 2021년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 제주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의 비전은 “청년의 회복을 돕는 쉬어가도 괜찮은 제주”
- 정책 목표는 △ 발굴부터 진단, 지원까지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 청년의 고립감 완화와 해소 △ 제도 기반 마련과 사회적 관심 환기로 수립
- 세부과제로는 제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조기 발굴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인식 개선, 회복·일·가족 지원 사업 등을 설정

2. 해외 청년정책 사례

가.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1) 개요

-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유럽연합은 2013년 유럽 내 10개국에서 시범적 청년보장 제도를 시작한 이후, 2017년 전 유럽연합 국가로 청년보장 제도를 확대함. 2020년 10월 EU 이사회는 회원국에서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했고, 2022년을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함
- 유럽 내 만15세-24세 청년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부 지중해 연안국가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하였음
- 청년보장제는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3년 EU 청년실업률이 24.4%에 달하자 EU이사회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발표. 이는 청년실업 해소와 장기실업 비활동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취지로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교육, 견습·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학교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 주로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2) 프로그램 및 예산

- 유럽연합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임금보조 및 진로지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3년 유럽의회에서 결정한 청년보장의 주요 목표는 실직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25세 이하의 청년이 고용, 견습, 교육과 같은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여 4개월 내(4개월이 넘어 가면 장기실업 상태에 빠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고 있음
- EU 기금인 청년고용기금(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조성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 2013년 시행 이후 7년간 2,4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였으며, 2020년 2월 청년실업률이 14.9%까지 낮아짐
- 2020년 10월 기존 EU 청년보장제도를 대체하는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는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대상을 29세까지로 확대,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지원, ▲니트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함

[표2-9] 유럽국가들의 청년보장제 주요 내용

실행영역	회원국 개선방안
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의 다양성 이해, 지원 서비스(기술수요 예측포함) 계획 • 니트 위험군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추적 시스템 개발
선제적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제고 활동 개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개발 • 취약계층 중점 전략 개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한 맞춤형 실행계획 수립 • 상담, 지도 및 멘토링 강화 •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기술 평가, 개선 및 인정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상을 정해 정교하게 설계된 고용 인센티브 제공 • 고용의 질·형평성 보장 위해 현행 기준에 따른 기회 제공 • 배치 후 지원 및 피드백 제공
조력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부단위(시민사회 포함) 사이의 파트너십 강화 • 데이터 수집·모니터링체계 개선, 유럽기금의 적절한 활용

(출처: Isabelle Le Mouilour,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21.12, p.21.)

나. 프랑스

1) 개요

- 프랑스는 니트 및 일반 청년 대상의 차별화된 실업보조-고용지원-기업연계 정책을 추진함
- 니트(청년수당-미씨옹 로칼-미래고용계약), 청년실업자(통합고용센터-세대계약) 등 이분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기업과 연계촉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기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 청년보장은 제도가 아닌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전면화된 프랑스 청년보장은 수당, 동반 프로그램, 고용 우선 등의 3가지 요소를 강조
- 알로까시옹(수당): 기존 25세 이상의 직업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 대상 RSA(적극적 연대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알로까시옹은 이와 별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급
- 동반 프로그램: 개별적 상담과 동시에 집단프로그램(상담, 세미나) 진행
- 고용 우선: '고용이 먼저다'라는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2) 미씨옹 로칼(Mission Locale)

-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센터로, 타 유럽연합 국가에는 없는 프랑스형 모델
- 16-25세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1년의 동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이 겪는 문제인 고용, 건강, 주거에 대한 권리 등 시민으로서 확보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
- 활동의 핵심 개념은 '진입'으로, 단순히 해당 연령대 청년을 위한 일반 복지 제공이 아닌, 교육시스템에서 나온 청년을 고용시스템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이 활동 목표임
- 활동의 핵심 개념은 '진입'으로, 단순히 해당 연령대 청년을 위한 일반 복지 제공이 아닌, 교육시스템에서 나온 청년을 고용시스템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이 활동 목표임

다. 일본 요코하마시

1) 개요

- 일본은 대상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프리터²⁾, 니트 등 차별화된 정책을 제공함. 일본은 전 대상의 청년이 아닌, 니트·프리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
- 일찌감치 청년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역 내 니트 청년에 대한 입체적 지원

- 청년 니트족에 대한 주요 지원은 지역 서포트스테이션과 청년자립스쿨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에 근거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수립함
- 지역사회의 제3섹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상호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음
- 특히 니트 청년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구직형/실업자형, 비구직형/무기력형, 비희망형/은둔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자원들을 연계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음

[표2-10]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지원 사업 개요

과제인식		사업내용과 네트워크	
		사업	운영형태
은둔형	경험활동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 시 직영
의욕 부재형	상담 및 교육훈련 지원	서포트 스테이션	국가가 운영비 지원/요코하마시가 인건비 부담 민간위탁 운영
		청년자립스쿨	국가와 요코하마시의 예산지원 민간위탁 운영
		지역 유스플라자	요코하마시가 예산지원 은둔형과 의욕부재형 동시 지원
실업자형	정보 및 교류, 지원	영잡 스퀘어	기업지원/NPO 운영 시와 공동프로그램 개발

2) 프리터(freeter):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인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서구 일반현황 및 청년정책 성과 분석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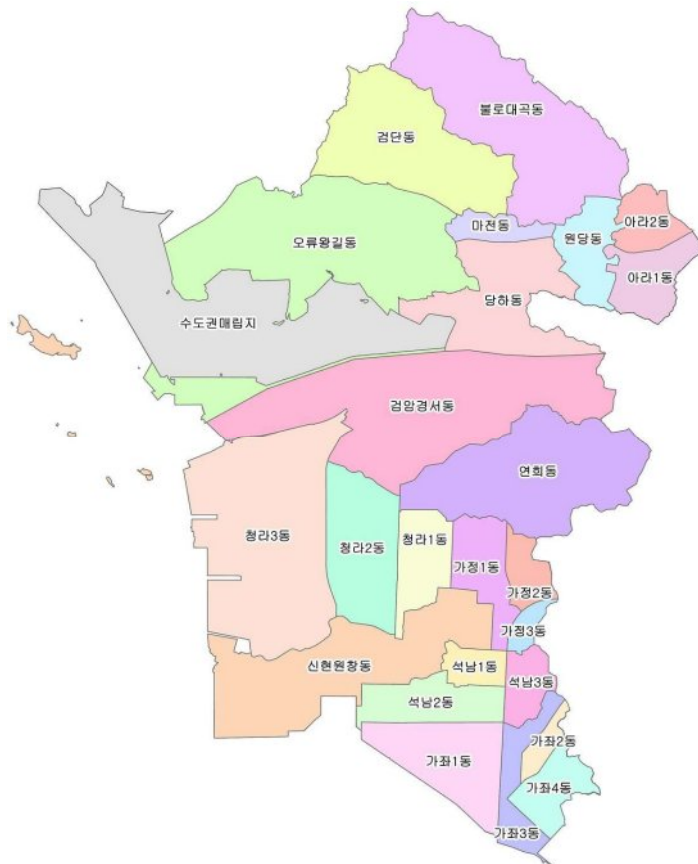
I. 일반현황

II. 청년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I | 일반 현황

1. 지리적 현황

가. 서구 현황



[그림3-1]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행정동

(출처:인천 서구청 웹사이트)

- 서구는 계양산과 천마산, 원적산이 등뼈처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서쪽 해안에 자리잡음
- 서구는 옛날부터 한강 이남지역에서 한강을 건너 평양이나 송도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육로길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며 한때 여각촌이 500호에 이르는 큰 부락을 이뤘음(박준철, 2012)
- 서구의 전체 면적은 119.06km²이며 모두 23개의 행정동과 21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군·9구 체제로 개편

-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
- 현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

○ 서구 분구에 따른 청년정책 수립 필요

- 현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서해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
- 향후 분구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수요 파악 및 청년센터 서구1939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함



[그림3-2] 인천 서구 분구 예정도

(출처:인천 서구청 웹사이트)

[표3-1] 인천 서구 분구 개편 예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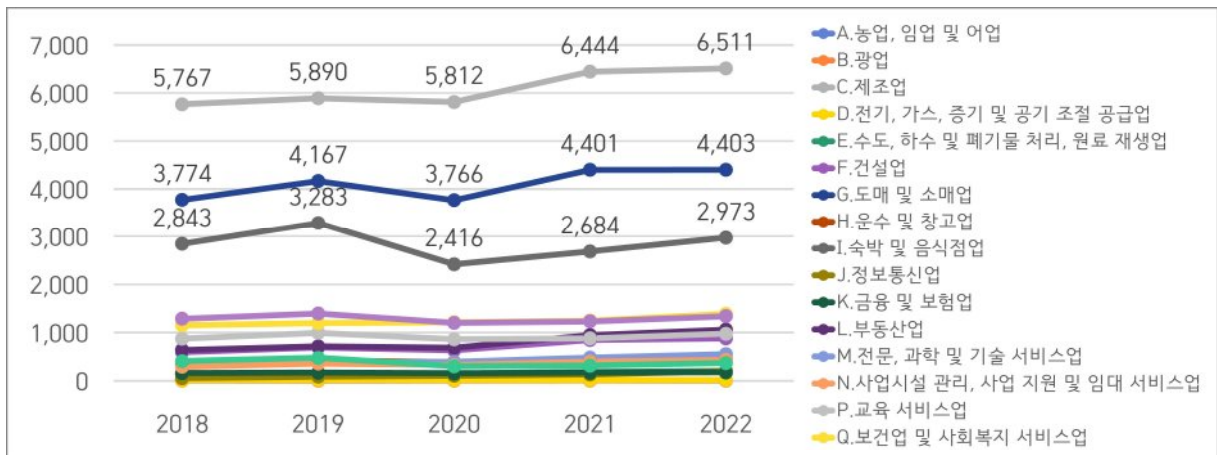
구분	현행	개편 후	
	서구	서구(서해구)	검단구
인구(명)	635,553	405,633	229,920
면적(km ²)	119.06	71.36	47.70
행정동/법정동(개)	23/21	16/11	7/10
관할지역	서구 일대	검암경서, 연희, 청라1~3, 가정1~3, 신현원창, 석남1~3, 가좌1~4	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 마전, 아라

2. 고용 및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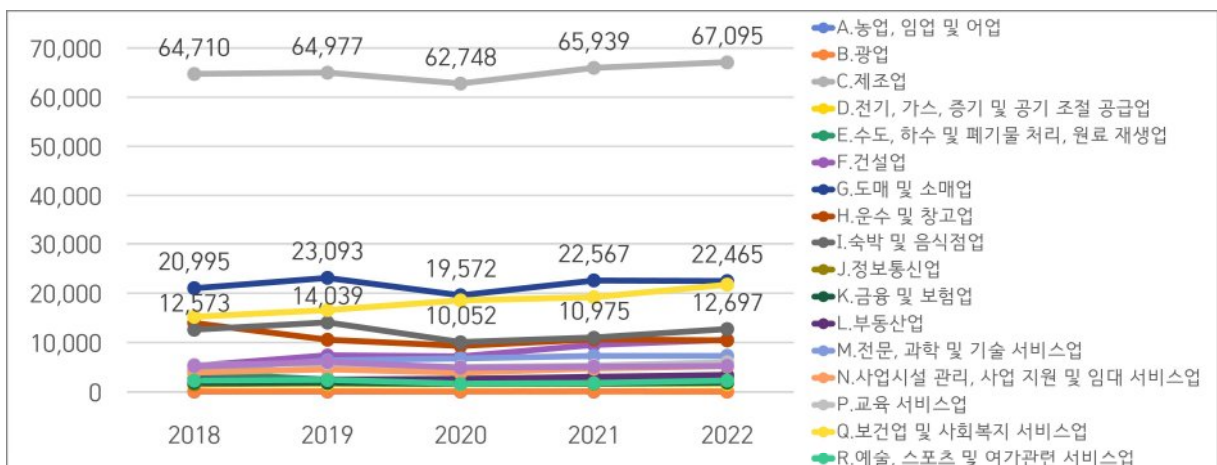
가. 고용

1) 산업 및 현황

- 서구에서 가장 사업체수와 종사자가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2025년 현재 6,51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67,095명임
- 다음으로 업체와 종사자수가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보건·사회서비스업이나 개인 서비스업도 1,300개 가량의 업체가 위치하고 있음.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18년부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서구의 원도심 지역은 제조업 중심, 신도심인 청라지역은 IT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인천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3-3] 서구 사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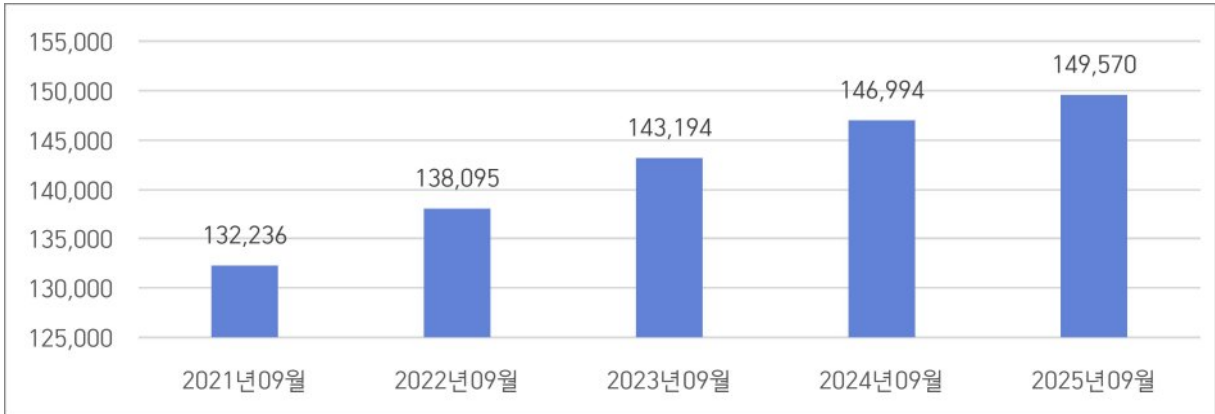


[그림3-4] 서구 종사자 수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2) 연도별 고용동향

- 2024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49,570명으로 최근 5년동안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22년 이후 증가율 자체는 4% 내외에서 1.7%까지 감소하여 점차 고용 동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그림3-5] 2025년 9월 기준 고용보험 피고용자

나. 관광

-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역은 조선시대까지 서곶으로 불리던 곳으로 삼국 시대부터 고구려 주부토군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유서깊은 고장임
- 현재 서구에 위치한 국가유산으로는 사적 1개소, 천연기념물 1개와 시지정유산인 유형문화유산 2개, 무형유산 3개, 기념물 9개, 문화유산자료 1개가 위치함

[표3-2] 서구 소재 지정유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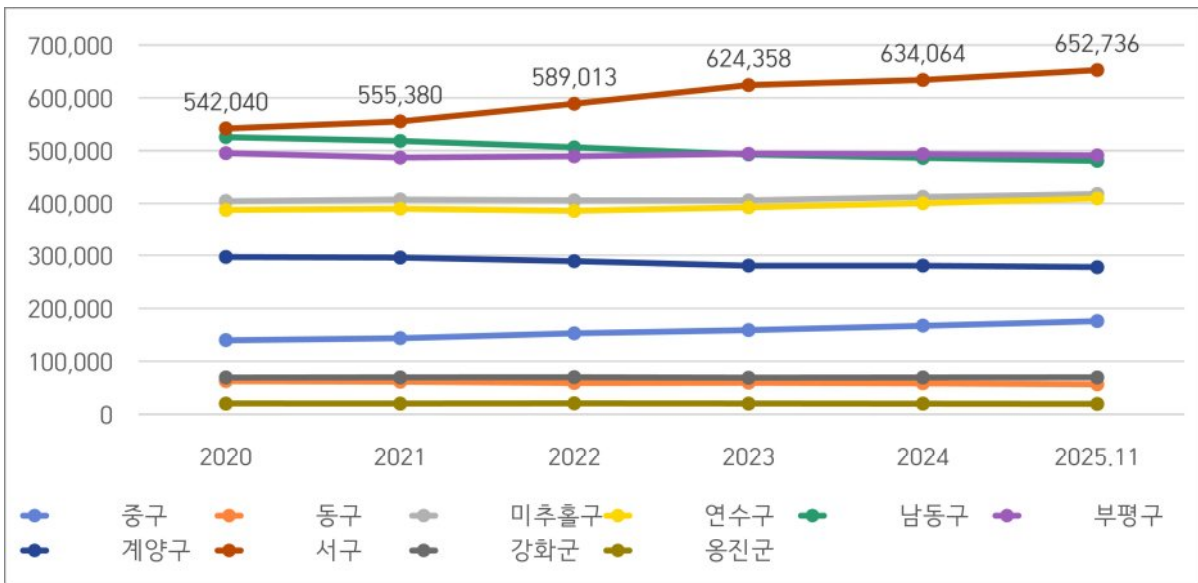
합계	지정유산													
	국가지정유산							시지정유산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무형유산	국가 민속 문화유산	소계	유형 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 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17	2	-	-	1	-	1	-	-	14	2	3	9	-	1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3. 인구 특성

가. 행정구역별 인구

- 2025년 11월 현재 서구의 전체 인구는 652,736명이며 세대수는 281,275세대임
- 이는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인구수이며,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구 내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청라2동으로 47,7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은 아라동으로 45,408명이 거주하고 있음



[그림3-6] 2025년 11월 기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표3-3] 2025년 11월 기준 서구 동별 인구 및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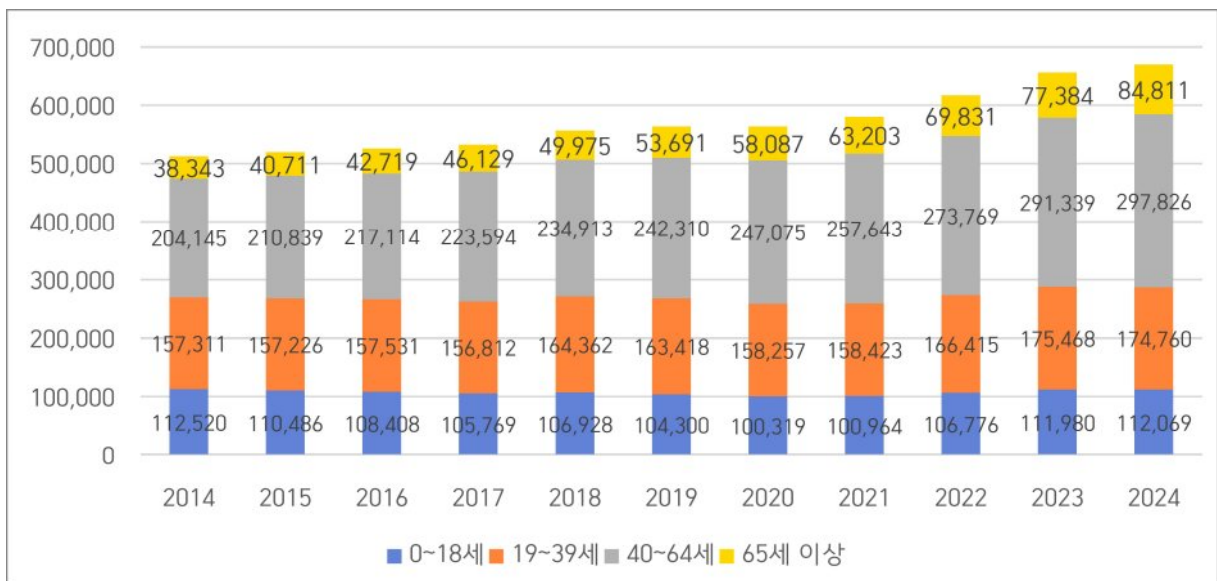
동명	인구수			세대수	18세(만)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652,736	328,203	324,533	281,275	544,859	272,994	271,865
검암경서동	42,552	21,940	20,612	19,575	36,656	18,838	17,818
연희동	36,298	18,473	17,825	18,330	33,156	16,832	16,324
청라1동	30,480	15,117	15,363	12,031	24,338	11,995	12,343
청라2동	47,725	23,573	24,152	18,225	37,483	18,323	19,160
청라3동	36,313	18,058	18,255	14,315	28,297	13,984	14,313
가정1동	41,289	20,397	20,892	17,513	33,324	16,324	17,000
가정2동	17,055	8,655	8,400	7,111	14,064	7,088	6,976
가정3동	8,371	4,192	4,179	4,109	7,690	3,860	3,830
신현원창동	28,765	14,425	14,340	12,407	24,826	12,444	12,382

석남1동	19,719	10,160	9,559	10,300	18,127	9,315	8,812
석남2동	11,688	6,022	5,666	5,788	10,704	5,526	5,178
석남3동	13,084	6,557	6,527	6,696	11,995	5,976	6,019
가좌1동	12,369	6,593	5,776	6,612	11,306	6,004	5,302
가좌2동	18,059	8,846	9,213	7,501	16,075	7,802	8,273
가좌3동	14,991	7,658	7,333	7,892	13,924	7,123	6,801
가좌4동	12,107	6,184	5,923	5,767	10,701	5,472	5,229
검단동	32,131	16,792	15,339	15,352	28,051	14,727	13,324
불로대곡동	41,985	20,975	21,010	16,198	33,450	16,651	16,799
원당동	22,372	11,357	11,015	9,759	18,876	9,569	9,307
당하동	42,886	21,273	21,613	18,562	36,047	17,733	18,314
오류왕길동	25,201	12,784	12,417	10,617	21,634	10,976	10,658
마전동	21,141	10,473	10,668	8,157	17,956	8,846	9,110
아라동	45,408	22,516	22,892	17,558	34,069	16,757	17,31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나. 연령대별 인구 현황

-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서구의 특성상 전 연령대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84,8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
- 단, 서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율이 20.3%인 것을 감안할 때 훨씬 낮은 수치로, 인천 서구는 전국을 기준으로 젊은 도시임



[그림3-7] 연령대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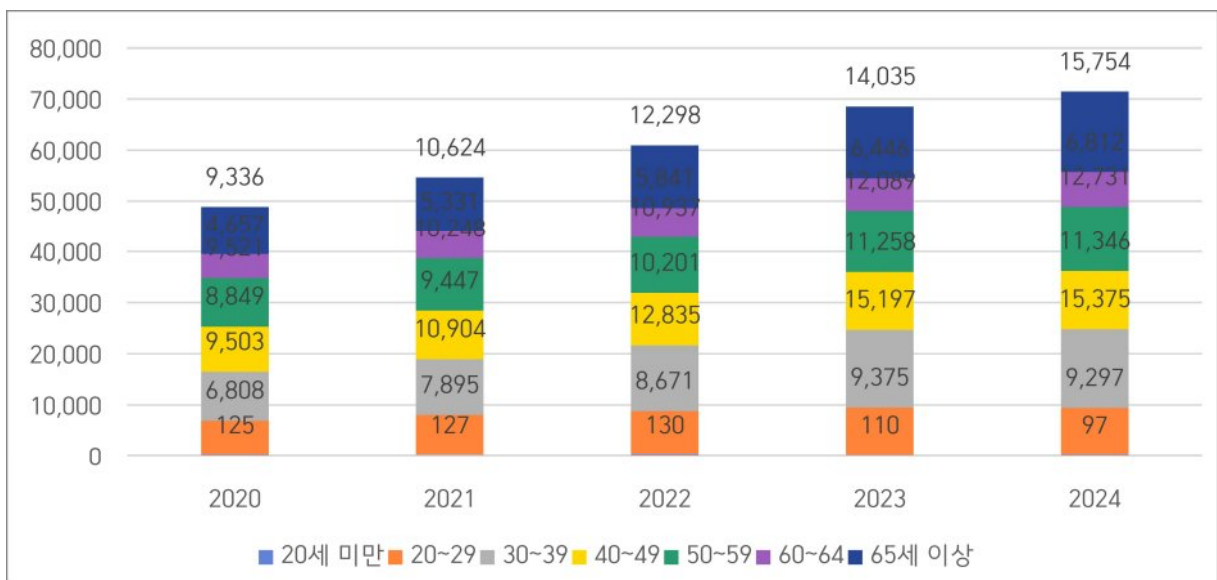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다. 서구 세대수 현황

- 서구의 세대수는 2024년 기준으로 271,798가구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이고, 1인가구는 71,412가구
- 1인가구 비율은 2024년 현재 28.4%로, 전국 비율인 36.1%보다 낮으며, 서구 내에서도 연수구의 26.3% 다음으로 낮은 편임
- 1인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노인 세대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2~2023년에는 20~40대의 1인가구도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3-8] 서구 세대수 및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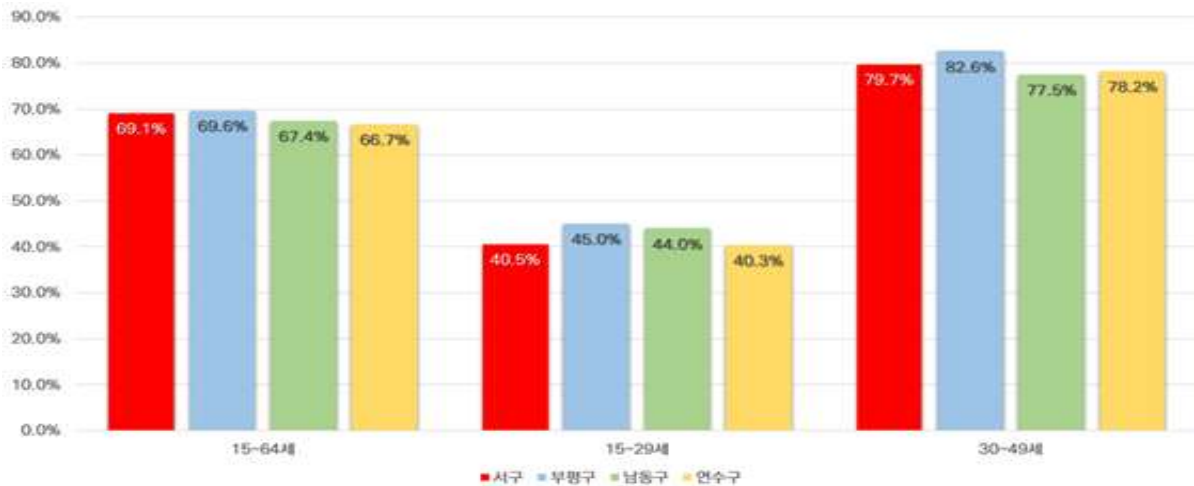
[그림3-9] 연령대별 1인가구 증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4. 서구 경제활동 및 산업 특징

가. 서구 경제활동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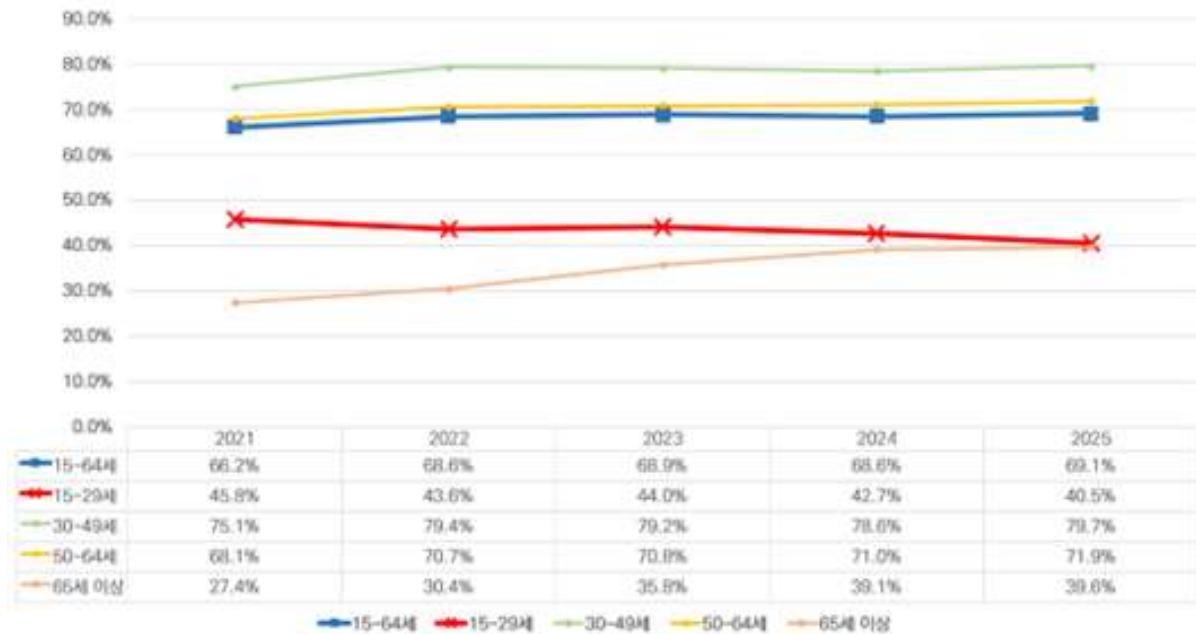
- 지역고용조사의 2021~2025년의 5년 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서구의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9만 6천명에서 2025년 37만 명으로 25% 증가하였음
- 또한 서구의 취업자수는 2021년 28만명에서 2025년 35만 5천명으로 26.8% 증가하였음
- 서구의 경제활동인구 현황은 인천 내 비슷한 경제구조 및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와 비교해볼 때 서구의 경제활동인구의 규모 및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25년의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주변 자치구와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부평구(69.6%)에 이어 2위로 나타났음
- 이러한 서구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서구 내의 인구 증가 및 산업 증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그림3-10] 서구 및 유사 규모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비교

나. 서구의 청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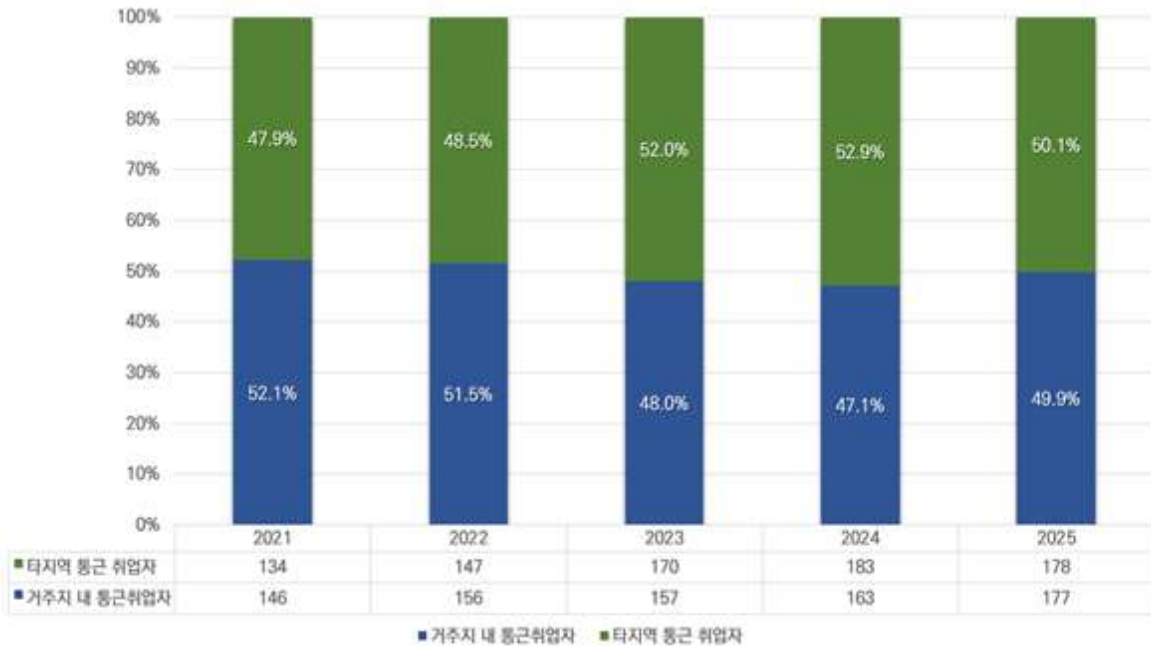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고용률은 2021년 66.2%에서 2025년 69.1%로 2.9%p 증가하였음
- 청년층인 15~29세 고용률은 2021년 45.8%에서 2025년 40.5%로 5.3%p 감소하였으며 30~49세 고용률은 75.1%에서 79.7%로 4.6%p 증가하였음
- 그러나 15~29세 고용률의 경우에는 부평구(45.0%), 남동구(44.0%)에 이어서 3위(40.5%)로 나타났으며, 30~49세 고용률은 79.7%로 2위로 나타남



[그림3-11] 경제활동인구 중 서구의 청년 고용률

다. 타지역 통근인구 현황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근인구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구 내 통근 취업자가 14만 6천명에서 16만 3천명으로 1만 7천명 증가하였으나, 비율로 보면 52.1%에서 47.1%로 5%p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서 16만 3천명에서 17만 7천명으로 1만 4천명 증가 하였으며, 비율로도 47.1%에서 49.9%로 2.7%p 증가하였음
- 타지역 통근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25년부터 다시 타지역 통근 취업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서구 내 통근취업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은 서구 내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그림3-12] 서구의 통근인구 현황

라. 산업별 입지계수

○ 산업별 입지계수

- 산업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 대비 얼마나 특화(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의 기반 산업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공식은 “(지역 산업 비중) / (전국 산업 비중)”으로 계산해 1보다 크면 특화, 작으면 비특화(전국 평균 이하)로 해석

○ 생활업종 산업별 입지계수

- 음식점, 소매업 등 생활업종에 관련된 산업별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서구는 생활서비스 업종이 1.3으로 나타나 종사자가 많음
- 인천광역시보다 산업별 입지계수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 생활서비스, 교육 업종임
- 다만 숙박은 인천광역시 전체보다 훨씬 낮은 계수를 보임

[표3-4] 생활업종 산업별 입지계수

분야	구분별 입지계수(LQ)		
	구분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음식점	사업체	0.9	0.9
	종사자	1	1
소매업	사업체	1.1	1.1
	종사자	1	1.1
생활서비스	사업체	1	1.1
	종사자	1	1.3
숙박	사업체	0.7	0.1
	종사자	0.8	0.2
여가생활	사업체	1.1	1
	종사자	0.9	1
교육	사업체	0.9	1.2
	종사자	0.9	1.1
의료	사업체	0.9	0.8
	종사자	1.1	1
공공	사업체	0.7	0.5
	종사자	1	0.8

○ 기술업종 산업별 입지계수

- 첨단기술, 창의 및 디지털, ICT 등 기술 업종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대체로 인천광역시 입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기술업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첨단기술 사업체와 관련된 입지계수는 1.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급기술 업종에서도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높은 입지계수를 보임
- 반면 지식집약 산업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치를 보임

[표3-5] 기술업종 산업별 입지계수

분야		구분별 입지계수(LQ)		
		구분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기술혁신 정도	첨단기술	사업체	1.7	1.9
		종사자	1.5	1.1
	고급기술	사업체	1.5	1.7
		종사자	1.4	1.5
	중기술	사업체	1.3	1.7
		종사자	1.3	1.7
	저기술	사업체	0.7	0.8
		종사자	0.9	1.1
지식집약 정도	창의 및 디지털	사업체	0.8	0.6
		종사자	0.4	0.2
	ICT	사업체	0.8	0.6
		종사자	0.3	0.3
	전문서비스	사업체	0.8	0.5
		종사자	0.7	0.4

5. 정책 현황

가. 인천 서구 민선8기 비전 및 추진 방향

- 구정목표는 민선 8기 서구의 구정목표는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 5대 구정방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통팔달 교통중심 도시 △함께 잘사는 도시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제시
- 민선8기 구정 공약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과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정주여건 향상과 취·창업 지원 정책 사업이 많음



[그림3-13] 서구 구정방침

(출처: 인천 서구청 웹사이트)

나. 2025년 인천 서구 주요업무 시행계획

- 서구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규정목표에 따라 각국 실과에서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수립
 - 경제국의 정책목표는 “주민과 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
 - 이 중 청년정책과 관련된 청년정책일자리과의 기본 전략은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행복 과 사회적 경제 가치 성장·지원“임
 - 구체적인 세부 전략은 ”청년의 일상을 응원하는 청년정책 추진“임
- 청년지원팀이 소속되어있는 경제국은 5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경제국의 전체 예산은 2024년도에 비하여 45억 6천 6백만원 감소하였지만 청년정책 예산은 증가
 - 특히 청년정책일자리과 예산은 가장 많이 증가하여 2024년도에 비해 6억 3천 1백만원 증가
-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추진사업은 △청년센터 서구1939운영 △서구로운 청년정책 추진임

경제국 도약 위해 내일세 달미는 서구
□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행복과 사회적경제 가치 성장·지원
 (단위 : 천원)

세부 전략	추진 사업 (주요 과제)	신규/계속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시비 포함)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 구축	○ (가칭)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추진	신규	연중	60,000 (1회추경반영예정)
	○ 시·군구 상생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	계속	연중	1,111,280 (1회추경반영예정)
맞춤형 구인·구직 취업지원 사업운영	○ 맞춤형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속	연중	21,700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	계속	2025. 3.~11.	861,000
청년의 일상을 응원하는 청년정책 추진	○ 청년센터 서구1939 운영	계속	연중	155,200
	○ 서구로운 청년정책 추진	계속	연중	1,593,700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상생 서구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계속	연중	80,360
	○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계속	연중	264,108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계속	연중	285,930 (시비 미정)

[그림3-14] 청년정책일자리과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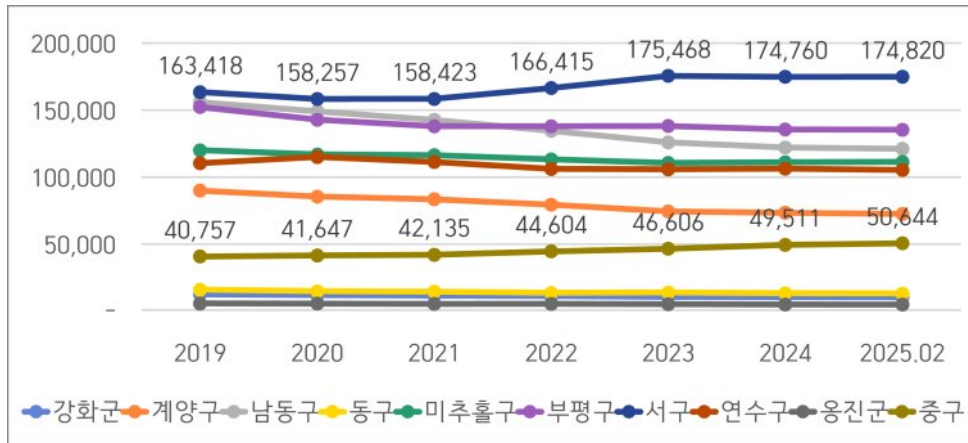
(출처: 인천 서구청 내부자료)

II | 청년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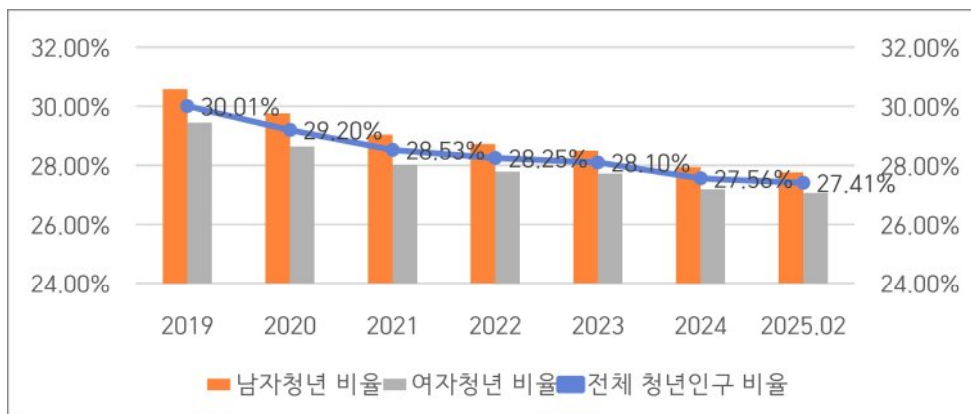
1. 청년 현황

가.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 인천 서구의 청년 인구는 2025년 2월 현재 174,82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 27.41%이고,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 중 3번째로 청년비율이 높음
- 인천 내 10개 군·구 중에서는 서구의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편인데 특히 2021~2023년 서구의 청년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임



[그림3-15] 지난 5년간 인천광역시 청년인구



[그림3-16] 지난 5년간 청년인구 비율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나. 지역별 청년인구 현황

- 서구의 20~39세 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은 청라동으로 30,4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은 아라동으로 20,606명임
- 2026년 7월 예정된 분구를 고려하면 서구(서해구)에서는 청라동(청라1~3동)이 가장 청년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35~39세 인구가 8,806명으로 가장 많음
- 청년인구 증가률을 살펴보면 검단지역의 아라동이 가장 높고, 서구지역에서는 검양경서동의 청년 인구 성장이 가장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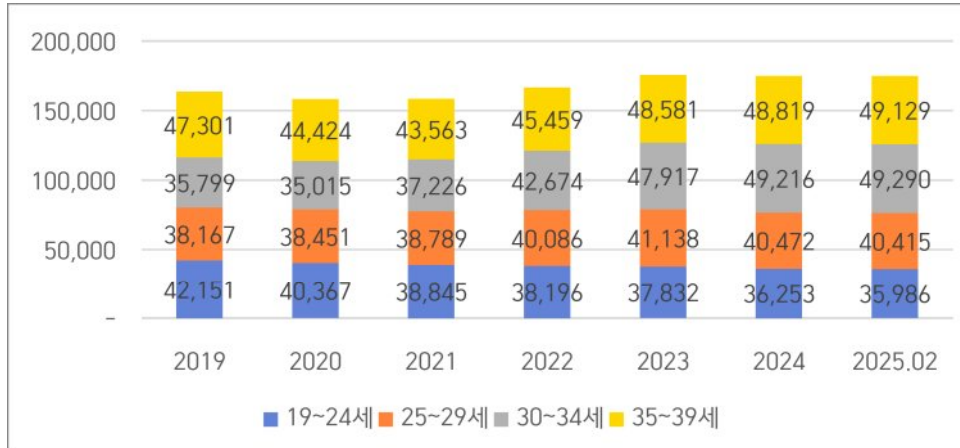
[표3-6] 서구 연령대별 청년 현황

구분	행정구역 (동읍면)별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합계
서구 (서해구)	검암경서동	2,093	3,158	3,460	3,021	11,732
	연희동	1,914	2,809	2,764	1,883	9,370
	청라동	5,821	7,272	8,504	8,806	30,403
	가정동	2,674	4,139	5,865	6,228	18,906
	석남동	1,938	3,072	3,291	2,468	10,769
	신현원창동	1,305	1,722	1,900	1,804	6,731
	가좌동	2,490	3,994	4,562	3,414	14,460
검단구	검단동	1,607	2,310	2,526	1,952	8,395
	불로대곡동	1,806	1,924	2,860	3,146	9,736
	원당동	1,335	1,442	1,810	1,895	6,482
	당하동	1,939	2,440	3,444	3,667	11,490
	오류왕길동	1,205	1,529	1,607	1,497	5,838
	마전동	1,433	1,503	1,266	1,102	5,304
	아라동	2,286	2,912	6,373	9,035	20,606
합계		29,846	40,226	50,232	49,918	170,22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다. 연령대별 청년 인구

- 지난 5년간의 연령대별 청년인구 추세를 통해 볼 때 정주하는 청년 인구는 24~39세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9~2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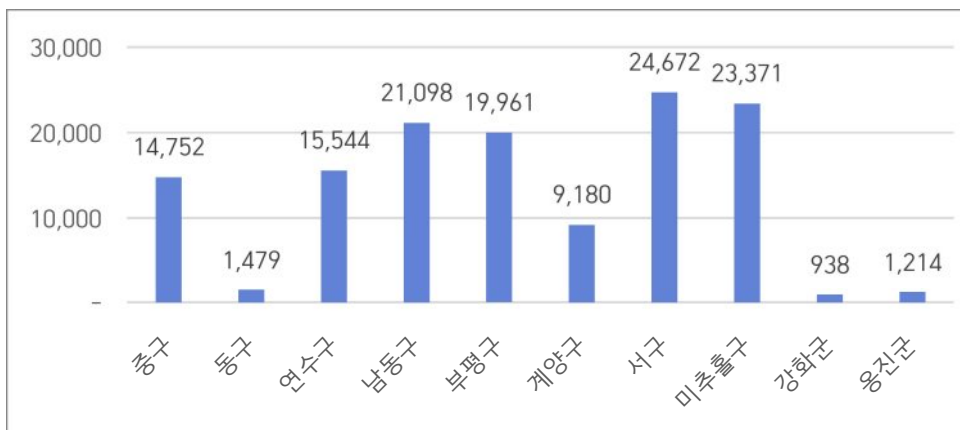


[그림3-17] 서구 연령대별 청년 인구 현황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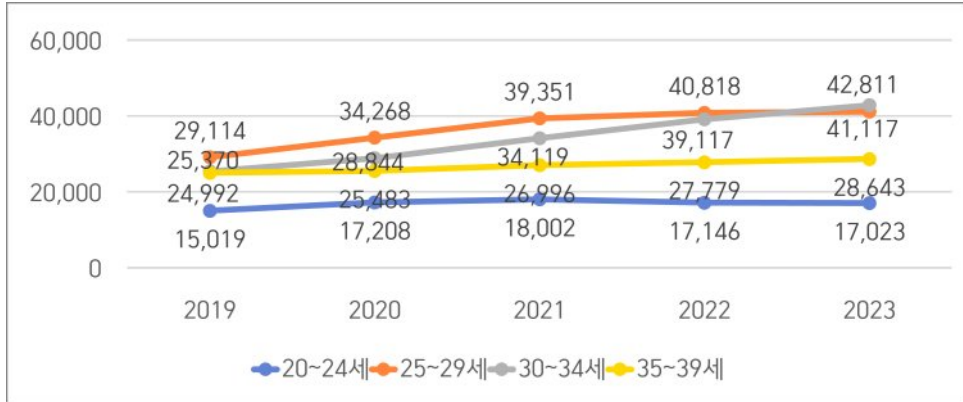
라. 청년 1인가구 현황

- 서구의 청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특히 2021년 이후 30~34세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거 및 일자리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24세 1인가구는 2022년부터 감소하는데, 이는 19~24세 청년 인구의 자연 감소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3-18] 인천광역시 지역별 1인가구 현황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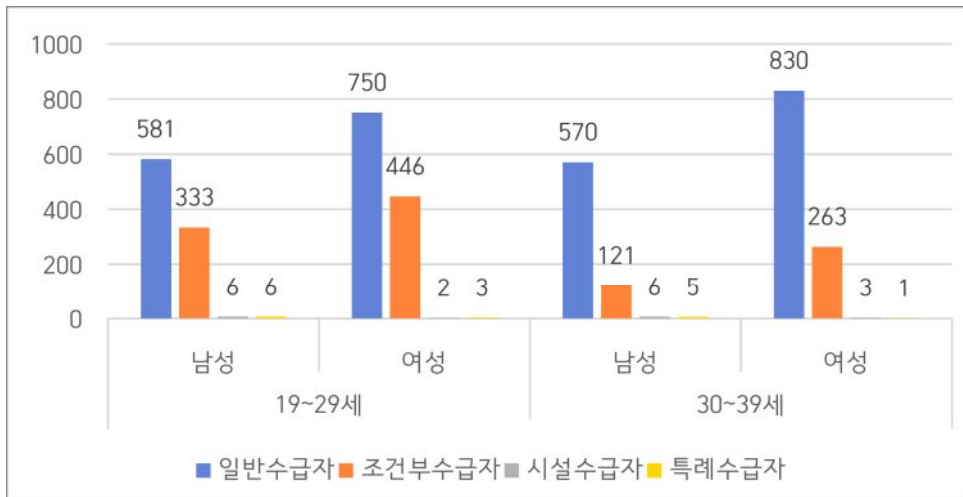


[그림3-19] 연령대별 서구 청년 1인가구 현황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마. 서구 기초생활수급 청년 현황

- 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은 모두 3,926명으로 전체 청년 중 2.25%임
- 이 중 19~29세 수급자가 2,127명이고 30~39세는 1,799명임
-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이 1,628명이고 여성이 2,298명으로 여성 기초수급자가 다소 많은 편임



[그림3-20] 서구 기초생활수급 청년 현황

(출처: 서구청 내부자료)

2. 조례 및 추진 체계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 관련 조례 현황

-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관련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를 포함하여 모두 8개 조례

[표3-7]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법령명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제2081호	2023. 11. 6.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2084호	2023. 11. 6.	2023. 11. 6.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2104호	2023. 12. 18.	2023. 12. 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제2126호	2024. 2. 16.	2024. 2.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1816호	2020. 11. 9.	2021. 2.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제1897호	2021. 9. 27.	2021. 9. 27.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제2144호	2024. 5. 13.	2024. 5.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제2127호	2024. 2. 16.	2024. 2.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는 구청장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기본 책무를 부과하고 정책계획 등을 필수적으로 입안하도록 규정하며, 서구 청년정책 위원회와 청년참여단을 통하여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도록 함

[표3-8] 서구 청년 기본조례 내용

조항	조례내용	비고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청년”,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 •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8조	• 청년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제9조	•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17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등의 개발, 고용확대 및 안정, 주거안정, 부채 경감, 생활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	
제18조	•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제19조	•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30조	•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청년 관련 기타 조례

- 서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년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구의 핵심 청년 정책으로서 추진
- 이 외에 2023년부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고립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였음
- 2024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라. 청년정책 관련 추진체계

1) 청년 정책 전담부서

- 2025년 현재 서구청 행정조직은 7국 1단 1실 37과 17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청년정책은 경제국 청년정책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서 전담
- 청년지원팀은 2018년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2024년 청년업무 담당부서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일자리과로 조직을 개편
- 2024년 기준 청년지원팀 주무관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센터 운영 인력(기간제근로자 6명, 청년인턴 2명), 청년월세 지원 인력(기간제근로자 3명)

[그림3-21] 청년정책 전담팀 구성(2024년 6월 기준)

(출처:서구청 내부자료)

2) 청년센터 서구1939

- 청년센터 서구 1939는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역량 강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및 정책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 공간
-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센터 멤버십운영, 청년 공간 대관 운영, 청년의 날 기념식 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표3-9] 청년센터 서구1939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9, 에이스타워 6층
2025년 사업비	155,200천원
2025년 주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상담운영: 역량강화, 문화예술/힐링, 활동지원, 취·창업 상담 • 공간대관 운영: 청년 활동 및 모임을 위한 공간 대관 운영 • 청년주간행사 및 청년의날 기념식: 청년주도의 행사기획 및 운영 • 청년센터 서구1939 멤버십: 공간활성화 및 청년 DB 구축을 위한 멤버십 운영 •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출처: 인천 청년센터 서구1939 웹사이트 및 2025년 주요 사업시행계획)

3. 청년정책 추진 및 성과

1) 인천광역시 서구 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인천광역시 서구는 2021년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청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
-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행복도시 서구! 내일을 열어가는 청년 공감도시 서구!”임
- 전략목표로 △능동적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지원 △살맛나는 청년일자리 지원 △안정적인 청년기반 조성을 수립하고 39개 전략과제를 설정
- 이 중 전략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9개의 우선과제를 선정하였음

비
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행복도시** 서구!
내일을 열어가는 **청년 공감도시** 서구!

1	능동적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2	살맛나는 청년일자리 지원	3	안정적인 청년기반 조성
전 략 목 표	1-1. 서구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우선과제]	2-1. 중소·벤처기업 컬처 인사이트 리뉴얼 지원 [우선과제]	3-1. 청년 온라인 고민상담소 운영 [우선과제]		
	1-2.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우선과제]	2-2. 서구형 청년창업 A-Z [우선과제]	3-2.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우선과제]		
	1-3. 청년 소통1번가 채널 구축 및 운영 [우선과제]	2-3. 서구형 내일채움 공제	3-3. 청년주거 임차보증금 이차 지원 [우선과제]		
	1-4. 서구 청년정책 민-관-청 (청년) 협력체계 강화	2-4.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3-4. 청년희망키움통장		
	1-5.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5. S(Seogu)-디지털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3-5. 청년저축계좌		
	1-6. 청년참여단 운영	2-6. S(Seogu)-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3-6.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1-7. 서구형 청년정책사업 추진 [우선과제]	2-7. 입주기업 모집 및 공간 운영	3-7.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1-8. 청년기획자 활동 지원	2-8. 취업성공 다담들 청년인턴 사업 추진	3-8. 출산친화환경 조성		
	1-9. 청년예술가활동 지원사업	2-9.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0. 청년 힐링강좌	2-10. 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10. 서구 청년 공동체주택 마을 조성		
	1-11. 청년 동아리 모임 지원	2-11.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			
	1-12. 청년생각 공감(공)유 공간) 거리 조성	2-12. 융합 AI 로봇드론산업 육성			
	2-13. S(Seogu)-환경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2-14. 청년창업 공간조성사업 추진				
	2-15.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2-1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2-17. 가좌시장 청년몰 임대료 지원				

[그림3-22]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1차 비전체계도

(출처: 1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표3-10] 인천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1기 우선과제

전략목표	분야	세부사업	구분	선정배경
능동적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참여 및 권리	서구 청년활동 공간 조성	기존	청년의 다양한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강화된 온·오프라인 청년 공간 인프라 확대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제안	청년생각 기반의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서구형 정책 수립 및 추진 강화
		청년 소통 1번가 채널 구축	제안	청년의 다양한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강화된 온·오프라인 청년 공간 인프라 확대
		서구형 청년정책사업 추진	제안	청년생각 기반의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서구형 정책 수립 및 추진 강화
살맛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컬처인사이드 리뉴얼 지원	제안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및 조직 문화 강화를 위한 교육과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서구형 청년창업 A-Z	제안	지역 내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 창업 성공 및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정적인 청년기반 조성	주거 및 복지	청년 온라인 고민상담소 운영	제안	청년 1인가구 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확대 및 온·오프라인 청년 사회안전네트워크 구축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제안	청년 1인가구 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확대 및 온·오프라인 청년 사회안전네트워크 구축
		청년주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다양화 및 대상 선정기준 완화

(출처: 1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 인천 서구에서는 청년정책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서구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중소기업 복지공유제,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은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청년참여기구 외에도 청년정책 간담회, 정책토코쇼 등 행정-구의회-청년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2) 인천 서구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사업

- 2025년 인천 서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계획·추진.
- 프로그램 내용
 - 관계가 싹 트는 프로그램: 우리동네(지역)에서 우리(동네 친구)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홀로 설 힘을 얻는 프로그램: 서구 곳곳에 스팟을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 다녀오는 챌린지를 진행함으로써 고립청년이 집 밖을 나오는 계기를 제공

3) 인천 서구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 청년 주도 청년친화도시 TF 두더지(DO THE Governance) 구성 및 운영

- 청년 참여 공개모집을 역할 및 직무 중심의 청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서구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추진



[그림3-23] 청년친화도시 TF 조직도

(출처: 인천 서구청 내부자료)

○ 청년친화도시 TF 두더지(DO THE Governance)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럼 분야별 의견을 청취하여 청년친화도시 신규사업을 발굴
- 청년친화도시가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청년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 추진
-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청년, 지역주민, 서구 및 서구의외희이 공동의 의지 및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청년친화도시 비전 선포식 수행

○ 청년친화도시 청년정책 세부 추진 신규 사업

[표3-11] 서구 청년친화도시 신규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 및 교육 정책	청년부부의 날 운영	• 청년주간 1일을 청년 부부의 날로 지정, 지역문화프로그램 제공
	청년문화기획자 양성부터 실전까지 원스톱 패키지 사업	• 교육+실습의 단계별 지원, 청년주간을 데뷔무대로 제공, 청년센터 인재풀 등록(지역행사 기획 등 사후관리)
	권역별 청년친화공간 조성	• 공개모집을 통하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친화공간 지정

복지 정책	청년 미래주거 안정사다리 복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대 타겟으로 주거(관련 법규, 주택청약통장 활용 등) 교육제공, 교육 수료시 청약통장 최소납부금 지원 후 체계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
	청년의 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회복 프로그램 및 일 경험 기회 제공으로 사회복귀 지원
	청년 부모 근로시간 구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워킹맘&대디의 오후 근로시간 구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제공
일자리 정책	공유오피스 활용 청년 창업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좋은 구도심에 유휴 공유오피스를 청년(창업팀)에게 제공
	서구형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4차산업 인재양성 + 일자리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산업 인재 양성 교육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TWO-TRACK 일자리 창출
참여·권리 정책	떨어진 정책도 다시 한번, 정서진 청년정책 AS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 청년, 공무원과 토의를 통하여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캠프 운영

(출처: 인천 서구청 내부자료)

청년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제4장

- I. 청년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설문조사)
- II. 심층인터뷰
- III. 분석 및 시사점

I | 청년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설문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 조사 시기: 2025년 8~9월
- 조사 대상: 서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19~39세) 800명
- 오차 범위: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46%
- 표본 추출: 성별, 연령별 비례층화 표본 추출
- 조사 유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오프라인 조사
- 조사 방법:
 - 서구 청년 삶 실태
 - 1차 청년정책 평가
 - 2차 청년정책 방향
 - 청년친화도시 지정 관련 수요조사

[표4-1] 서구 청년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시기	8월 중
조사대상	서구 지역 거주 청년(19~39세)
오차범위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46%
표본추출방법	비례층화표본추출
자료수집방법	종이설문지 자기기입식조사

나. 조사 내용

○ 생애이행단계별 청년의 관점에서 조사

- 일반사항, 청년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수요, 지역 정주환경 등
-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및 복지, 문화 및 여가, 관계망 및 건강 등 분야별 실태 및 특성

[표4-2] 서구 청년 실태조사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기본통계	나이, 거주지, 성별, 학력, 혼인상태, 혼인계획, 거주지역, 거주기간, 가구원수, 인천 서구 거주 기간, 전입사유, 전출계획 여부와 사유
일자리	(취업자) 근무지역, 근무기간, 근무업종, 평균임금, 근무 만족도, 서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취업자 지원 정책 수요
	(창업/자영업자) 근무지역, 근무업종, 창업동기, 월 평균 소득, 창업 초기 과정의 어려움, 창업 운영과정의 어려움, 창업지원과정 경험, 서구 창업·창업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 수요
	(비취업자/취업준비자) 일하지 않은 이유, 취·창업 수요, 취·창업 교육 현황, 향후 취업 희망 지역,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 정책 수요
주거	거주 구성원, 거주형태, 공간 점유형태, 주거비용, 거주지에서 겪은 어려움, 거주지 선택 기준, 서구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수요
생활안정, 복지	수입원, 월 평균 지출, 월 소득, 지출이 부담되는 영역, 부채 현황, 서구 청년 금융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수요
취약계층 청년 현황	(가족돌봄)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돌봄 대상 유형, 돌봄 과정의 어려움, 돌봄청년지원정책 수요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의 기간, 계기, 외출 목적, 탈출의지,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요
문화, 여가	평균 여가 시간, 주로 즐기는 여가·문화생활, 주로 방문하는 여가·문화 시설, 여가·문화 생활에서의 어려움, 서구 여가·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구 청년 여가·문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청년 여가·문화 정책 수요
관계망, 건강	사회적 관계망 참여 여부, 교류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종합 건강검진 여부,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청년 건강권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수요
참여인식, 청년 거버넌스	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 사회참여 관심도, 지역사회 조직 참여 경험,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 서구 청년 정책 관련 인지도, 서구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 만족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청년센터 1939 인지도 및 만족도
청년 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인지도, 인천 서구 이미지, 청년이 희망하는 인천 서구 이미지, 서구 청년 정책 우선순위

2. 청년 실태조사 응답

가. 응답자 일반사항

1) 연령대

○ 일반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인구 현황에 따른 응답자 표본 설계(800명) 중 19~24세는 20.1%로 가장 적고, 30~34세가 28.6%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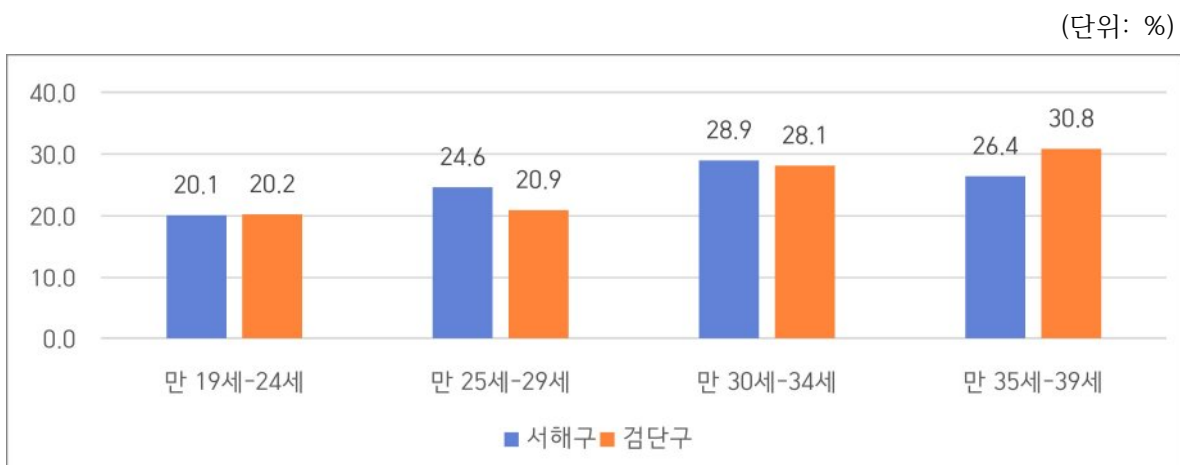
구분	비율(%)	사례수(명)
전체	100.0	800
만 19세-24세	20.1	161
만 25세-29세	23.3	186
만 30세-34세	28.6	229
만 35세-39세	28.0	224



응답자 연령

○ 지역별 현황

- 서해구 지역과 검단 지역을 비교하여보면, 25~34세까지는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 더 많지만 35~39세 청년은 검단구 지역이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청년 연령대

2) 성별

- 응답자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51%이고 여성이 49%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음

(단위:%)

구분	비율(%)	사례수(명)
남	51.0	408
여	49.0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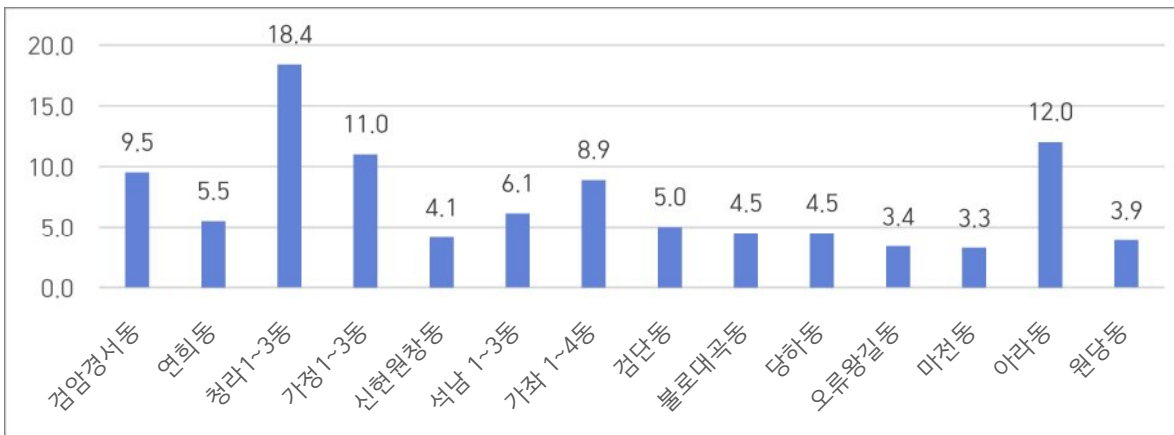


응답자 성별

3) 현재 거주지역

-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청라 1~3동이 18.4%로 가장 많았고 아래동이 그 다음 12%, 가정1~3동이 11%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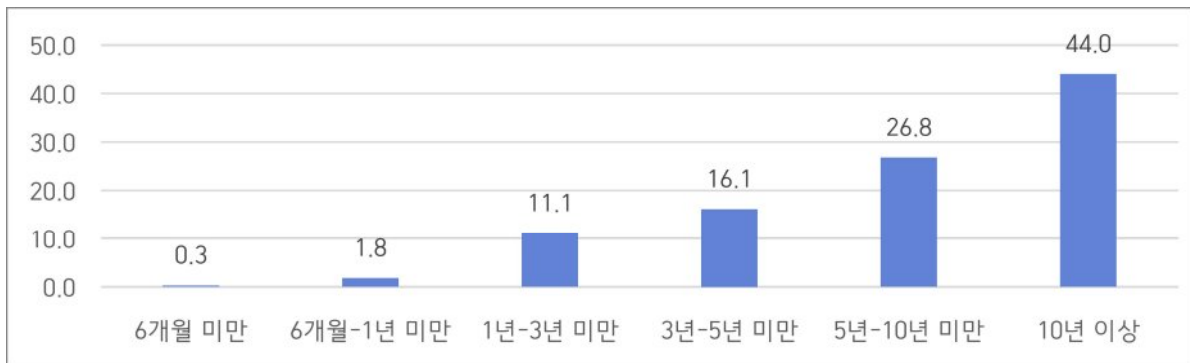
응답자 거주지

구분	비율(%)	사례수(명)
검암경서동	9.5	76
연희동	5.5	44
청라1~3동	18.4	147
가정1~3동	11.0	88
신현원창동	4.1	33
석남 1~3동	6.1	49

가좌 1~4동	8.9	71
검단동	5.0	40
블로대곡동	4.5	36
당하동	4.5	36
오류왕길동	3.4	27
마전동	3.3	26
아라동	12.0	96
원당동	3.9	31

4) 거주기간

- 응답자의 44%가 인천 서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6.8%임
- 전체적으로 서구 거주 청년들은 서구에서 장기간 거주한 청년들이 많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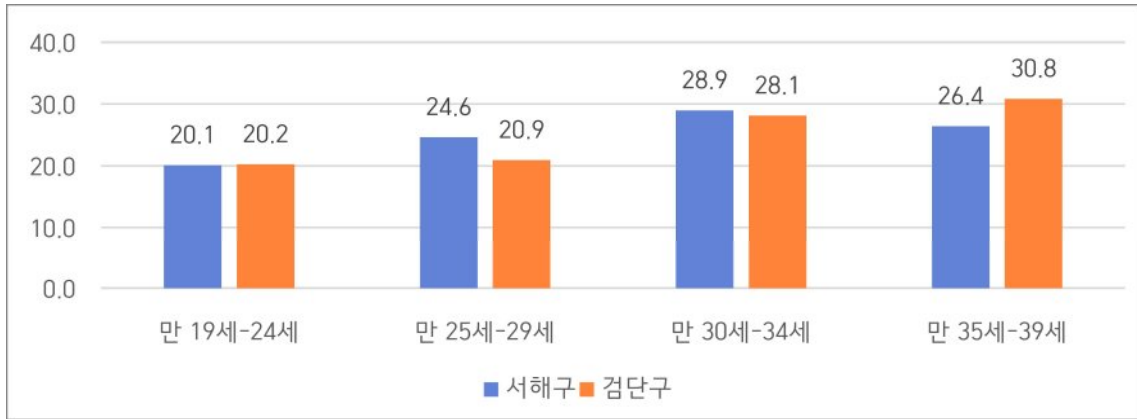
응답자 거주기간

구분	비율(%)	사례수(명)
6개월 미만	0.3	2
6개월-1년 미만	1.8	14
1년-3년 미만	11.1	89
3년-5년 미만	16.1	129
5년-10년 미만	26.8	214
10년 이상	44.0	352

○ 지역별 현황

- 검단지역과 서해구 지역을 비교하자면 전체적으로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이 더 장기간 거주한 청년들이 많은 편임
-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서해구 지역보다 검단 지역에서 6개월~5년 미만 구간이 더 높게 나타났음

(단위: %)



구분	사례수(명)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전체	800	20.1	23.3	28.6	28.0
서해구	508	20.1	24.6	28.9	26.4
검단구	292	20.2	20.9	28.1	30.8

지역별 청년 거주기간

5) 혼인 여부

- 응답자 중 36.4%가 기혼 청년이고 62%가 미혼/비혼 청년, 1.6%는 이혼청년이었음

(단위: %)

구분	비율(%)	사례수(명)
비혼/미혼	62.0	496
기혼	36.4	291
이혼	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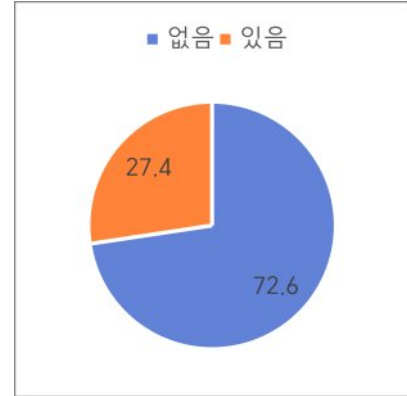
혼인 여부

6) 자녀 유무

- 기혼 청년중 27.4%의 청년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비율(%)	사례수(명)
없음	72.6	581
있음	27.4	219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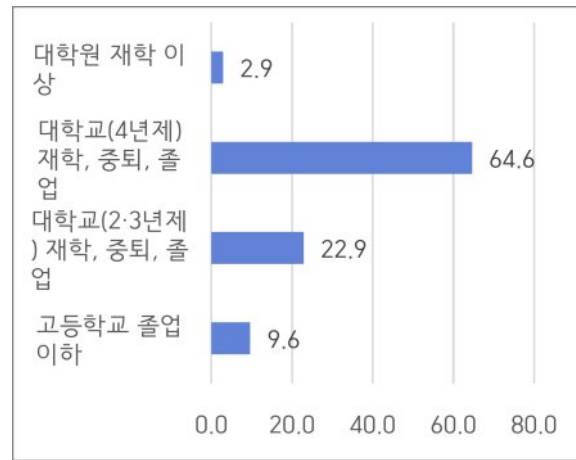
기혼 청년 자녀 유무

7) 최종학력

-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이 6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3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이 22.9%임

구분	비율(%)	사례수(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9.6	77
대학교(2·3년제) 재학, 중퇴, 졸업	22.9	183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64.6	517
대학원 재학 이상	2.9	23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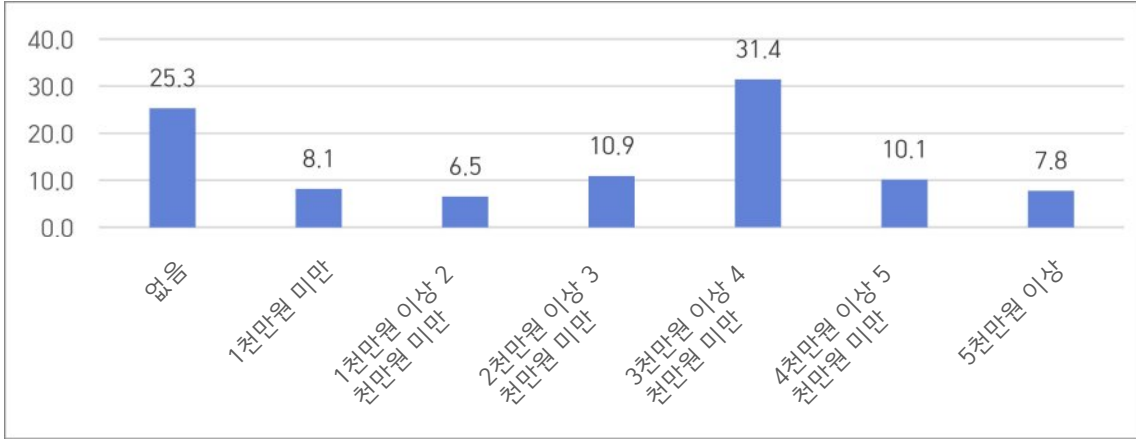


서구 청년 최종 학력

8) 소득 수준

- 서구 청년의 소득 수준은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이 31.4%로 가장 많았음

(단위:%)



구분	비율(%)	사례수(명)
없음	25.3	202
1천만원 미만	8.1	65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6.5	52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9	87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1.4	251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1	81
5천만원 이상	7.8	62

서구 청년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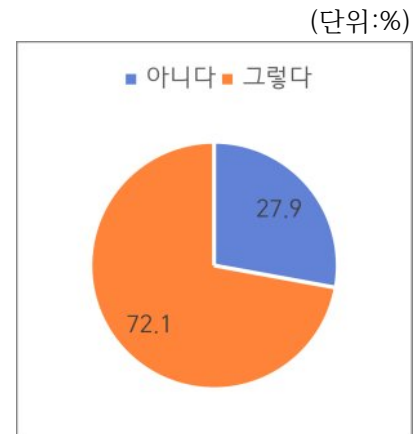
나. 일자리

1) 소득을 위한 활동 유무

○ 일반 현황

- 인천 서구의 청년중 72.1%가 소득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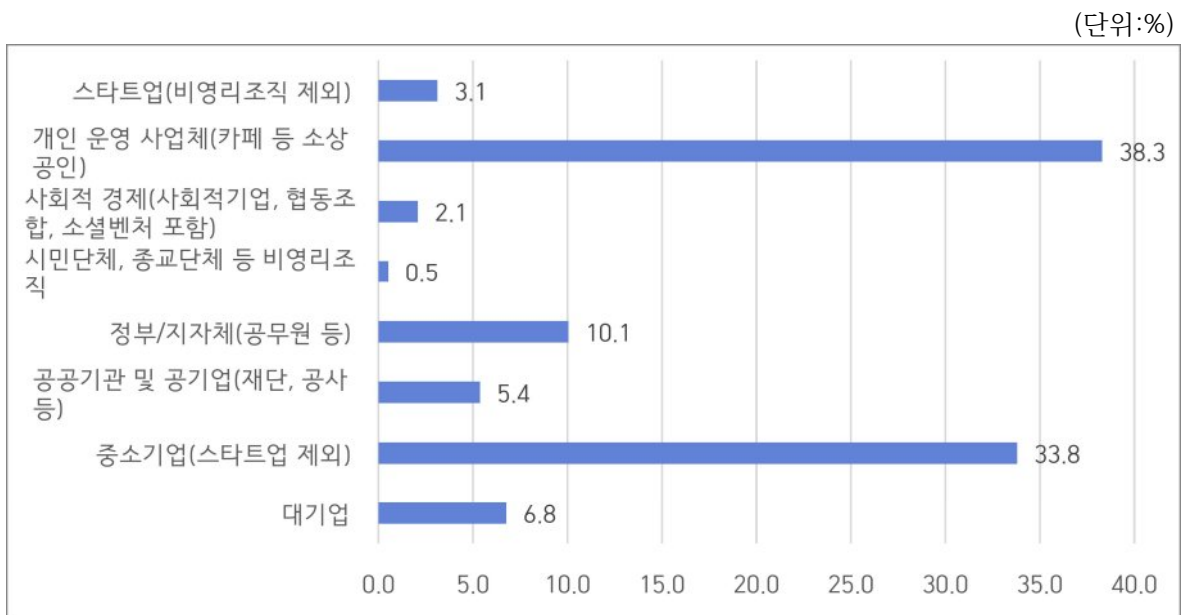
구분	아니다	그렇다
비율(%)	27.9	72.1



서구 청년의 소득 활동 여부

2) 고용 및 운영중인 사업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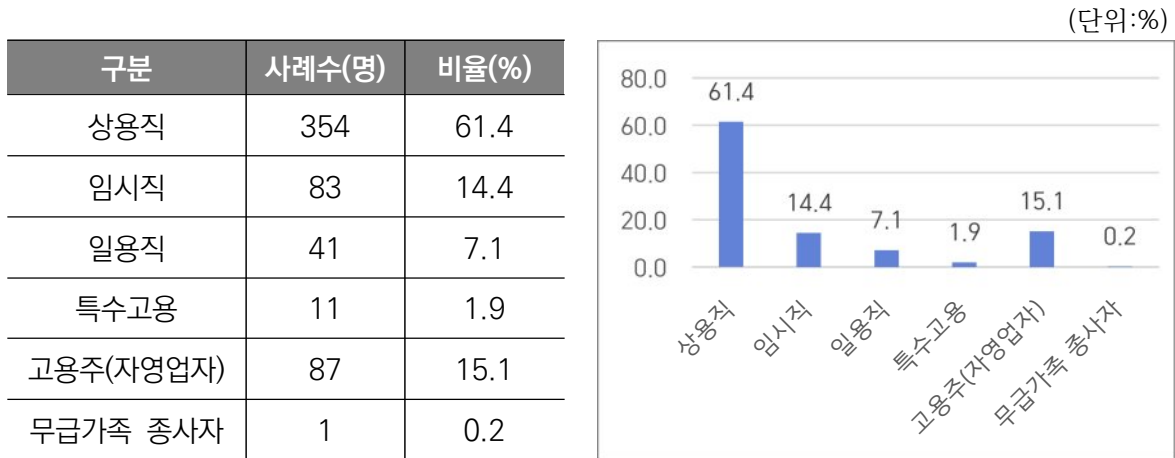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자영업) 38.3%, 취업자(직장인)는 61.7%임
- 취업자 중에서는 중소기업 근무가 33.8%로 가장 많음



서구 청년이 고용 또는 운영 중인 사업체 유형

3)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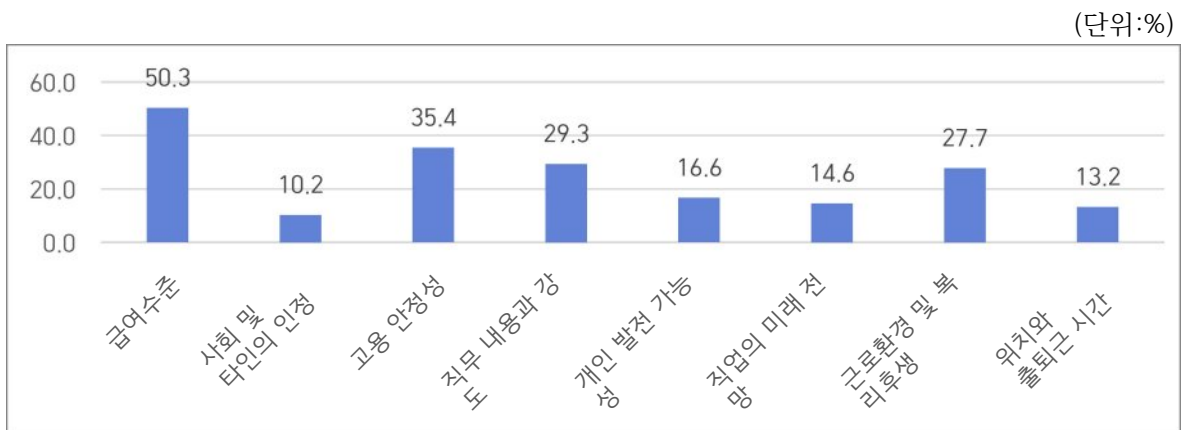
- 근무형태는 상용직이 6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고용주가 15.1%임
- 이 외에 임시직이 14.4%이며 일용직은 7.1%, 특수고용이 1.9%임
-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가좌동에 거주하는 청년 중 28.3%가 고용주(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점이 눈에 띈



서구 청년의 근무형태

4) 직업선택의 기준(복수 응답)

- 서구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급여수준이 50.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고용안정성이 35.4%, 직무내용과 강도가 29.3%,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이 27.7%로 뒤를 이었음



구분	급여 수준	사회 및 타인의 인정	고용 안정성	직무 내용과 강도	개인 발전 가능성	직업의 미래 전망	근로 환경 및 복리 후생	위치와 출퇴근 시간
응답자수(명)	290	59	204	169	96	84	160	76
비율(%)	50.3	10.2	35.4	29.3	16.6	14.6	27.7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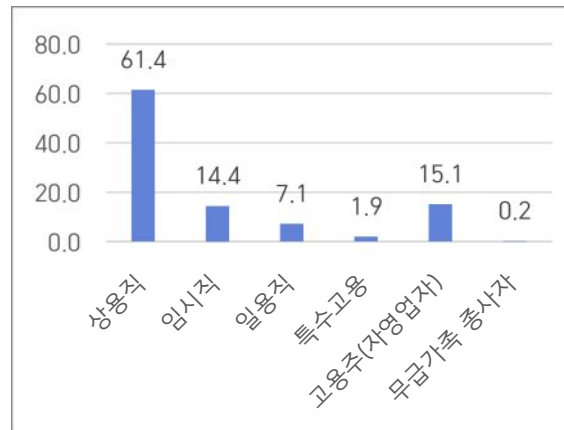
서구 청년 직업선택의 기준

5) 종사자 지위

- 현재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61.4%로 가장 많음
- 그 외 임시직이 각각 14.4%, 고용주(자영업자)는 15.1%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상용직	354	61.4
임시직	83	14.4
일용직	41	7.1
특수고용	11	1.9
고용주(자영업자)	87	15.1
무급가족 종사자	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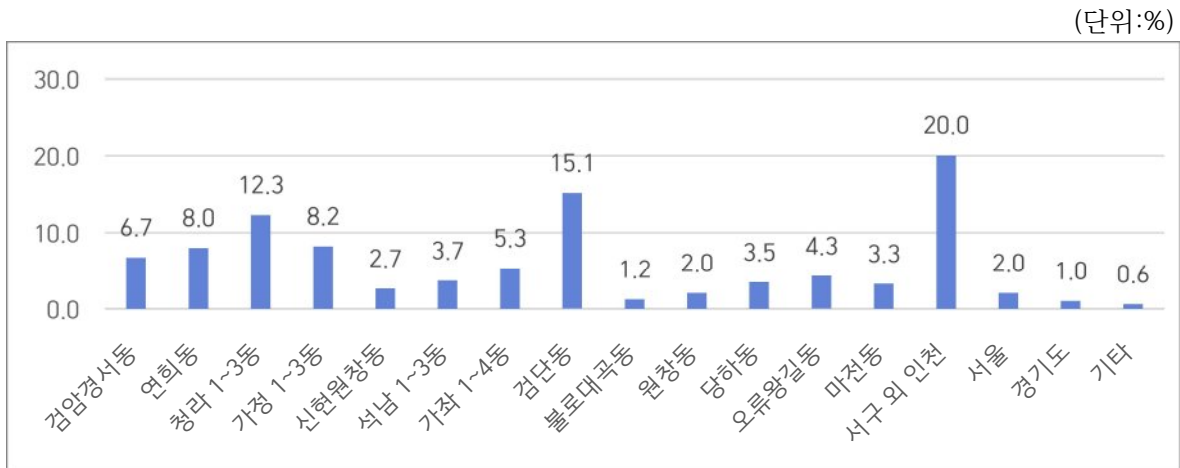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종사자 지위

다. 취업자 현황

1) 현재 근무지역

- 서구 청년들의 근무 지역을 살펴보면 서구 외 인천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 내에서는 검단동이 15.1%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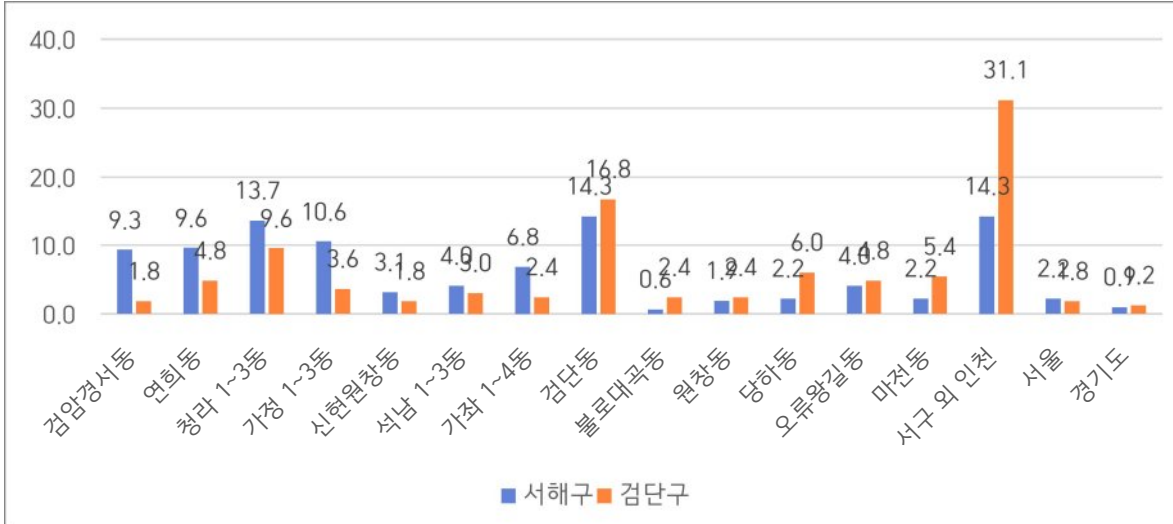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검암경서동	33	6.7
연희동	39	8.0
청라 1~3동	60	12.3
가정 1~3동	40	8.2
신현원창동	13	2.7
석남 1~3동	18	3.7
가좌 1~4동	26	5.3
검단동	74	15.1
불로대곡동	6	1.2
원창동	10	2.0
당하동	17	3.5
오류왕길동	21	4.3
마전동	16	3.3
서구 외 인천	98	20.0
서울	10	2.0
경기도	5	1.0
기타	3	0.6

서구 직장인 청년의 거주지

○ 지역별 비교 분석

- 근무 지역을 살펴보면 검단 지역 주민들이 서구 외 인천에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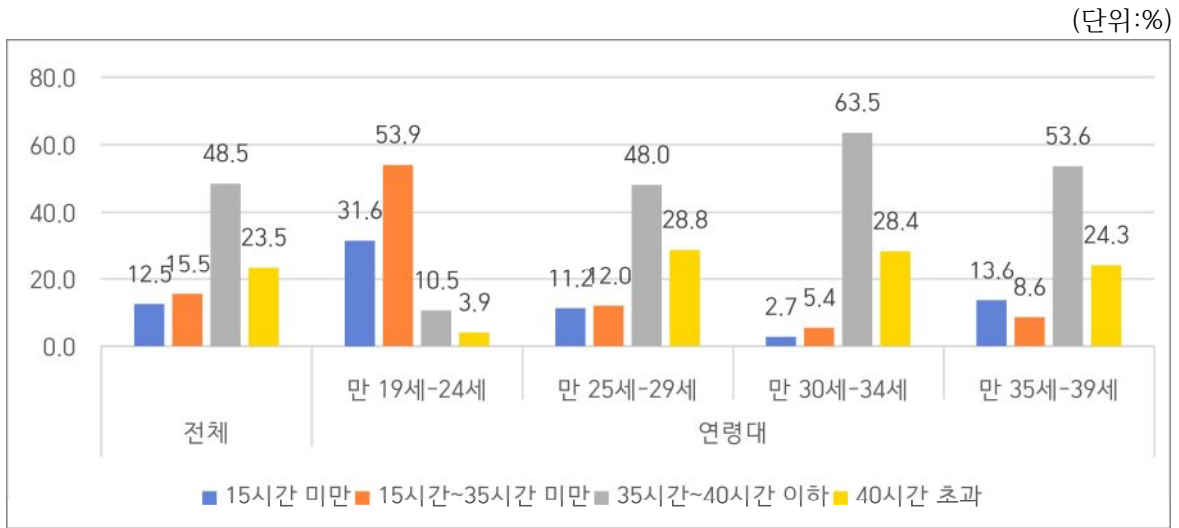


구분	전체	거주지역(구)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489	322	167
검암경서동	6.7	9.3	1.8
연희동	8.0	9.6	4.8
청라 1~3동	12.3	13.7	9.6
가정 1~3동	8.2	10.6	3.6
신현원창동	2.7	3.1	1.8
석남 1~3동	3.7	4.0	3.0
가좌 1~4동	5.3	6.8	2.4
검단동	15.1	14.3	16.8
블로대곡동	1.2	0.6	2.4
원창동	2.0	1.9	2.4
당하동	3.5	2.2	6.0
오류왕길동	4.3	4.0	4.8
마전동	3.3	2.2	5.4
서구 외 인천	20.0	14.3	31.1
서울	2.0	2.2	1.8
경기도	1.0	0.9	1.2
기타	0.4	0.3	0.6

거주지역별 서구 청년 근무지

2) 근무시간

-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주 35~40시간 근무하는 청년이 48.5%로 가장 높았는데, 20대 청년들은 53.9%가 15~35시간 근무하고 있음
- 이로 보아 20대 청년들 과반수 이상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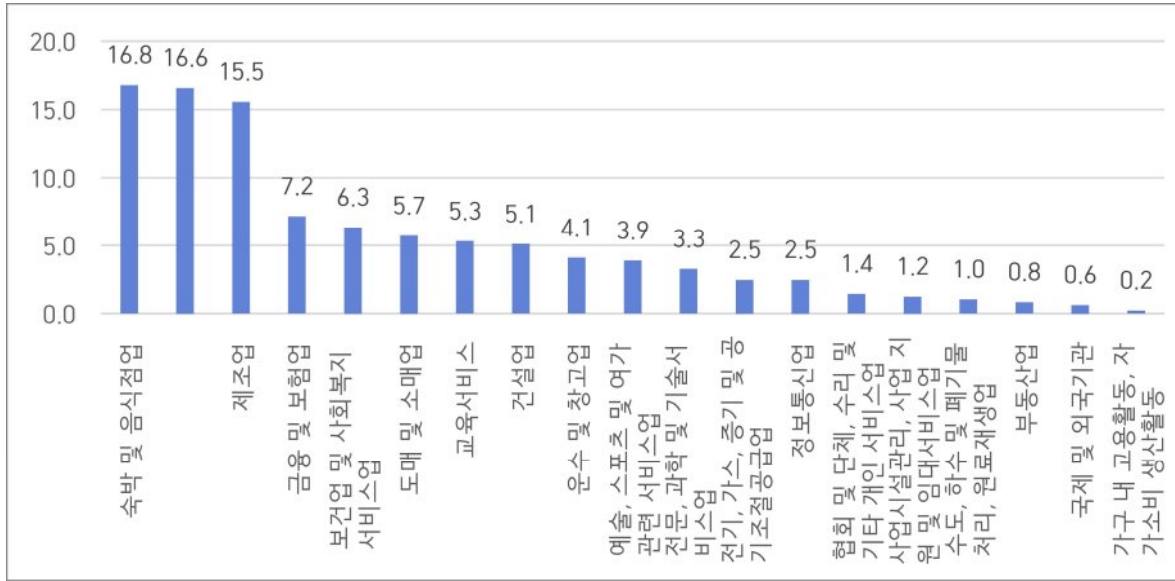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5시간 미만	15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전체	489	12.5	15.5	48.5	23.5
만 19세-24세	76	31.6	53.9	10.5	3.9
만 25세-29세	125	11.2	12.0	48.0	28.8
만 30세-34세	148	2.7	5.4	63.5	28.4
만 35세-39세	140	13.6	8.6	53.6	24.3

연령대별 서구 청년 근무시간

3) 근무업종

- 근무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8%, 공공행정이 16.6%, 제조업이 15.5%임
- 성별에 따라 보면 일하는 사업체 업종 중 제조업은 남성 종사자가 많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행정, 서비스업 등은 모두 여성 종사자가 더 많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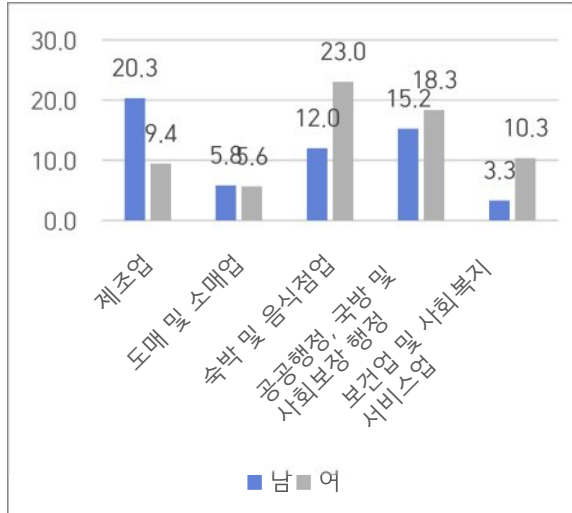
	사례수(명)	비율(%)
제조업	76	1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2	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5	1.0
건설업	25	5.1
도매 및 소매업	28	5.7
운수 및 창고업	20	4.1
숙박 및 음식점업	82	16.8
정보통신업	12	2.5
금융 및 보험업	35	7.2
부동산업	4	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3.3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	1.2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행정	81	16.6
교육서비스	26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3.9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1	0.2
국제 및 외국기관	3	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1.4

서구 청년 근무 업종

(단위:%)

구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남	20.3	5.8	12.0	15.2	3.3
여	9.4	5.6	23.0	18.3	10.3



○ 지역별 비교 분석

- 검단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가 훨씬 많은 반면, 서해구 지역은 공공행정을 비롯해 서비스업 종사자가 더 많음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숙박 및 음식점업	16.8	16.5	17.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6	19.3	11.4
제조업	15.5	12.4	21.6
금융 및 보험업	7.2	8.7	4.2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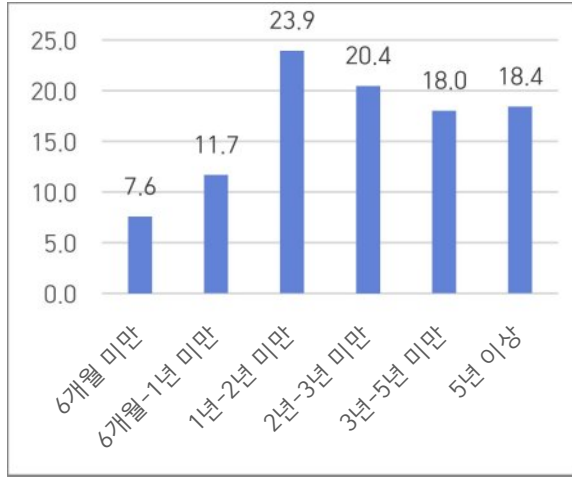
지역별 청년 종사 업종

4)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

- 서구 청년들은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2년 미만 근무한 경우가 가장 많음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6개월 미만	37	7.6
6개월-1년 미만	57	11.7
1년-2년 미만	117	23.9
2년-3년 미만	100	20.4
3년-5년 미만	88	18.0
5년 이상	90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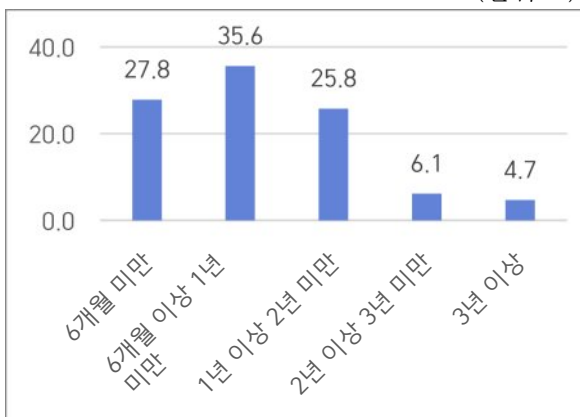
서구 직장인 청년 근속 기간

5) 현재 종사하는 일을 하기 전 구직 기간

- 서구 청년들은 현재 종사하는 일을 구하기 위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구직기간을 가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35.6%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6개월 미만이 27.8%, 1년 이상 2년 미만도 25.8%로 뒤를 이었음
- 특히 지역별로 청라동 청년 중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56.8%로 눈에 띄게 나타났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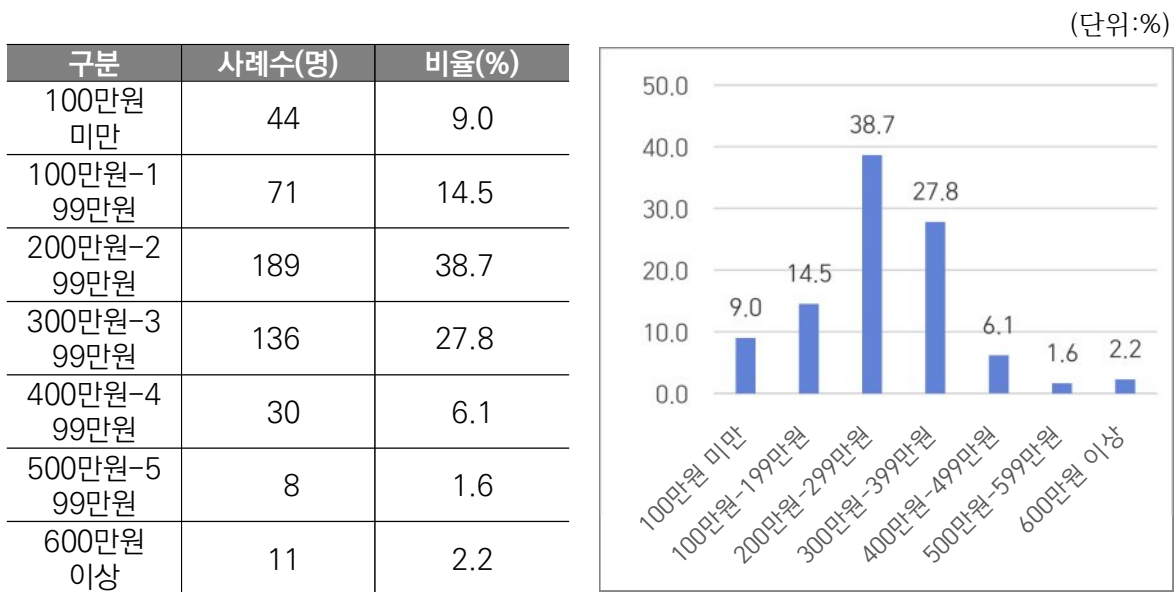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6개월 미만	136	27.8
6개월 이상 1년 미만	174	35.6
1년 이상 2년 미만	126	25.8
2년 이상 3년 미만	30	6.1
3년 이상	23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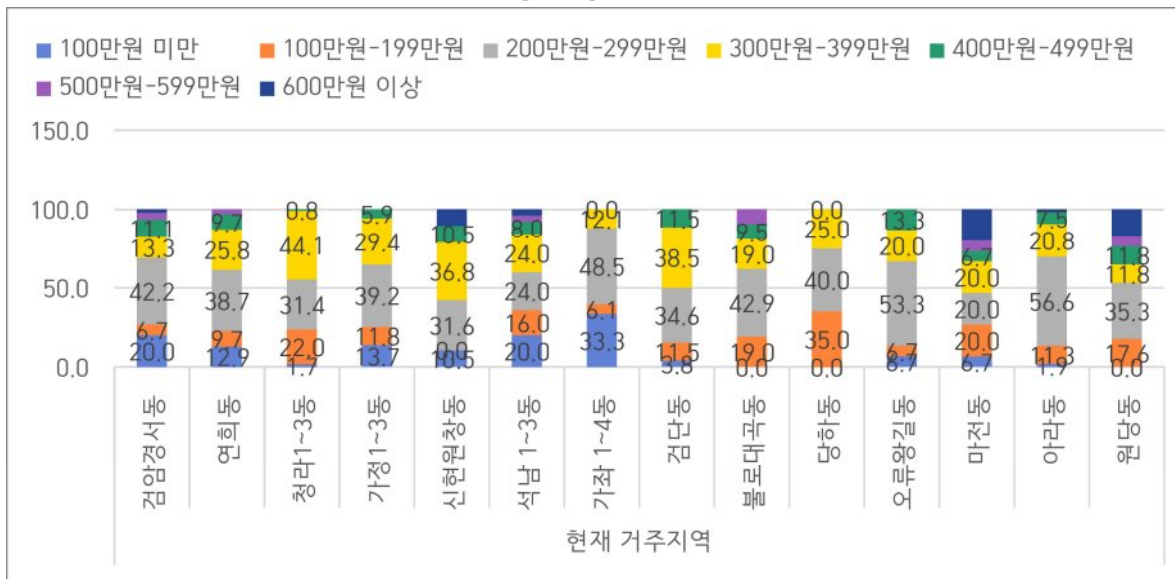
서구 직장인 청년의 구직 기간

6)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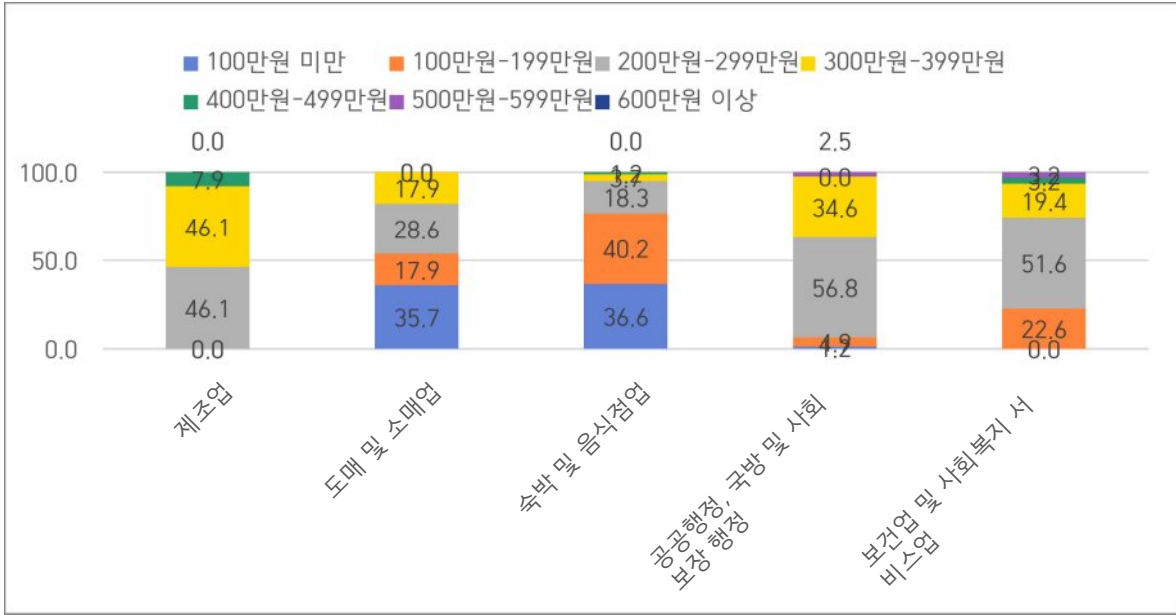
-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200~299만원의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0~399만원이 27.8%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좌동에 사는 청년 중 48.5%가 200~299만원의 임금 수준을 보이고, 마전동에 사는 청년 중 20%가 6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음
- 업종별로 서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 5위까지 살펴보았을 때,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가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임



서구 직장인 청년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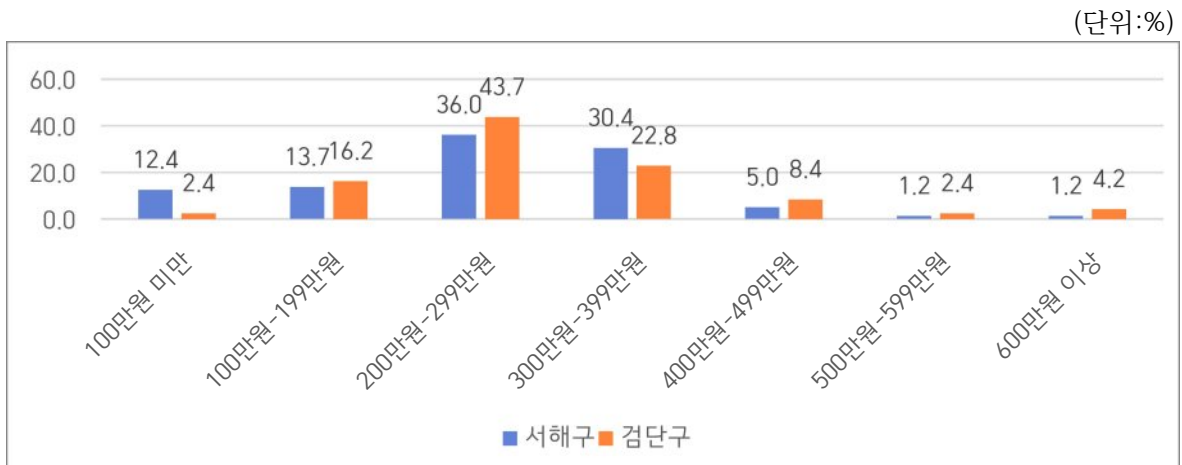
거주지역별 임금 수준



주요 업종별 임금 수준

○ 지역별 비교 분석

- 월 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200~399만원 구간은 검단지역과 서해구 지역의 분포가 비슷하지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검단 지역이 많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서해구 지역이 많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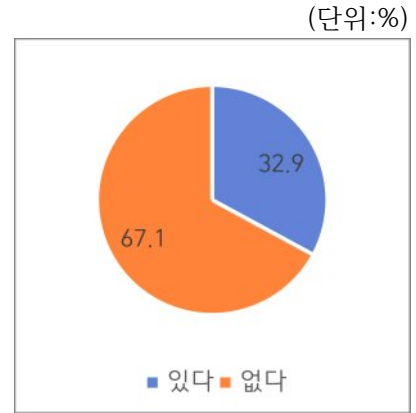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100만원 미만	9.0	12.4	2.4
100만원-199만원	14.5	13.7	16.2
200만원-299만원	38.7	36.0	43.7
300만원-399만원	27.8	30.4	22.8
400만원-499만원	6.1	5.0	8.4
500만원-599만원	1.6	1.2	2.4
600만원 이상	2.2	1.2	4.2

서구 지역별 평균 임금

7) 이직 또는 창업의사

- 서구 청년들 중 32.9%가 이직 또는 창업의사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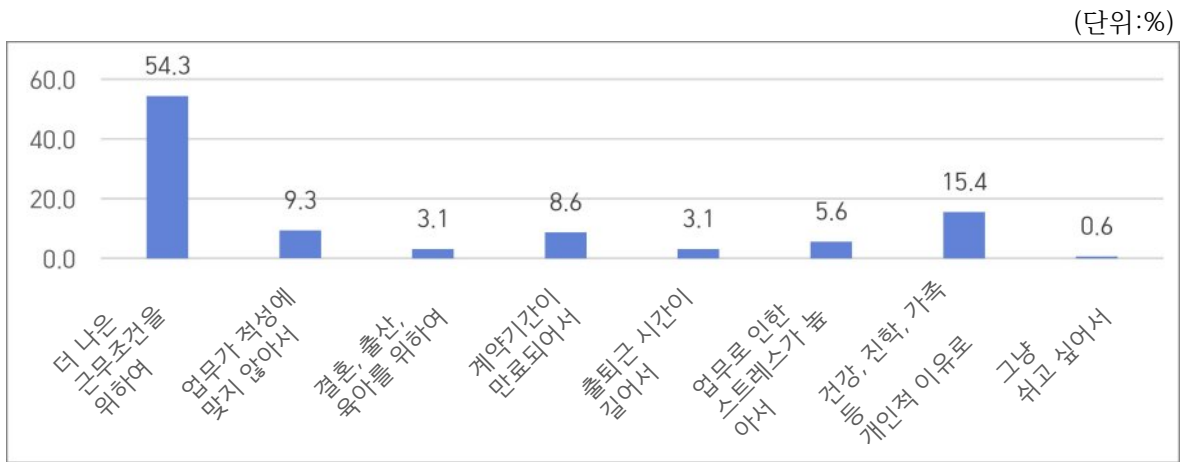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명)	161	328
비율(%)	32.9	67.1



서구 직장인 청년의 이직 또는 창업의사

8) 이직 또는 창업 하려는 이유

- 서구 청년들이 이직 또는 창업하려는 이유의 54.3%가 더 나은 근무조건을 위해서임
- 다음으로는 건강, 진학, 가족 등 개인적인 이유가 15.4%임
- 특히 그냥 쉬고싶다는 의견도 0.6%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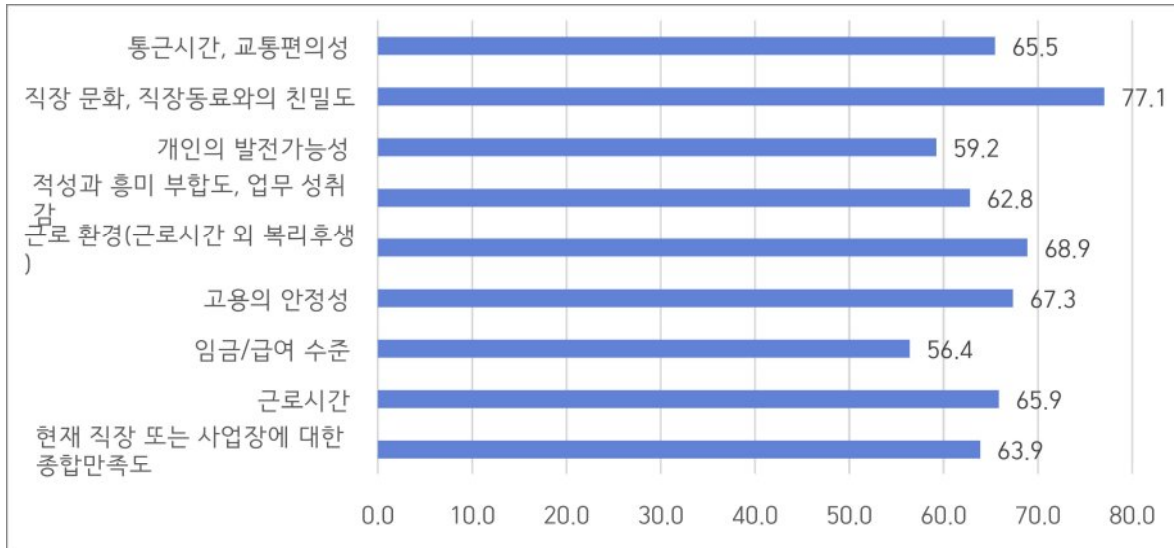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더 나은 근무조건을 위하여	88	54.3
업무가 적성에 맞지않아서	15	9.3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하여	5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4	8.6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5	3.1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서	9	5.6
건강, 진학, 가족 등 개인적 이유로	25	15.4
그냥 쉬고싶어서	1	0.6

이직 또는 창업하려는 이유

9)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63.9점임
- 특히 직장문화, 직장동료와의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그러나 임금/급여수준은 56.4점,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59.2점으로 낮은 편임

(단위:점)



구분	전체
현재 직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만족도	63.9
근로시간	65.9
임금/급여 수준	56.4
고용의 안정성	67.3
근로 환경 (근로시간외복리후생)	68.9
적성과 흥미 부합도, 업무 성취감	62.8
개인의 발전가능성	59.2
직장 문화, 직장동료와의친밀도	77.1
통근시간, 교통편의성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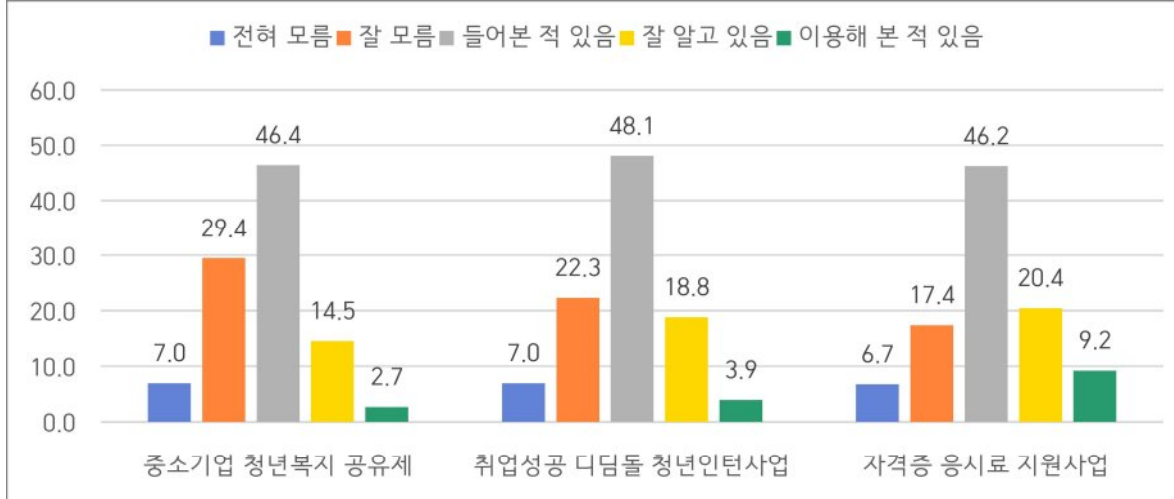
현재 직장 만족도

10) 인천 서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

- 서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과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들어본 적 있다”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자격증 응시로 지원사업은 9.2%가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일자리 정책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인지도와 활용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중소기업 청년복지공유제 사업으로 36.4%의 청년이 잘 모름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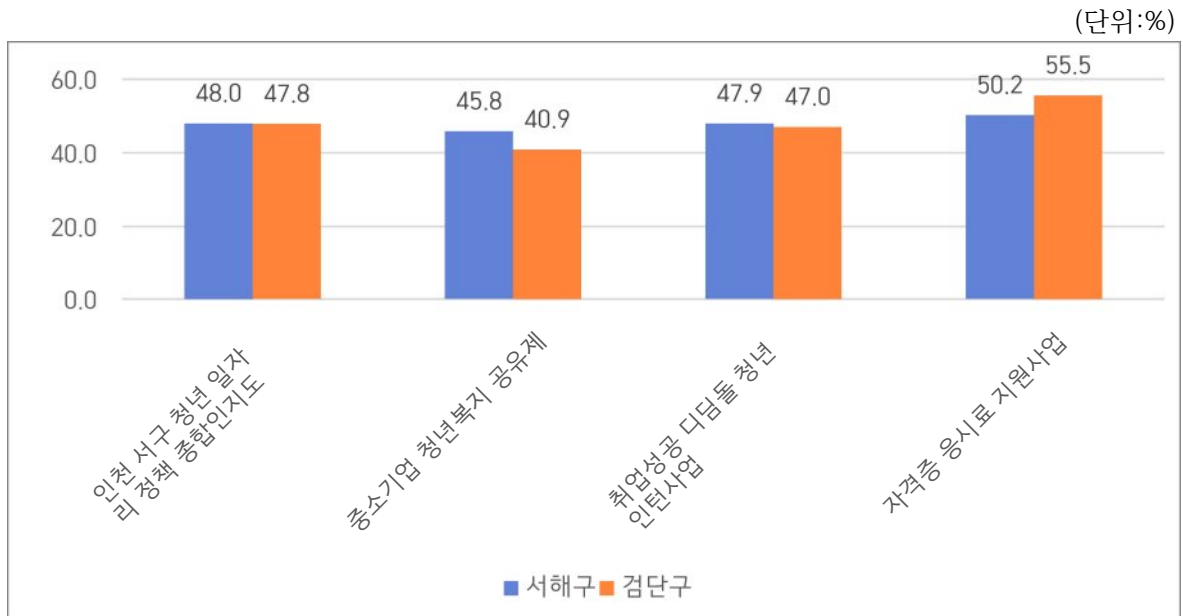


구분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혀 모름	34	7.0	34	7.0	33	6.7
잘 모름	144	29.4	109	22.3	85	17.4
들어본 적 있음	227	46.4	235	48.1	226	46.2
잘 알고 있음	71	14.5	92	18.8	100	20.4
이용해 본 적 있음	13	2.7	19	3.9	45	9.2

서구 일자리 정책 청년인지도

○ 지역별 비교 분석

- 직장인/일자리 정책 인지도는 검단과 서해구 지역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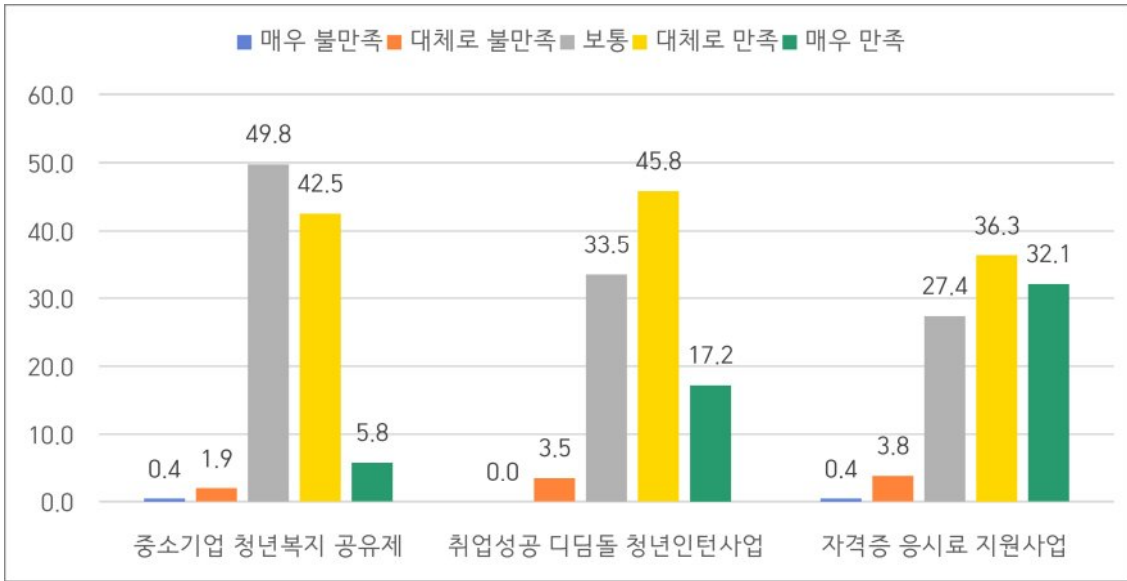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489	322	167
인천 서구 청년 일자리 정책 종합인지도	47.9	48.0	47.8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	44.1	45.8	40.9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47.6	47.9	47.0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52.0	50.2	55.5

지역별 서구 일자리 정책 청년인지도

11) 인천 서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자격증 응시로 지원사업으로 만족/매우만족이 68.4%임
- 청년인턴사업도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 6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반면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는 만족/매우 만족 응답이 48.3%로 약간 낮은 편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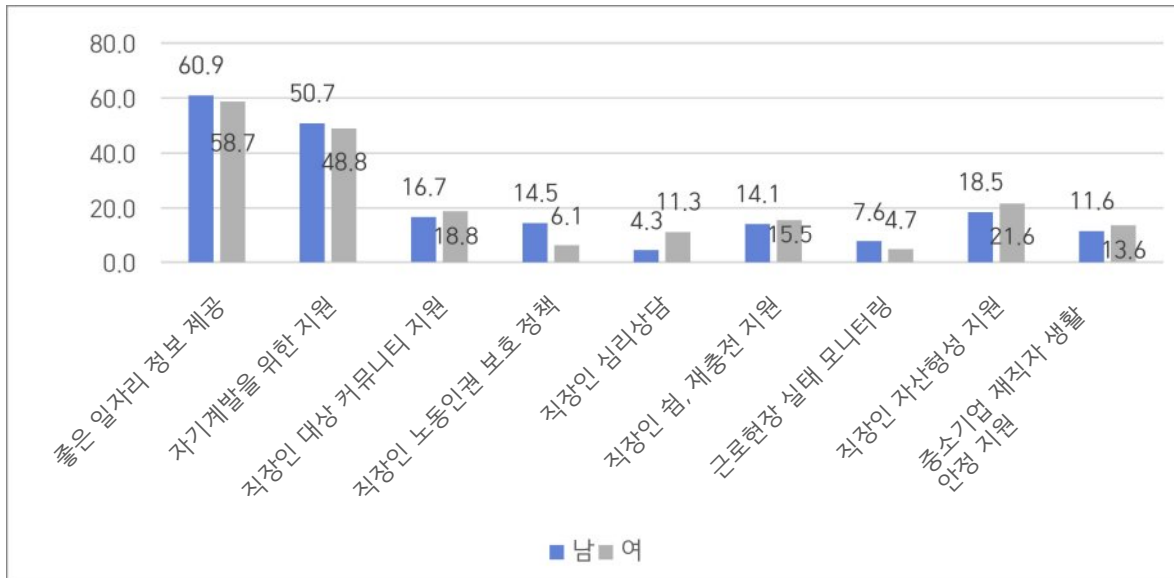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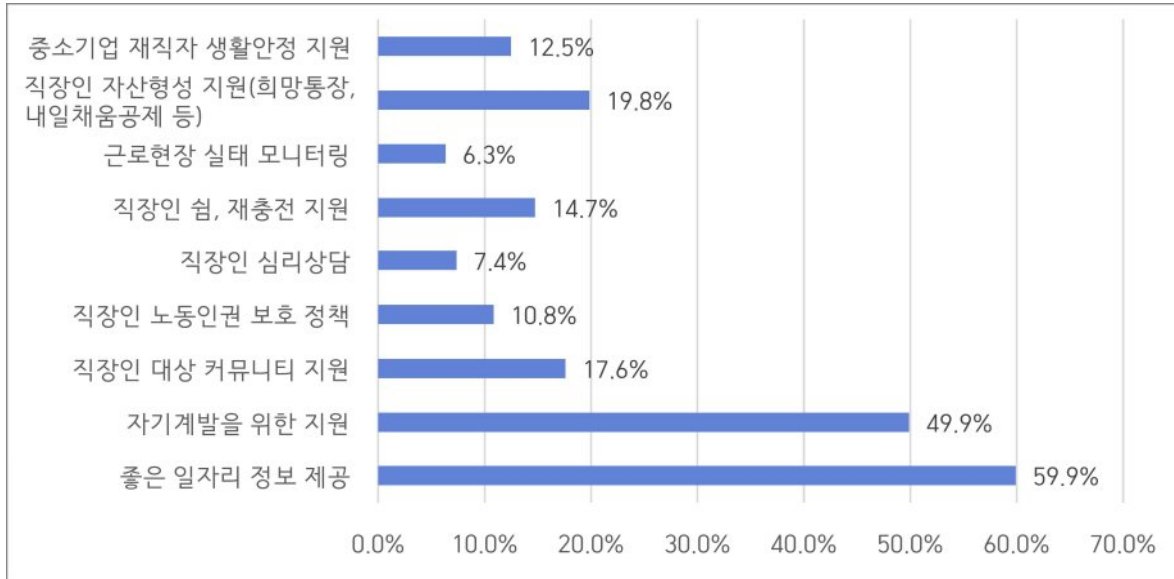
구분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자격증 응시로 지원사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0.4
대체로 불만족	4	1.9	8	3.5	9	3.8
보통	103	49.8	76	33.5	64	27.4
대체로 만족	88	42.5	104	45.8	85	36.3
매우 만족	12	5.8	39	17.2	75	32.1

서구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만족도

12) 직장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 수요

- 직장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5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기계발 지원이 49.9%임
- 성별에 따라 구분하자면 대부분 유사한 수요를 보이지만 노동인권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남성이, 심리상담에 있어서는 여성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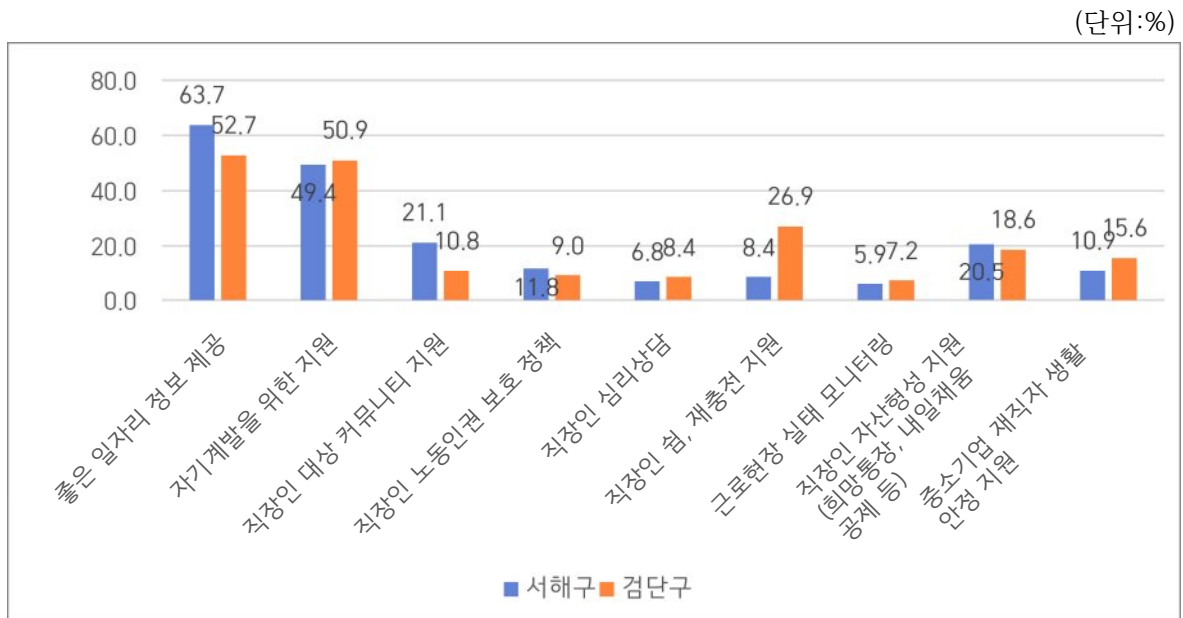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	293	59.9
자기계발을 위한지원	244	49.9

직장인 대상 커뮤니티지원	86	17.6
직장인 노동인권 보호정책	53	10.8
직장인 심리상담	36	7.4
직장인 쉼, 재충전지원	72	14.7
근로현장 실태 모니터링	31	6.3
직장인 자산형성 지원(희망통장,내일채움공제등)	97	19.8
중소기업 재직자 생활안정 지원	61	12.5

직장인 청년 일자리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전반적으로 서구 청년들은 일자리 정보 제공과 자기계발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검단 지역 청년들은 직장인 쉼과 재충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직장인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489	322	167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59.9	63.7	52.7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49.9	49.4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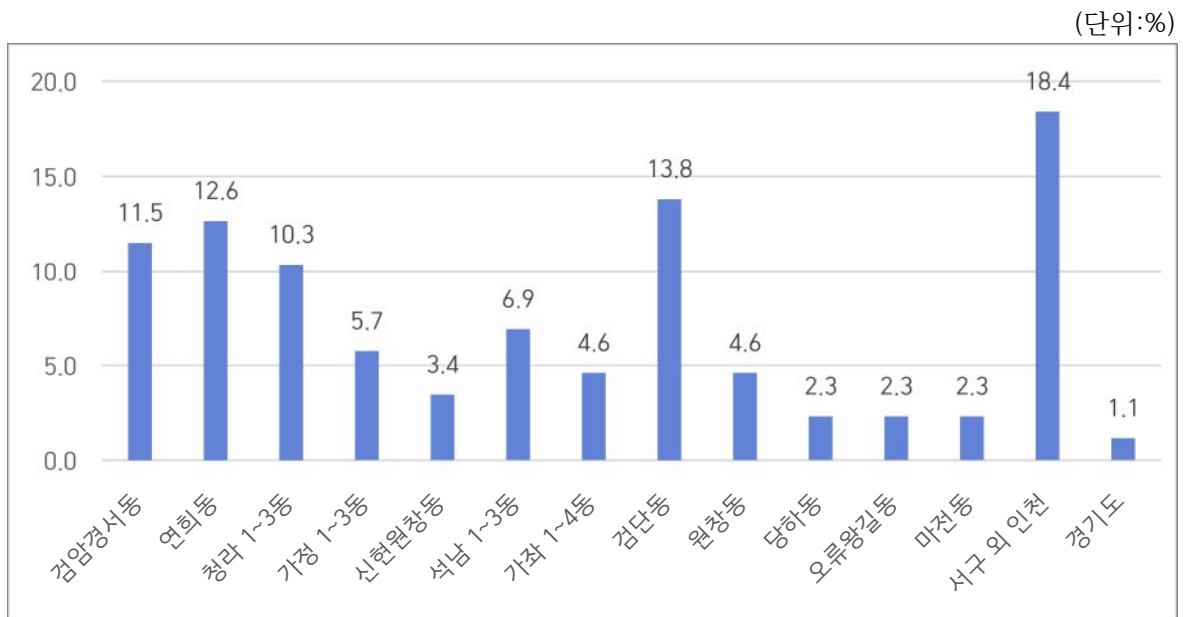
직장인 대상 커뮤니티 지원	17.6	21.1	10.8
직장인 노동인권 보호 정책	10.8	11.8	9.0
직장인 심리상담	7.4	6.8	8.4
직장인 쉼, 재충전 지원	14.7	8.4	26.9
근로현장 실태 모니터링	6.3	5.9	7.2
직장인 자산형성 지원(희망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19.8	20.5	18.6
중소기업 재직자 생활안정 지원	12.5	10.9	15.6

지역별 직장인 청년 일자리정책 수요

라. 창업/자영업자 현황

1) 근무 지역

- 서구의 청년들이 창업/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서구 외 인천이 18.4%로 가장 많았음
- 인천 서구 내에서는 검단동이 13.8%, 연희동이 12.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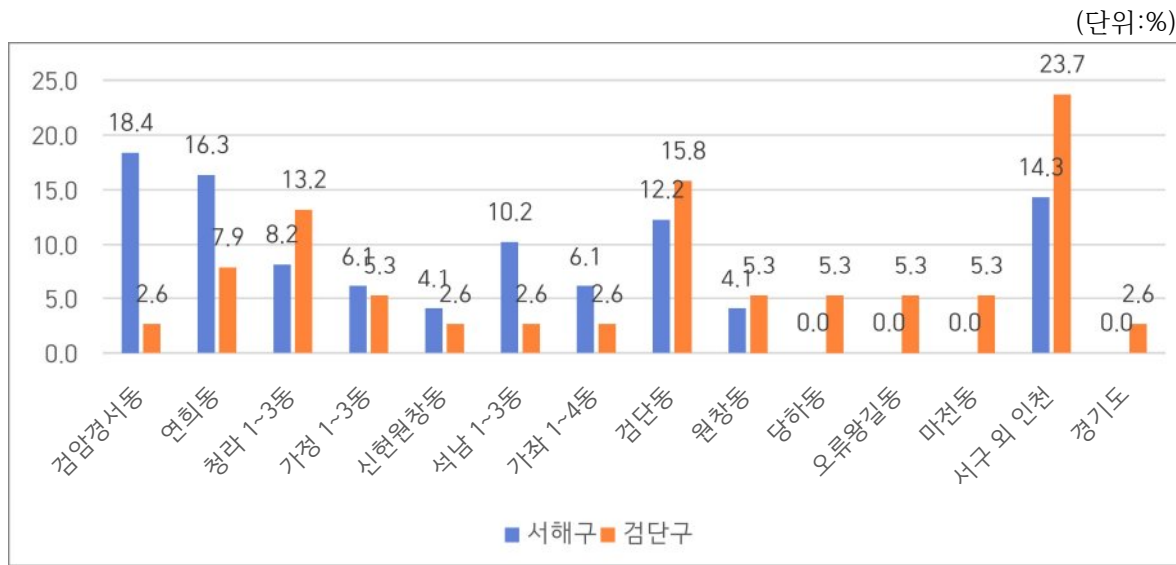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검암경서동	10	11.5
연희동	11	12.6
청라 1~3동	9	10.3
가정 1~3동	5	5.7
신현원창동	3	3.4

석남 1~3동	6	6.9
가좌 1~4동	4	4.6
검단동	12	13.8
원창동	4	4.6
당하동	2	2.3
오류왕길동	2	2.3
마전동	2	2.3
서구 외 인천	16	18.4
경기도	1	1.1

창업/자영업 청년 근무 지역

○ 지역별 비교 분석

- 일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검안경서동, 연희동, 석남동, 검단동 등 대부분 서해구 지역에서 많이 영업하는 반면 검단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구 외 인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더 많음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87	49	38
검안경서동	11.5	18.4	2.6
연희동	12.6	16.3	7.9
청라 1~3동	10.3	8.2	13.2
가정 1~3동	5.7	6.1	5.3
신현원창동	3.4	4.1	2.6
석남 1~3동	6.9	10.2	2.6
가좌 1~4동	4.6	6.1	2.6
검단동	13.8	12.2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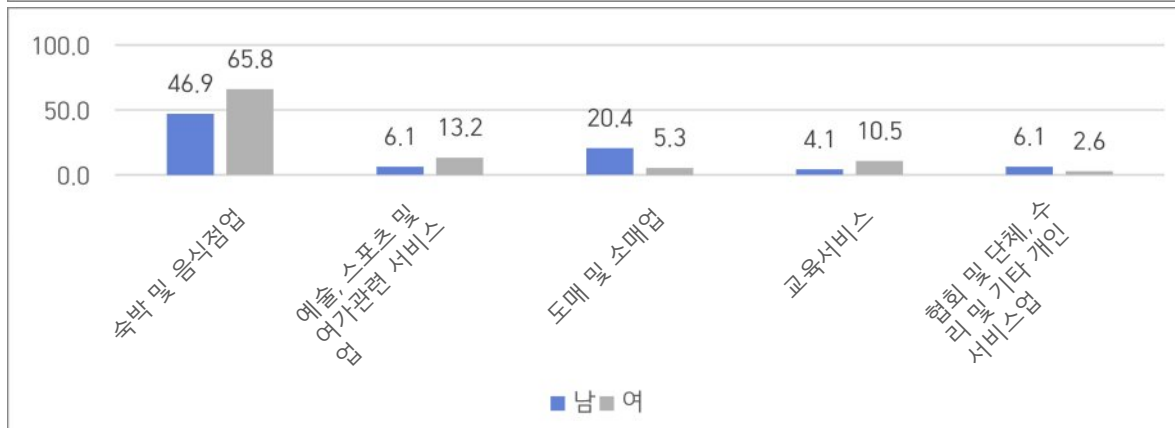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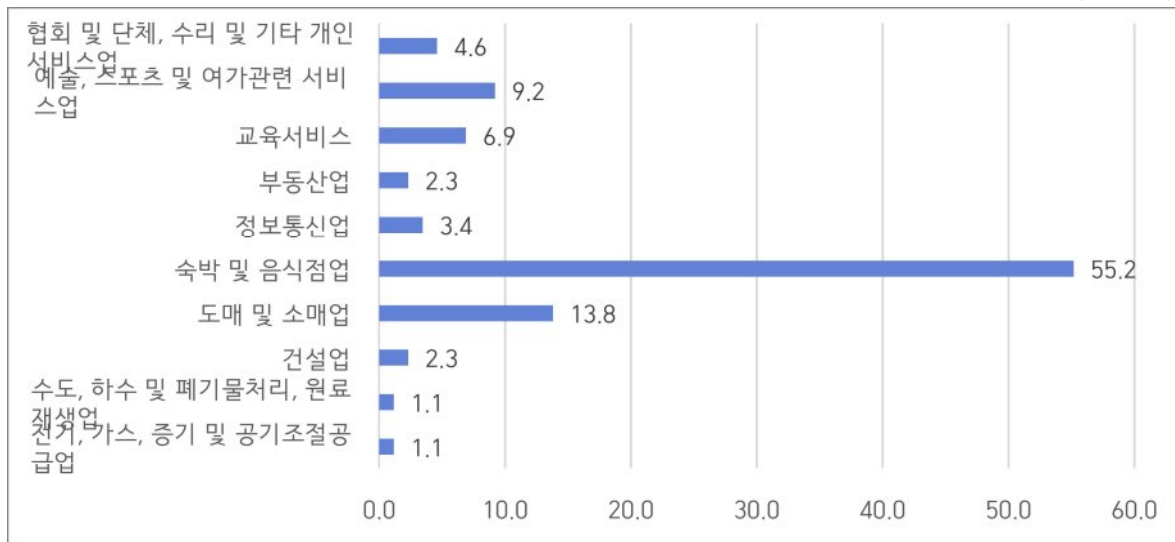
원창동	4.6	4.1	5.3
당하동	2.3	0.0	5.3
오류왕길동	2.3	0.0	5.3
마전동	2.3	0.0	5.3
서구 외 인천	18.4	14.3	23.7
경기도	1.1	0.0	2.6

지역별 창업/자영업 청년 근무지역

2) 창업/자영업 업종

- 청년들의 주요 창업/자영업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2%로 가장 많았음
- 성별에 따라 비교하자면 소매업은 남성이 20.4%로 높지만, 나머지 업종은 모두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다만 전체 자영업자의 수는 남성이 더 많은데, 이로 보아 여성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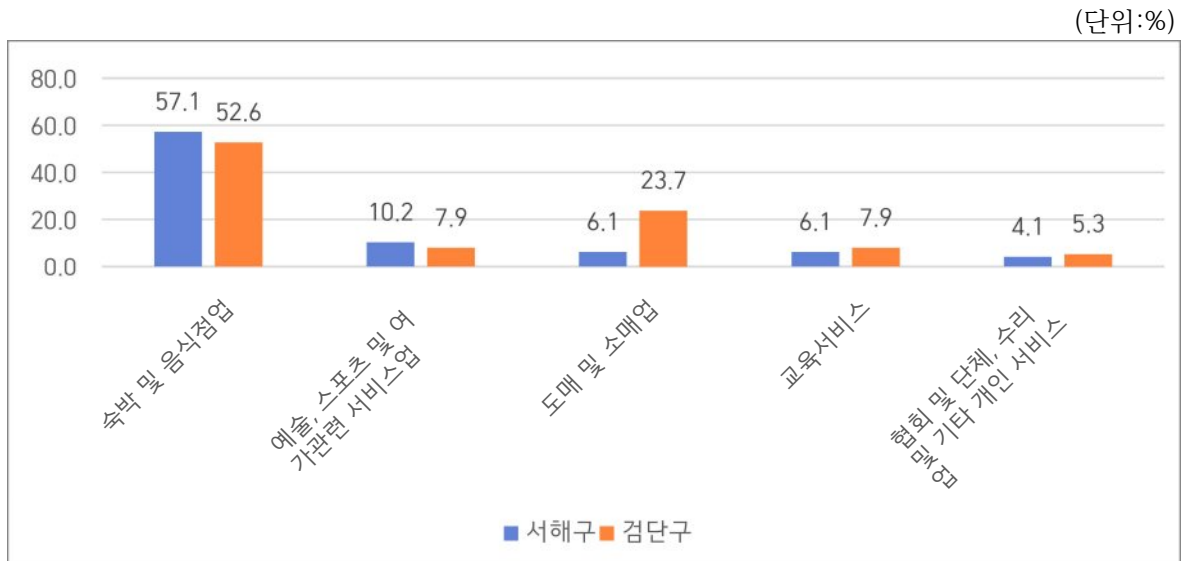


업종	사례수(명)	비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1.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	1.1
건설업	2	2.3
도매 및 소매업	12	13.8
숙박 및 음식점업	48	55.2
정보통신업	3	3.4
부동산업	2	2.3
교육서비스	6	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9.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4.6

창업/자영업 청년 근무 업종

○ 지역별 비교 분석

- 지역에 따라 보자면 검단 지역에서 도매/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1	2.0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1	2.0	0.0
건설업	2.3	2.0	2.6
도매 및 소매업	13.8	6.1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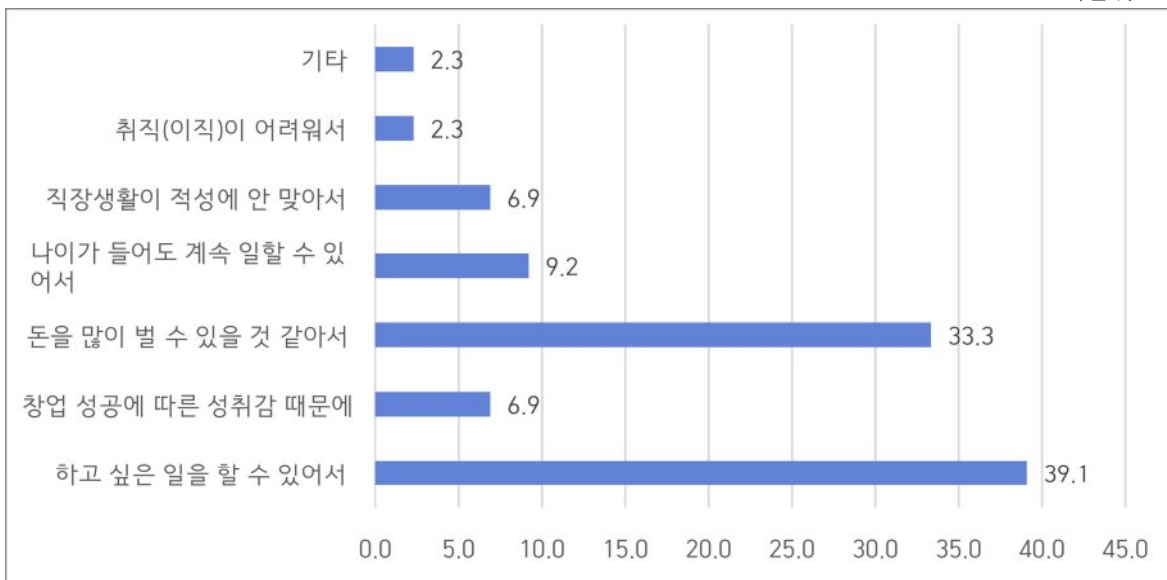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	55.2	57.1	52.6
정보통신업	3.4	6.1	0.0
부동산업	2.3	4.1	0.0
교육서비스	6.9	6.1	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	10.2	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	4.1	5.3

지역별 창업/자영업 청년 근무 업종

3) 창업/자영업을 시작한 이유

- 청년들이 창업/자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3.3%임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하고 싶은 일을 할수있어서	34	39.1
창업 성공에 따른 성취감때문에	6	6.9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29	33.3
나이가 들어도 계속일할 수 있어서	8	9.2
직장생활이 적성에안맞아서	6	6.9
취직(이직)이 어려워서	2	2.3
기타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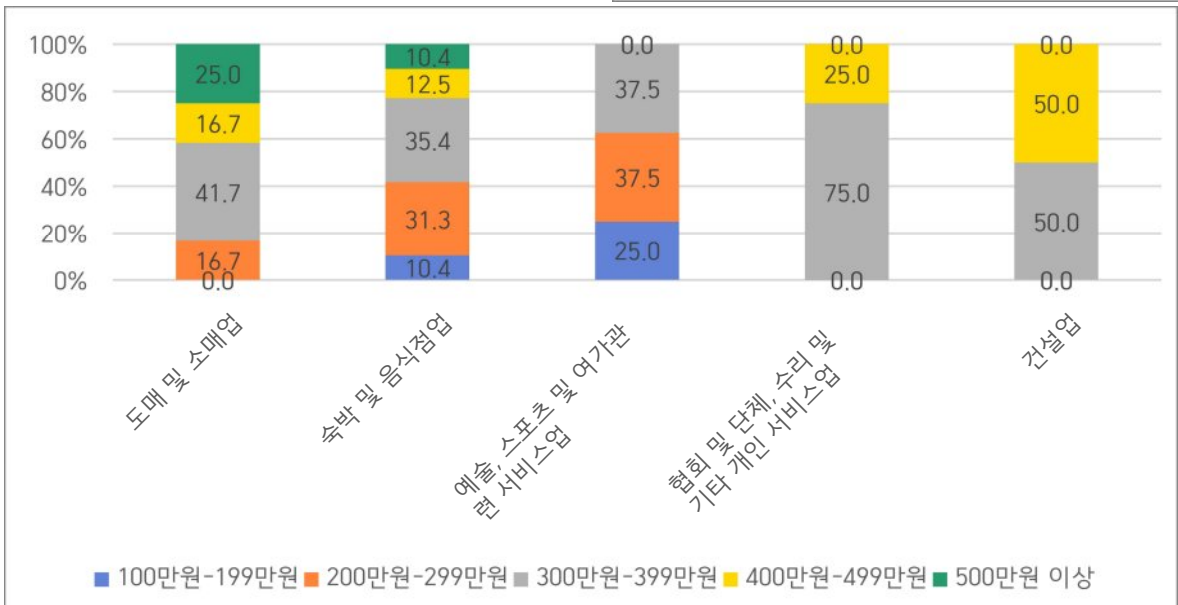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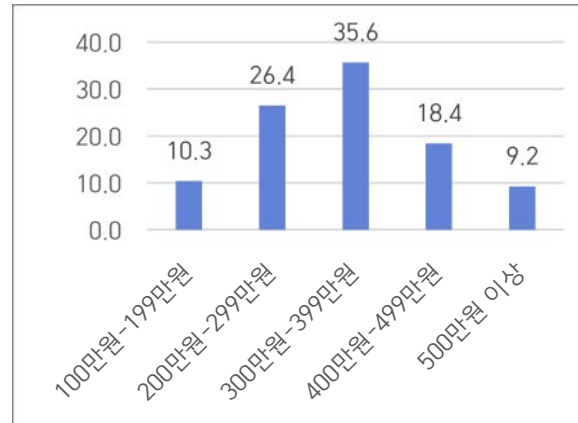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창업/자영업 시작 이유

4) 평균 월 소득

- 창업/자영업자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은 300~399만원이 35.6%로 가장 많았음
- 상위 5개 업종별로 살펴보면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고,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300~399만원의 소득 구간이 가장 많았음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100만원-199만원	9	10.3
200만원-299만원	23	26.4
300만원-399만원	31	35.6
400만원-499만원	16	18.4
500만원 이상	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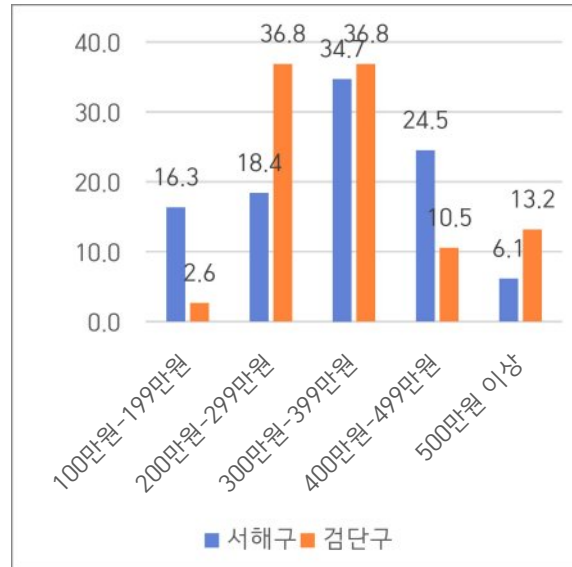
창업/자영업자 청년 평균 소득

○ 지역별 비교 분석

- 창업/자영업자 청년들의 평균 소득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검단 지역의 창업 청년들의 소득이 다소 높은 편이고, 서해구 지역 청년들의 경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6.3%로 나타남

(단위:%)

구분	전체(명)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87	49	38
100만원-199만원	10.3	16.3	2.6
200만원-299만원	26.4	18.4	36.8
300만원-399만원	35.6	34.7	36.8
400만원-499만원	18.4	24.5	10.5
500만원 이상	9.2	6.1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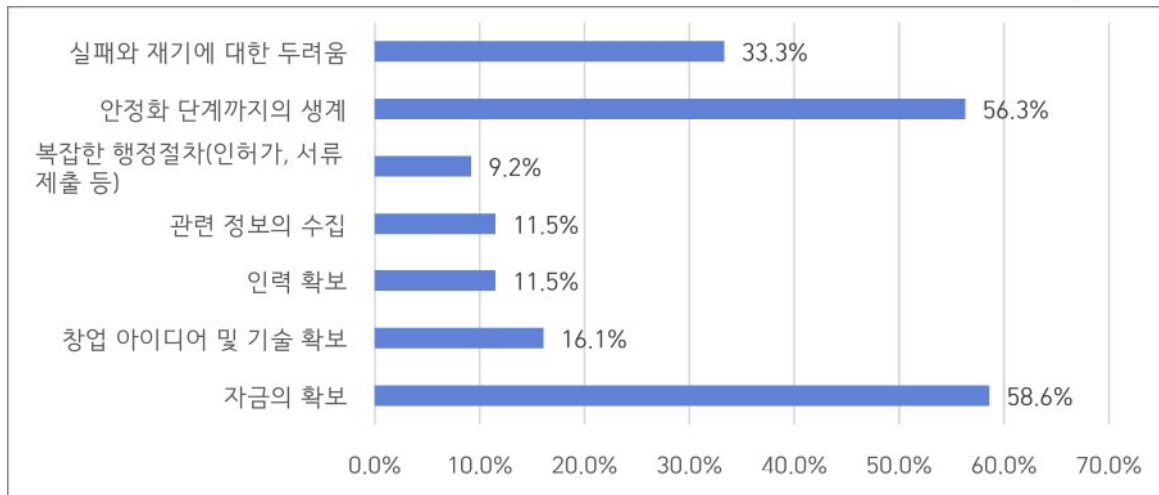


지역별 창업/자영업자 청년 소득

5) 창업 초기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 창업/자영업 청년이 창업 초기과정에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확보가 58.6%, 안정화 단계까지의 생계가 56.3%로 대부분 금전적인 어려움을 꼽았음
- 다음으로는 실패와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33.3%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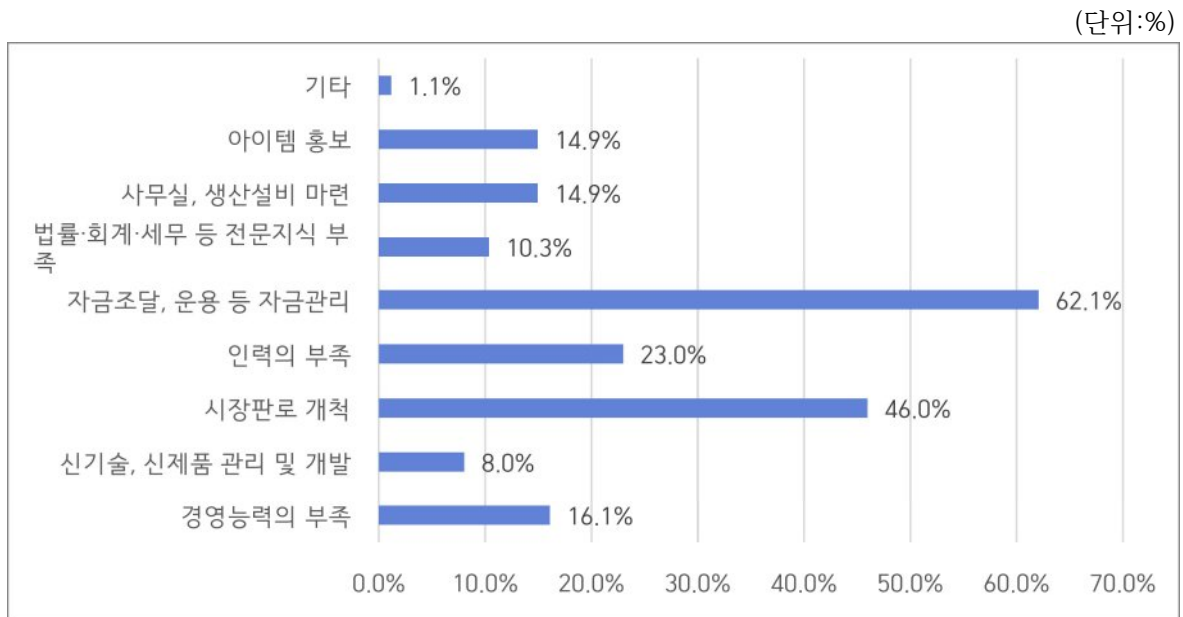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자금의 확보	51	58.6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확보	14	16.1
인력 확보	10	11.5
관련 정보의 수집	10	11.5

복잡한 행정절차 (인허가,서류제출등)	8	9.2
안정화 단계까지의 생계	49	56.3
실패와 재기에 대한두려움	29	33.3

창업 초기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

6) 창업 운영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 창업 운영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에서도 자금조달, 운영 등 자금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시장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응답이 46.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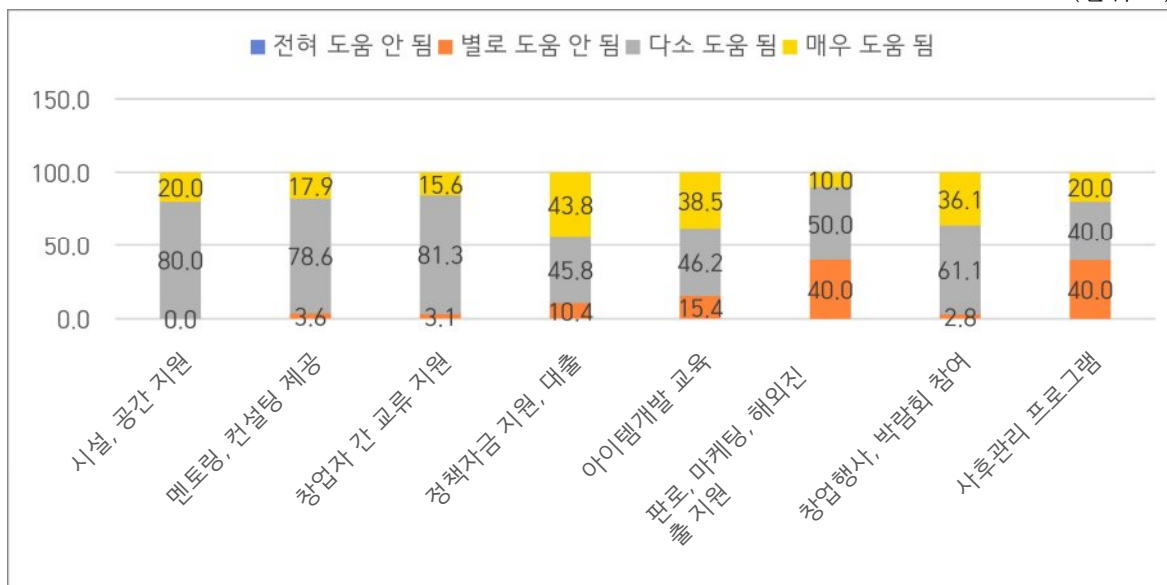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경영능력의 부족	14	16.1
신기술, 신제품 관리 및 개발	7	8.0
시장판로 개척	40	46.0
인력의 부족	20	23.0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	54	62.1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지식부족	9	10.3
사무실, 생산설비 마련	13	14.9
아이템 홍보	13	14.9
기타	1	1.1

창업 운영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

7) 일반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창업/자영업 청년들은 일반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 매우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 다음으로 아이템 개발 교육에 대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8.5%임
- 반면 판로, 마케팅, 해외 진출 사업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40%를 차지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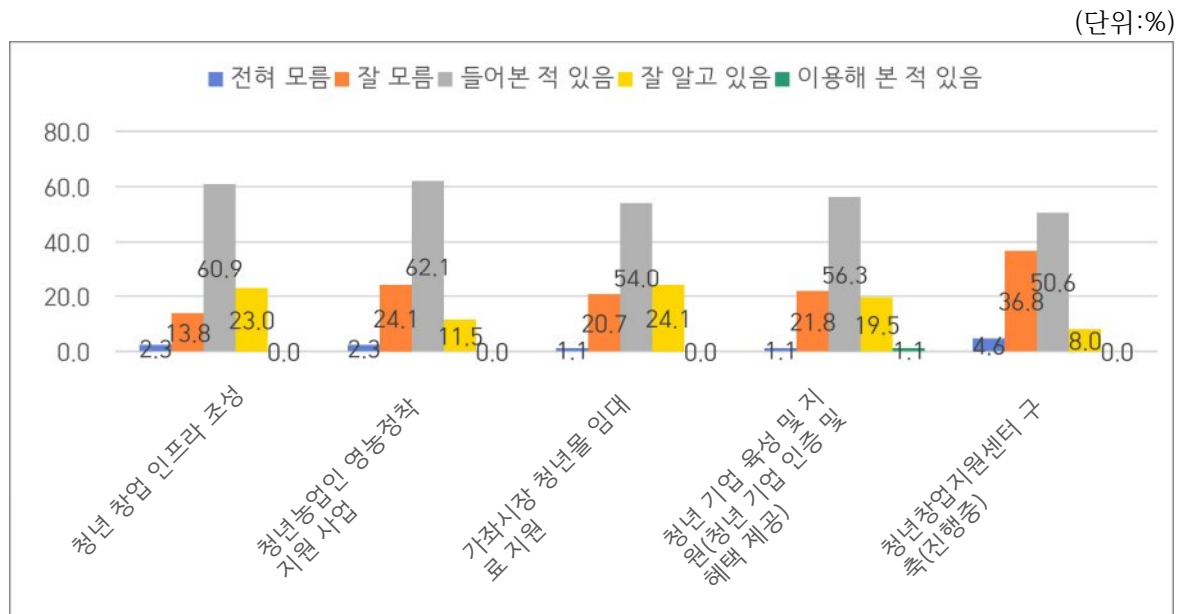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시설, 공간 지원	사례수(명)	0	0	12	3
	비율(%)	0.0	0.0	80.0	20.0
멘토링, 컨설팅 제공	사례수(명)	0	1	22	5
	비율(%)	0.0	3.6	78.6	17.9
창업자 간 교류 지원	사례수(명)	0	1	26	5
	비율(%)	0.0	3.1	81.3	15.6
정책자금 지원, 대출	사례수(명)	0	5	22	21
	비율(%)	0.0	10.4	45.8	43.8
아이템개발 교육	사례수(명)	0	2	6	5
	비율(%)	0.0	15.4	46.2	38.5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사례수(명)	0	4	5	1
	비율(%)	0.0	40.0	50.0	10.0
창업행사, 박람회 참여	사례수(명)	0	1	22	13

박람회 참여	비율(%)	0.0	2.8	61.1	36.1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례수(명)	0	4	4	2
	비율(%)	0.0	40.0	40.0	20.0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움 정도

8) 서구 청년 창업·창업 정책 인지도

- 창업/자영업 청년들은 서구의 창업·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정책은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청년 기업 인증 및 혜택 제공)’ 하나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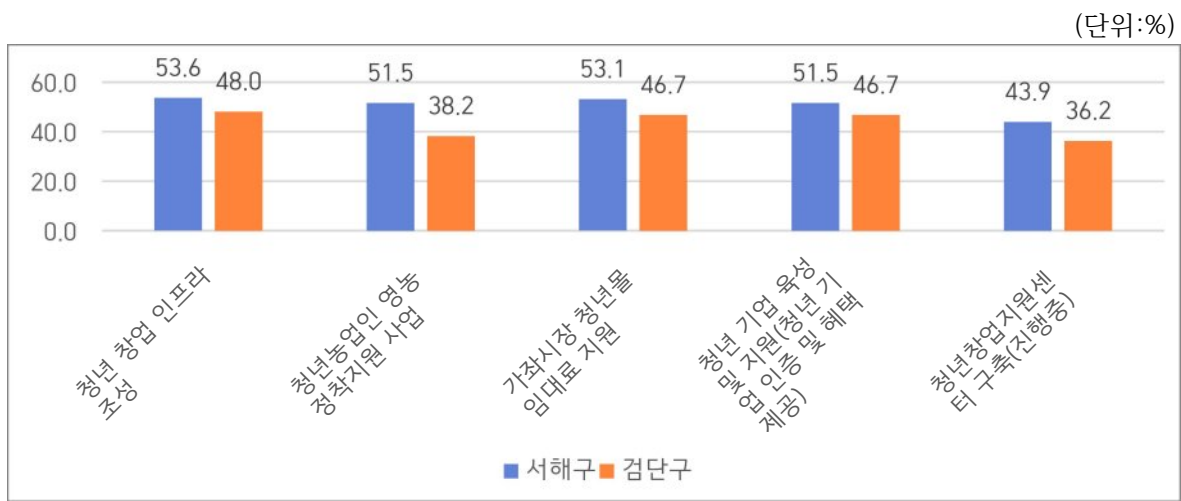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이용해 본 적 있음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사례수(명)	2	12	53	20	0
	비율(%)	2.3	13.8	60.9	23.0	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사례수(명)	2	21	54	10	0
	비율(%)	2.3	24.1	62.1	11.5	0.0
가좌시장 청년몰 임대료 지원	사례수(명)	1	18	47	21	0
	비율(%)	1.1	20.7	54.0	24.1	0.0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	사례수(명)	1	19	49	17	1

지원(청년기업인증및혜택제공)	비율(%)	1.1	21.8	56.3	19.5	1.1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진행중)	사례수(명)	4	32	44	7	0
	비율(%)	4.6	36.8	50.6	8.0	0.0

청년 창업·창농 정책 인지도

○ 지역별 비교 분석

- 창업/자영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인지도는 대부분 비슷한 인지도를 보이지만, 청년 농업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도심인 서해구 지역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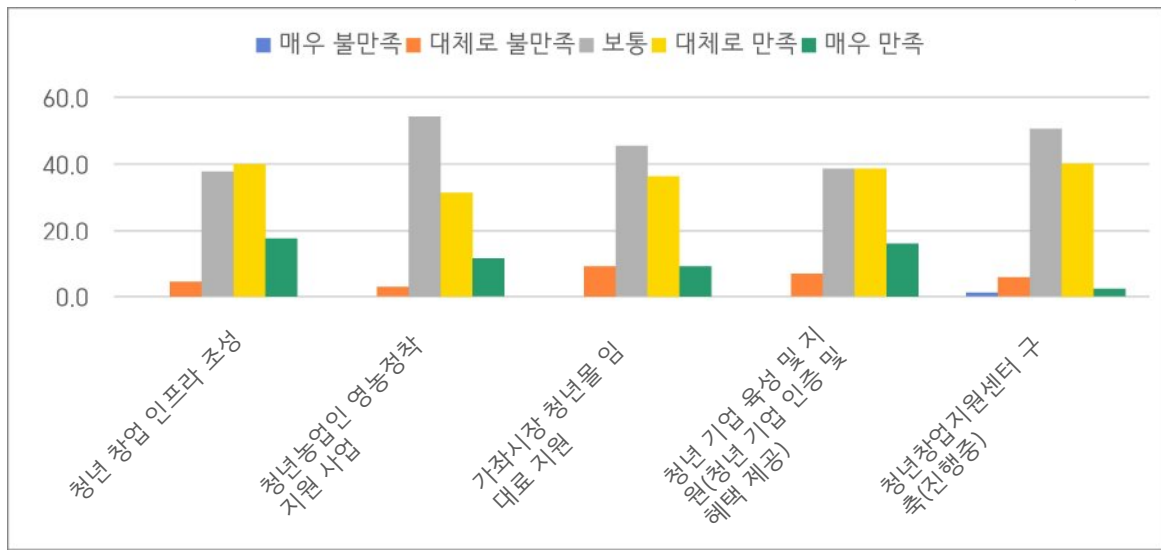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87	49	38
인천 서구 창업·창농 지원 정책 종합인지도	47.4	50.7	43.2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51.1	53.6	48.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45.7	51.5	38.2
가짜시장 청년물 임대료 지원	50.3	53.1	46.7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청년 기업 인증 및 혜택 제공)	49.4	51.5	46.7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진행중)	40.5	43.9	36.2

지역별 청년 창업/자영업 정책 인지도

9) 서구 청년 창업·창농 정책 만족도

- 창업·창농 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매우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특히 청년 창업인프라 조성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청년 기업 인증 및 혜택 제공)은 15.9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가좌시장 청년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높았음

(단위:%)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사례수(명)	0	2	17	18	8
	비율(%)	0.0	4.4	37.8	40.0	17.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사례수(명)	0	1	19	11	4
	비율(%)	0.0	2.9	54.3	31.4	11.4
가좌시장 청년몰 임대료 지원	사례수(명)	0	4	20	16	4
	비율(%)	0.0	9.1	45.5	36.4	9.1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청년)	사례수(명)	0	3	17	1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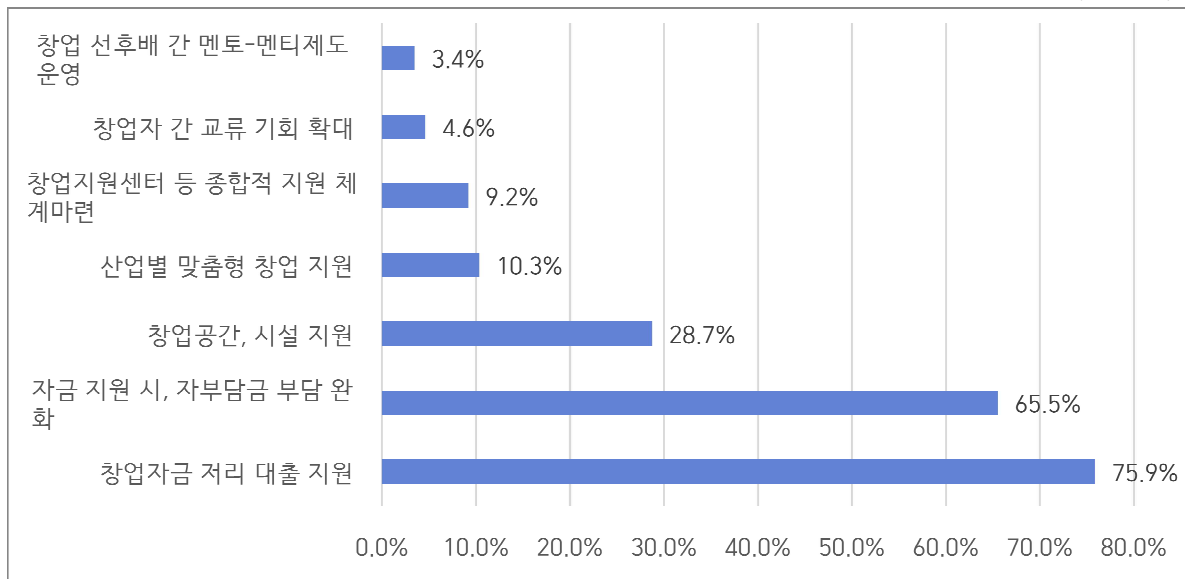
기업 인증 및 혜택 제공)	비율(%)	0.0	6.8	38.6	38.6	15.9
청년창업지원 센터 구축(진행중)	사례수(명)	1	5	44	35	2
	비율(%)	1.1	5.7	50.6	40.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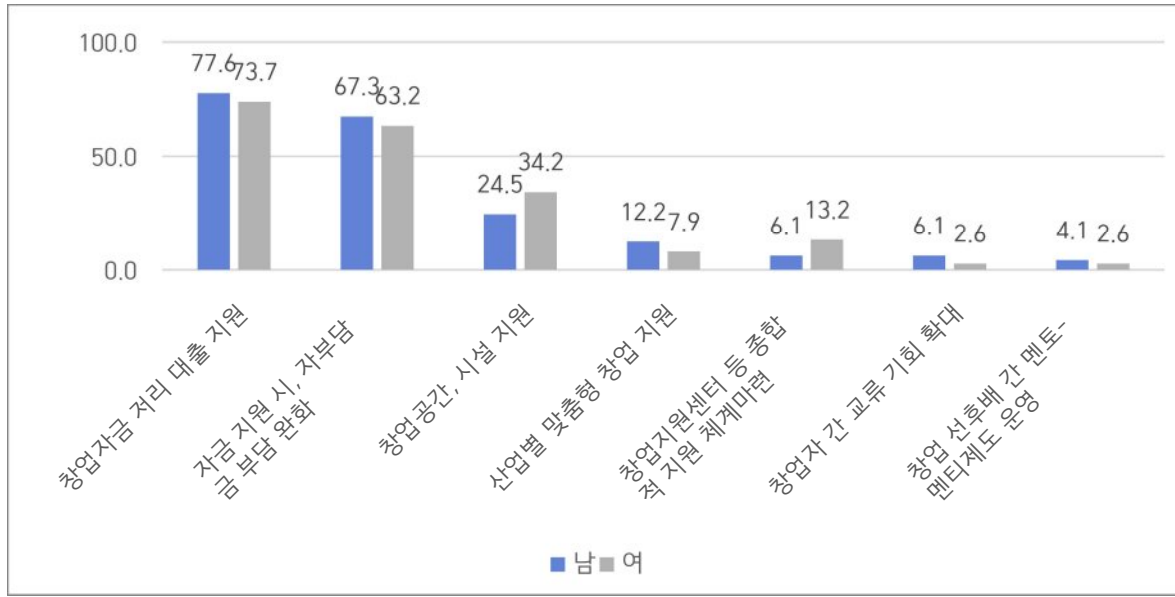
청년 창업/자영업 정책 만족도

10)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 서구의 창업/자영업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창업자금 저리대출 지원이 75.9%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자금지원 시 자부담금 부담 완화가 65.5%로 과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시설지원과 지원체계 마련을 중요하게 본 반면 남성은 창업자간 교류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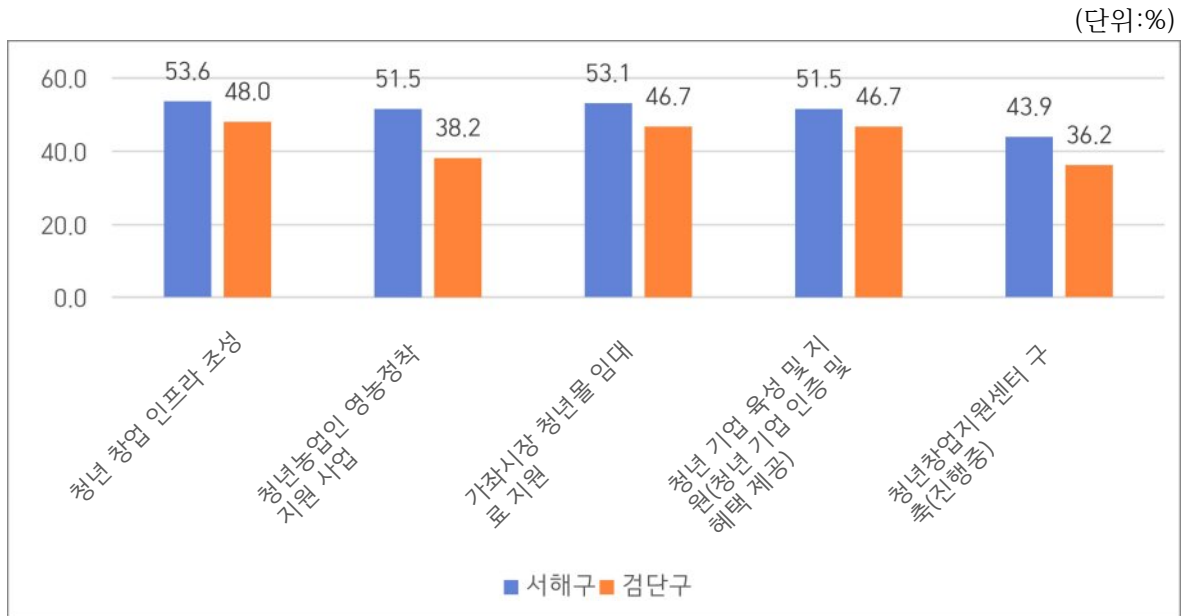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창업자금 저리대출지원	66	75.9
자금 지원 시, 자부담금 부담 완화	57	65.5
창업공간, 시설 지원	25	28.7
산업별 맞춤형 창업지원	9	10.3
창업지원센터 등 종합적 지원 체계마련	8	9.2
창업자 간 교류기회확대	4	4.6
창업 선후배 간 멘토-멘티제도운영	3	3.4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창업/자영업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도 지역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해구 지역은 맞춤형 창업지원을 중요하게 보았고, 검단 지역은 창업지원센터 등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창업자금 저리 대출 지원	75.9	75.5	76.3
자금 지원 시, 자부담금 부담 완화	65.5	67.3	63.2
창업공간, 시설 지원	28.7	26.5	31.6
산업별 맞춤형 창업 지원	10.3	16.3	2.6
창업지원센터 등 종합적 지원 체계마련	9.2	6.1	13.2
창업자 간 교류 기회 확대	4.6	4.1	5.3
창업 선후배 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3.4	4.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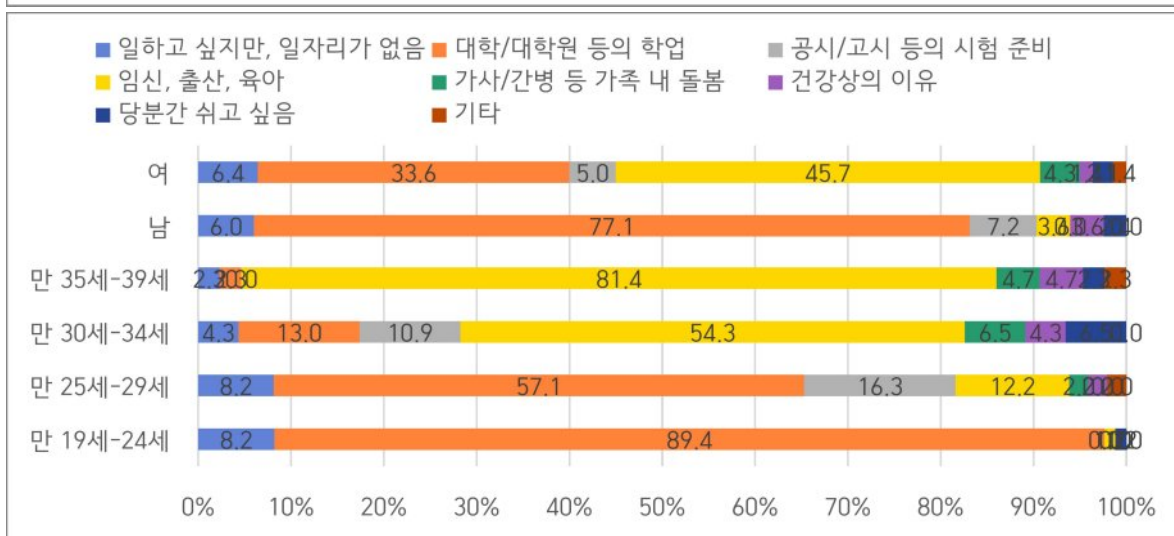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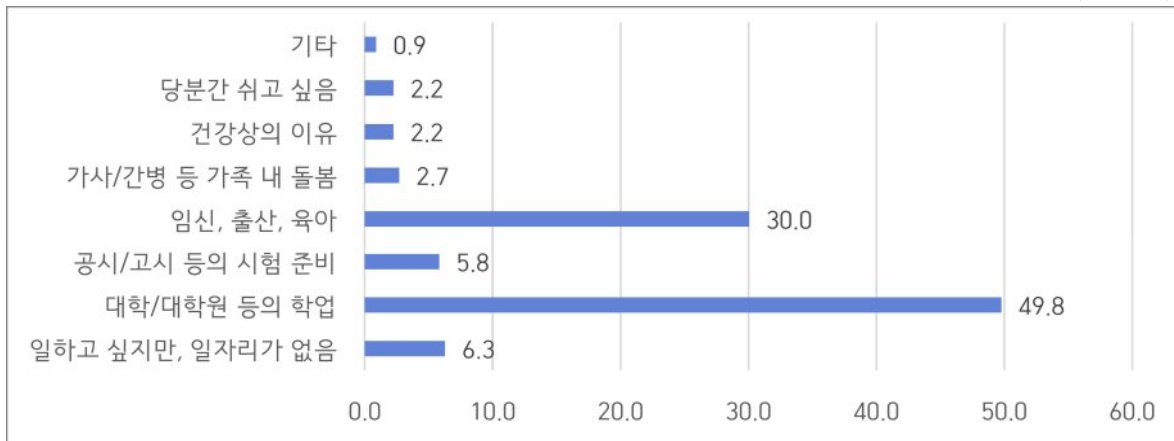
지역별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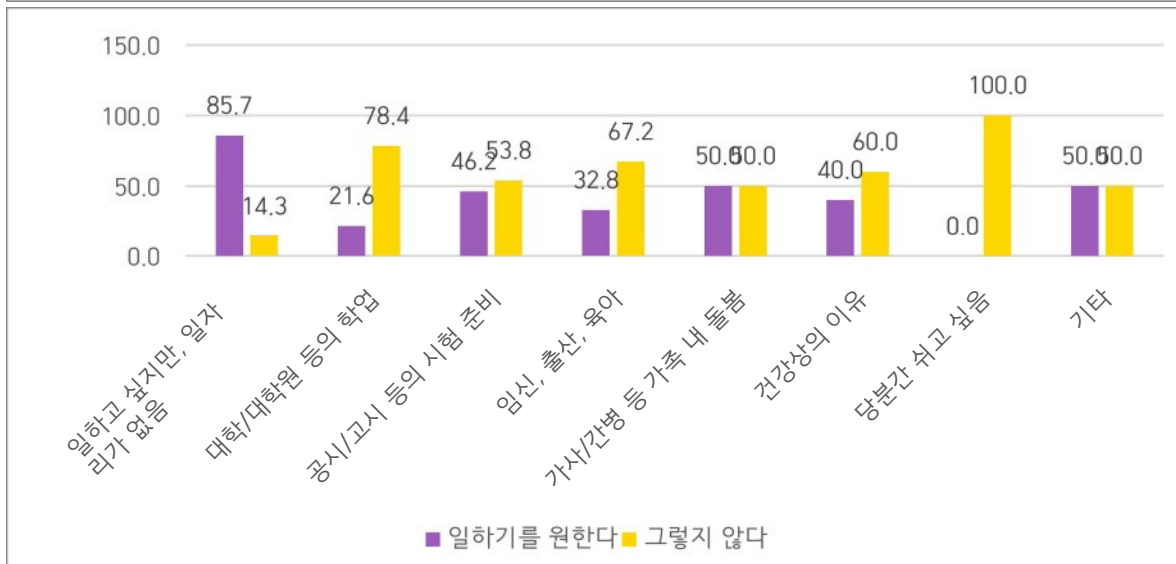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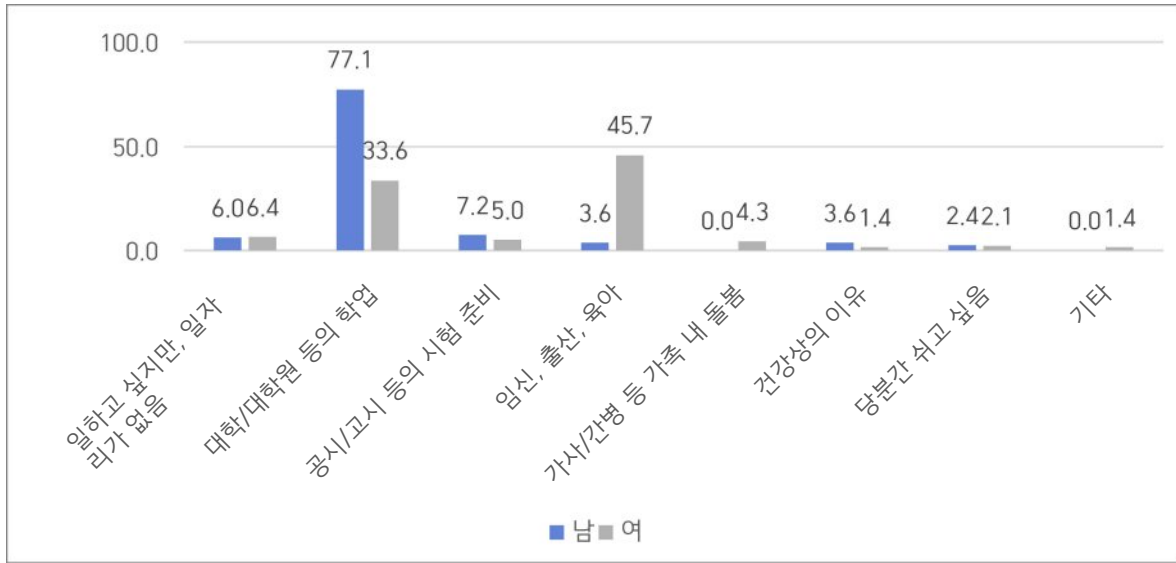
마. 비취업자/취업준비자 현황

1) 지난 일주일 간 일하지 않은 이유

- 응답자의 27.9%가 비취업자/취업준비자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이유 중 49.8%가 학업이고 다음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이 30%임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5~39세가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81.4%
-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20~29세까지는 약 8%, 30~34세는 4.3%, 35~39세는 2.3%임
- 30~34세 청년 중 6.5%가 ‘당분간 쉬고 싶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다른 연령대의 2% 내외보다 훨씬 높은 비율임
- 성별에 따라 보자면 남성들은 학업, 여성들은 임신/출산/육아가 가장 중요한 미취업이유로 나타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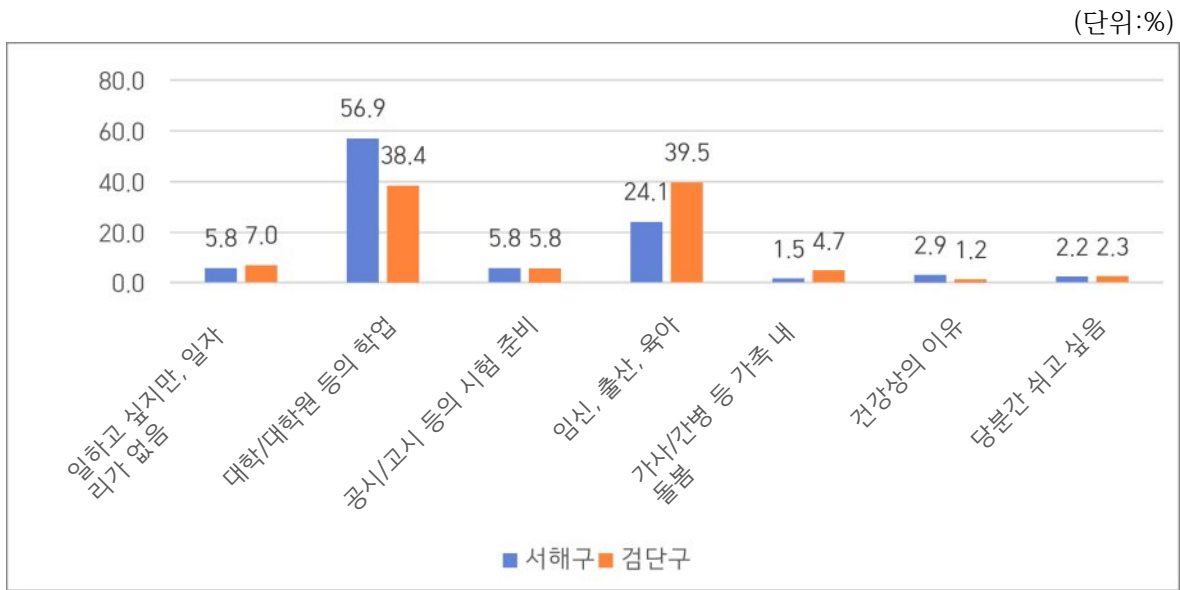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없음	14	6.3
대학/대학원 등의 학업	111	49.8
공시/고시 등의 시험준비	13	5.8
임신, 출산, 육아	67	30.0
가사/간병 등 가족내돌봄	6	2.7
건강상의 이유	5	2.2
당분간 쉬고싶음	5	2.2
기타	2	0.9

서구 청년의 비취업/미취업 사유

○ 지역별 비교 분석

- 서해구 지역은 대학/대학원 등의 학업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56.9%
- 검단 지역은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9.5%로 가장 높았음
- 이는 검단 지역에 기혼 청년이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검단구 기혼 청년 42.5%/서해구 32.9%)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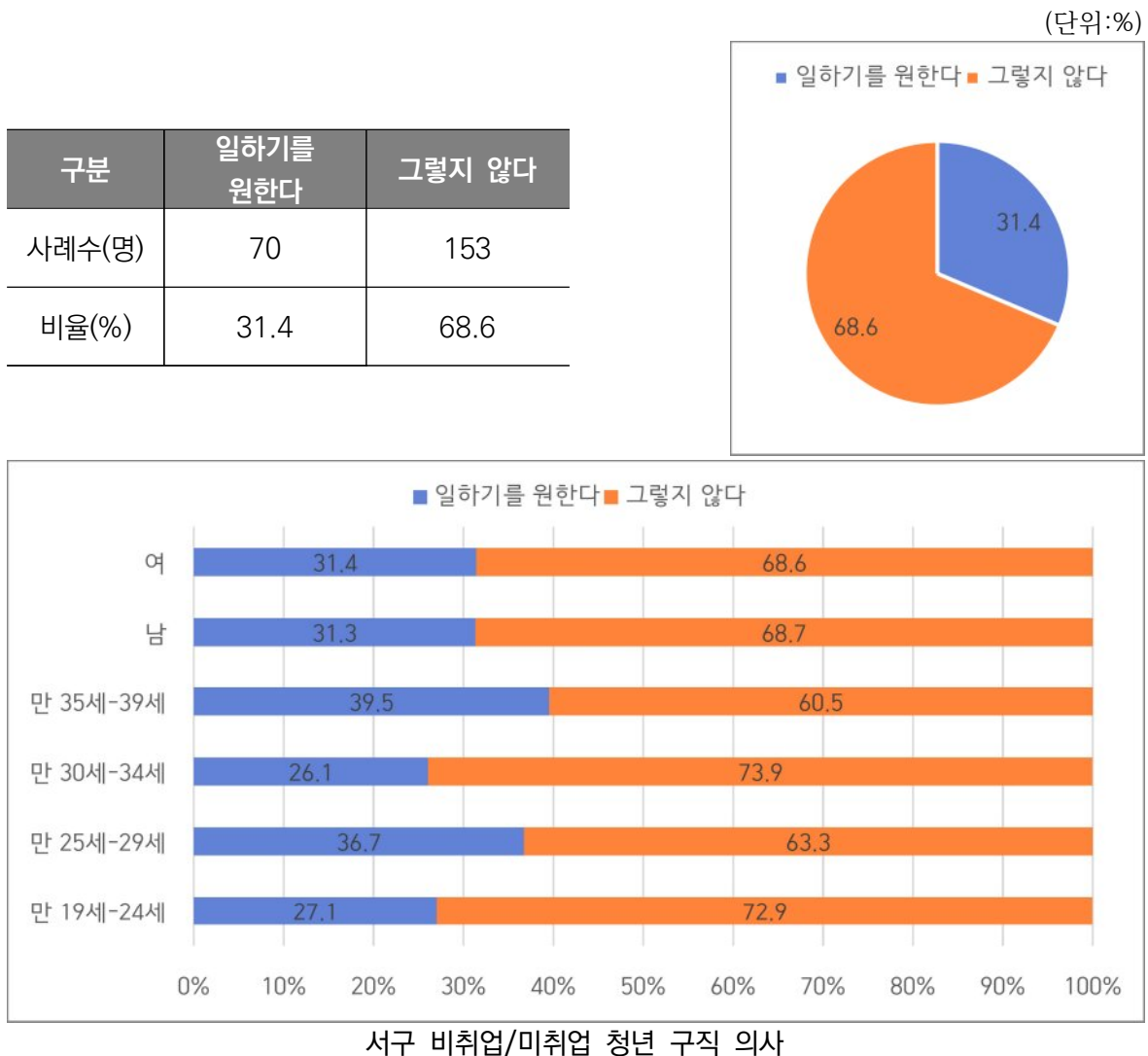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223	137	86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음	6.3	5.8	7.0
대학/대학원 등의 학업	49.8	56.9	38.4
공시/고시 등의 시험 준비	5.8	5.8	5.8
임신, 출산, 육아	30.0	24.1	39.5
가사/간병 등 가족 내 돌봄	2.7	1.5	4.7
건강상의 이유	2.2	2.9	1.2
당분간 쉬고 싶음	2.2	2.2	2.3
기타	0.9	0.7	1.2

지역별 서구 청년의 비취업/미취업 사유

2) 구직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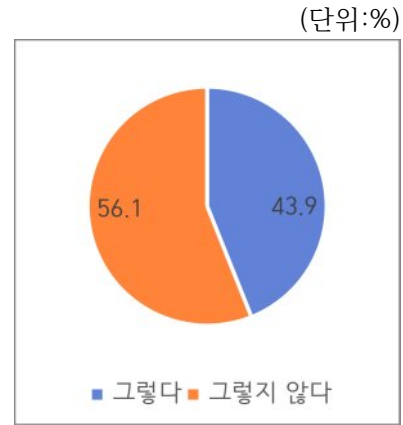
- 서구 비취업/취업준비자 청년들의 구직의사는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이 31.4%임
-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6%인 이유는 청년들의 비취업/취업준비 이유가 주로 학업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구직 의사를 살펴보면 임신,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청년 중 32.8%가 취업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가족돌봄을 위해 쉬고 있는 청년들도 50%가 구직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3) 지난 1주간 학교, 취업교육·진로계획 목적의 학원(기관) 통학 여부

- 서구의 비취업/미취업 청년 중 지난 1주간 학교, 취업교육, 진로계획 목적의 학원(기관)을 통학하지 않은 청년이 56.1%로, 다닌 청년보다 많았음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례수(명)	98	125
비율(%)	43.9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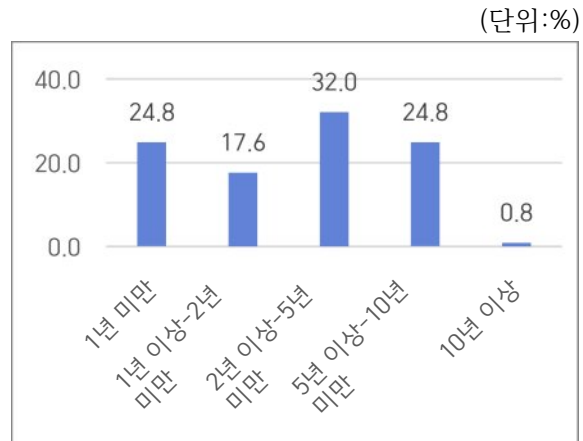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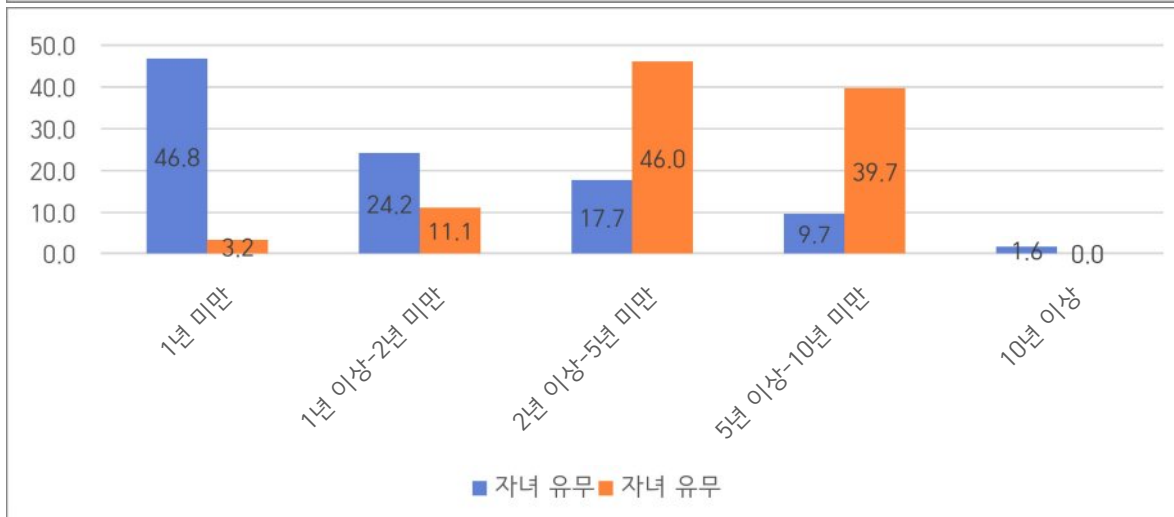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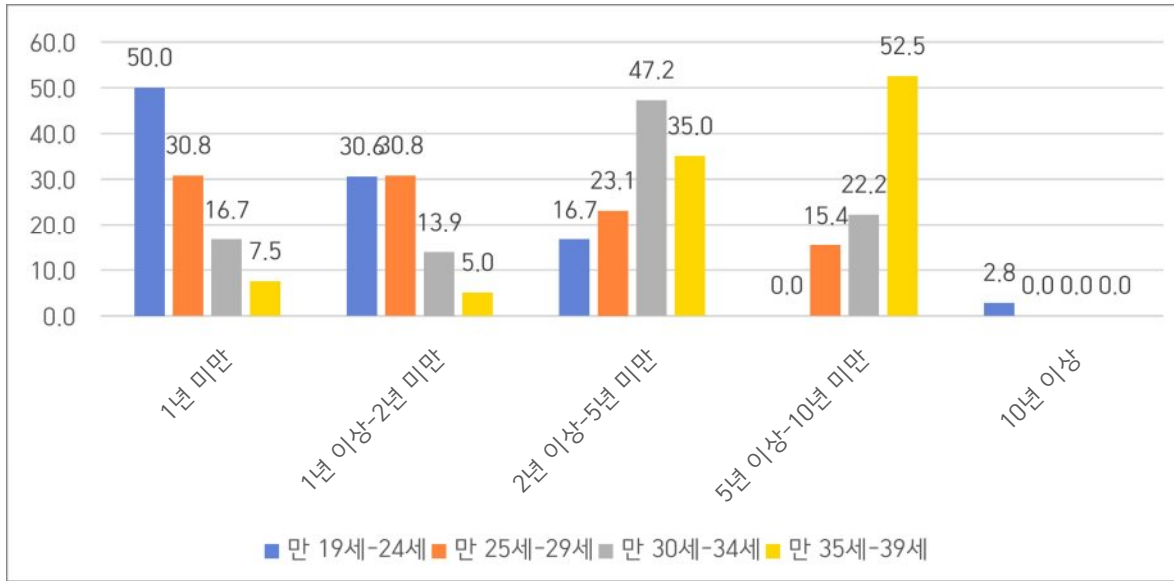
서구 청년이 취업, 진로를 위한 기관 통학 여부

4) 지난 1주간 학교, 취업교육·진로계획 목적의 학원(기관) 통학을 하지 않은 기간

- 비취업/미취업 청년 중 지난 1주 간 취업·구직 또는 학업에 관련된 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 다시 비취업/미취업이었던 기간을 물었을 때 2년 이상~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라는 응답과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24.8%로 동일함
- 비취업/미취업 청년들은 상당수가 2년 이상 비취업/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5~39세가 가장 많았고 2년 이상~5년 미만은 30~34세, 1년 미만은 19~24세가 가장 많았음
- 반면 자녀 유무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청년일수록 비취업/미취업 기간이 길었음

구분	사례수(명)	비율(%)
1년 미만	31	24.8
1년 이상-2년 미만	22	17.6
2년 이상-5년 미만	40	32.0
5년 이상-10년 미만	31	24.8
10년 이상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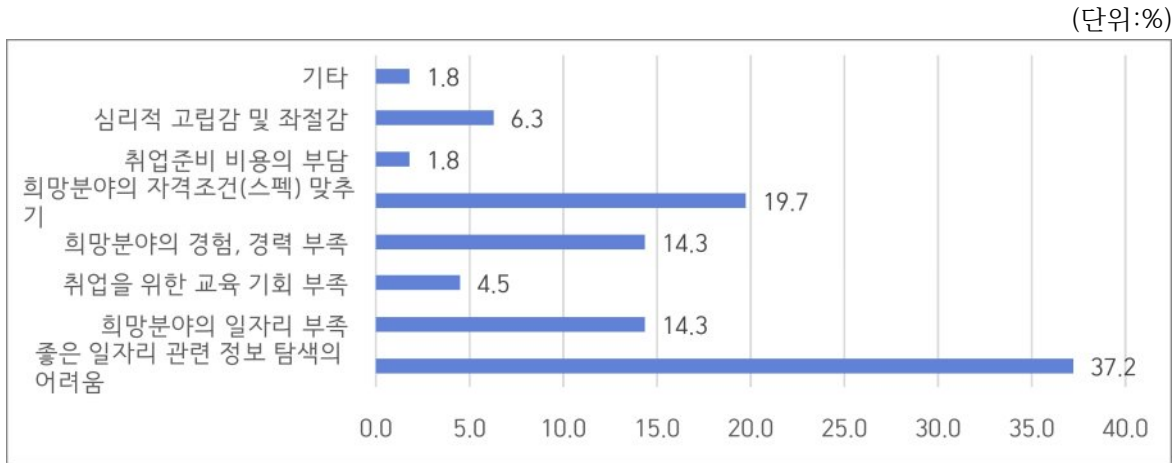




서구 청년이 취업, 진로를 위한 기관을 다니지 않은 기간

5) 구직·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 서구의 비취업자/취업준비자들 중 37.2%가 구직·취업 준비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관련 정보 탐색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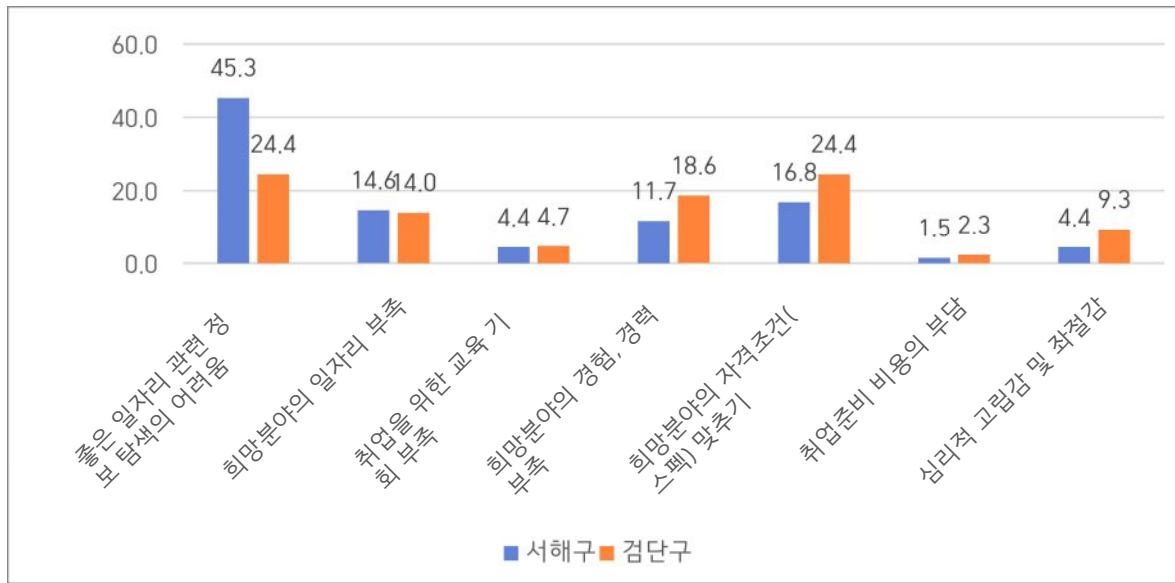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좋은 일자리 관련 정보 탐색의 어려움	83	37.2
희망분야의 일자리 부족	32	14.3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부족	10	4.5
희망분야의 경험, 경력부족	32	14.3
희망분야의 자격조건(스펙)맞추기	44	19.7
취업준비 비용의 부담	4	1.8
심리적 고립감 및 좌절감	14	6.3
기타	4	1.8

서구 청년이 구직·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유형

○ 지역별 비교 분석

-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한 확률이 45.3%로 검단 지역의 24.4%보다 높았음
- 반면 검단 지역의 청년들은 스펙과 경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4.4%로 서해구 지역의 16.8%보다 높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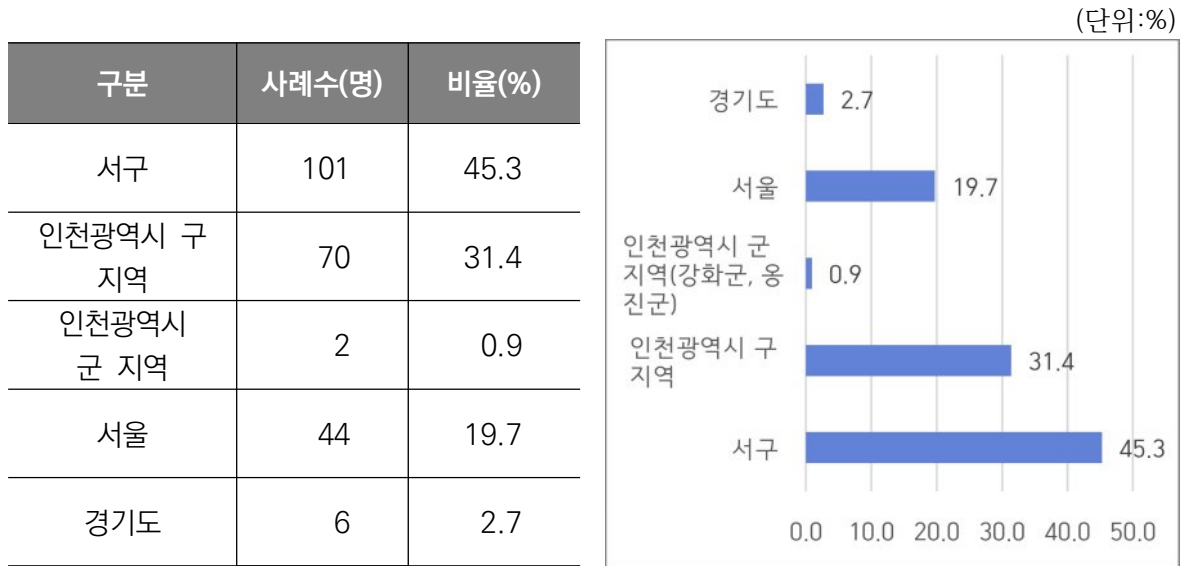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223	137	86
좋은 일자리 관련 정보 탐색의 어려움	37.2	45.3	24.4
희망분야의 일자리 부족	14.3	14.6	14.0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 부족	4.5	4.4	4.7
희망분야의 경험, 경력 부족	14.3	11.7	18.6
희망분야의 자격조건(스펙) 맞추기	19.7	16.8	24.4
취업준비 비용의 부담	1.8	1.5	2.3
심리적 고립감 및 좌절감	6.3	4.4	9.3
기타	1.8	1.5	2.3

지역별 서구 청년들이 구직·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유형

6)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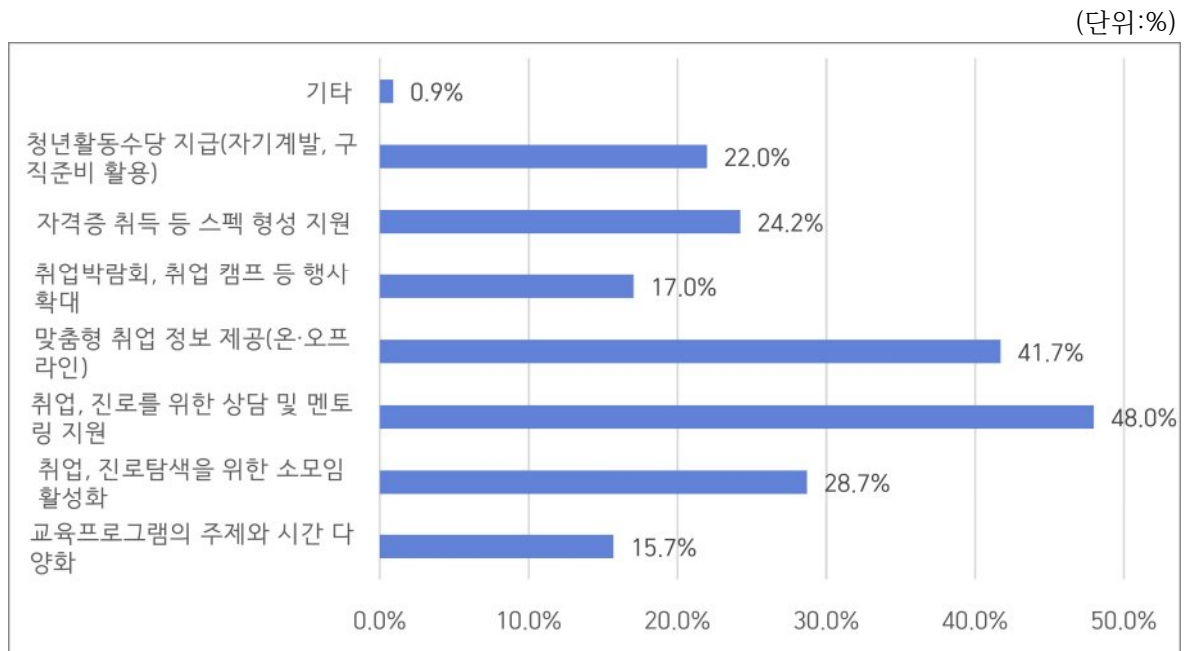
- 서구 청년들은 앞으로 서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 인천광역시의 다른 구 지역이 31.4%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서구를 포함한 인천 내에서 직장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음



서구 청년들이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지역

7) 취업준비 청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비취업/취업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업,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 지원이 48%로 가장 높았고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이 41.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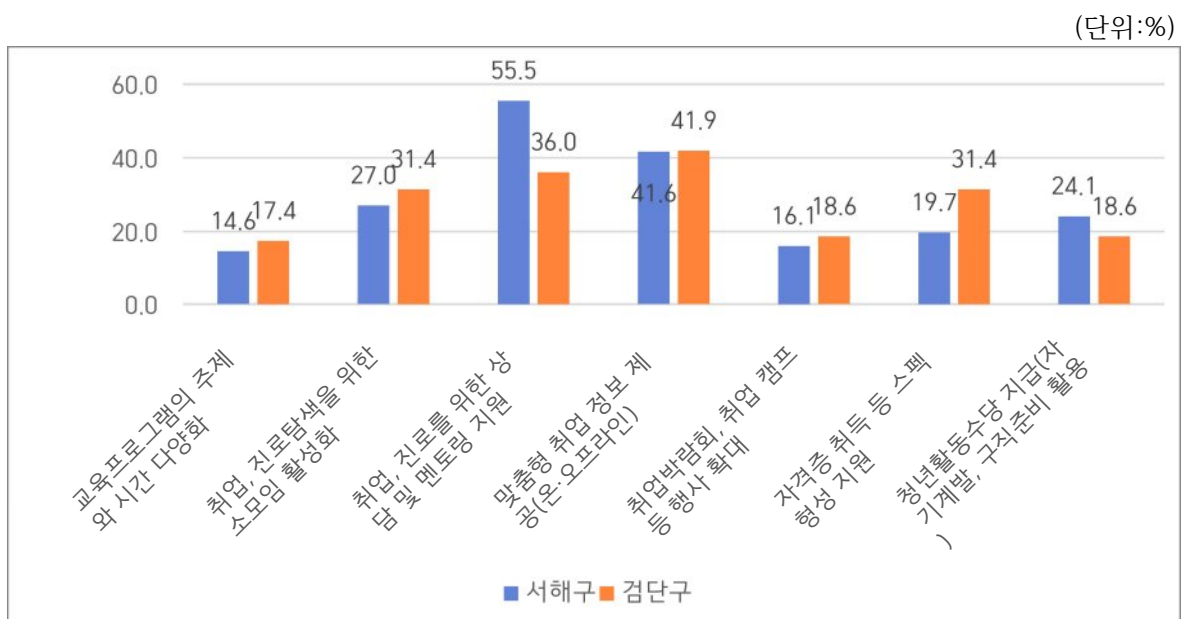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시간다양화	35	15.7
취업, 진로탐색을 위한 소모임활성화	64	28.7
취업, 진로를 위한 상담및멘토링지원	107	48.0
맞춤형 취업정보제공 (온·오프라인)	93	41.7
취업박람회, 취업캠프등 행사확대	38	17.0
자격증 취득 등 스펙형성지원	54	24.2
청년활동수당 지급 (자기계발,구직준비활용)	49	22.0
기타	2	0.9

서구 취업준비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서해구 지역 청년은 취업, 진로를 위한 상담 및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5%로 가장 높았음
- 반면 검단 지역 청년들은 맞춤형 취업정보에 대한 수요가 41.9%로 서해구 지역 청년들의 수요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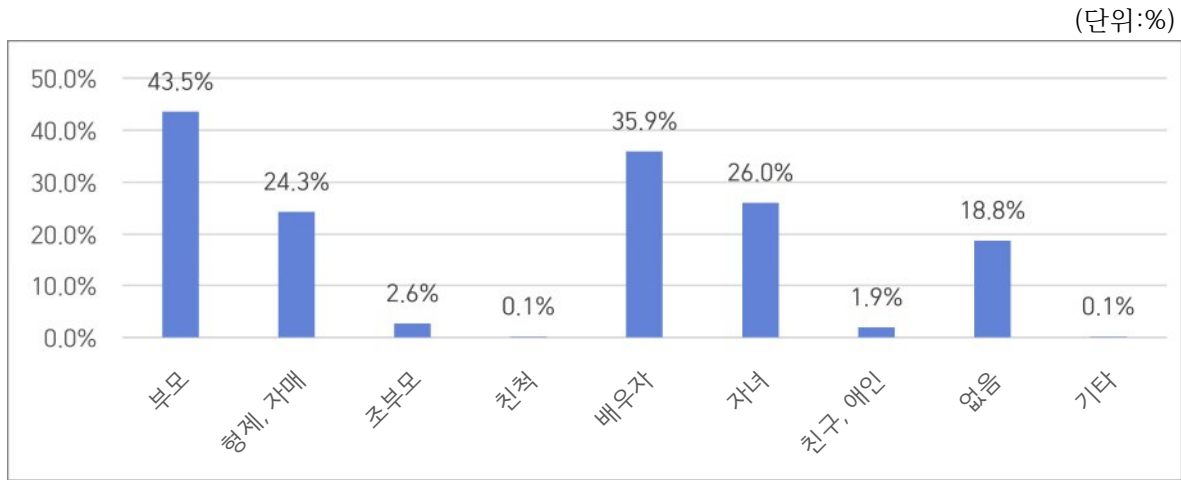
구분	전체(명)	서해구(명)	검단구(명)
사례수	223	137	86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시간 다양화	15.7	14.6	17.4
취업, 진로탐색을 위한 소모임 활성화	28.7	27.0	31.4
취업, 진로를 위한 상담 및 멘토링 지원	48.0	55.5	36.0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온·오프라인)	41.7	41.6	41.9
취업박람회, 취업 캠프 등 행사 확대	17.0	16.1	18.6
자격증 취득 등 스펙 형성 지원	24.2	19.7	31.4
청년활동수당 지급(자기계발, 구직준비 활용)	22.0	24.1	18.6
기타	0.9	0.0	2.3

지역별 취업준비 청년 구직 정책 수요

바. 주거

1) 현재 살고 있는 구성원(복수응답)

- 서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43.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배우자 35.9%, 자녀가 2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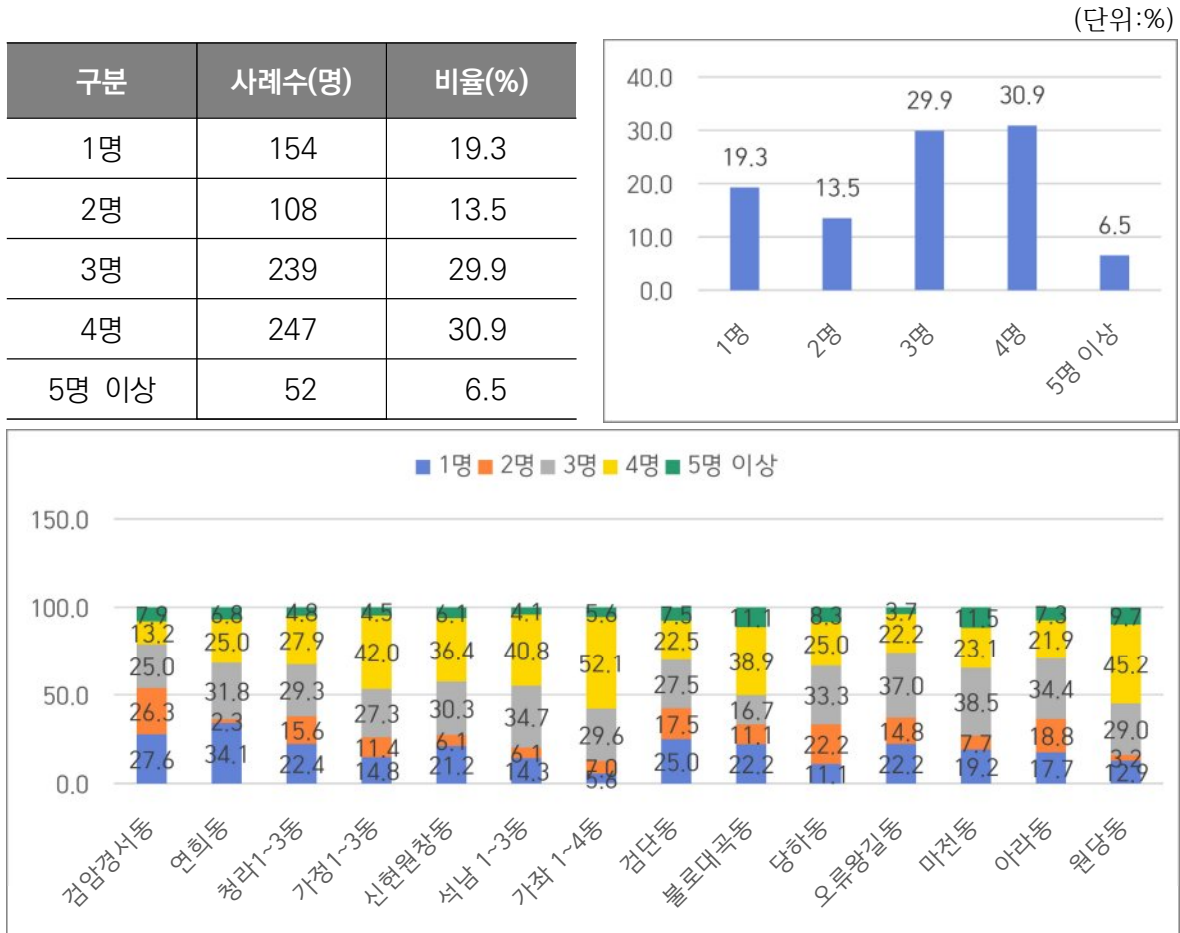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빈도(%)
부모	348	43.5
형제, 자매	194	24.3
조부모	21	2.6
친척	1	0.1
배우자	287	35.9
자녀	208	26.0
친구, 애인	15	1.9
없음	150	18.8
기타	1	0.1

서구 청년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2) 본인 포함 가구 구성원 수

- 지역별로 살펴 보면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희동으로, 연희동에 거주하는 청년 중 34.1%가 1인가구라고 응답
- 반면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가좌동으로, 가좌동에 거주하는 청년 중 87.3%가 3인 이상의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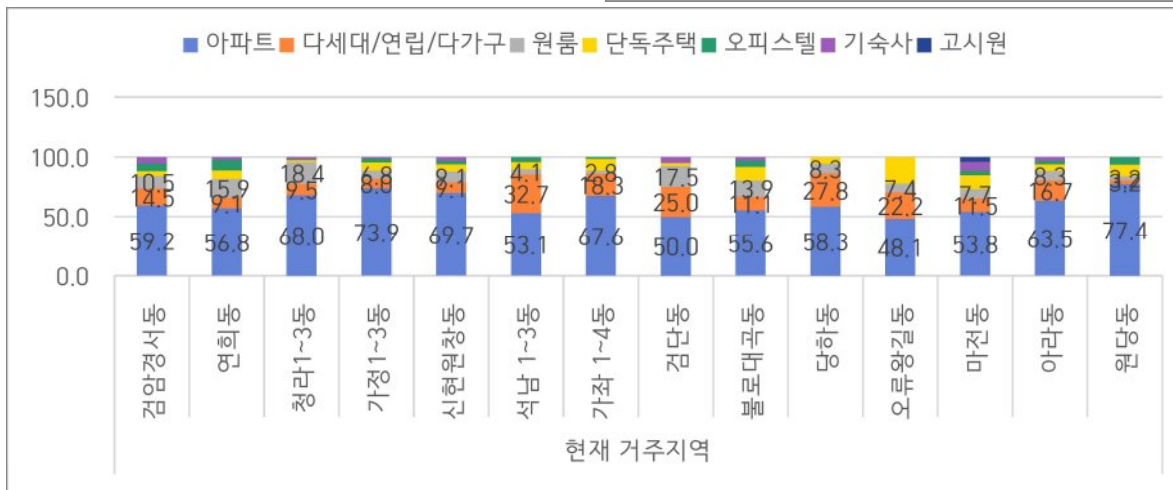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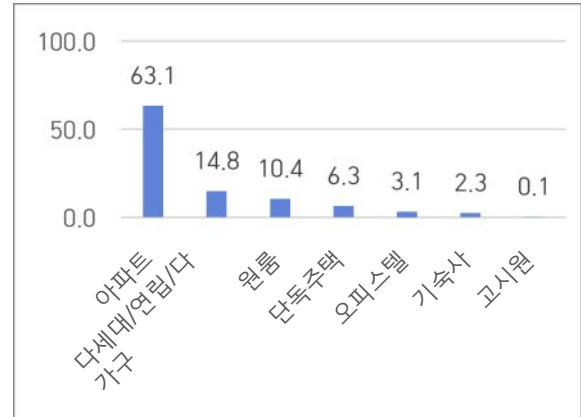


3)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

- 서구 청년들은 63.1%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지역별로 청년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다세대/연립/다가구에 사는 청년 비율은 석남동이 32.7%로 가장 많고, 원룸에 사는 청년은 청라동이 18.4%로 가장 높음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아파트	505	63.1
다세대/연립/다가구	118	14.8
원룸	83	10.4
단독주택	50	6.3
오피스텔	25	3.1
기숙사	18	2.3
고시원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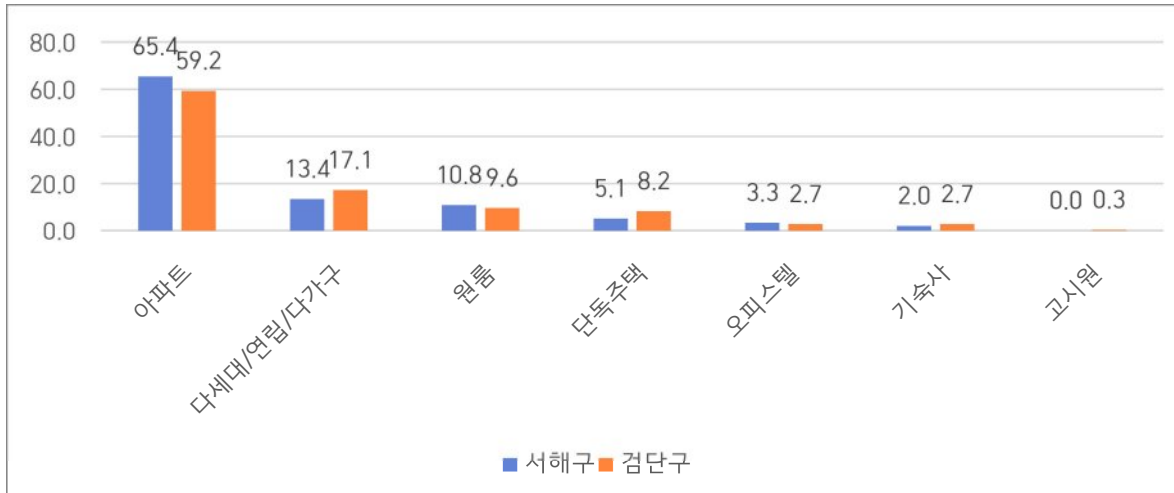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주거 형태

○ 지역별 비교 분석

- 지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검단 지역이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소 많은 편이고 서해구 지역은 아파트, 원룸이 다소 많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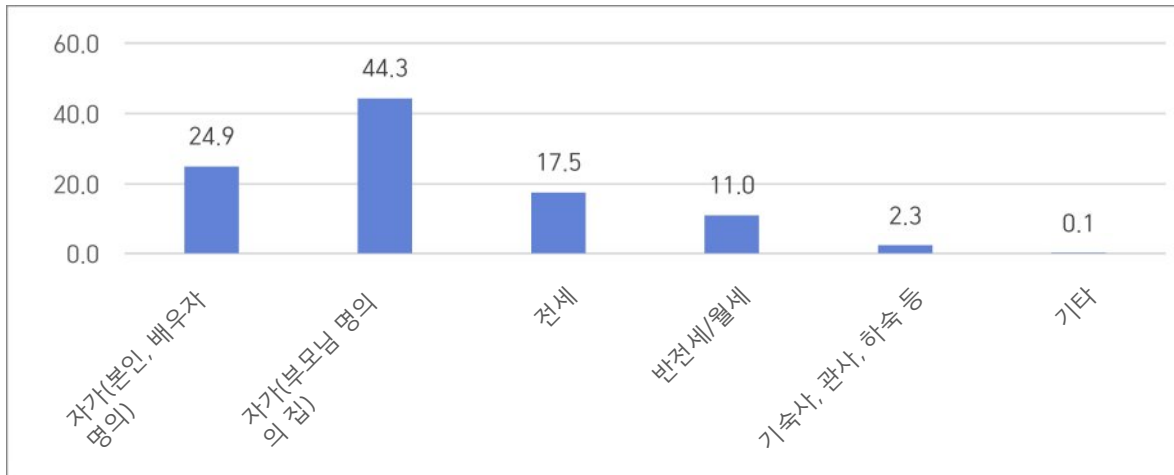


지역별 청년 거주 형태 유형

4) 거주하는 공간의 점유 형태

- 점유형태로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는 응답이 44.3%, 자가가 24.9%로 나타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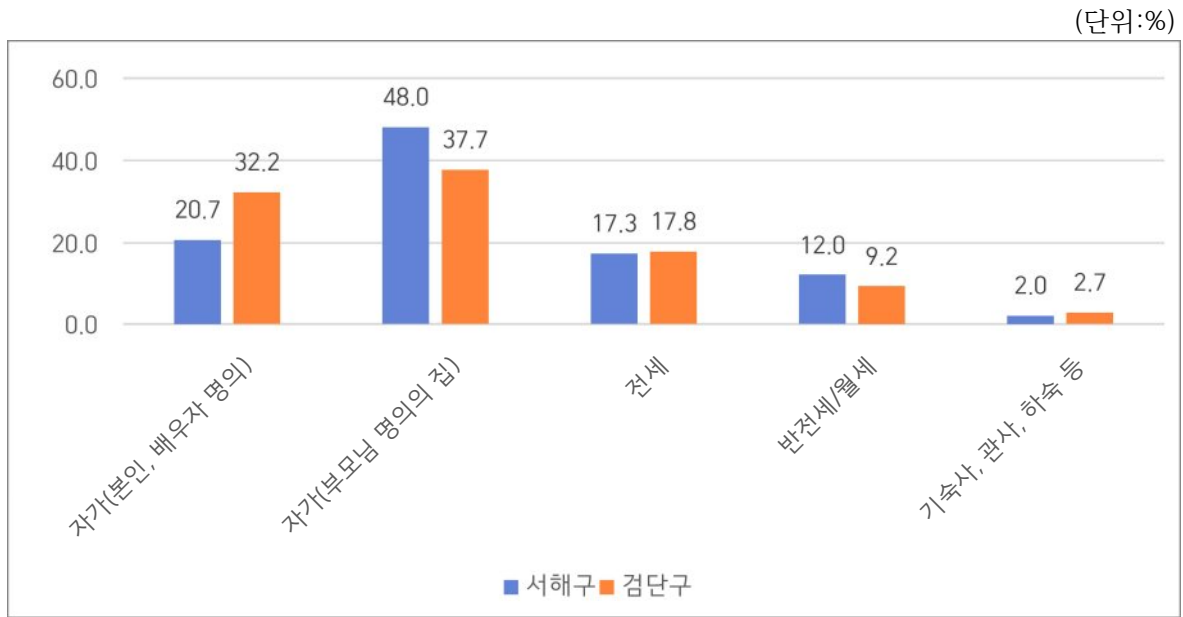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기(본인, 배우자 명의)	199	24.9
자기(부모님 명의의 집)	354	44.3
전세	140	17.5
반전세/월세	88	11.0
기숙사, 관사, 하숙 등	18	2.3
기타	1	0.1

서구 청년의 거주 공간 점유 형태

○ 지역별 비교 분석

-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48%로 가장 높았음
- 검단 지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32.2%로 서해구 지역의 20.7%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단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기혼인 경우가 10% 이상 높기 때문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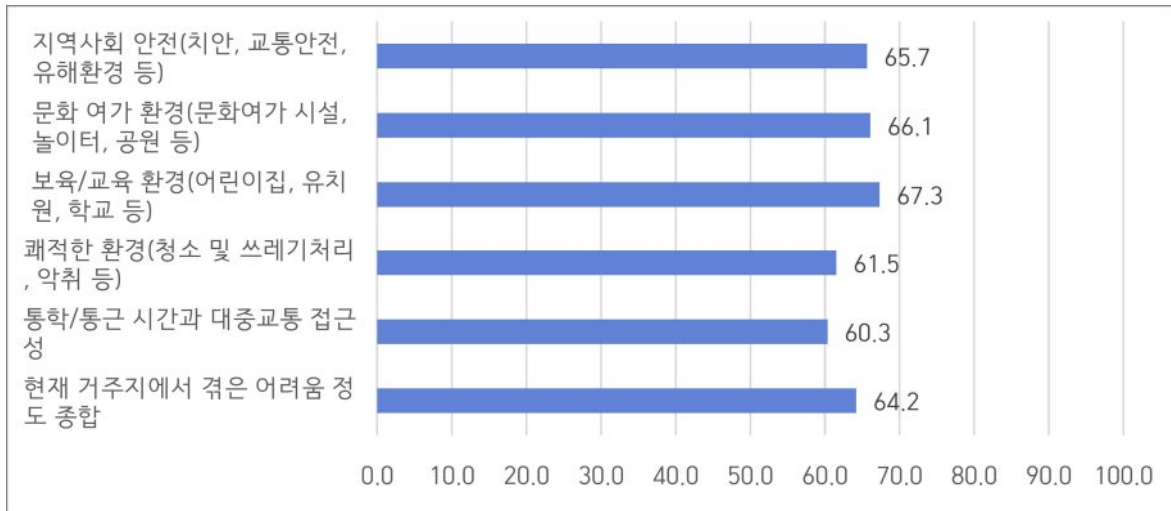
구분	서해구	검단구
자가(본인, 배우자 명의)	20.7	32.2
자가(부모님 명의의 집)	48.0	37.7
전세	17.3	17.8
반전세/월세	12.0	9.2
기숙사, 관사, 하숙 등	2.0	2.7
기타	0.0	0.3

지역별 청년들의 거주 공간 점유 형태

5)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 서구의 청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6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음
- 다만 통학/통근시간과 대중교통 접근성, 청소 등 쾌적한 환경 부분에서는 다소 어렵다 평가한 경우가 많았고, 보육/교육 환경과 치안 등 지역사회 안전 영역에서는 매우 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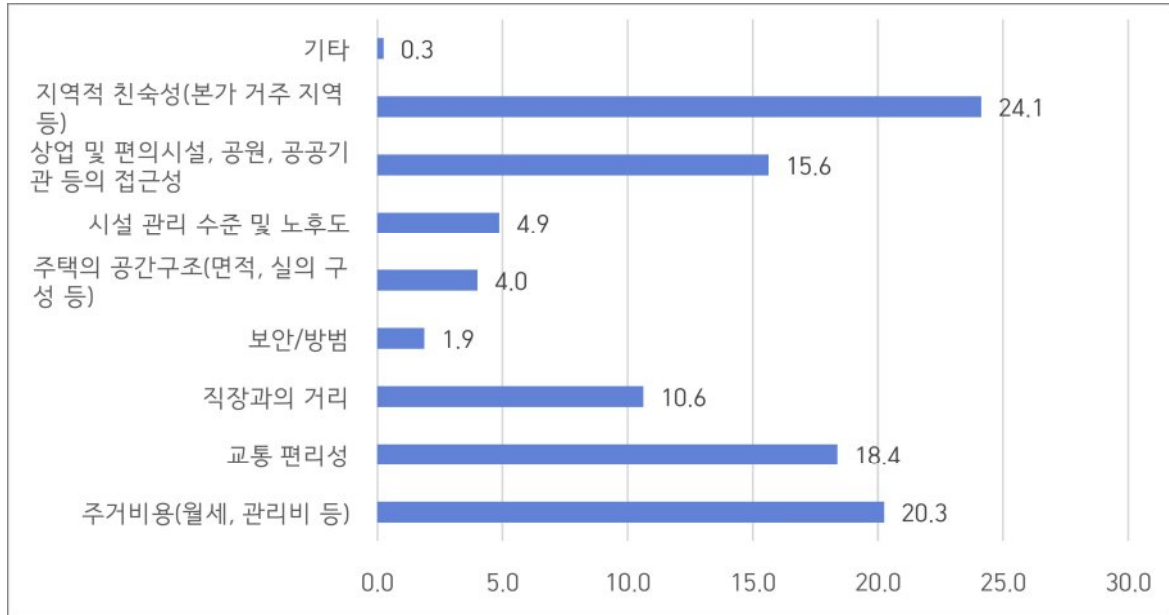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편함	매우 편함
통학/통근 시간과 대중교통 접근성	0.5	11.4	38.6	45.3	4.3
쾌적한 환경 (청소 및 쓰레기처리, 악취 등)	0.3	8.9	40.0	46.3	4.6
보육/교육 환경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0.0	4.1	38.6	41.0	16.3
문화 여가 환경 (문화여가 시설, 놀이터, 공원 등)	0.0	3.3	38.5	48.9	9.4
지역사회 안전 (치안,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0.8	5.1	35.9	47.3	11.0

서구 청년의 주거 환경 만족도

6)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

- 서구의 청년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지역적 친숙성을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주거비용과 교통편리성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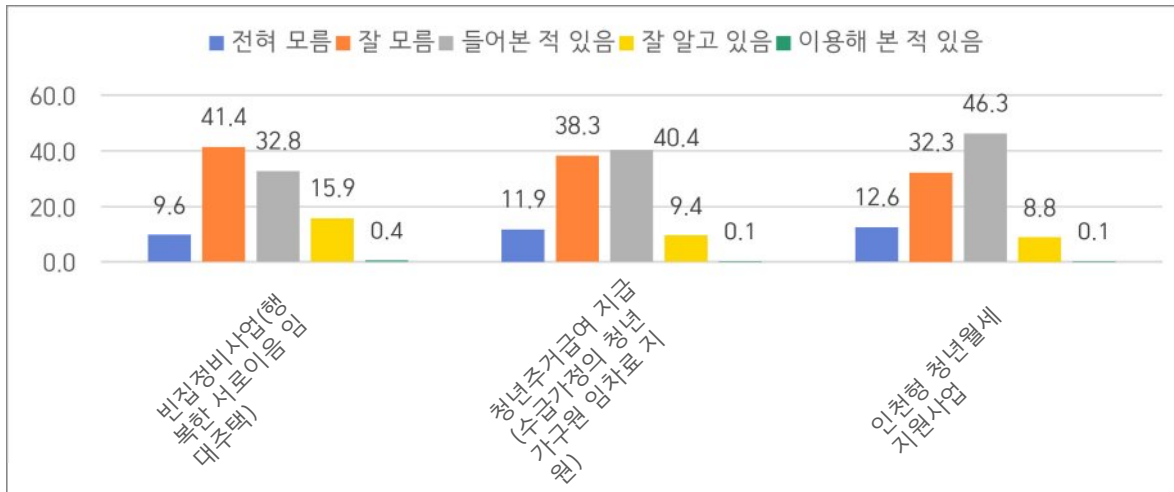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주거비용 (월세, 관리비 등)	162	20.3
교통 편리성	147	18.4
직장과의 거리	85	10.6
보안/방법	15	1.9
주택의 공간구조 (면적, 실의구성 등)	32	4.0
시설 관리 수준 및 노후도	39	4.9
상업 및 편의시설, 공원, 공공기관 등의 접근성	125	15.6
지역적 친숙성 (본가 거주지역 등)	193	24.1
기타	2	0.3

서구 청년의 거주지 선택 기준

7) 서구 주거 관련 청년정책 인지도

- 서구 청년들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49% 정도는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다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 청년주거급여지급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상당히 높았음
- 반면 이용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빈집정비사업이 0.4%, 15.9%로 다른 정책사업에 비해 비율이 높았음
- 인천형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들어본적 있는 청년이 46.3%인데 비해 이용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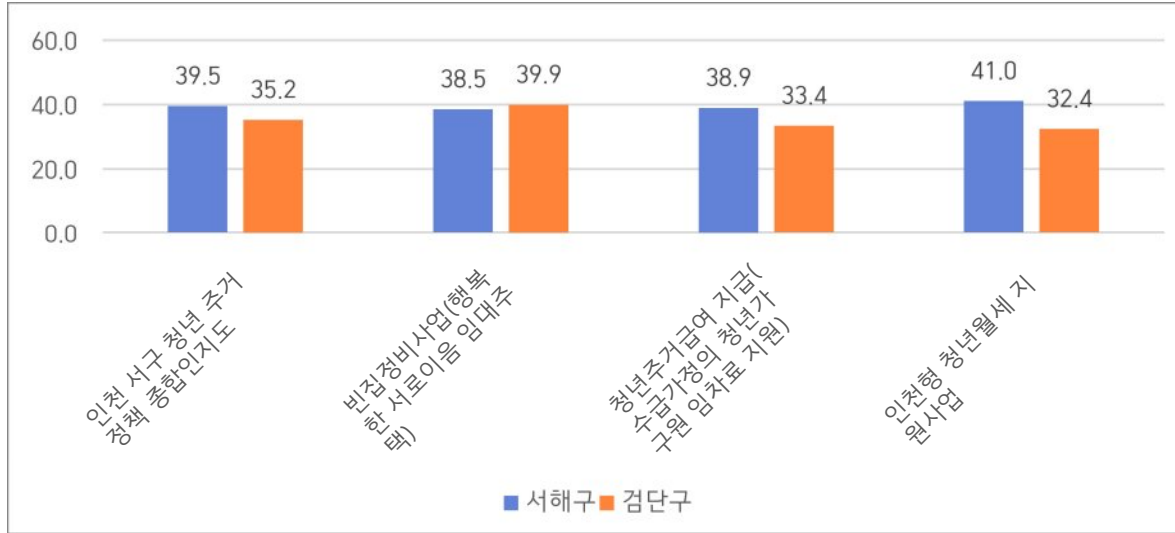
구분	빈집정비사업 (행복한서로이음 임대주택)	청년주거급여 지급 (수급가정의 청년가구원 임차료지원)	인천형 청년 월세지원사업
전혀 모름	9.6	11.9	12.6
잘 모름	41.4	38.3	32.3
들어본 적 있음	32.8	40.4	46.3
잘 알고 있음	15.9	9.4	8.8
이용해 본 적 있음	0.4	0.1	0.1

서구 청년의 주거 정책 인지도

○ 지역별 비교 분석

- 주거 관련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검단구가 조금 더 낮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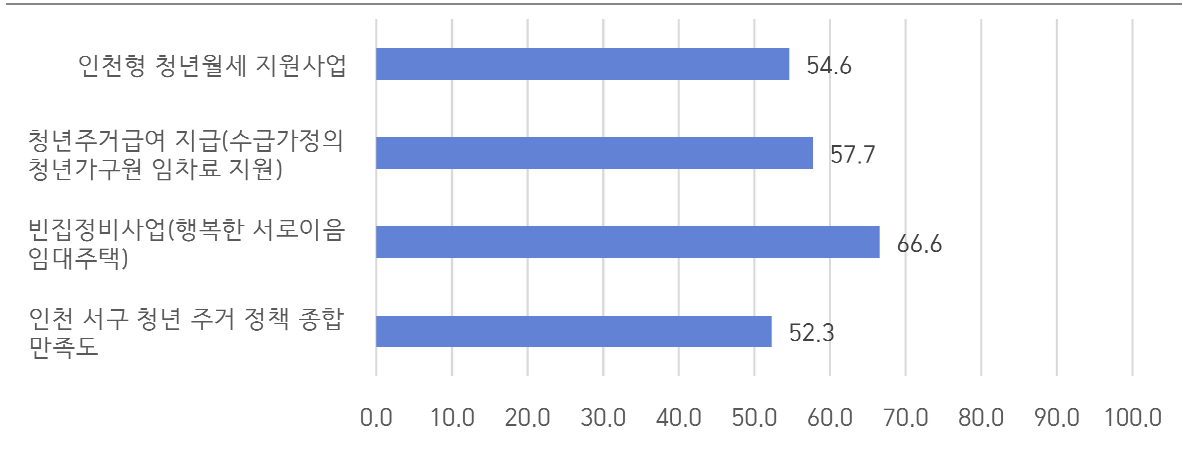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서해구	검단구
인천 서구 청년 주거 정책 종합인지도	37.9	39.5	35.2
빈집정비사업(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39.0	38.5	39.9
청년주거급여 지급(수급가정의 청년가구원 임차료 지원)	36.9	38.9	33.4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37.9	41.0	32.4

지역별 주거 관련 청년정책 인지도

8) 서구 주거 관련 청년정책 만족도

-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0점을 약간 넘긴 수준이지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66.6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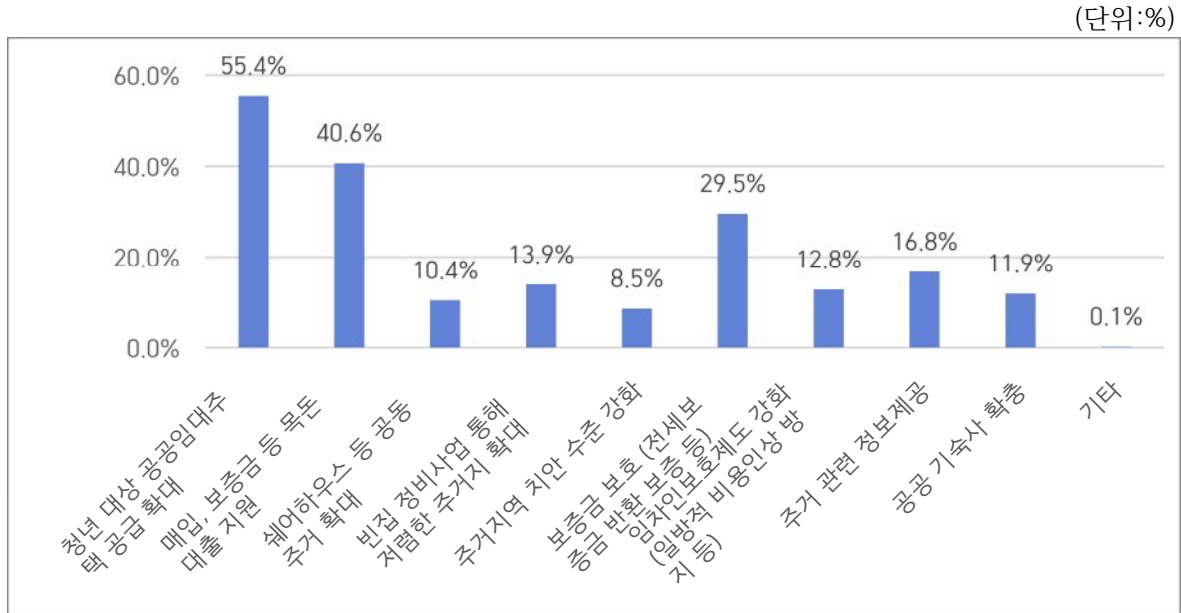


구분	빈집정비사업 (행복한서로이음 임대주택)	청년주거급여 지급 (수급가정의청년가구원 임차료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우 불만족	0.0	0.0	0.4
대체로 불만족	2.5	9.8	13.5
보통	41.3	54.3	58.6
대체로 만족	43.8	30.9	22.2
매우 만족	12.5	4.9	5.3

서구 청년 주거 관련 정책 만족도

9) 서구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

- 앞으로 서구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55.4%로 가장 많았고, 목돈 대출 지원도 40.6%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는 보증금 보호(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대한 수요가 29.5%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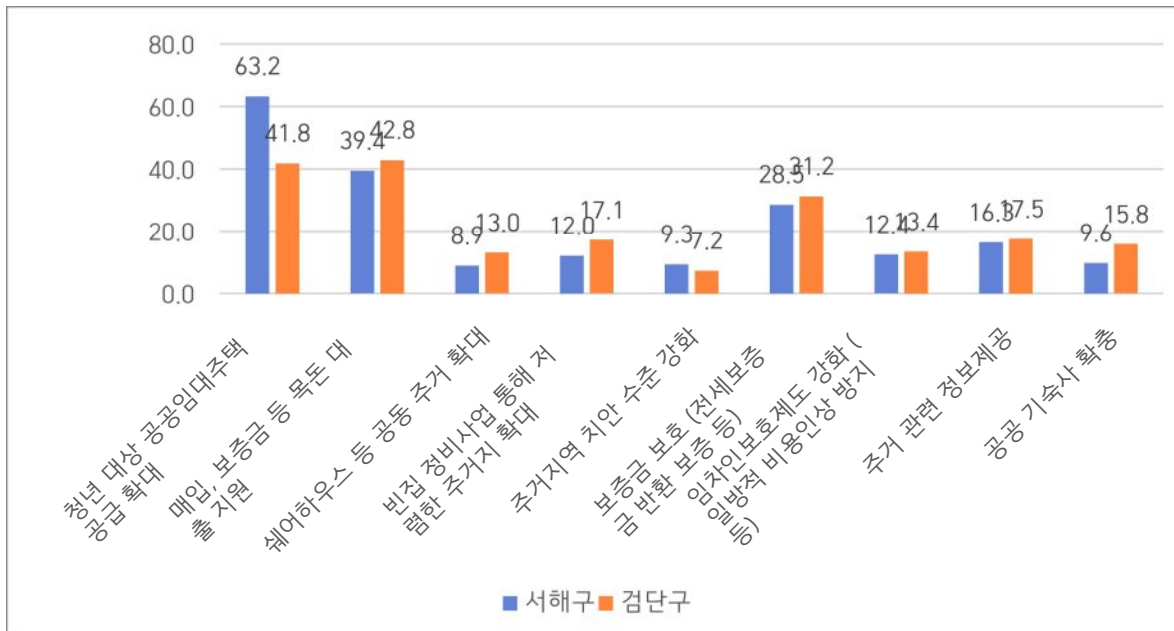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443	55.4
매입, 보증금 등 목돈대출지원	325	40.6
쉐어하우스 등 공동주거확대	83	10.4
빈집 정비사업 통해저렴한 주거지 확대	111	13.9
주거지역 치안수준 강화	68	8.5
보증금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등)	236	29.5
임차인보호제도 강화(일방적 비용 인상 방지등)	102	12.8
주거 관련 정보제공	134	16.8
공공 기숙사 확충	95	11.9
기타	1	0.1

서구 청년의 주거 관련 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서해구 지역 청년의 63.2%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검단 지역에서는 목돈 대출 지원에 대한 수요가 42.8%로 높았음
- 이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독립이 필요한 서해구 청년과 기혼 청년의 비중이 높은 검단구 지역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음

(단위:%)



구분	사례수(명)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800	508	292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5.4	63.2	41.8
매입, 보증금 등 목돈 대출 지원	40.6	39.4	42.8
쉐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 확대	10.4	8.9	13.0
빈집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거지 확대	13.9	12.0	17.1
주거지역 치안 수준 강화	8.5	9.3	7.2
보증금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	29.5	28.5	31.2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일방적 비용인상 방지 등)	12.8	12.4	13.4
주거 관련 정보제공	16.8	16.3	17.5
공공 기숙사 확충	11.9	9.6	15.8
기타	0.1	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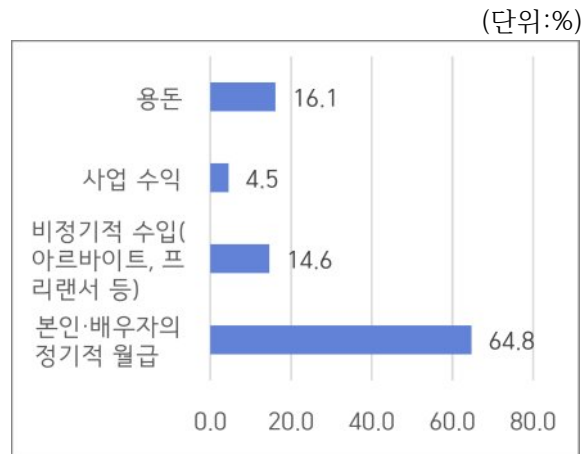
지역별 서구 청년의 주택 관련 정책 수요

사. 생활안정·복지

1) 주된 수입원

- 서구 청년들의 64.8%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정기적 월급이 주요 수입원임
- 그 외 용돈이 16.1%,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비정기적 수입이 14.6%임

구분	사례수(명)	비율(%)
본인·배우자의 정기적 월급	518	64.8
비정기적 수입(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117	14.6
사업 수익	36	4.5
용돈	129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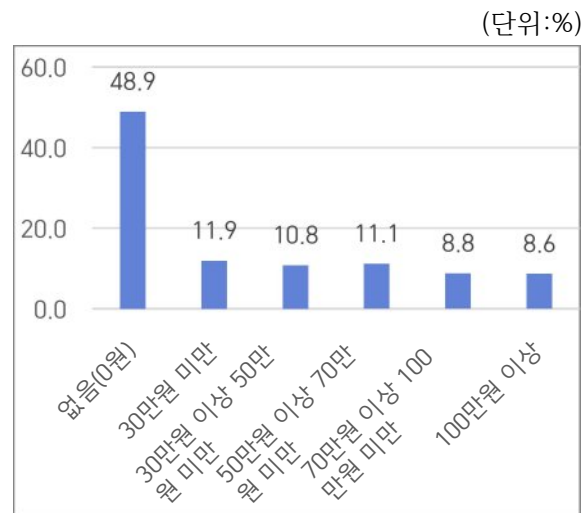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주된 수입원

2) 월 평균 주거비

- 서구 청년들의 주거 점유형태는 부모님 명의의 집과 자가인 경우가 많은 만큼 월 평균 주거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8.9%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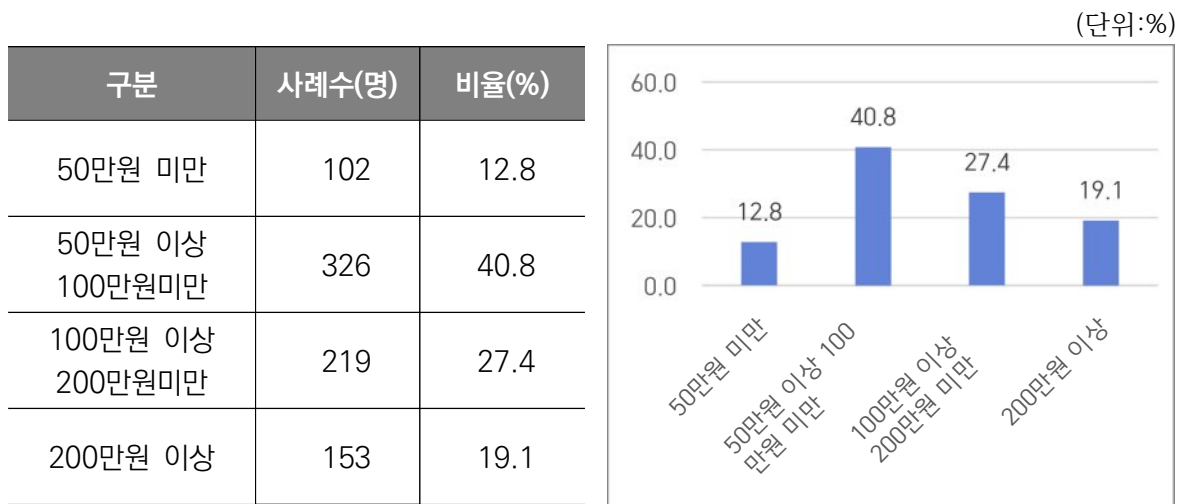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없음(0원)	391	48.9
30만원 미만	95	11.9
30만원 이상 50만원미만	86	10.8
50만원 이상 70만원미만	89	11.1
7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70	8.8
100만원 이상	69	8.6



서구 청년의 월 평균 주거비

3) 월 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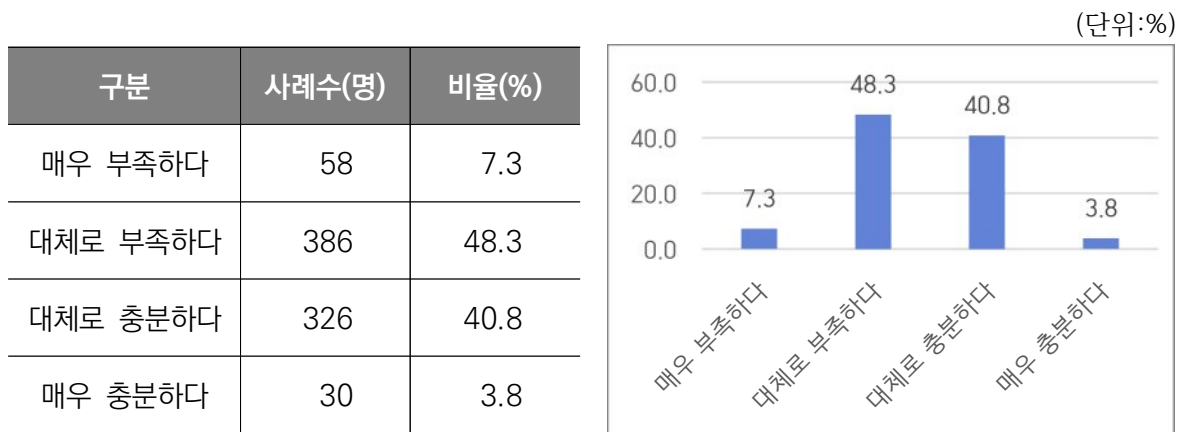
- 월 평균 생활비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0.8%로 가장 많았음



서구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

4) 월 소득 생활 유지 정도

- 월 소득만으로 생활유지를 하기에 대체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아 48.3%,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도 7.3%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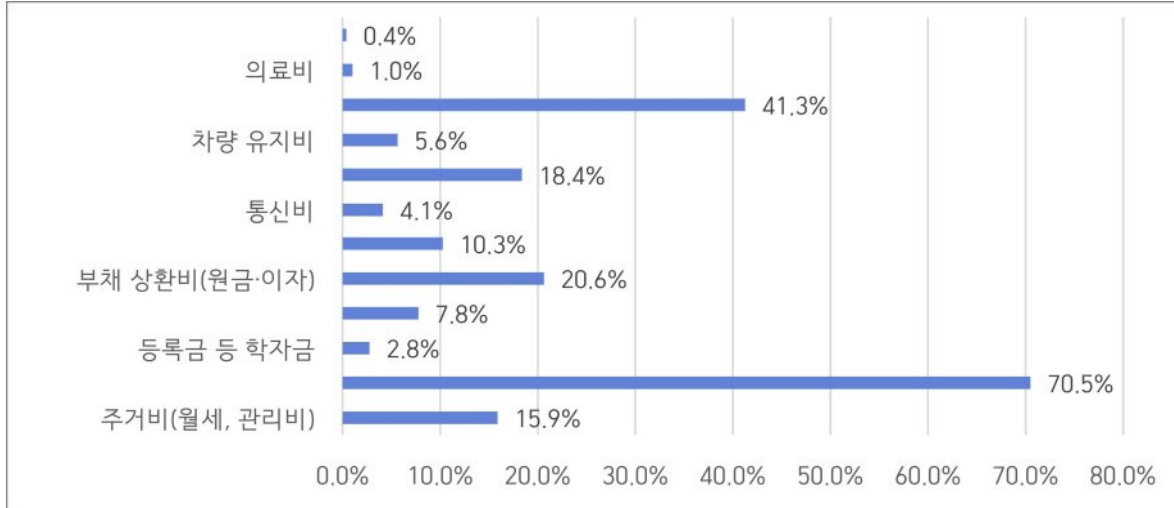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월 소득을 통한 생활 유지 정도

5) 월 지출액 중 지출 부담이 높은 것(복수응답)

- 월 지출액 중 지출부담이 가장 높은 항목은 생활비로 70.5%를 차지하였음
- 다음은 여가·문화비로 41.3%의 청년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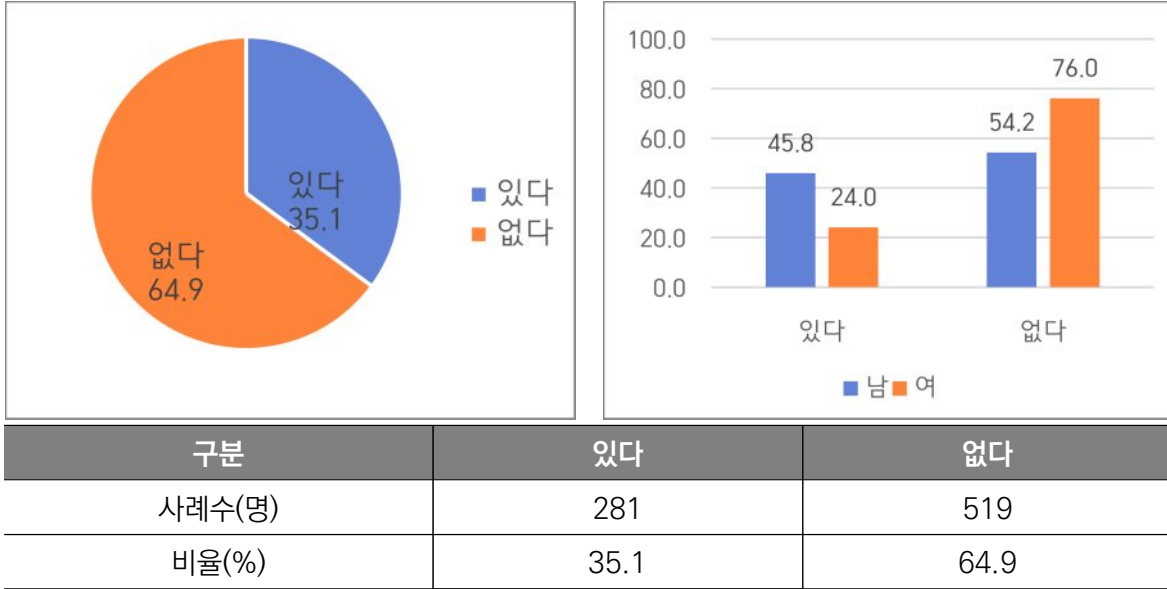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비 (월세,관리비)	127	15.9
생활비 (식비등)	564	70.5
등록금 등 학자금	22	2.8
교육·취업 준비비 (학원비등)	62	7.8
부채 상환비 (원금·이자)	165	20.6
교통비	82	10.3
통신비	33	4.1
자녀양육, 가족부양비	147	18.4
차량 유지비	45	5.6
여가·문화비	330	41.3
의료비	8	1.0
기타	3	0.4

서구 청년들에게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영역

6) 부채 유무

- 서구 청년 중 부채가 있는 청년은 35.1%
- 그 중 남성의 45.8%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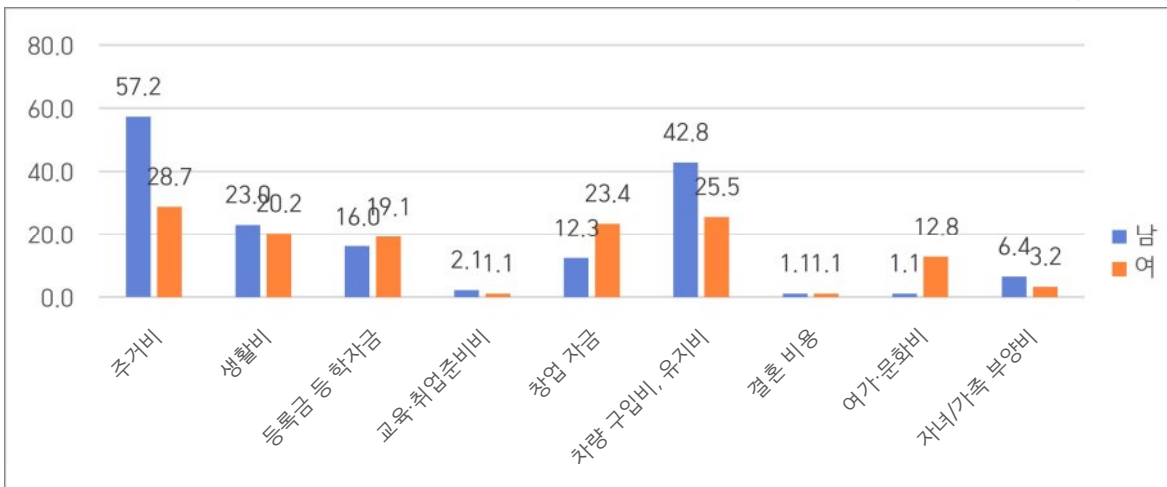


서구 청년 중 부채가 있는 청년 비율

7) 부채의 원인

- 부채의 원인은 주거비(주택구입비, 보증금)가 가장 많고, 남성은 차량 구입/유지비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반면 여성은 창업자금이 23.4%, 여가문화비가 12.8%로 남성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

(단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비 (주택구입비, 보증금)	134	47.7
생활	62	22.1
등록금 등 학자금	48	17.1
교육·취업 준비비 (학자금제외)	5	1.8
창업 자금	45	16.0
차량 구입비, 유지비	104	37.0
결혼 비용 (예단·혼수등)	3	1.1
여가·문화비	14	5.0
자녀 양육비, 가족부양비	1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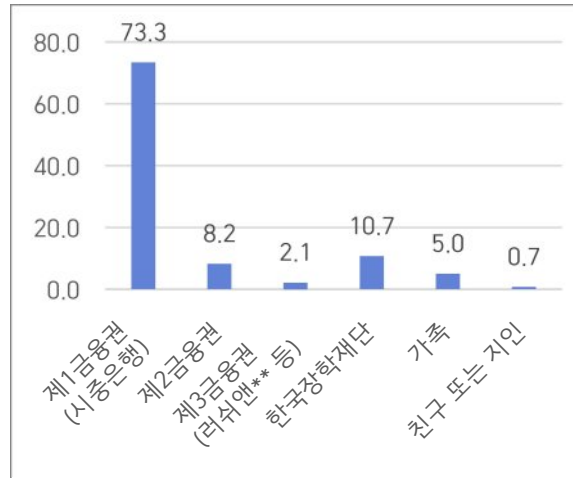
서구 청년들의 부채 원인

8) 서구 청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빌린 기관

- 서구 청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빌린 곳은 제1금융권으로 73.3%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10.7%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제1금융권 (시중은행)	206	73.3
제2금융권 (현금서비스, 보험회사,저축은행등)	23	8.2
제3금융권 (러쉬앤**등)	6	2.1
한국장학재단	30	10.7
가족	14	5.0
친구 또는 지인	2	0.7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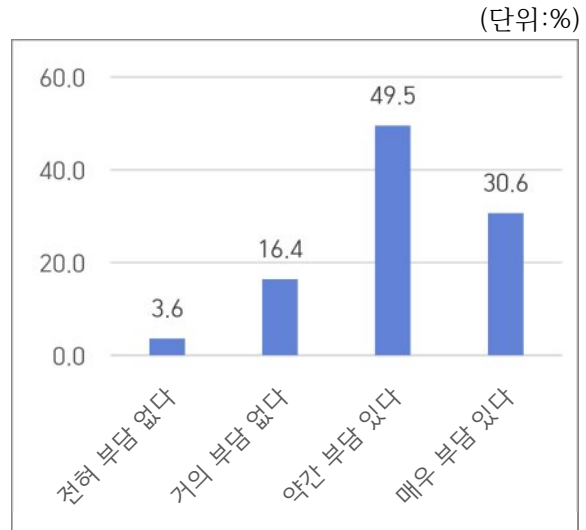


서구 청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빌린 기관

9) 부채로 인한 부담 정도

- 서구 청년들 중 과반수에 가까운 49.5%가 부채로 인한 부담을 다소 느끼고 있음
- 특히 30.6%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혀 부담 없다	10	3.6
거의 부담 없다	46	16.4
약간 부담 있다	139	49.5
매우 부담 있다	86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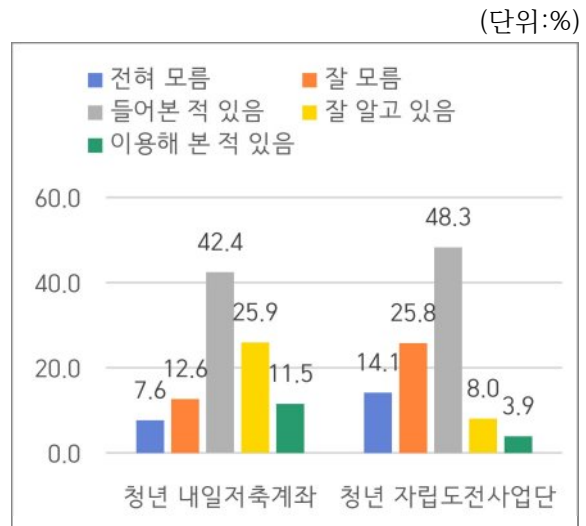


서구 청년이 느끼는 부채 부담

10) 서구 청년 생활안정 정책 인지도

- 서구의 청년 생활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내일저축계좌를 37.4%의 청년이 알고 있음
- 반면 자립청년 대상 사업인 청년 자립도전사업단 사업은 39.9%의 청년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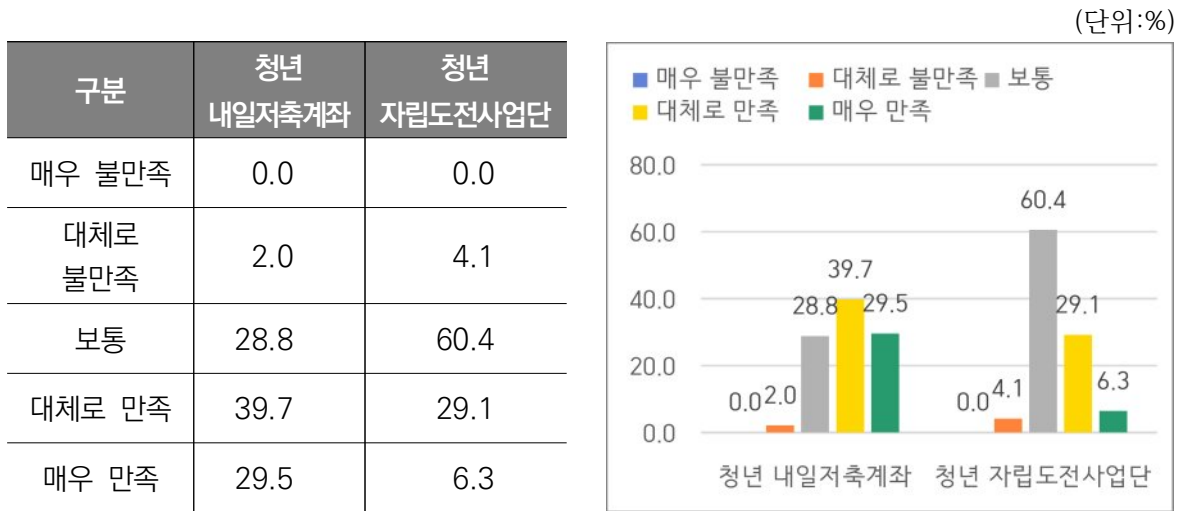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전혀 모름	7.6	14.1
잘 모름	12.6	25.8
들어본 적 있음	42.4	48.3
잘 알고 있음	25.9	8.0
이용해 본 적 있음	11.5	3.9



서구 청년의 생활안정 정책 인지도

11) 청년 생활안정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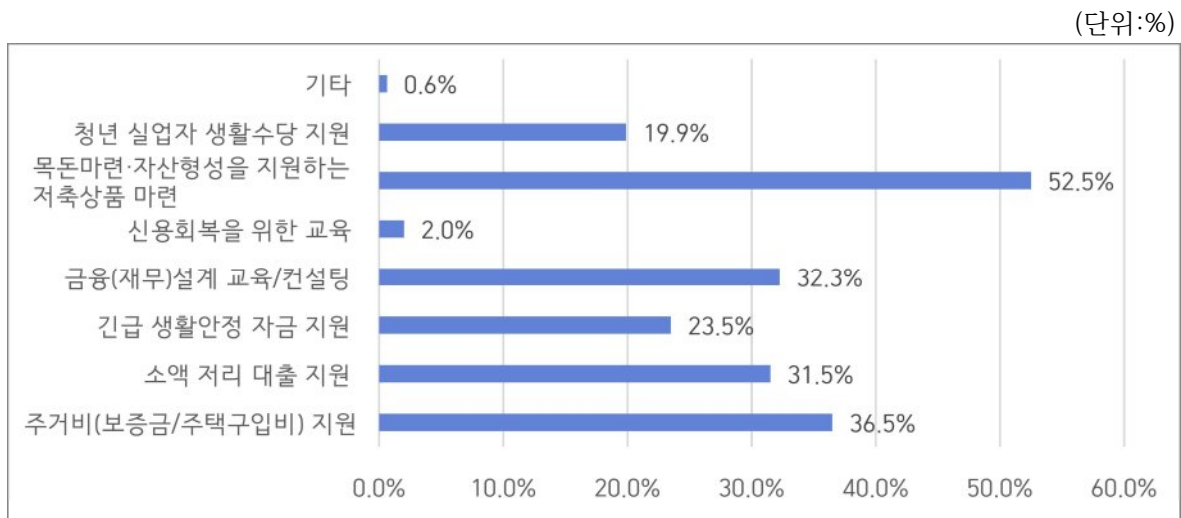
-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매우 만족한다는 청년이 29.5%, 만족한다는 의견은 39.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은 0% 였음
- 반면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39.1%, 만족한다는 6.3%였음



서구 청년의 생활안정 정책 만족도

12) 서구 청년 금융 정책 수요

- 생활안정 및 금융에 관한 정책에 대한 청년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52.5%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주거비(보증금/주택구입비) 지원이 36.5%, 금융(재무)설계 교육/컨설팅이 32.3%, 소액 저리 대출 지원이 31.5%였음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비(보증금/ 주택구입비)지원	292	36.5
소액 저리 대출지원	252	31.5
긴급 생활안정 자금지원	188	23.5
금융(재무)설계 교육/컨설팅	258	32.3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16	2.0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지원하는저축상품 마련	420	52.5
청년 실업자생활수당지원	159	19.9
기타	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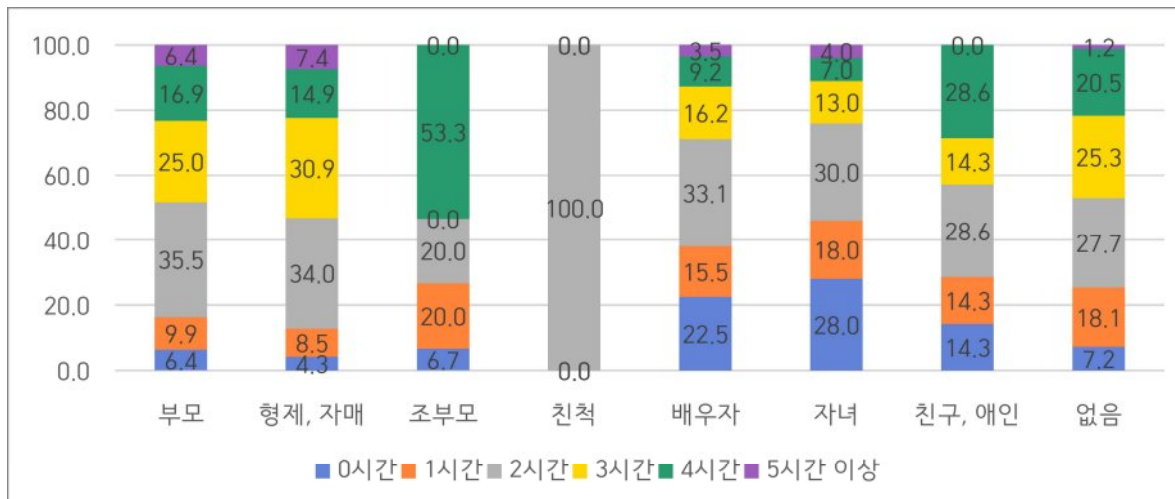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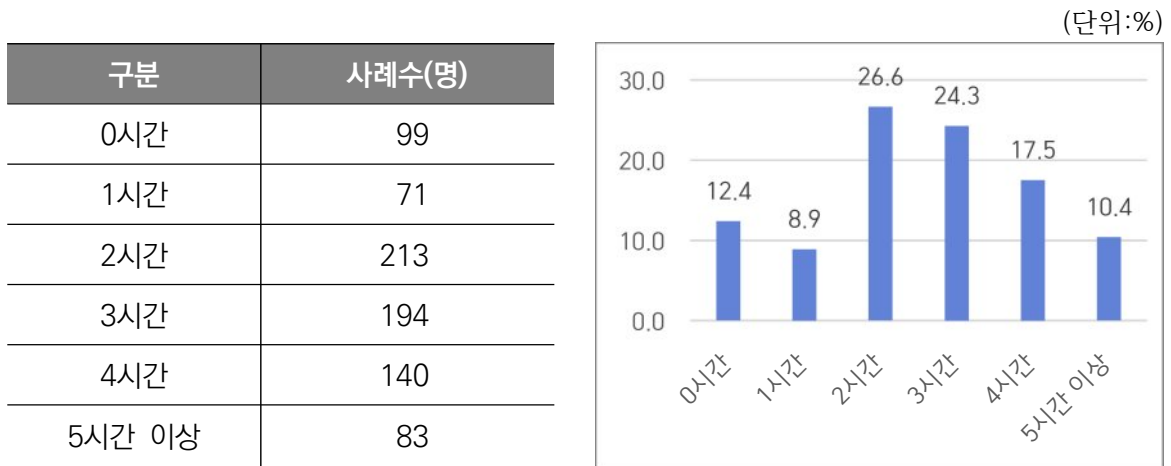
서구 청년들의 금융 및 생활안정 정책 수요

아. 문화·여가

1)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 서구 청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26.6% 청년이 2시간이라고 응답하였음
- 동거 가구원에 따라 보자면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여가 시간이 0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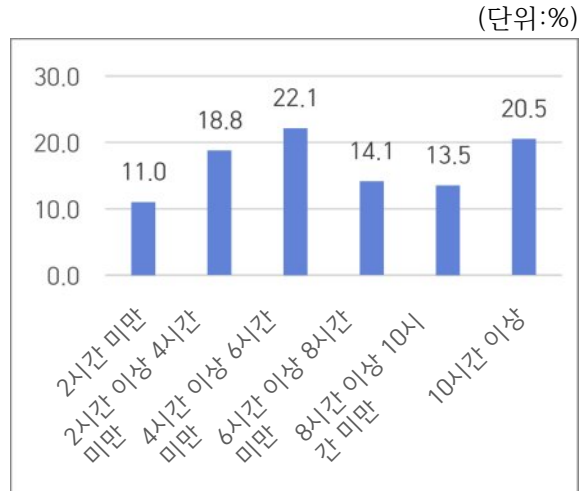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평일 여가시간

○ 주말 여가시간

- 서구 청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22.1%가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즐긴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10시간 이상이 20.5%

구분	사례수(명)	비율(%)
2시간 미만	88	11.0
2시간 이상 4시간미만	150	18.8
4시간 이상 6시간미만	177	22.1
6시간 이상 8시간미만	113	14.1
8시간 이상 10시간미만	108	13.5
10시간 이상	164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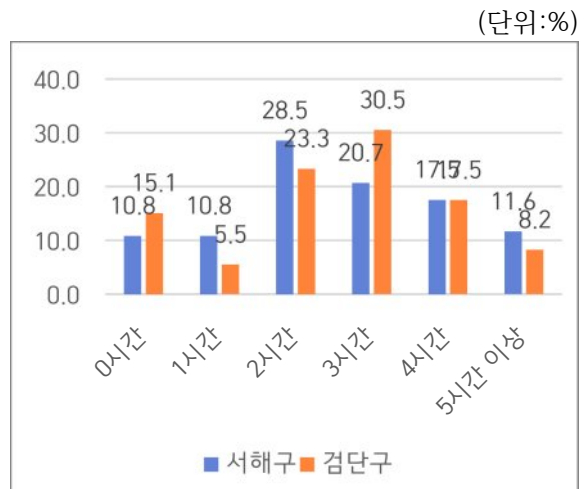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주말 여가시간

○ 지역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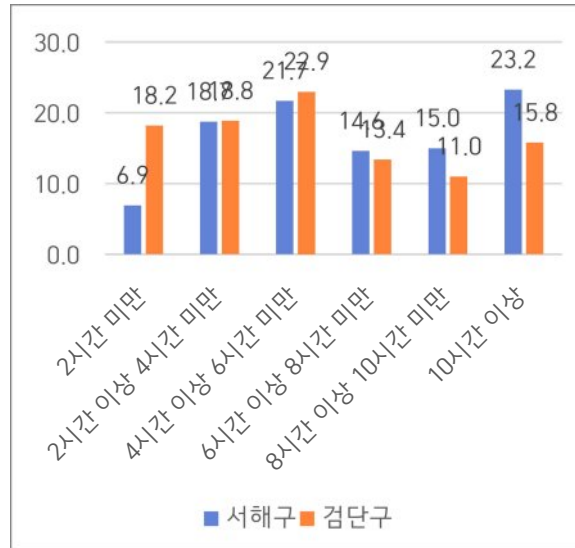
- 서구 청년들의 여가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평일 0시간이라고 대답한 비율(15.1%)이나 주말에도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18.2%)은 검단 지역이 서구에 비해 높았음
- 동거가구원별 여가시간을 살펴봐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0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기혼 청년이 많은 검단 지역 청년들의 여가시간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508	292
0시간	10.8	15.1
1시간	10.8	5.5
2시간	28.5	23.3
3시간	20.7	30.5
4시간	17.5	17.5
5시간 이상	11.6	8.2



지역별 청년의 평일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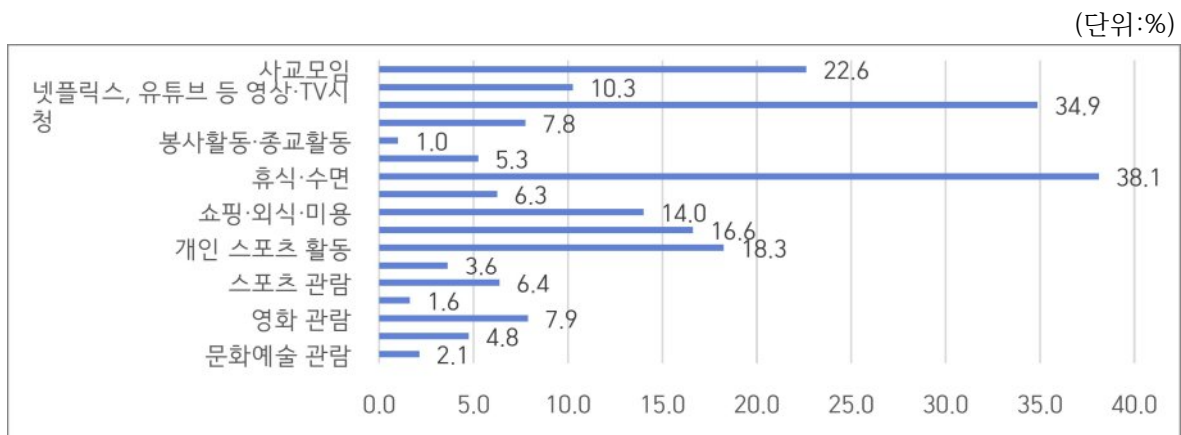
구분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508	292
2시간 미만	6.9	18.2
2시간 이상	18.7	18.8
4시간 미만	21.7	22.9
4시간 이상	14.6	13.4
6시간 미만	15.0	11.0
6시간 이상	23.2	15.8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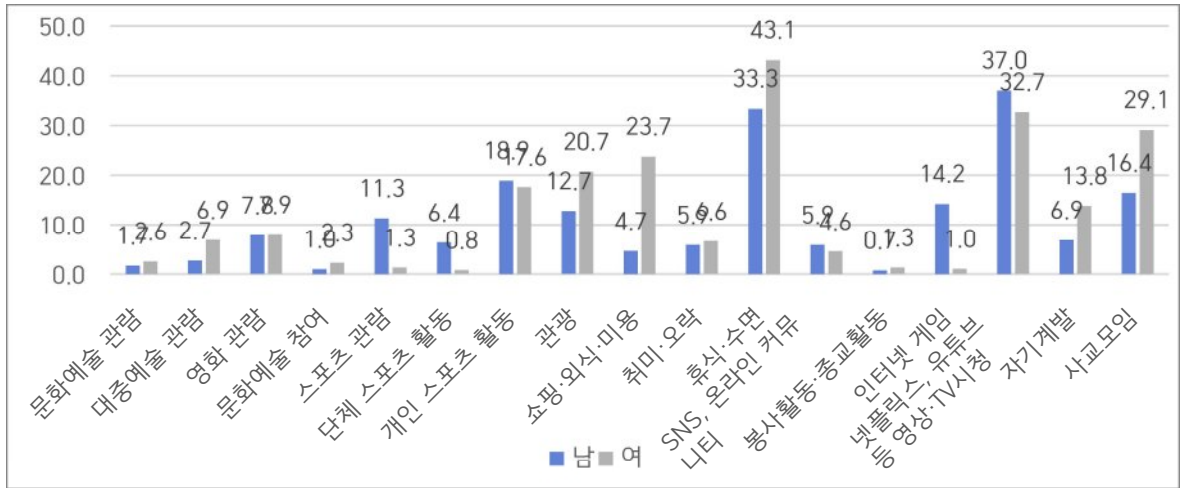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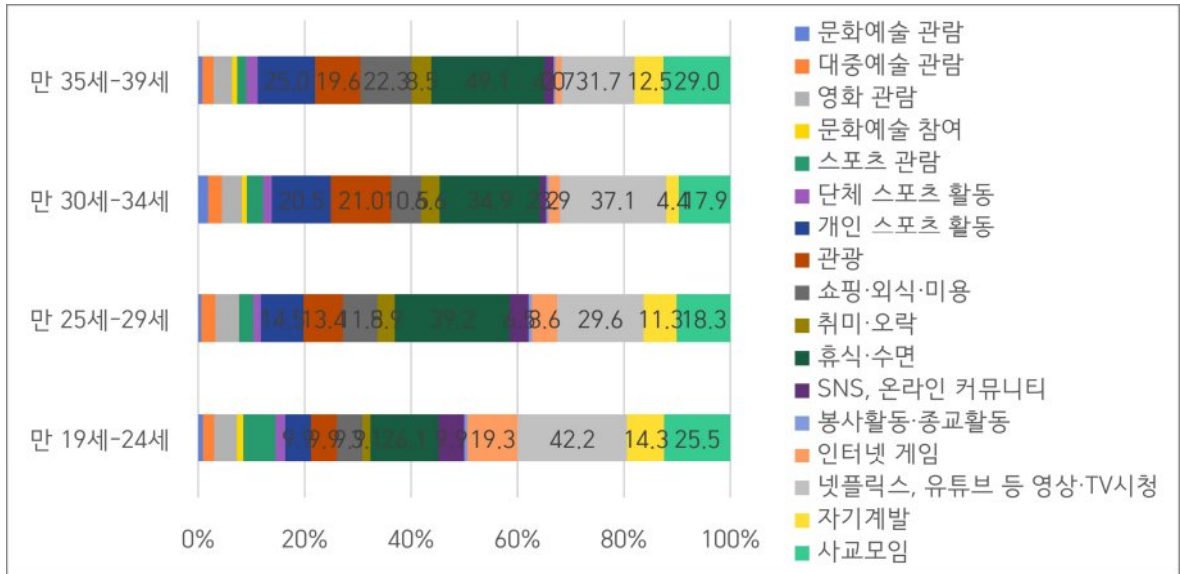


지역별 청년의 주말 여가시간

2) 현재 청년들이 주로 즐기는 문화·여가 생활

- 현재 청년들이 주로 즐기는 문화·여가 생활은 휴식·수면이 3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 영상·TV시청이 34.9%임
- 특히 연령대별로 보자면 35~39세 청년들의 49.1%가 휴식·수면이라고 응답하였고, 19~24세 청년들 중 19.3%가 인터넷 게임을 즐긴다고 응답하였음
- 문화예술관람을 선택한 비율은 30~34세가 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개인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비율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성별에 따라 보자면 주로 즐기는 문화·여가생활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남성이 스포츠 관람, 인터넷 게임 등을 여성보다 더 많이 즐기고 여성은 쇼핑/외식/미용이나 사교모임을 남성보다 더 많이 즐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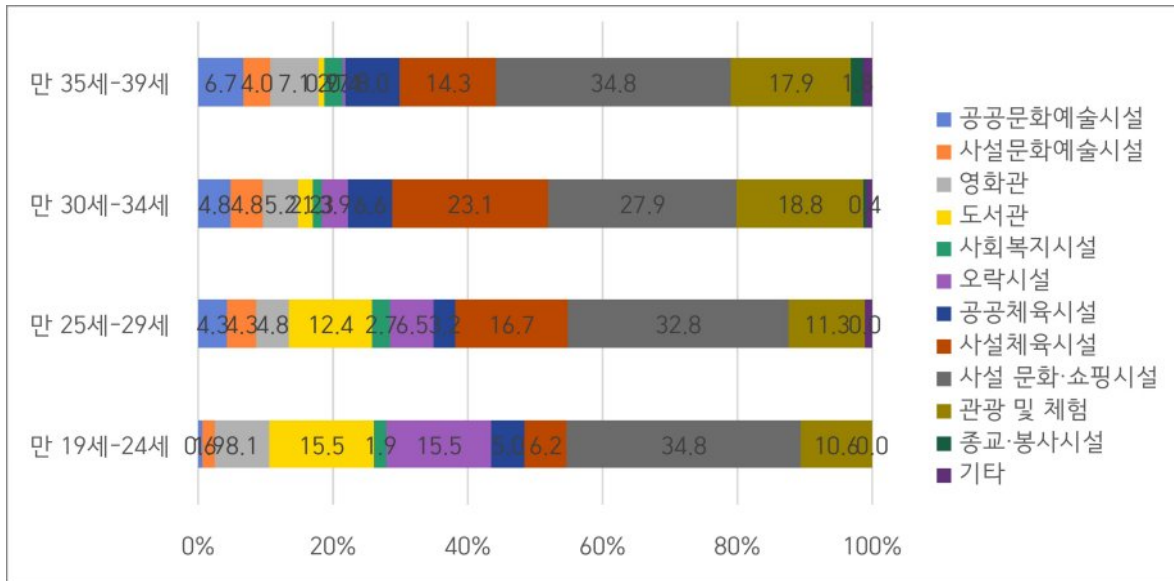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문화예술 관람	17	2.1
대중예술 관람	38	4.8
영화 관람	63	7.9
문화예술 참여	13	1.6
스포츠 관람	51	6.4
단체 스포츠 활동	29	3.6
개인 스포츠 활동	146	18.3
관광	133	16.6
쇼핑·외식·미용	112	14.0
취미·오락	50	6.3
휴식·수면	305	38.1
SNS, 온라인 커뮤니티	42	5.3
봉사활동·종교활동	8	1.0
인터넷 게임	62	7.8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영상·TV시청	279	34.9
자기계발	82	10.3
사교모임	181	22.6

인천 서구 청년의 주요 문화 여가생활

3)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시설

- 서구 청년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시설은 사설 문화·쇼핑시설이 3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설 체육시설과 관광 및 체험시설이 약 15%에 해당하였음
- 특히 19~24세 청년 중 15.5%와 25~29세 청년 중 12.4%가 도서관에 방문한다고 응답하여 30~39세 청년의 1~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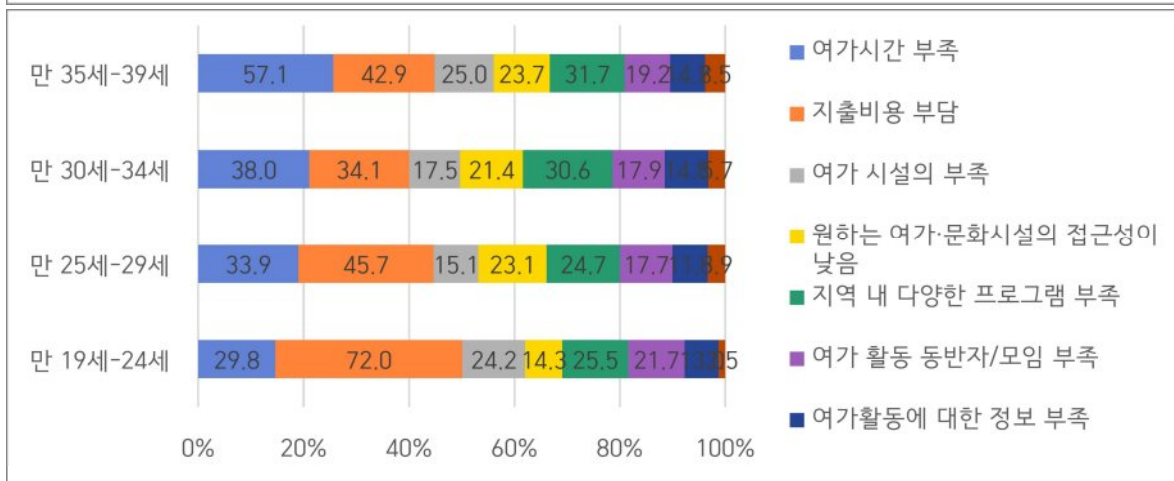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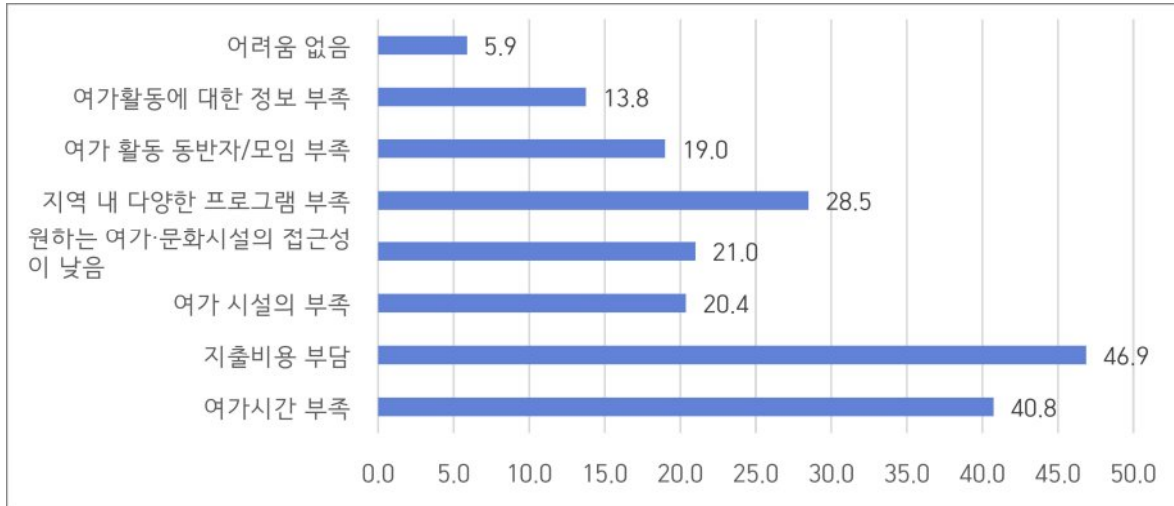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공공문화 예술시설	35	4.4
사설문화 예술시설	31	3.9
영화관	50	6.3
도서관	55	6.9
사회복지시설	17	2.1
오락시설	47	5.9
공공체육시설	47	5.9
사설체육시설	126	15.8
사설 문화·쇼핑시설	259	32.4
관광 및 체험	121	15.1
종교·봉사시설	5	0.6
기타	7	0.9

서구 청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문화·여가 시설

4) 문화여가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복수 응답)

- 서구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지출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여가시간 부족이 40.8%였음
-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의견은 28.5%였는데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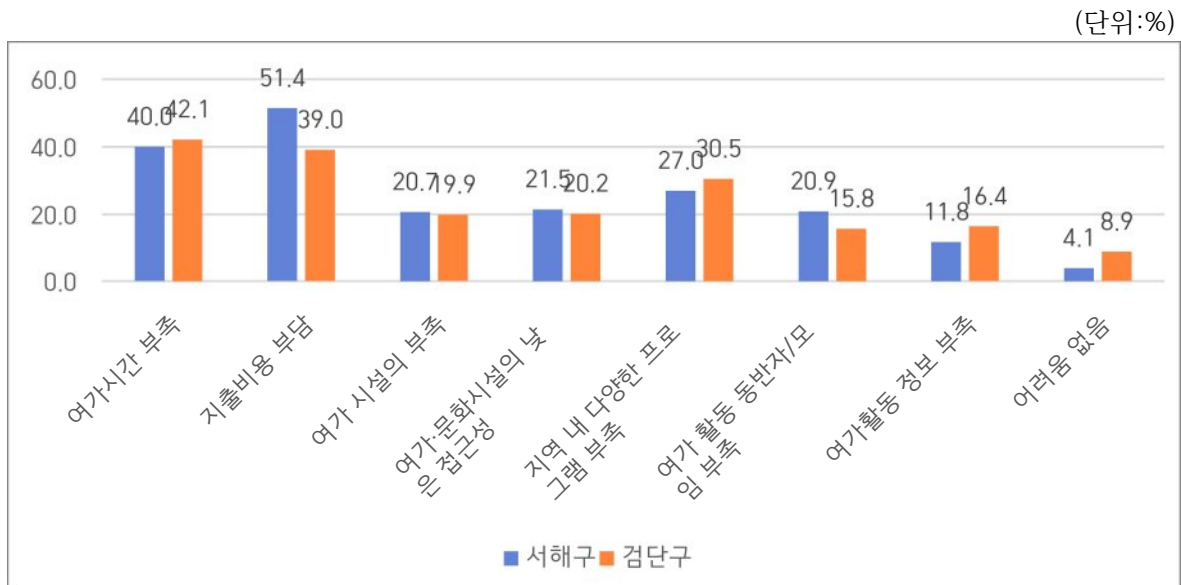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여가시간 부족	326	40.8
지출비용 부담	375	46.9
여가 시설의 부족	163	20.4
원하는 여가·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낮음	168	21.0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228	28.5
여가 활동 동반자/모임 부족	152	19.0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110	13.8
어려움 없음	47	5.9

문화여가생활에 있어서 서구 청년들의 어려움

○ 지역별 비교 분석

-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지출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았지만, 검단 지역 청년들은 여가시간 부족이 42.1%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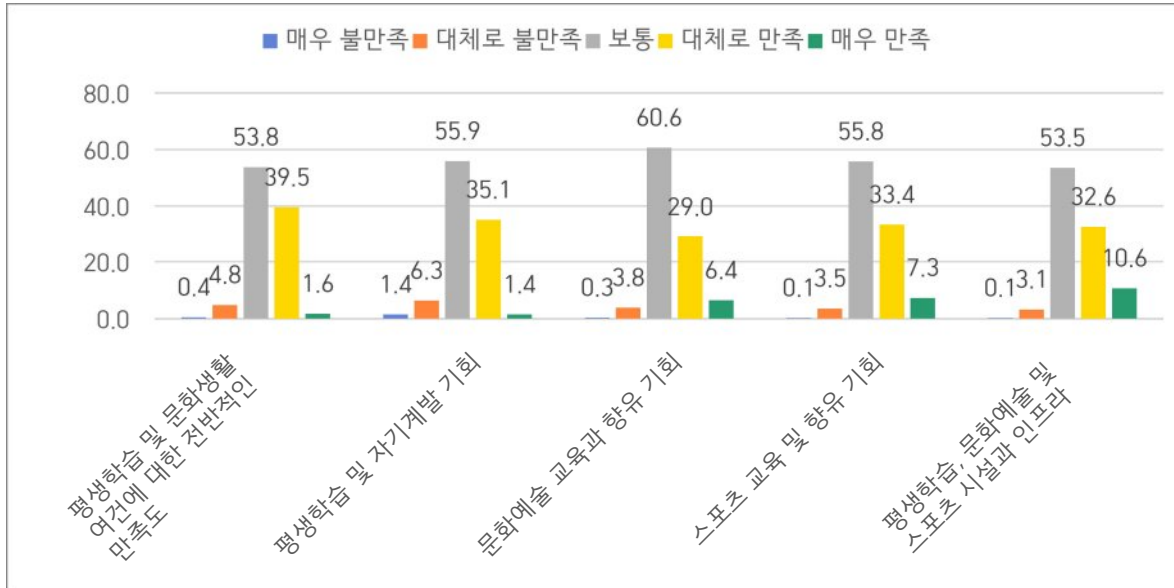
구분	서해구	검단구
여가시간 부족	40.0	42.1
지출비용 부담	51.4	39.0
여가 시설의 부족	20.7	19.9
여가·문화시설의 낮은 접근성	21.5	20.2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27.0	30.5
여가 활동 동반자/모임 부족	20.9	15.8
여가활동 정보 부족	11.8	16.4
어려움 없음	4.1	8.9

문화여가생활에 있어서 지역별 서구 청년의 어려움

5) 서구의 문화여가 생활 환경 만족도

- 서구의 문화·여가생활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보통을 제외하면, 만족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에 있어서는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4%, 6.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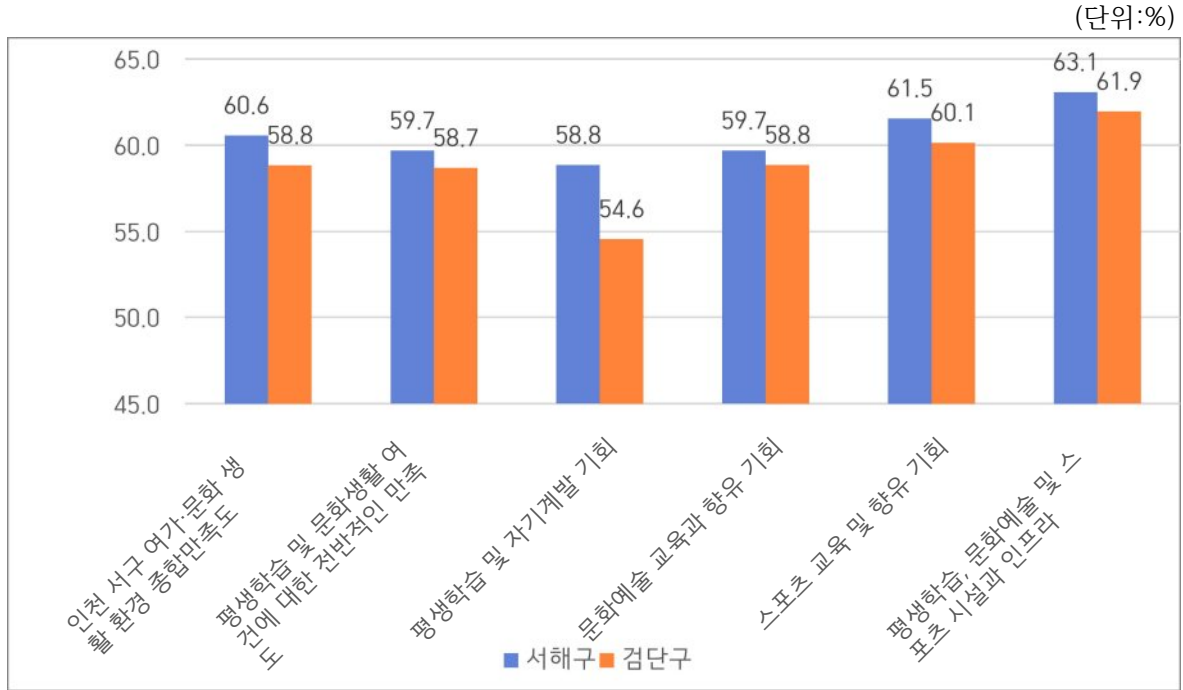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생학습 및 문화생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0.4	4.8	53.8	39.5	1.6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1.4	6.3	55.9	35.1	1.4
문화예술 교육과 향유 기회	0.3	3.8	60.6	29.0	6.4
스포츠 교육 및 향유 기회	0.1	3.5	55.8	33.4	7.3
평생학습, 문화예술 및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	0.1	3.1	53.5	32.6	10.6

서구 청년들의 문화여가 생활 환경 만족도

○ 지역별 비교 분석

- 문화·여가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검단 지역이 더 낮았는데, 이는 신도시인 검단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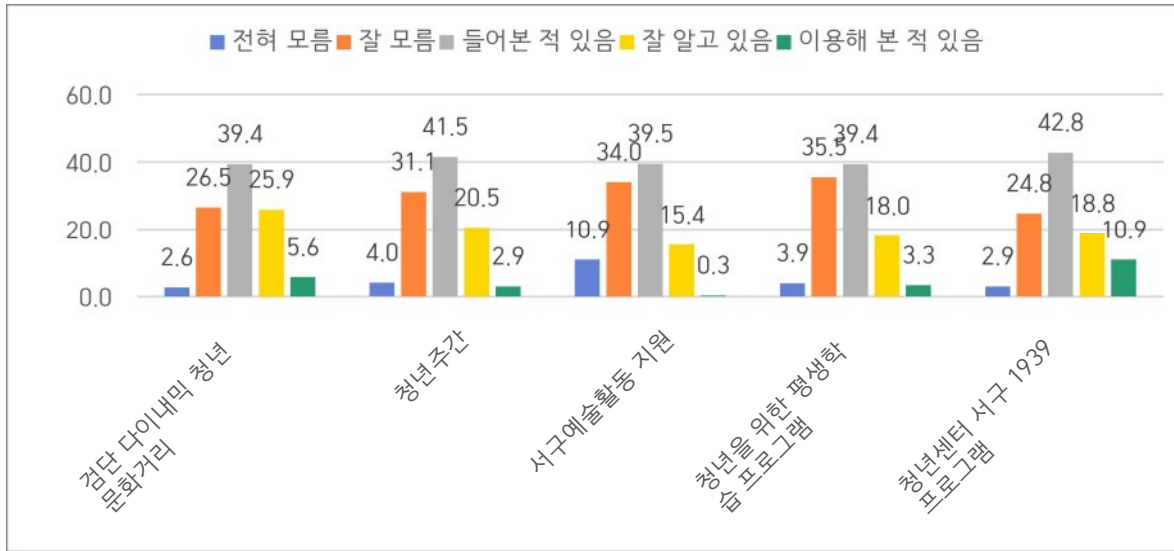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해구	검단구
인천 서구 여가·문화 생활 환경 종합만족도	59.9	60.6	58.8
평생학습 및 문화생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9.3	59.7	58.7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57.2	58.8	54.6
문화예술 교육과 향유 기회	59.4	59.7	58.8
스포츠 교육 및 향유 기회	61.0	61.5	60.1
평생학습, 문화예술 및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	62.6	63.1	61.9

지역별 서구 청년 문화여가 생활 환경 만족도

6) 서구의 문화여가 정책 인지도

- 서구의 문화여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청년정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청년센터 서구1939의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10.9%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대한 이용응답보다 높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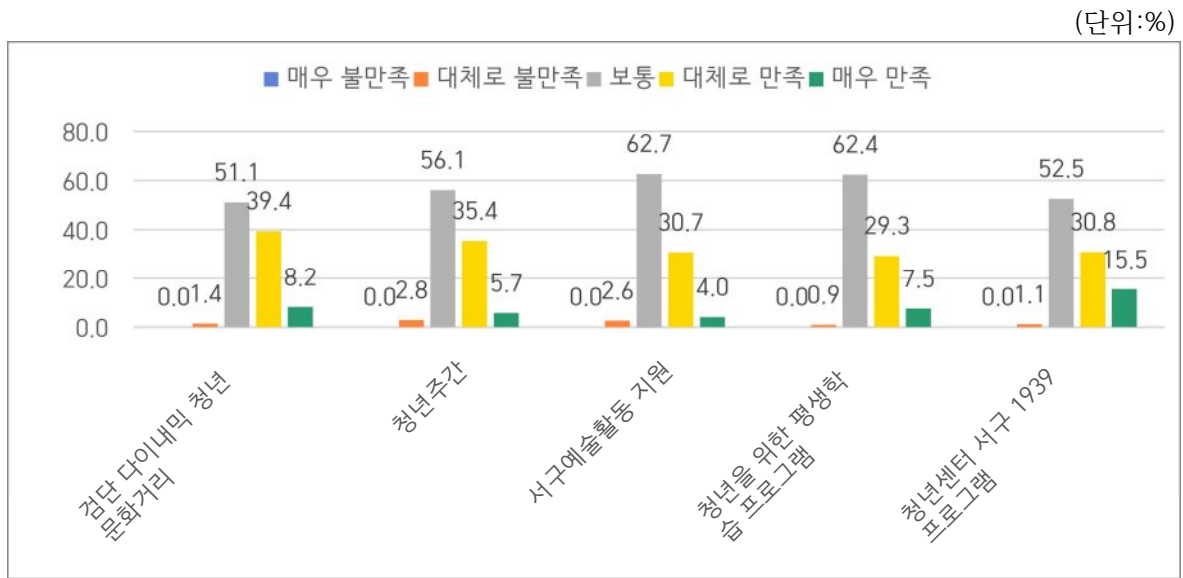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이용해 본 적 있음
검단 다이내믹 청년 문화거리	2.6	26.5	39.4	25.9	5.6
청년주간	4.0	31.1	41.5	20.5	2.9
서구예술활동 지원	10.9	34.0	39.5	15.4	0.3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3.9	35.5	39.4	18.0	3.3
청년센터 서구 1939 프로그램	2.9	24.8	42.8	18.8	10.9

서구 청년들의 문화여가 정책 인지도

7) 서구의 문화여가 정책 만족도

- 청년 문화여가 정책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불만족은 나타나지 않았음
- 특히 검단 다이내믹 청년 문화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매우만족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매우 만족이 가장 높은 정책은 청년센터 서구1939 프로그램으로, 15.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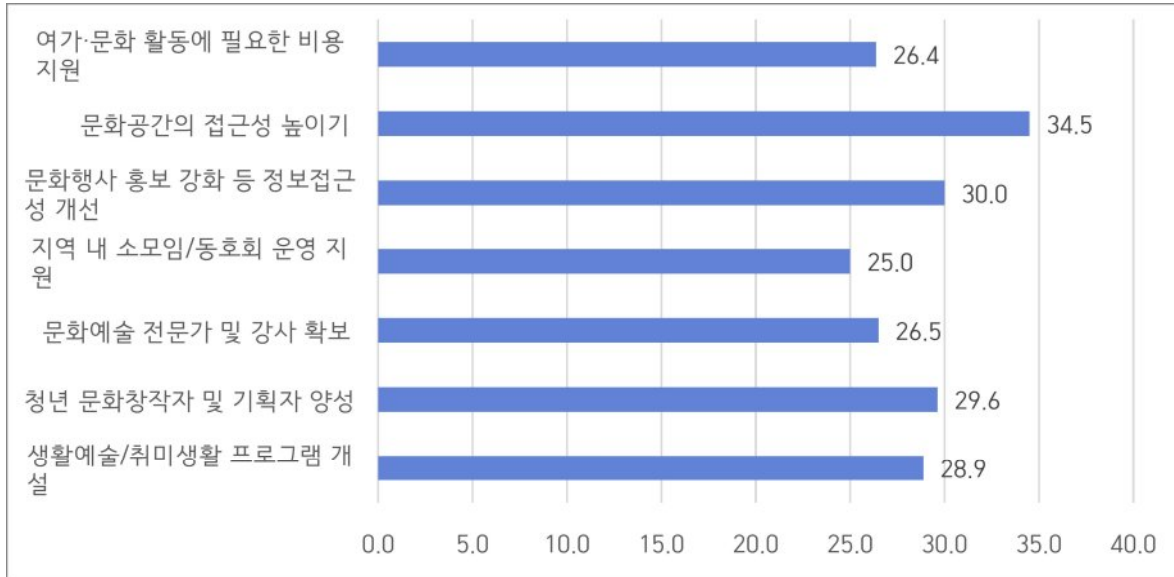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검단 다이내믹 청년 문화거리	0.0	1.4	51.1	39.4	8.2
청년주간	0.0	2.8	56.1	35.4	5.7
서구예술활동 지원	0.0	2.6	62.7	30.7	4.0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0.0	0.9	62.4	29.3	7.5
청년센터 서구 1939 프로그램	0.0	1.1	52.5	30.8	15.5

서구 청년의 문화여가 정책 만족도

8) 서구 문화·여가 정책 수요(복수 응답)

- 앞으로 바라는 문화·여가 정책 수요에 있어서는 문화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24.5%로 가장 높았고, 문화행사 홍보 강화 등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수요가 30%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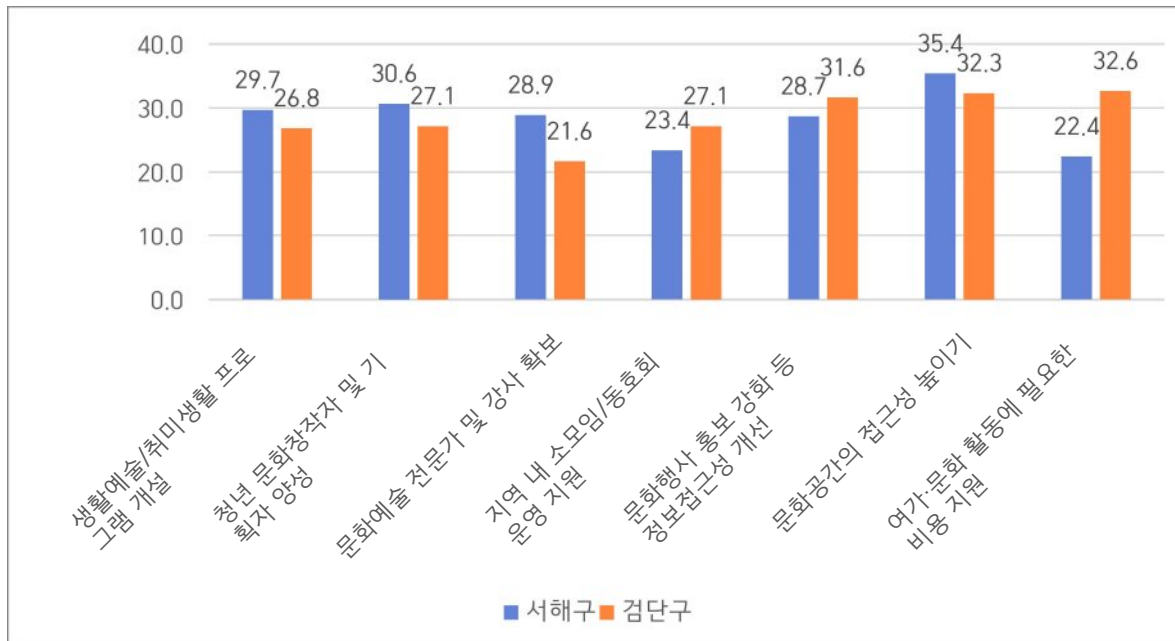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생활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개설	231	28.9
청년 문화창작 및기획자양성	237	29.6
문화예술 전문가 및 강사확보	212	26.5
지역 내 소모임 /동호회운영지원	200	25.0
문화행사 홍보 강화 등 정보 접근성개선	240	30.0
문화공간의 접근성 높이기	276	34.5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11	26.4

서구 청년의 문화여가 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해구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개설, 문화기획자 양성, 전문가 확보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에 비해 검단 지역은 개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이나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이는 시설은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족한 서해구와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검단구로 구분할 수 있음

(단위:%)



구분	사례수	서해구	검단구
생활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800	508	292
청년 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28.6	29.7	26.8
문화예술 전문가 및 강사 확보	29.4	30.6	27.1
문화예술 전문가 및 강사 확보	26.3	28.9	21.6
지역 내 소모임/동호회 운영 지원	24.8	23.4	27.1
문화행사 홍보 강화 등 정보접근성 개선	29.8	28.7	31.6
문화공간의 접근성 높이기	34.3	35.4	32.3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6.1	22.4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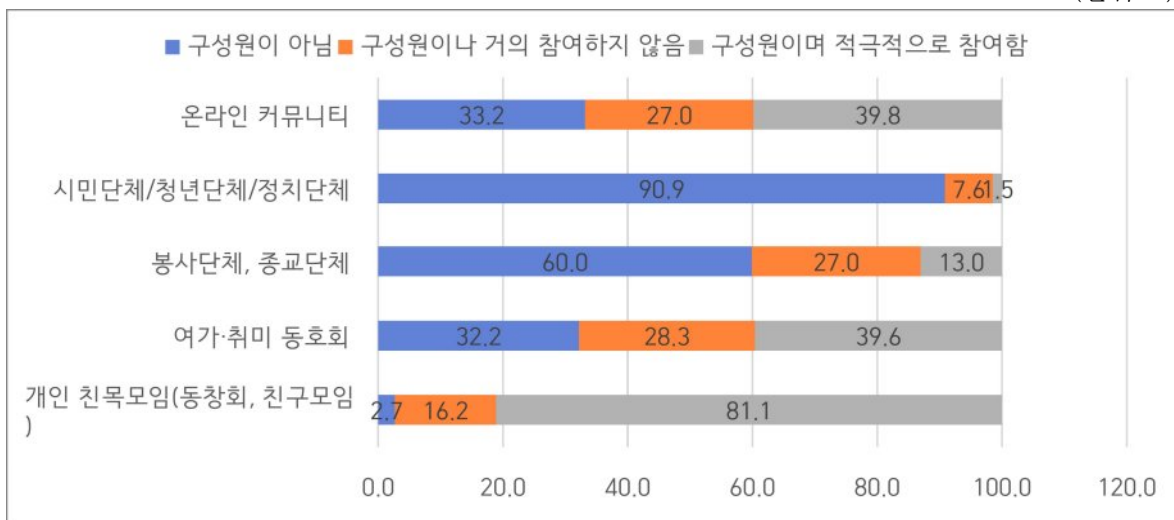
지역별 서구 청년의 문화여가 정책 수요

자. 관계망·건강

1) 모임 또는 단체의 구성원 참여 여부

- 서구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임 또는 단체는 개인 친목모임이 81.1%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년이 33.2%였고, 여가·취미 동호회는 28.3%, 봉사나 종교단체는 27.0%였음
- 시민단체/청년단체/정치단체에 참여하는 청년은 6.5%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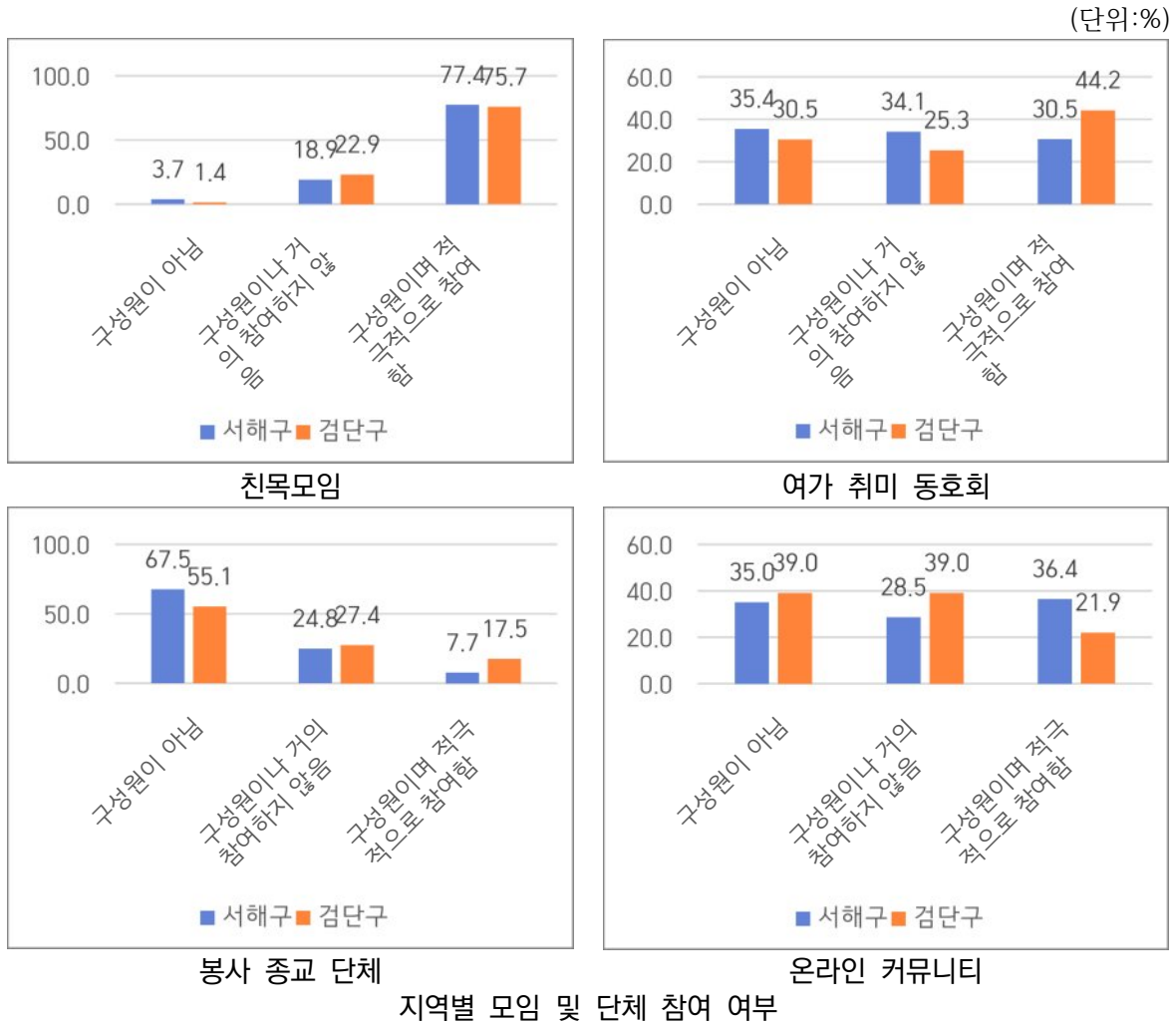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성원이 아님	23	2.9
구성원이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163	20.4
구성원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함	614	76.8

서구 청년의 모임 또는 단체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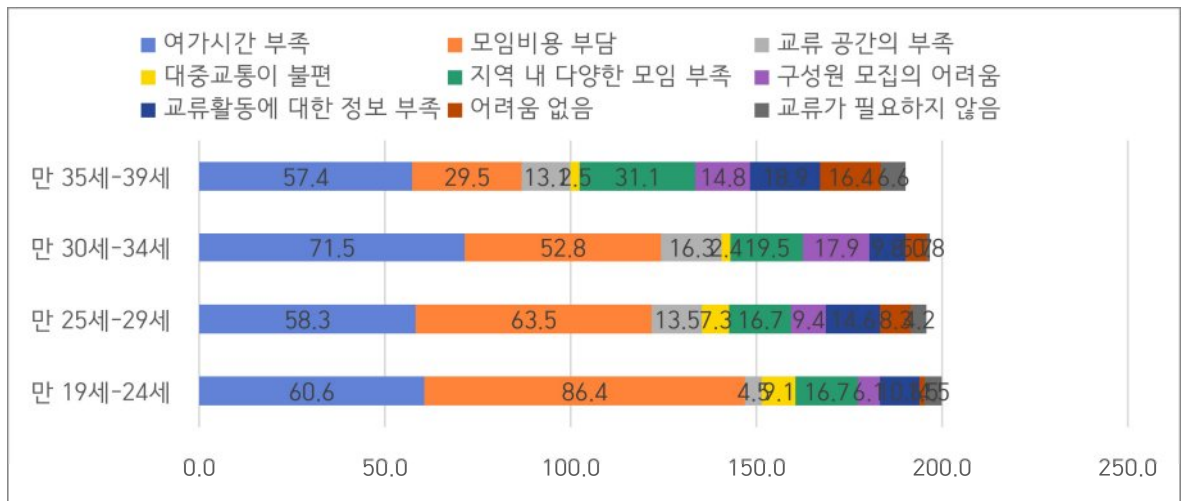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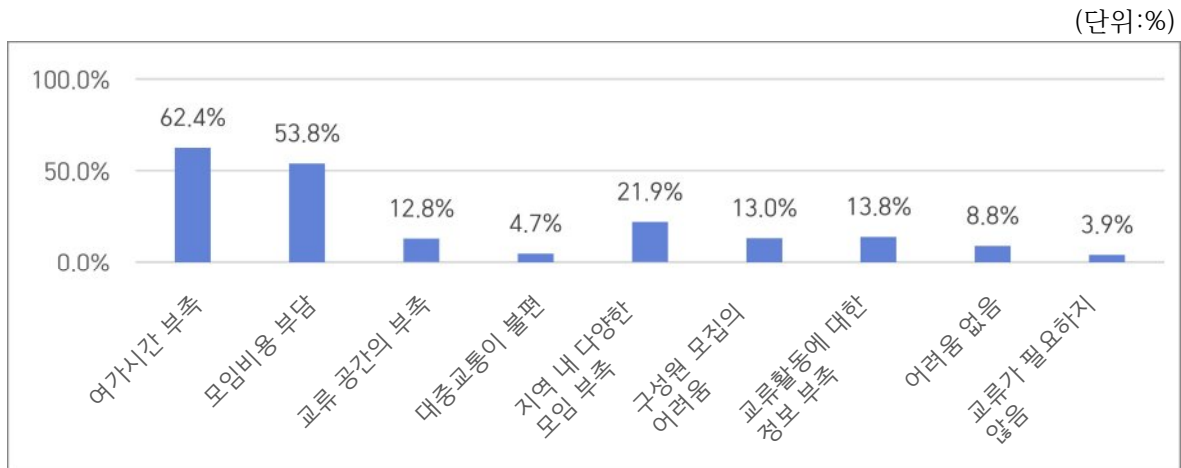
○ 지역별 비교 분석

- 지역별로 비교하면 검단 지역의 청년들은 여가 취미 동호회나 봉사·종교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고,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음



2) 교류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복수응답)

- 서구 청년들이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가시간 부족이 6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모임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3.8%였음
- 특히 연령대별로는 35~39세 청년들 중 31.1%가 지역 내 다양한 모임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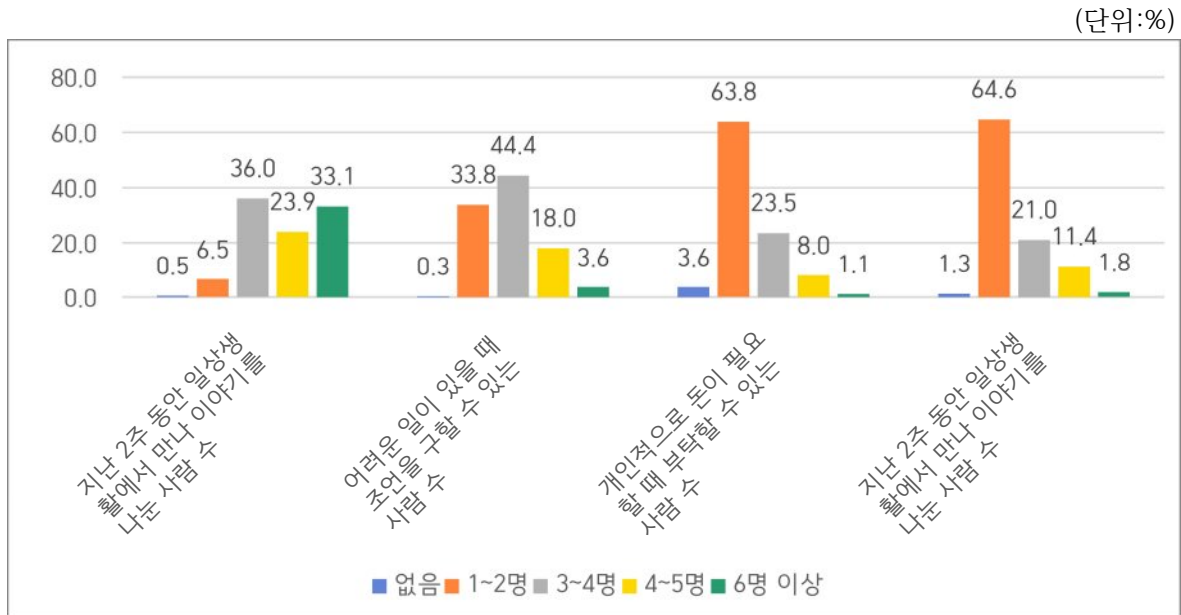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여가시간 부족	466	58.3
모임비용 부담	363	45.4
교류 공간의 부족	119	14.9
대중교통이 불편	63	7.9
지역 내 다양한 모임 부족	226	28.3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	110	13.8
교류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160	20.0
어려움 없음	43	5.4
교류가 필요하지 않음	21	2.6

서구 청년들이 경험하는 교류활동의 어려움

3)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

-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상생활에서는 6명 이상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은 1~2명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주간 다른 사람들과 아예 대화가 없고 다른 사회적 지지망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발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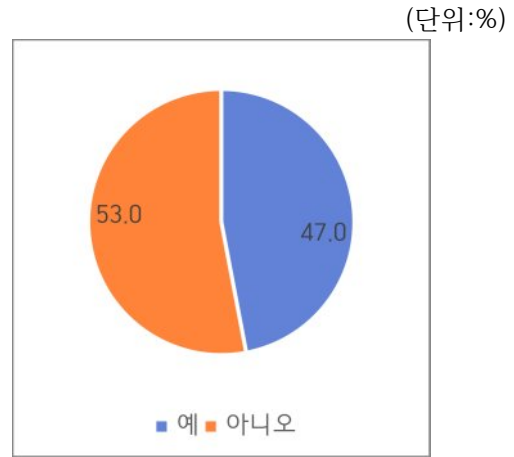
구분	없음	1~2명	3~4명	4~5명	6명 이상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수	0.5	6.5	36.0	23.9	33.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수	0.3	33.8	44.4	18.0	3.6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수	3.6	63.8	23.5	8.0	1.1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수	1.3	64.6	21.0	11.4	1.8

서구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 현황

4) 최근 2년 이내 종합검진 유무

- 서구 청년 중 최근 2년 내에 건강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5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예	아니오
사례수(명)	376	424
비율(%)	47.0	53.0



서구 청년의 종합검진 유무

5)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 서구 청년들이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가 55.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정보 부족이 17.2%, 시간부족이 15.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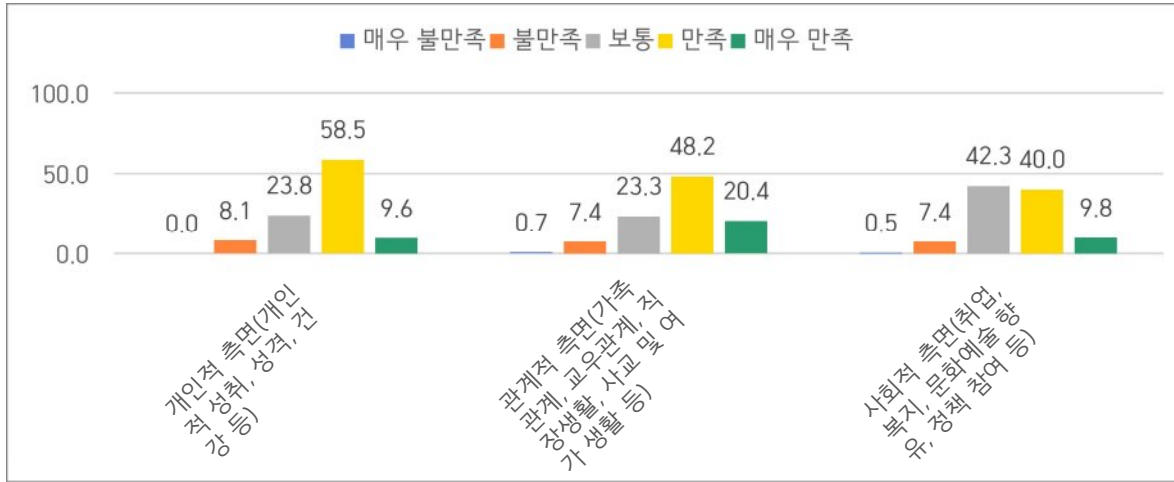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종합검진 유무

6)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에서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과 관계적 측면(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생활, 사고 및 여가생활 등), 사회적 측면(취업, 복지, 문화예술 향유, 정책 참여 등)에 모두 긍정적 응답이 높았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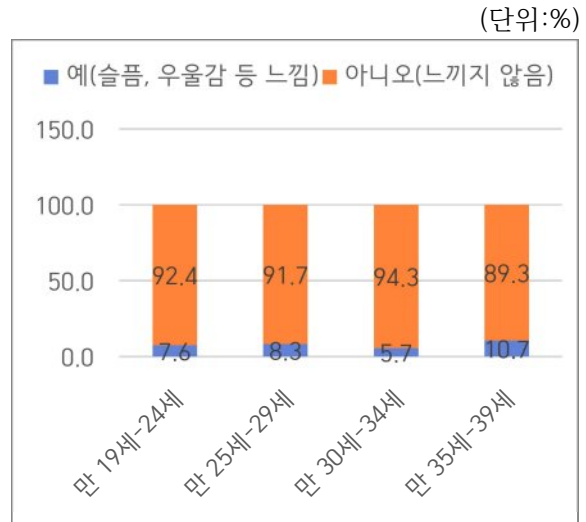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개인적 측면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0.0	6.6	31.3	55.0	7.1
관계적 측면(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생활, 사고 및 여가 생활 등)	0.9	7.0	29.3	49.5	13.4
사회적 측면(취업, 복지, 문화예술 향유, 정책 참여 등)	0.4	6.5	42.6	43.6	6.9

서구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 지난 2주간 중증 우울감 경험

- 지난 2주간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한 청년은 7.5%이고, 연령대별로는 35~39세 청년의 10.7%가 중증 우울감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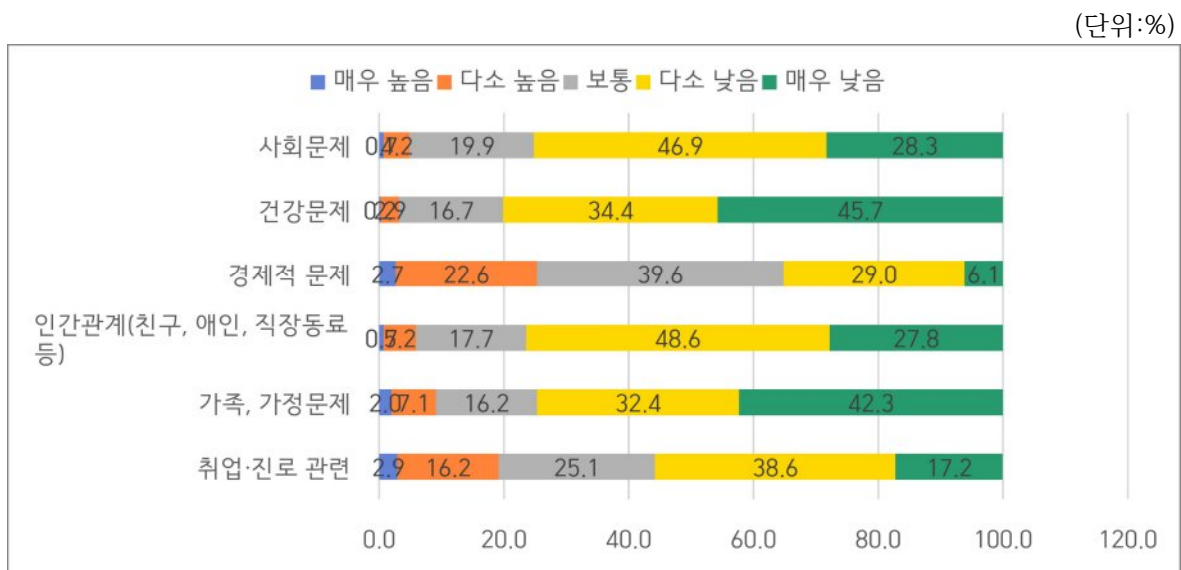
구분	예 (슬픔,우울감 등 느낌)	아니오 (느끼지 않음)
사례수(명)	60	740
비율(%)	7.5	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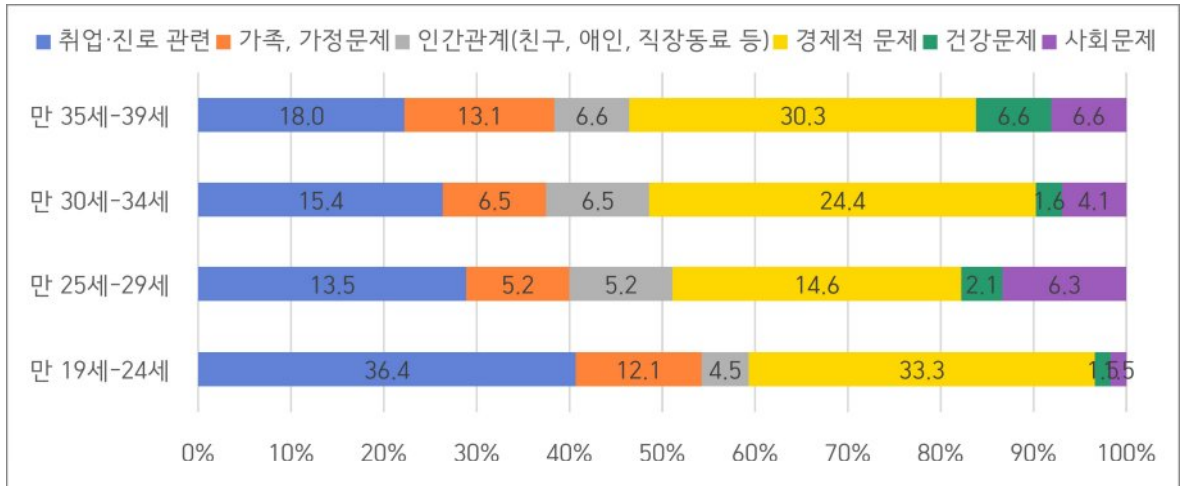


지난 2주간 중증 우울감을 경험한 서구 청년 비율

8) 최근 1개월 간 받은 종합 스트레스

- 서구 청년들이 최근 1개월 간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은 영역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19~24세 청년은 진로, 30~39세가 경제적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취업·진로 관련	2.3	19.6	30.0	36.3	11.9
가족, 가정문제	1.9	5.8	33.0	32.1	27.3
인간관계 (친구, 애인, 직장동료등)	0.6	4.3	31.5	44.5	19.1
경제적 문제	2.3	24.1	40.3	28.1	5.3
건강문제	0.3	2.4	23.1	44.0	30.3
사회문제	0.4	3.9	23.9	52.1	19.8

서구 청년들이 지난 1개월간 받은 스트레스 유형 및 정도

9) 지난 1년 간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경험 유무

- 지난 1년 간 전문가의 상담을 경험해본 적 있는 서구 청년은 모두 3.6%로 조사됨

(단위:%)

구분	예 (상담받아 본 적 있음)	아니오 (상담받아 본 적 없음)
사례수(명)	29	771
비율(%)	3.6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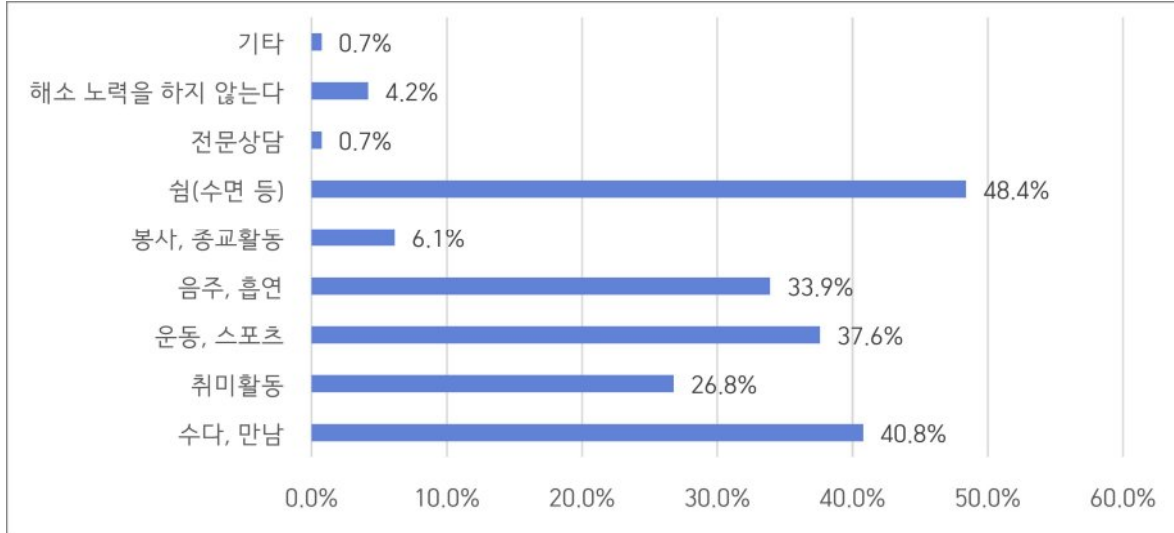


지난 2년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 있는 서구 청년 비율

10) 스트레스 해소 방법(복수응답)

- 서구 청년들의 48.4%는 수면과 같은 쉽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는 경우가 40.8%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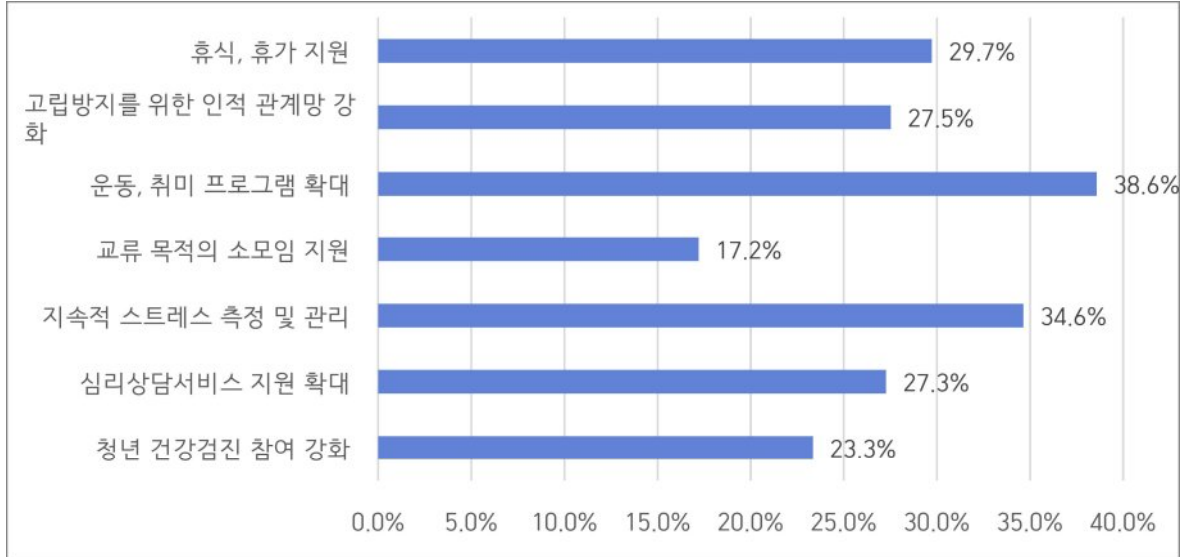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수다, 만남	360	45.0
취미활동	212	26.5
운동, 스포츠	299	37.4
음주, 흡연	226	28.3
봉사, 종교활동	41	5.1
쉼(수면 등)	428	53.5
전문상담	4	0.5
해소 노력을 하지않는다	22	2.8
기타	5	0.6

서구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11) 청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 앞으로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운동, 취미 프로그램 확대가 38.6%로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가 34.6%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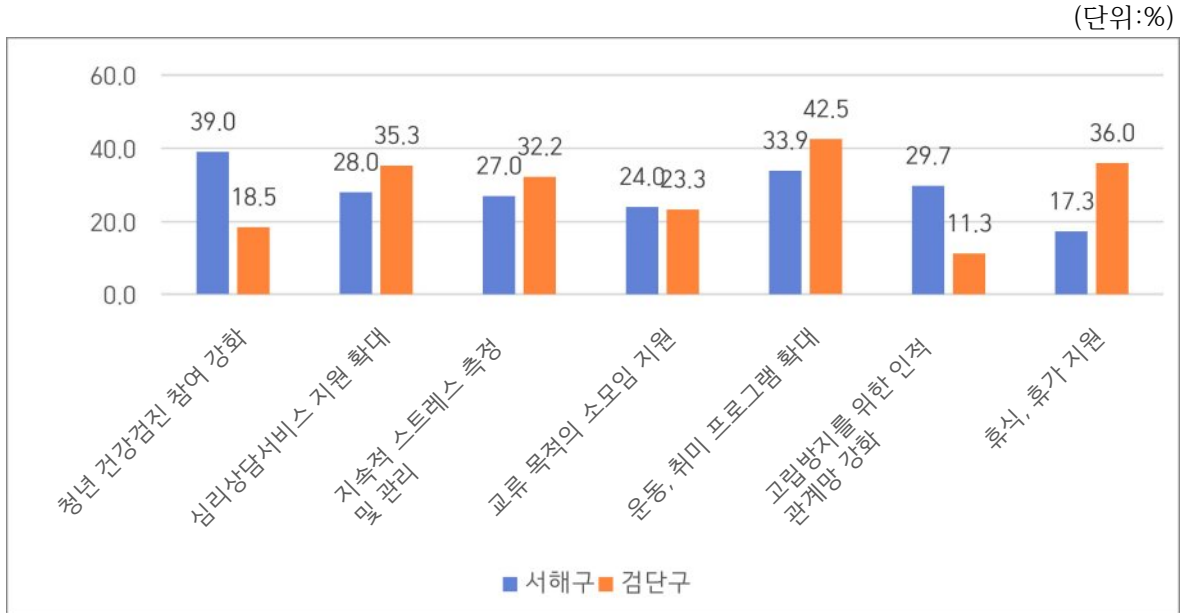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청년 건강검진 참여강화	252	31.5
심리상담서비스 지원확대	245	30.6
지속적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	231	28.9
교류 목적의 소모임 지원	190	23.8
운동, 취미 프로그램 확대	296	37.0
고립방지를 위한 인적관계망강화	184	23.0
휴식, 휴가 지원	193	24.1

서구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지역별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 검진 참여 강화, 인적 관계망 강화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비해 검단 지역 청년들은 운동·취미 프로그램과 휴식, 심리상담,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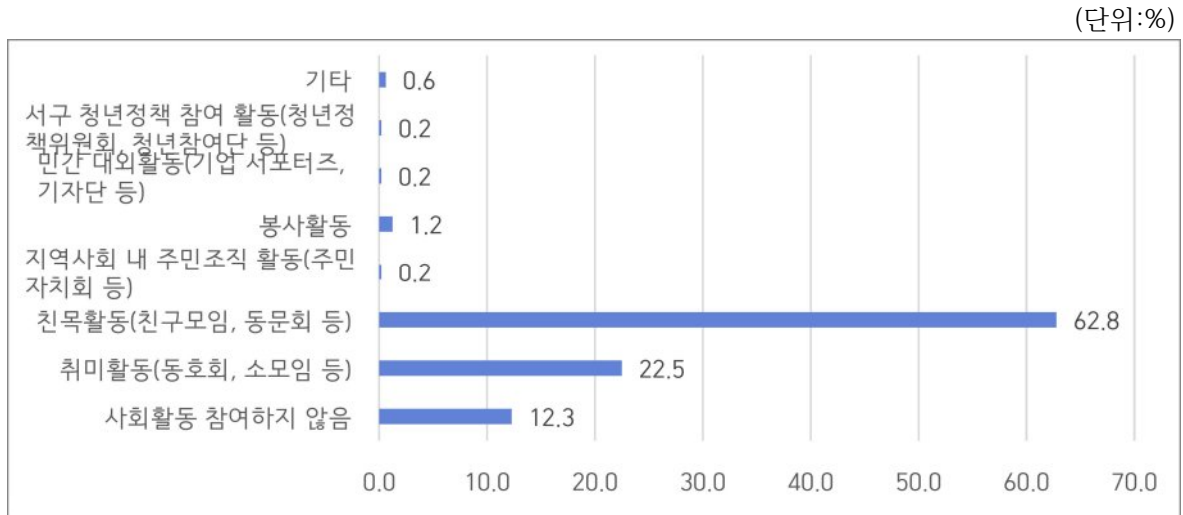
구분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508	292
청년 건강검진 참여 강화	39.0	18.5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28.0	35.3
지속적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	27.0	32.2
교류 목적의 소모임 지원	24.0	23.3
운동, 취미 프로그램 확대	33.9	42.5
고립방지를 위한 인적 관계망 강화	29.7	11.3
휴식, 휴가 지원	17.3	36.0

지역별 서구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요

차. 참여인식·청년 거버넌스

1) 지난 1년간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 지난 1년간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친목활동이 62.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취미활동(동호회, 소모임 등)이 22.5%,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이 12.3%
- 봉사활동은 1.2% 이고, 청년정책 참여활동이 0.2%, 민간 대외활동이 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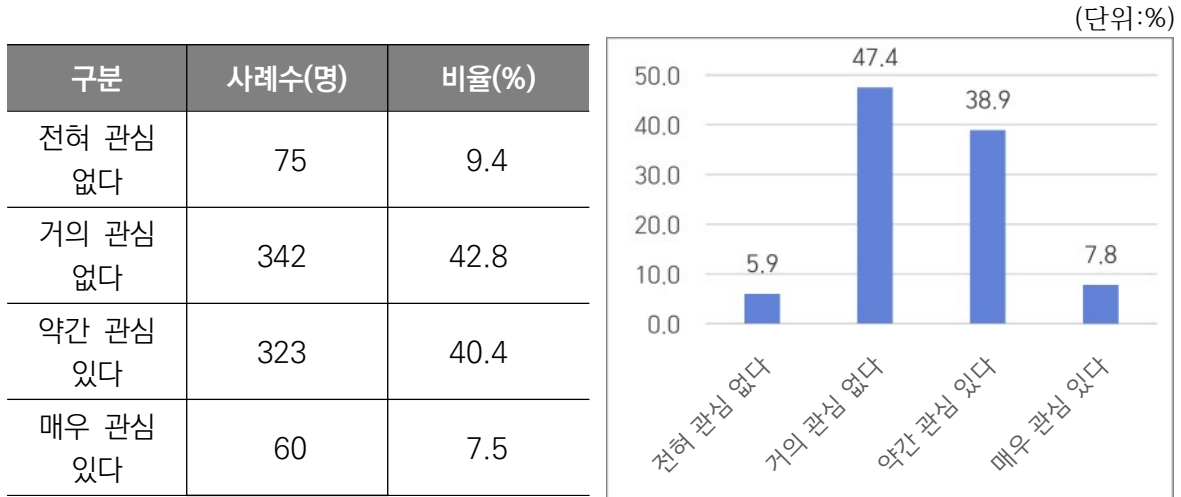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사회활동 참여하지않음	118	14.8
취미활동 (동호회,소모임등)	158	19.8
친목활동 (친구모임,동문회등)	503	62.9
지역사회 내 주민조직활동 (주민자치회등)	2	0.3
봉사활동	11	1.4
민간 대외활동 (기업서포터즈, 기자단등)	2	0.3
서구 청년정책 참여활동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등)	1	0.1
기타	5	0.6

서구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2)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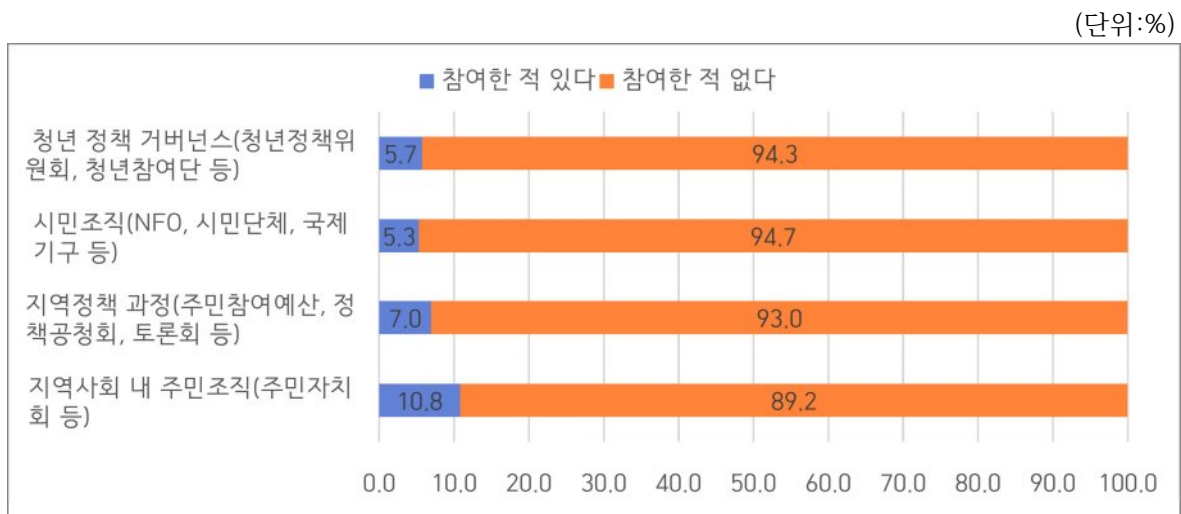
- 서구 청년들 중 사회참여에 대하여 38.9%가 약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관심 있다는 7.8%로,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청년은 46.7%임
- 거의 관심없거나 전혀 관심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3%임



서구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3) 지역 조직 및 활동 참여

- 사회참여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하였음
- 그 중 지역사회 내 주민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 10.8%이고 주민참여 예산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한 적 있는 청년도 7.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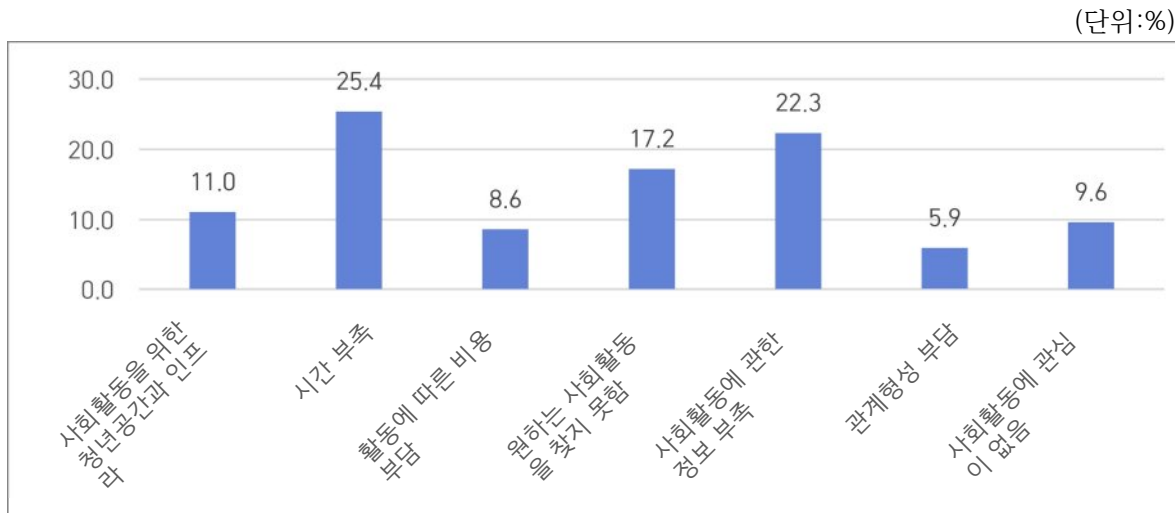


구분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지역사회내주민조직(주민자치회등)	10.9	89.1
지역정책과정(주민참여예산, 정책공청회, 토론회등)	6.1	93.9
시민조직(NFO, 시민단체, 국제기구등)	5.0	95.0
청년정책거버넌스(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등)	6.0	94.0

서구 청년들의 지역 조직 및 활동 참여 경험

4)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이 25.4%,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은 22.3%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사회활동을 위한 청년공간과 인프라	80	10.0
시간 부족	211	26.4
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	76	9.5
원하는 사회활동을 찾지못함	153	19.1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	153	19.1
관계형성 부담	42	5.3
사회활동에 관심이 없음	83	10.4
기타	2	0.3

서구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

5) 서구 청년의 발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 내용 인지 여부

- 서구의 청년 기본조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지난 1차 기본계획 당시의 조사(들어본 적 있다 21~23%)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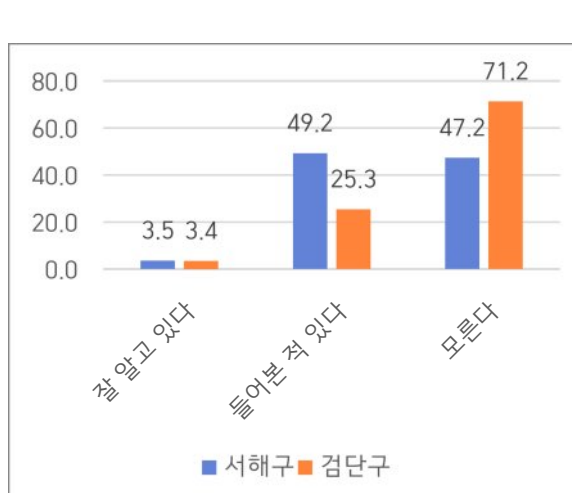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사례수(명)	28	324	448
비율(%)	3.5	40.5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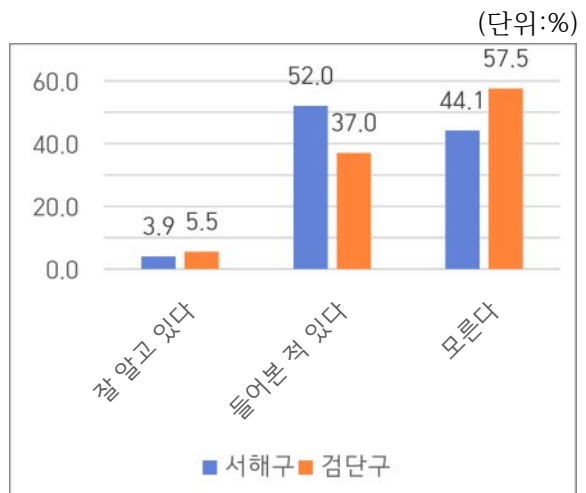
서구 청년 정책 관련 내용 인지 여부

○ 지역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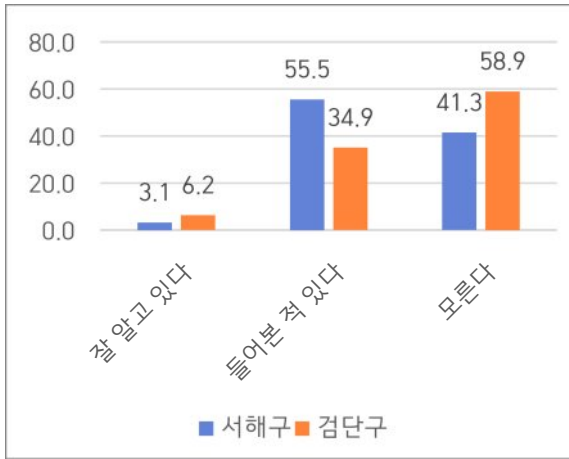
- 지역별로 비교하자면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는 검단 지역이 대부분 낮았는데, 이는 현재 청년센터의 위치가 서구 가정동인 것을 고려하면 청년 참여 활동의 거점이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잘 알고 있다 또는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검단 지역의 청년들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 청년정책 거버넌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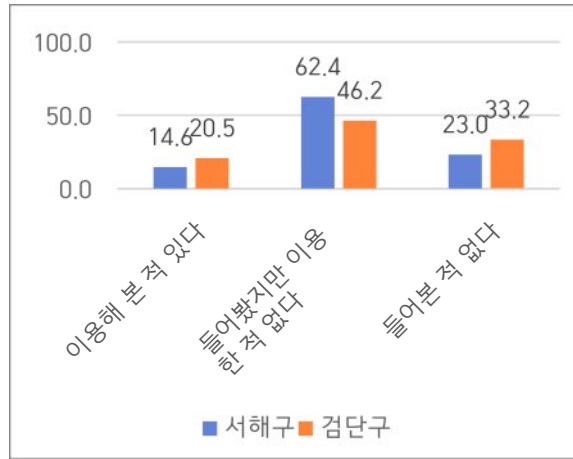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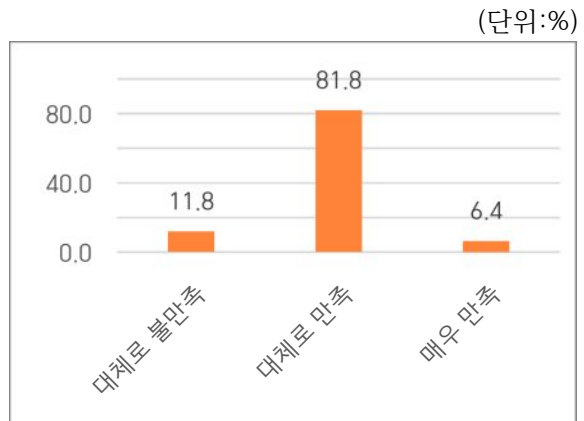


청년센터 서구1939

6) 청년정책 거버넌스(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활동 만족도

- 청년 거버넌스의 활동은 대체로 만족한다가 81.8%, 매우 만족이 6.4%로 만족이 훨씬 높았지만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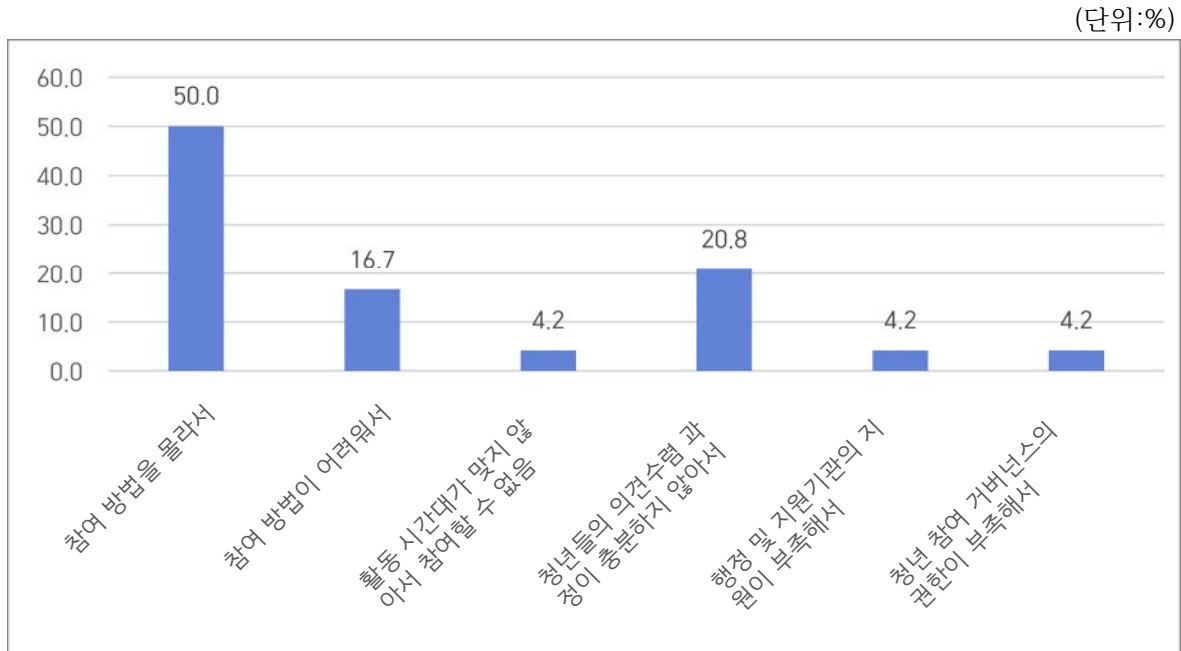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매우 불만족	2	0.6
대체로 불만족	38	11.1
대체로 만족	284	83.0
매우 만족	18.0	5.3



서구 청년들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만족도

7) 청년정책 거버넌스 불만족 이유

-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참여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50%이고 청년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20.8%였음



구분	사례수(명)	비율(%)
참여 방법을 몰라서	19	47.5
참여 방법이 어려워서	6	15.0
활동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음	2	5.0
청년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8	20.0
행정 및 지원기관의 지원이 부족해서	4	10.0
청년 참여 거버넌스의 권한이 부족해서	1	2.5

서구 청년들의 거버넌스 불만족 이유

8)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서구 청년들은 앞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활동 인센티브 제공(활동비, 경력인정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2%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홍보 확대가 18.6%,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회의 및 의견수렴이 18.0%로 다양한 홍보와 참여 방안 구축을 요구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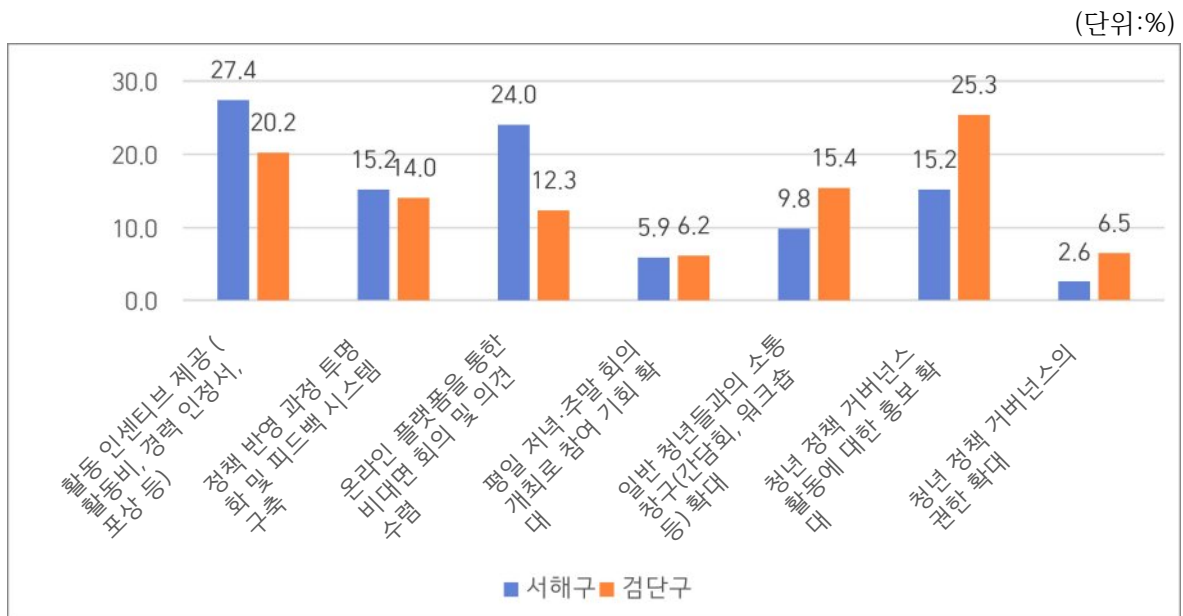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활동 인센티브 제공 (활동비, 경력 인정서, 포상 등)	198	24.8
정책 반영 과정 투명화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118	14.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회의 및 의견 수렴	158	19.8
평일 저녁·주말 회의 개최로 참여 기회 확대	48	6.0
일반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간담회, 워크숍 등) 확대	95	11.9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홍보 확대	151	18.9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권한 확대	32	4.0

서구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정책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서해구 지역의 경우 활동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플랫폼 확대에 대한 수요가 각각 27.4%, 24.0%로 높음
- 반면 검단 지역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홍보확대가 25.3%, 활동 인센티브 제공이 20.2%임
- 검단 지역과 서해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검단 지역 청년들이 홍보 확대를 더 중요하게 여긴 반면,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은 정책 거버넌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과 다양한 창구를 원한다고 볼 수 있음



구분	서해구	검단구
활동 인센티브 제공 (활동비, 경력 인정서, 포상 등)	27.4	20.2
정책 반영 과정 투명화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15.2	14.0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회의 및 의견 수렴	24.0	12.3
평일 저녁·주말 회의 개최로 참여 기회 확대	5.9	6.2
일반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간담회, 워크숍 등) 확대	9.8	15.4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홍보 확대	15.2	25.3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권한 확대	2.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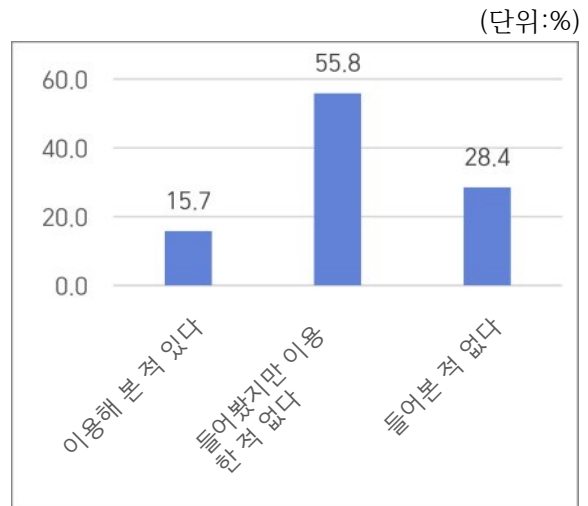
지역별 서구 청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정책 수요

카. 청년센터 서구1939 이용 현황

1) 청년센터 서구1939 인지 여부

- 서구 청년들은 청년센터 서구1939(이하 청년센터)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음
- 이용해본 적이 있는 청년은 15.7%,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은 28.4%임

구분	이용해본 적이 있다	들어봤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사례수(명)	134	452	214
비율(%)	16.8	56.5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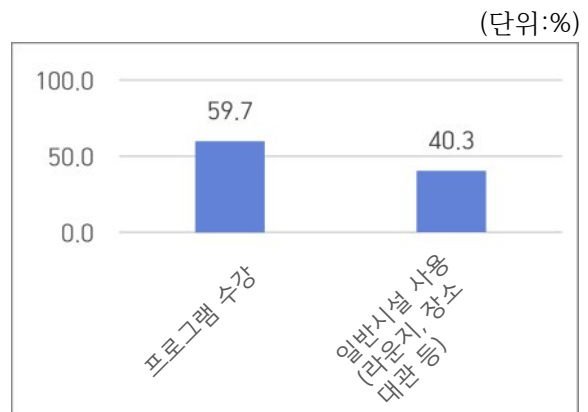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청년센터 서구1939 이용 경험

2)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청년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봤는지 조사한 결과, 59.7% 청년들이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라운지, 장소 대관 등을 이용한 청년은 40.3%임

구분	프로그램 수강	일반시설 사용(라운지, 장소 대관 등)
사례수(명)	80	54
비율(%)	59.7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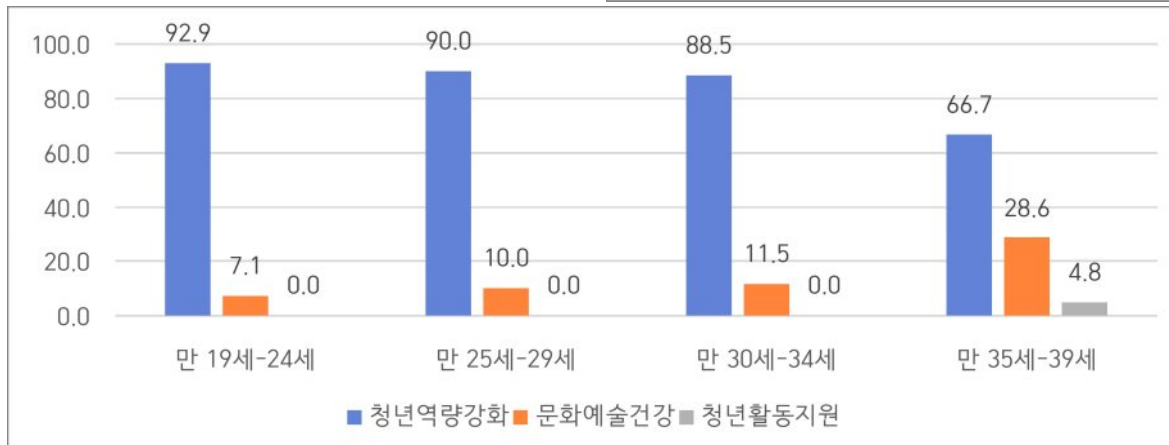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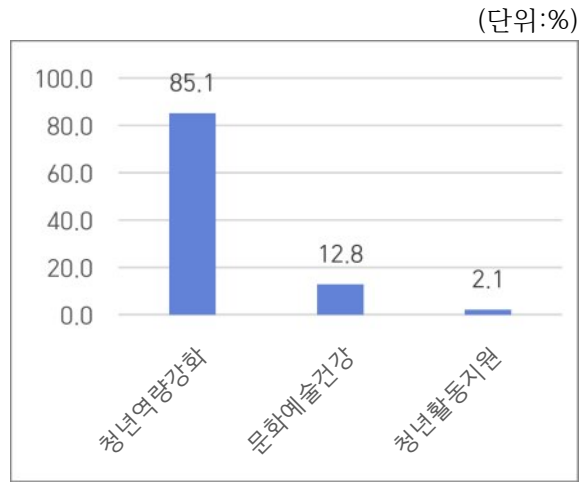


청년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3)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수강해본 적 있는 프로그램

-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이 85.1%로 가장 높았음
-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19~24세, 30~34세 청년들의 100%가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 반면 35~39세 청년 중에서는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33.3%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분	청년역량 강화	문화예술 건강	청년활동 지원
사례수(명)	68	12	1
비율(%)	84.0	14.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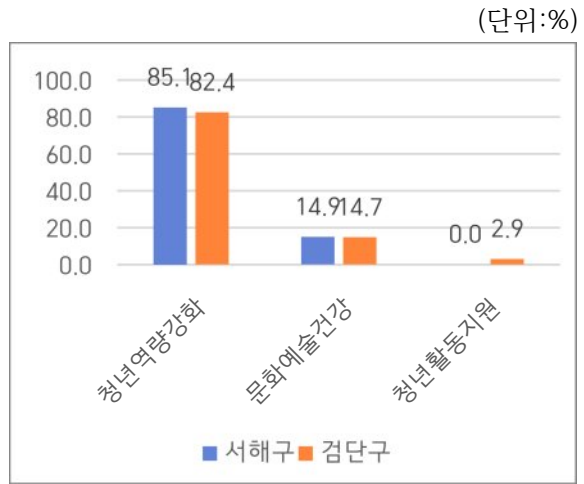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한 서구 청년의 경험

○ 지역별 비교 분석

- 대부분의 청년이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지만,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것에 비하여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검단 지역 청년들은 2.9%가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구분	서해구	검단구
사례수	47	34
청년역량강화	85.1	82.4
문화예술건강	14.9	14.7
청년활동지원	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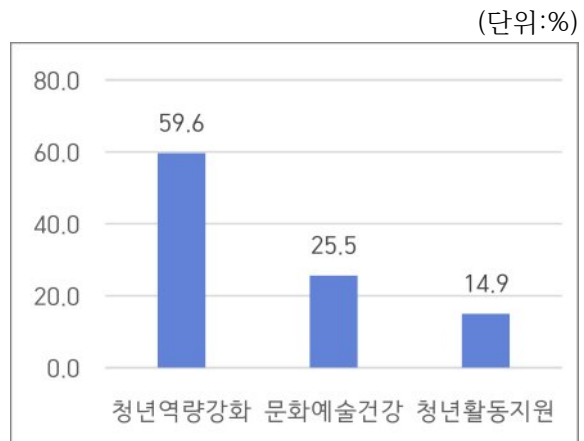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지역별 서구 청년의 경험

4)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년센터 서구1939 프로그램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청년역량강화가 59.6%로 가장 높았음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5~29세, 35~39세 청년들은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히 35~39세 청년들은 청년활동지원에 대한 수요가 40%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청년센터에서의 네트워킹과 다양한 모임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구분	청년역량강화	문화예술건강	청년활동지원
사례수(명)	55	17	9
비율(%)	67.9	21.0	11.1



구분	청년역량 강화	문화예술 건강	청년활동 지원
만 19세-24세	85.7	7.1	7.1
만 25세-29세	70.0	25.0	5.0
만 30세-34세	76.9	23.1	0.0
만 35세-39세	42.9	23.8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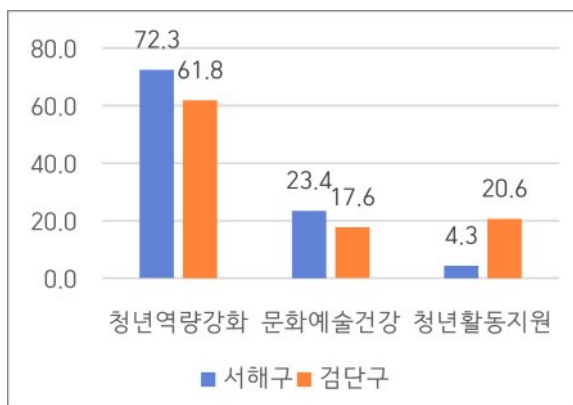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 없는 서구 청년의 프로그램 수요

○ 지역별 비교 분석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2~3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검단 지역과 서해구 지역의 청년들의 수요에 차이가 나타남
- 검단지역 청년들은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20.6%로, 서해구 지역 청년들의 4.3% 보다 훨씬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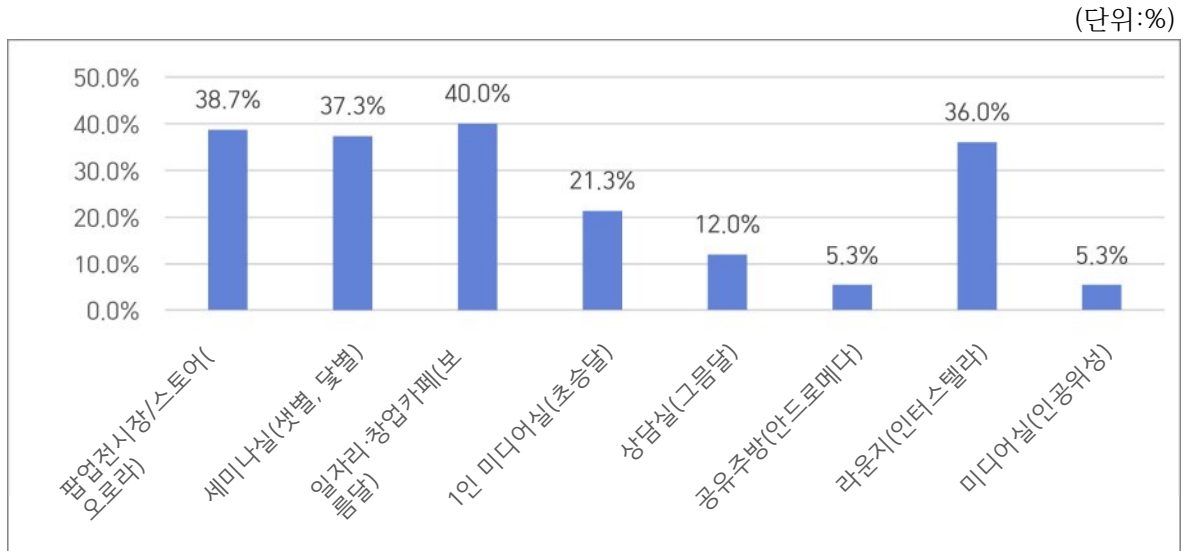
구분	청년역량 강화	문화예술 건강	청년활동 지원
서해구	72.3	23.4	4.3
검단구	61.8	17.6	20.6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 없는 서구 청년의 프로그램 수요

5)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해본 적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적 있는 시설에 대한 질문 일자리·창업카페, 세미나실, 팝업전시장, 라운지 등의 이용이 고르게 나타났음
- 반면 공유주방과 미디어실 이용률은 5.3%, 상담실은 12.0%, 1인 미디어실은 21.3%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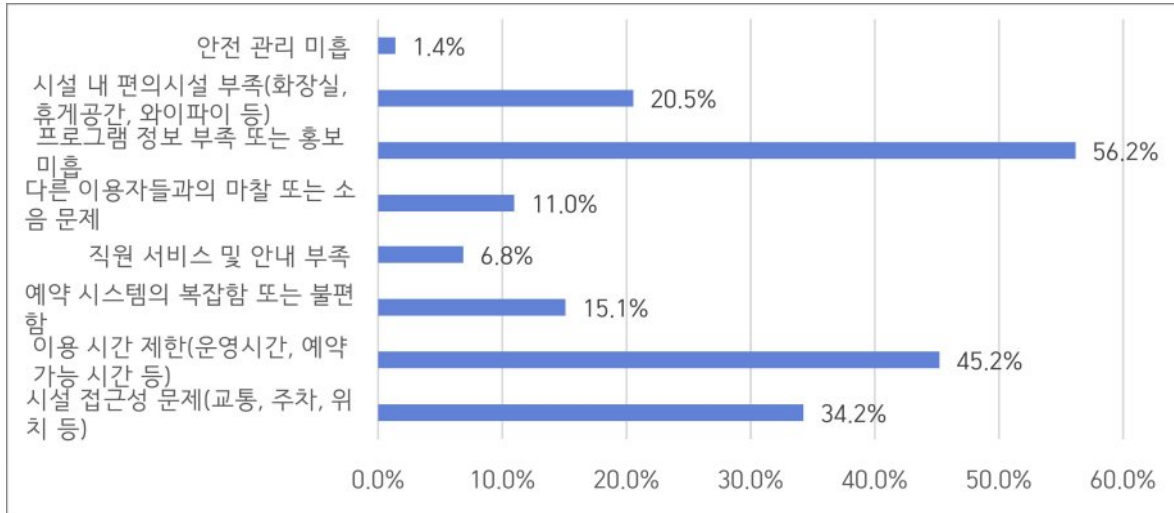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팝업전시장/스토어 (오로라)	41	31.3
세미나실 (셋별, 닷별)	49	37.4
일자리·창업카페 (보름달)	55	42.0
1인 미디어실 (초승달)	26	19.8
상담실 (그믐달)	11	8.4
공유주방 (안드로메다)	4	3.1
라운지 (인터스텔라)	52	39.7
미디어실 (인공위성)	4	3.1

서구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년센터 시설

6) 청년센터 서구1939 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청년센터 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청년들은 프로그램 정보 부족 또는 홍보 미흡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2%로 가장 높았고, 이용시간 제한(운영시간, 예약 가능 시간 등)이 45.2%였음
- 그 다음으로 시설 접근성(교통, 주차, 위치 등)이 34.2%, 편의시설 부족이 20.5%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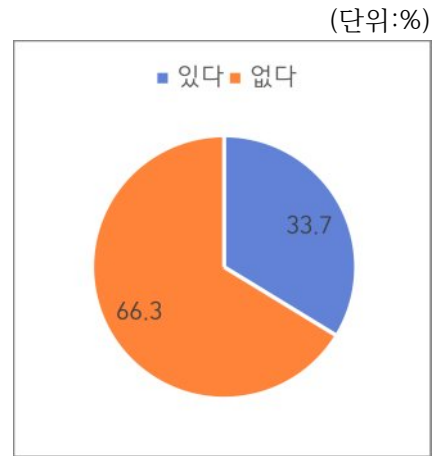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시설 접근성 문제 (교통, 주차, 위치 등)	42	32.8
이용 시간 제한 (운영시간, 예약 가능시간 등)	68	53.1
예약 시스템의 복잡함 또는 불편함	20	15.6
직원 서비스 및 안내 부족	7	5.5
다른 이용자와의 마찰 또는 소음 문제	14	10.9
프로그램 정보 부족 또는 홍보 미흡	69	53.9
시설 내 편의시설 부족 (화장실, 휴게공간, 와이파이 등)	25	19.5
안전 관리 미흡	1	0.8

서구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

7) 향후 청년센터 서구1939 이용계획

- 서구 청년들 중 청년센터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3.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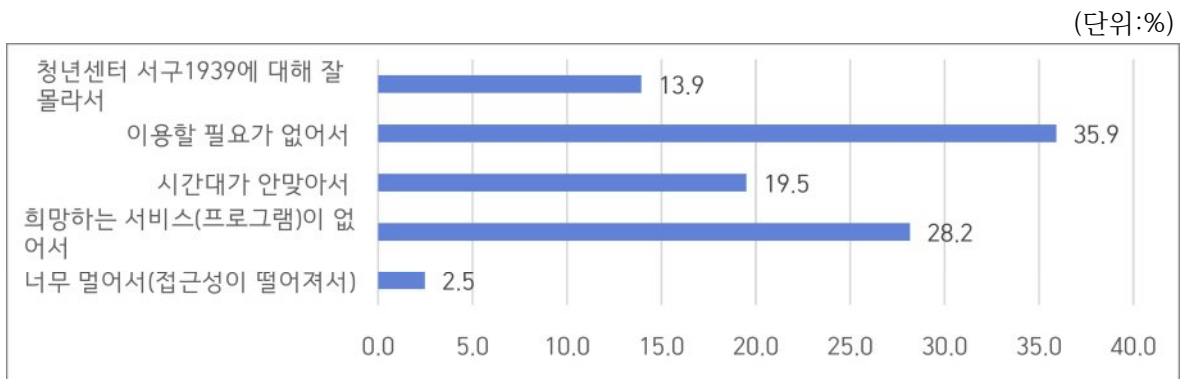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사례수(명)	301	499
비율(%)	37.6	62.4



청년센터에 대한 서구 청년들의 이용계획

8) 청년센터 서구1939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앞으로 이용계획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5.9%이고 희망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28.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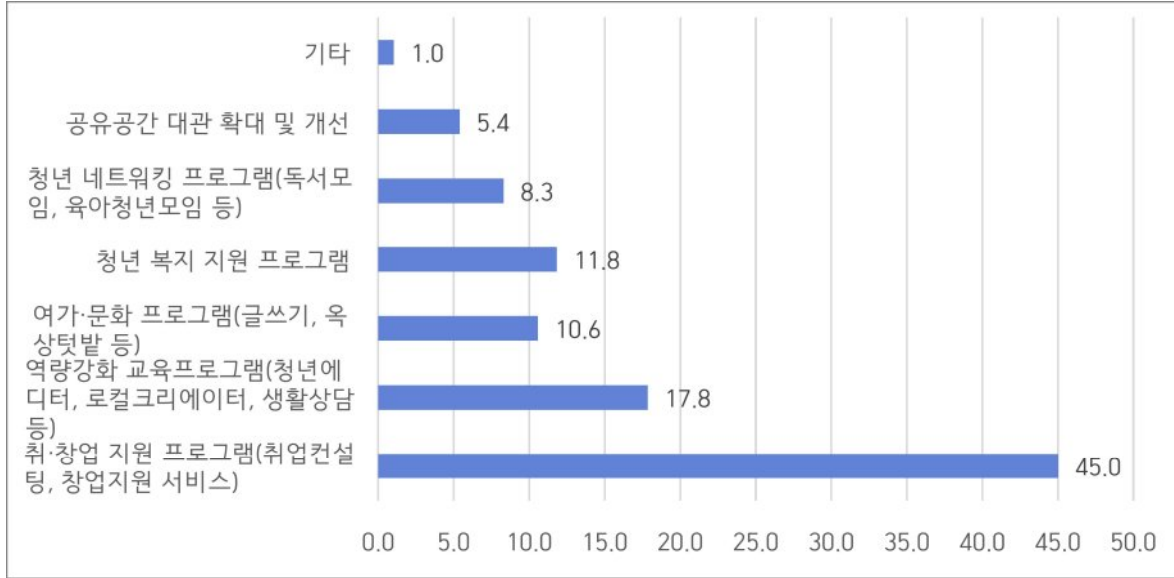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떨어져서)	10	2.0
희망하는 서비스(프로그램)가없어서	148	29.7
시간대가 안맞아서	94	18.8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171	34.3
청년센터 서구1939에 대해 잘 몰라서	76	15.2

서구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9) 앞으로 청년센터 서구1939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앞으로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높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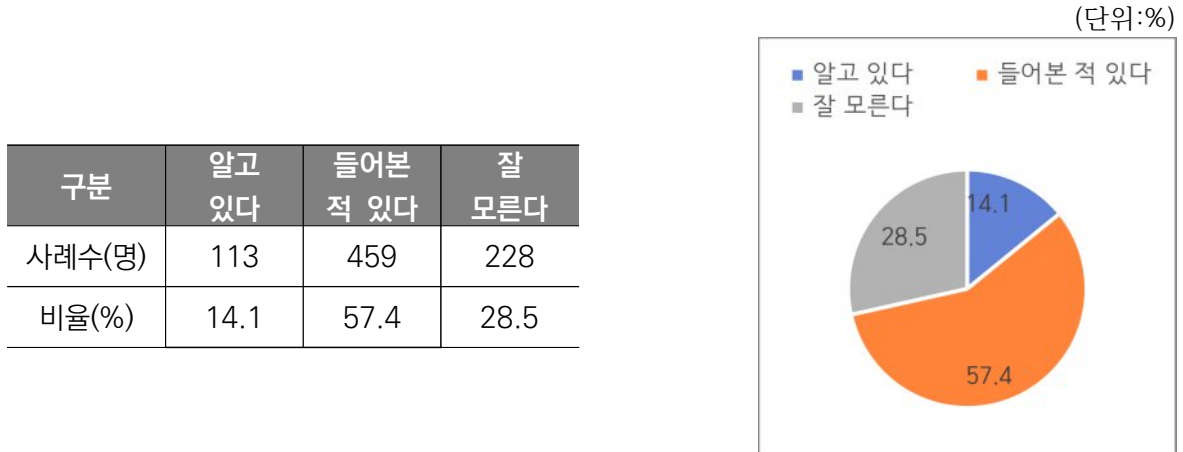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컨설팅, 창업지원서비스)	380	48.0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청년에디터, 로컬크리에이터, 생활상담 등)	140	17.7
여가·문화 프로그램 (글쓰기, 옥상텃밭 등)	72	9.1
청년 복지 지원 프로그램	106	13.4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독서모임, 육아청년모임 등)	56	7.1
공유공간 대관 확대 및 개선	32	4.0
기타	5	0.6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타. 청년친화도시

1) 청년친화도시 제도 인지 여부

- 서구 청년들은 청년친화도시 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7.4%,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1%로 조사됨



서구 청년의 청년친화도시 제도 인지도

2) 인천 서구의 이미지

- 서구 청년들에게 서구의 이미지는 '성장하기 좋은 서구'가 100점 만점 중 7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76.7점이었음
- 가장 점수가 낮은 이미지는 청년이 참여·협력하는 서구로 65.9점이었음



구분	1점 (낮음)	2점	3점	4점	5점 (높음)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0.0	1.0	22.9	58.4	17.8
좋은 일자리가 많은	0.0	2.3	35.8	44.0	18.0
창업, 기업하기 좋은	0.0	2.5	38.3	39.1	20.1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	0.0	0.8	26.4	54.0	18.9
청년이 참여·협력하는	0.0	1.3	44.1	44.3	10.4
아이 키우기 좋은	0.1	1.1	19.9	49.8	29.1
성장하기 좋은	0.0	1.3	14.1	49.9	34.8

서구 청년들이 생각하는 서구의 이미지

3) 5년 후 희망하는 서구의 이미지

- 서구 청년이 5년 후 희망하는 서구의 이미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서구'가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구'가 35.8%
- 반면 청년이 참여·협력하는 서구는 13.6%, 창업·기업하기 좋은 서구는 17.8%로 낮았음

(단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는서구	286	35.8
좋은 일자리가 많은서구	406	50.8
창업, 기업하기 좋은서구	142	17.8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서구	245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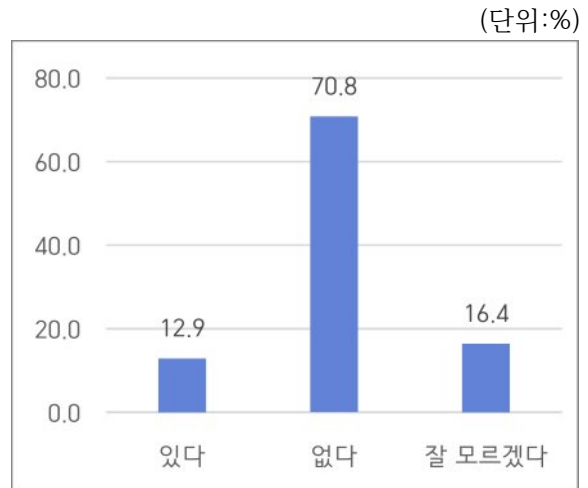
청년이 참여·협력하는서구	109	13.6
아이 키우기 좋은서구	184	23.0
성장하기 좋은서구	189	23.6
기타	2	0.3

서구 청년이 5년 후 희망하는 서구의 이미지

4) 향후 5년 이내에 서구를 떠날 계획

- 현재 서구 청년 중 70.8%가 5년 이내에 서구를 떠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4%, 떠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2.9%임
- 연령대별로 보면 19~24세 청년 중 23%가 서구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떠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감소하였음

구분	없다	잘 모르겠다
사례수(명)	566	131
비율(%)	70.8	16.4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만 19세-24세	23.0	58.4	18.6
만 25세-29세	16.7	64.5	18.8
만 30세-34세	9.6	79.9	10.5
만 35세-39세	5.8	75.4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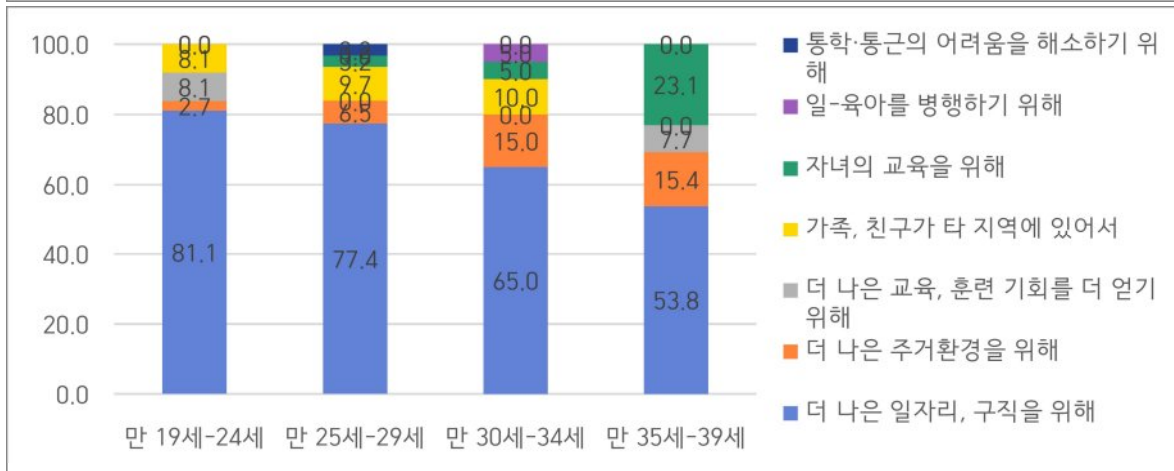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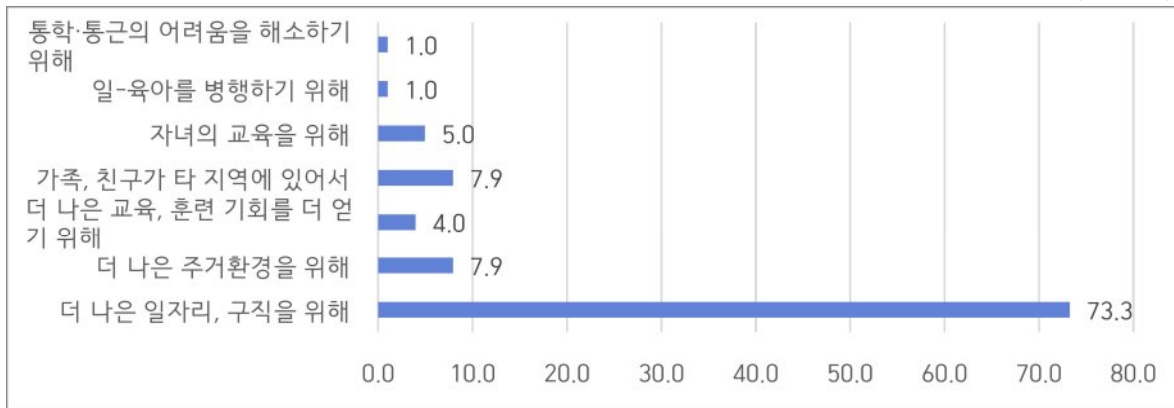


서구 청년이 향후 5년 이내에 서구를 떠날 계획

5) 향후 5년 이내에 서구를 떠날 이유

- 향후 5년 이내에 서구를 떠날 생각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구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대부분 더 나은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음
- 그 외 연령대별로 30~39세 청년들의 경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서구를 떠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 특히, 35~39세 청년은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이 23.1%로 나타났음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더 나은 일자리, 구직을위해	74	73.3
더 나은 주거환경을위해	8	7.9
더 나은 교육, 훈련 기회를 더 얻기위해	4	4.0
가족, 친구가 타 지역에 있어서	8	7.9
자녀의 교육을위해	5	5.0
일-육아를 병행하기위해	1	1.0
통학·통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1	1.0

서구 청년이 5년 이내에 서구를 떠날 이유

6) 서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

- 종합적으로 서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는 취업지원이 53.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주거안정 지원이 34.9%, 여가지원과 금융·생활지원이 약 27%임

(단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취업 지원	426	53.3
창업 지원	156	19.5
주거안정 지원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등)	279	34.9
금융지원 (학비, 생활비, 부채등)	221	27.6
여가, 문화생활 활성화	218	27.3
청년 간 관계망강화	51	6.4
건강 돌봄	32	4.0
청년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확대	52	6.5
결혼, 출산, 가족돌봄지원	145	18.1
기타	1	0.1

서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

3. 취약계층 청년

가. 취약계층 일반현황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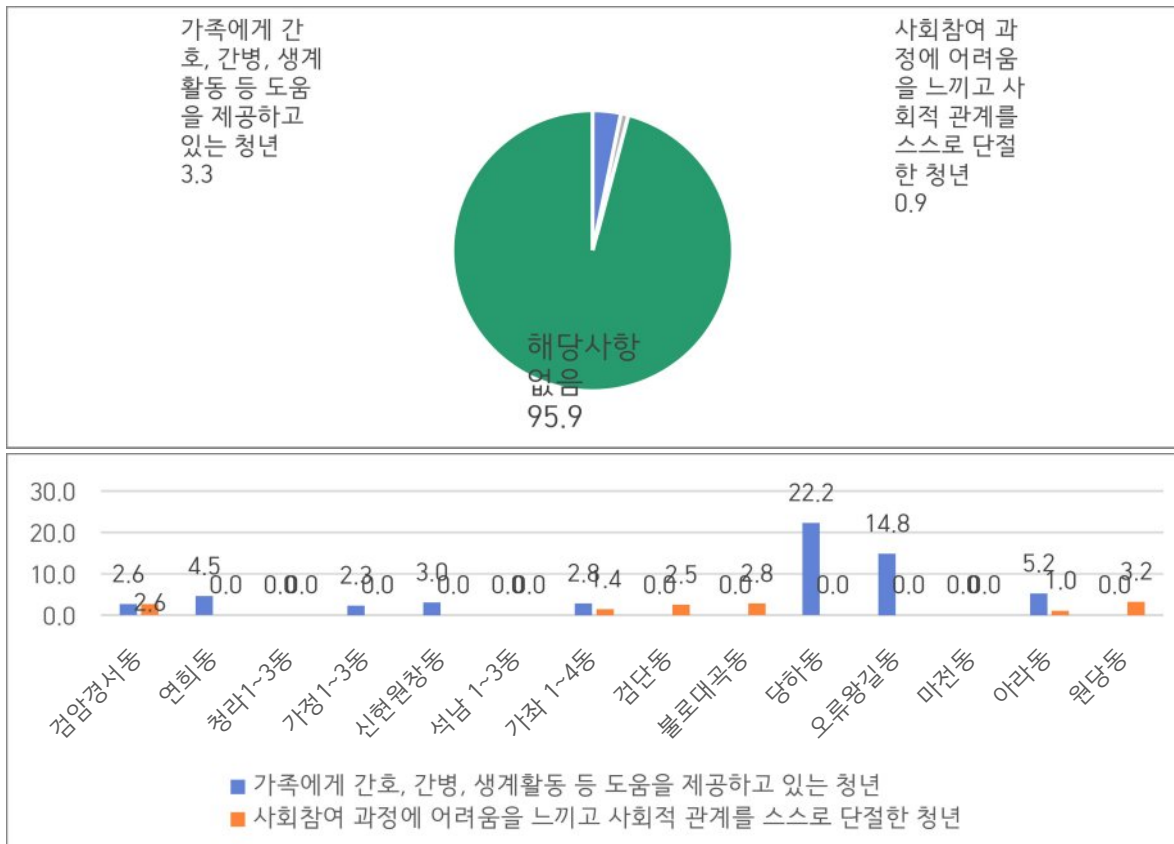
1) 돌봄청년

-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3.3%(2022년 선행연구 기준 19~34세 청년 중 돌봄청년은 인구주택총조사 4.8%, 건강보험빅데이터 3.6%)로, 전체 청년으로 추정할 때 서구의 돌봄청년은 5,806명으로 추정
- 지역별로 살펴보면 당하동에서 22.2%의 돌봄 청년이 거주

2) 고립청년

- 고립청년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0.9%로, 전체 청년으로 비교할 때 1,583명으로 추정
- 실질적으로 자신이 고립청년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고립청년이 더 많을 것이므로, 사회적 관계망을 기준으로 고립청년 추정 필요
- 직접 자신이 고립청년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기준으로 원당동 청년의 3.2%가 고립청년임

(단위:%)



○ 서구 고립청년 규모 추정

-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라 청년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파악
- 사회적 지지체계의 양을 판단하기 위해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특정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진행
-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7점, 평균 점수의 약 50% 이하에 해당하는 25점을 기준으로 사회적 고립을 구분
- 지역문화진흥원 (2023), 국민 사회적 연결성 실태조사의 심각~경계 수준 전체의 23.4%

판단 유형	판단 문항	구분		
		사회적 고립	고립 위험군	사회적 연결
정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0~25점	26~35점	36점 이상
정보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0~25점	26~35점	36점 이상
물질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0~25점	26~35점	36점 이상

- 실제로 사회적 지지체계의 양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청년은 5.8%로 조사되어, ‘고립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고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

구분	사회적 고립 청년	고립 위험 청년	사회적 연결 청년	합계
명수	48명	141명	640명	829명
비율	5.8%	17%	77.2%	100%

[표4-3] 서구 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조사 결과

구분	사회적 고립 청년	고립 위험 청년	사회적 연결 청년	합계
명수	10,186명	29,922명	135,817명	175,925명
비율	5.8%	17%	7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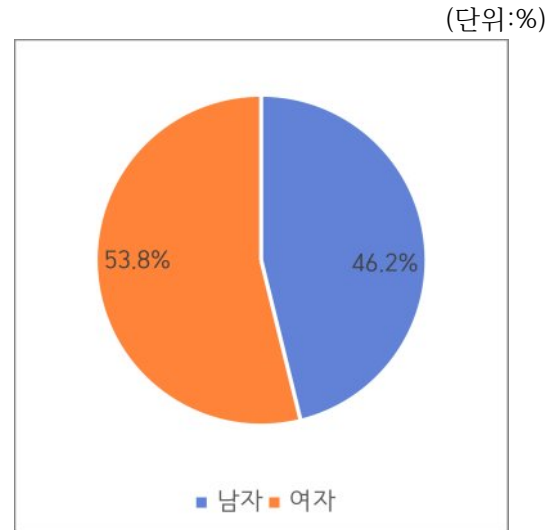
[표4-4] 서구 고립청년 규모추정 결과

나. 돌봄청년 응답

1) 돌봄청년 성별

- 돌봄청년 중에서는 여성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

구분	남자	여자
사례수(명)	12	14
비율(%)	46.2%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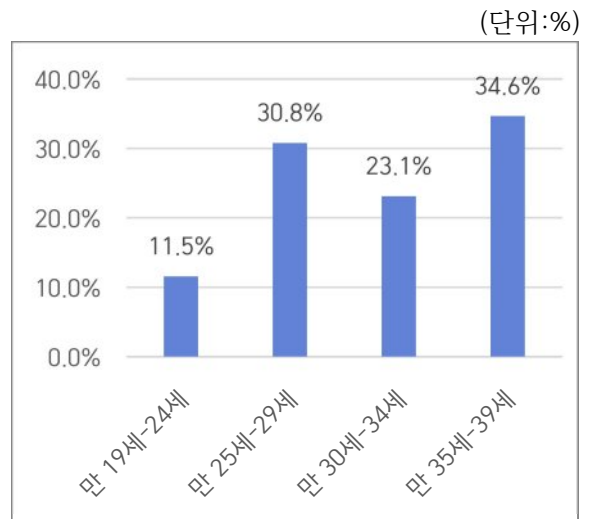


서구 돌봄청년의 성별

2) 돌봄청년 연령대

- 연령대에 따라 보자면 만25~29세, 만 35~39세 청년이 많았음

구분	사례수(명)	비율(%)
만 19세-24세	3	11.5%
만 25세-29세	8	30.8%
만 30세-34세	6	23.1%
만 35세-39세	9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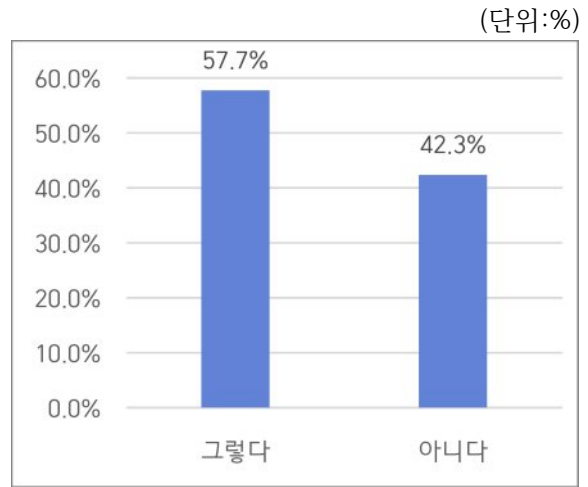


서구 돌봄청년의 연령대

3) 돌봄청년 소득 목적 근무 여부

- 지난주 소득목적의 근로 여부를 살펴보면, 근무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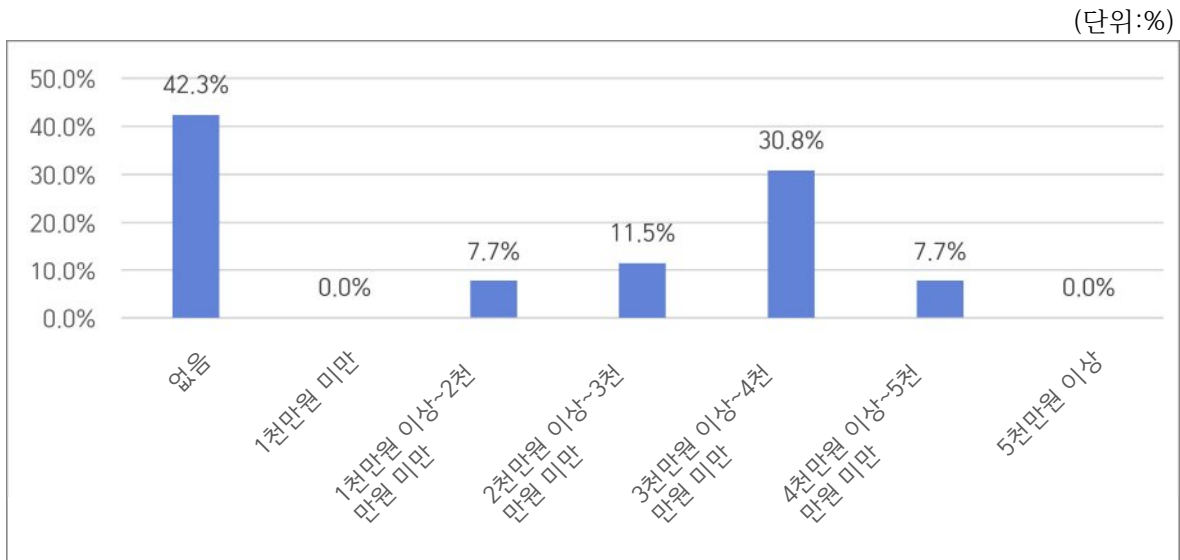
구분	그렇다	아니다
사례수(명)	15	11
비율(%)	57.7%	42.3%



서구 돌봄청년의 지난 1주간 소득 목적 근무 여부

4) 돌봄 청년의 소득

- 돌봄청년의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인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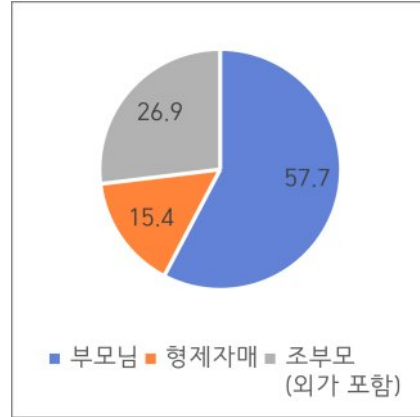


5) 돌봄이 필요한 가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7%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부모님	15	57.7
형제자매	4	15.4
조부모 (외가포함)	7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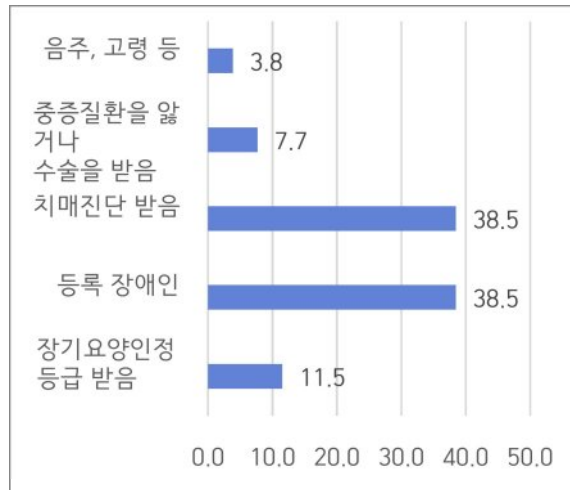
돌봄이 필요한 가족

6) 돌봄이 필요한 가족 유형

- 돌봄 대상 가족은 등록장애인이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가 38.5%, 등록 장애인이 38.5%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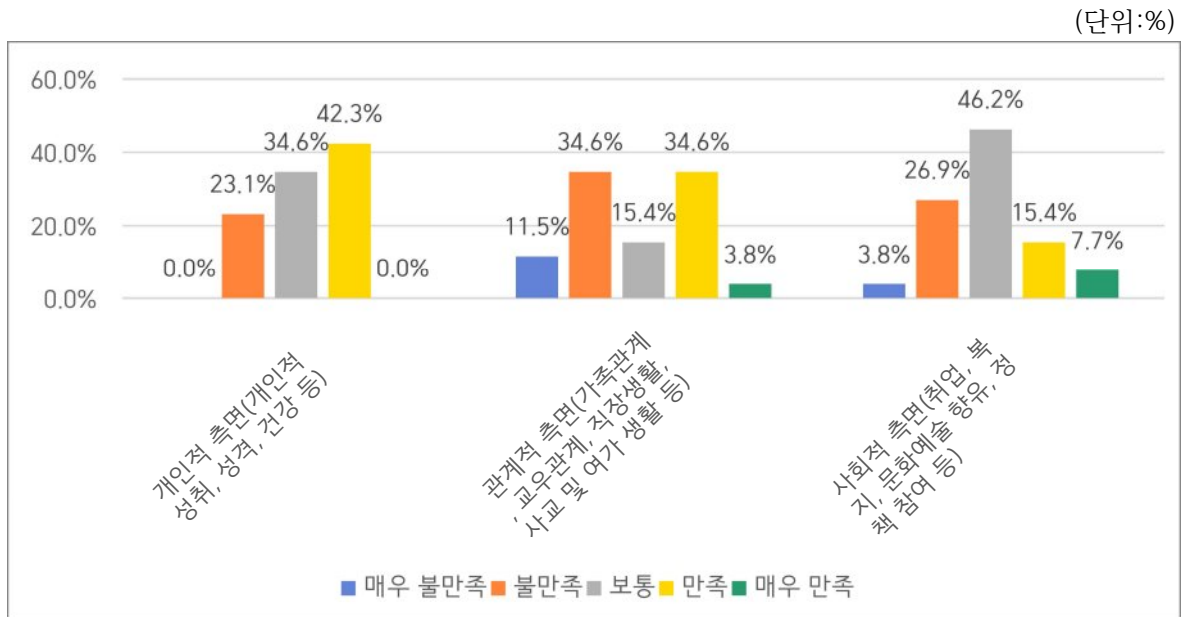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장기요양인정 등급 받음	3	11.5
등록 장애인	10	38.5
치매진단 받음	10	38.5
중증질환을 알거나 수술을받음	2	7.7
음주, 고령 등	1	3.8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유형

7) 돌봄청년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돌봄청년들은 서구 청년(불만족~매우 불만족 8.1%)비해 불만족 상황에 놓여있음
- 또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도 불만족(서구 청년 불만족~매우 불만족 7.9%)이 훨씬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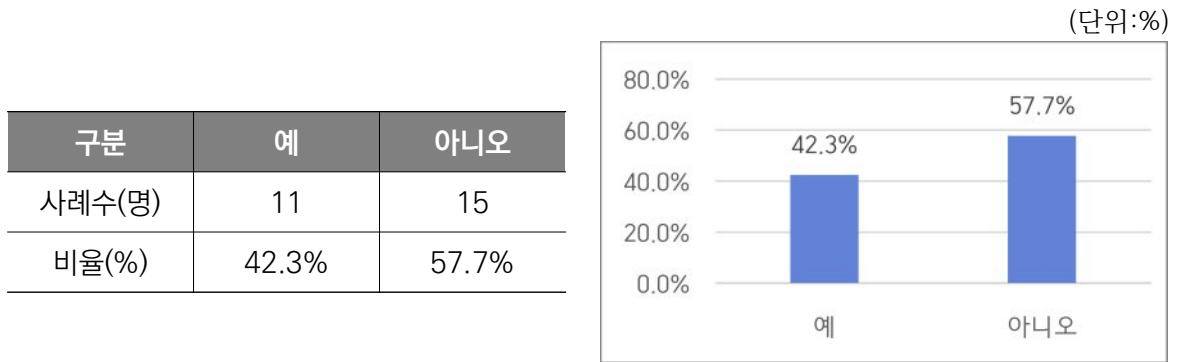


구분		개인적 측면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 (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생활, 사고 및 여가 생활 등)	사회적 측면 (취업, 복지, 문화예술 향유, 정책 참여 등)
매우 불만족	사례수(명)		3	1
	비율(%)	0.0%	11.5%	3.8%
불만족	사례수(명)	6	9	7
	비율(%)	23.1%	34.6%	26.9%
보통	사례수(명)	9	4	12
	비율(%)	34.6%	15.4%	46.2%
만족	사례수(명)	11	9	4
	비율(%)	42.3%	34.6%	15.4%
매우 만족	사례수(명)	0	1	2
	비율(%)	0.0%	3.8%	7.7%

서구 돌봄청년의 삶의 만족도

8) 2주 이상 슬픔, 우울감, 절망감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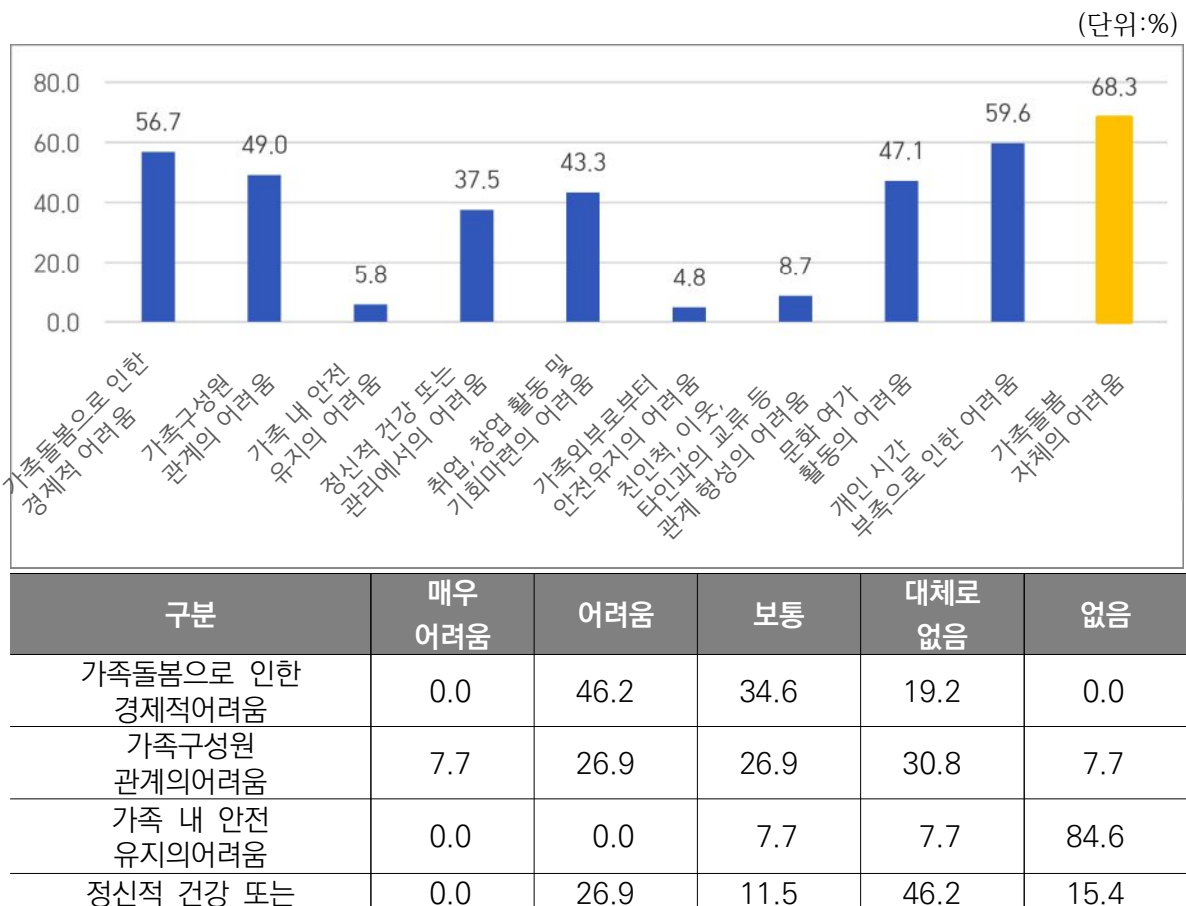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2주 이상 슬픔, 우울, 절망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42.3%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전체 청년(7.5%)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남



서구 돌봄청년이 지난 1년간 2주 이상 슬픔, 우울감, 절망감 경험 여부

9) 돌봄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 돌봄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돌봄 자체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음
- 그 외에도 개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 크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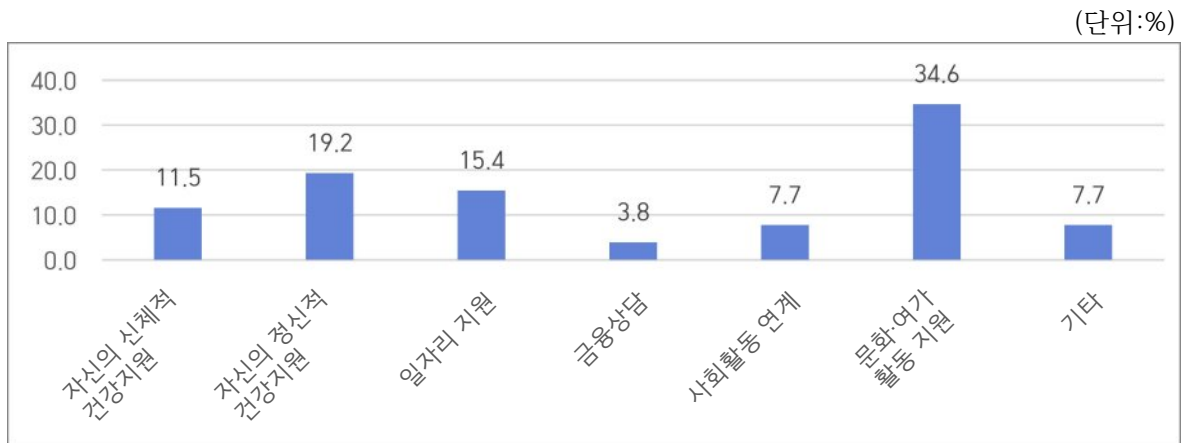


관리에서의 어려움					
취업, 창업 활동 및 기회마련의 어려움	3.8	38.5	11.5	19.2	26.9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0.0	0.0	7.7	3.8	88.5
친인척, 이웃, 타인과의 교류 등 관계형성의 어려움	0.0	0.0	3.8	26.9	69.2
문화 여가 활동의 어려움	0.0	23.1	46.2	26.9	3.8
개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7.7	34.6	46.2	11.5	0.0
가족돌봄 자체의 어려움	11.5	53.8	30.8	3.8	0.0

돌봄청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0)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서비스

- 돌봄청년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 중 가장 큰 부분은 문화·여가 활동 지원
- 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중 개인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니라 돌봄 노동 시간을 줄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신의 신체적 건강지원	3	11.5
자신의 정신적 건강지원	5	19.2
일자리 지원	4	15.4
금융상담	1	3.8
사회활동 연계	2	7.7
문화·여가 활동지원	9	34.6
기타	2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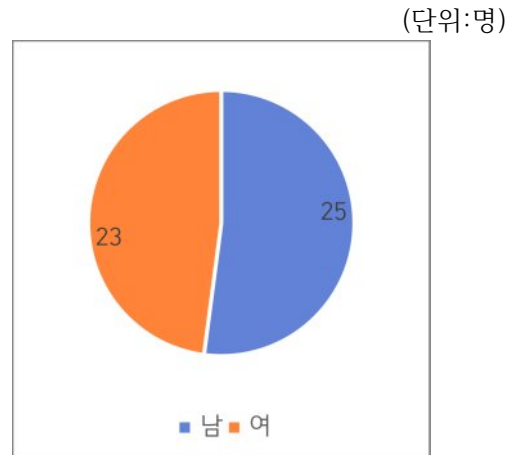
서구 돌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

다. 고립청년 응답

1) 고립청년 성별

- 서구의 고립청년의 남녀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편임

구분	남	여
사례수(명)	25	23
비율(%)	52.1%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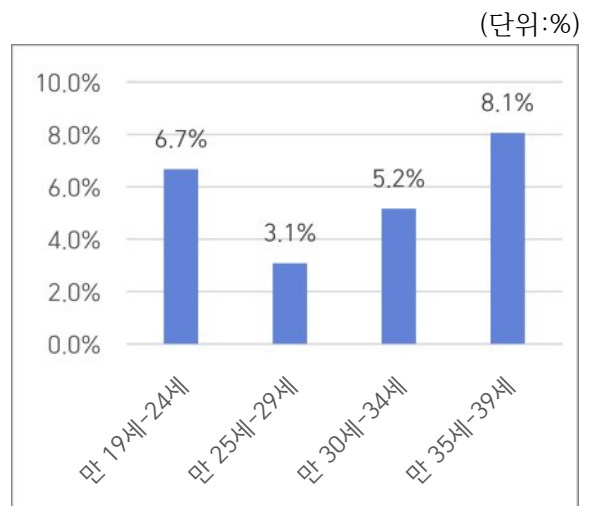


서구 고립청년의 성별

2) 고립청년 연령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5~39세의 청년 중 고립청년 비율이 8.1%로 가장 높음
-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입시 또는 취업 이행과정에서의 실패 이후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만 35~39세의 경우 고립의 장기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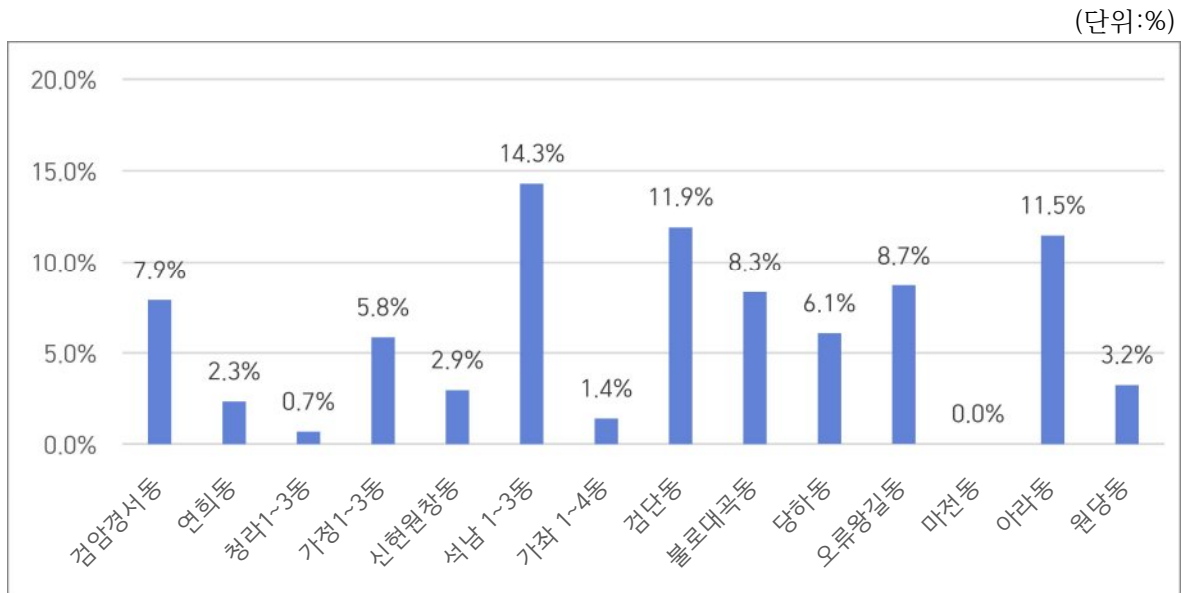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만 19세-24세	11	6.7%
만 25세-29세	6	3.1%
만 30세-34세	12	5.2%
만 35세-39세	19	8.1%



서구 고립청년의 연령대

3) 고립청년 거주지역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석남동의 청년 중 14.3%가 고립청년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검단동과 아라동이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명)	비율(%)
검암경서동	6	7.9%
연희동	1	2.3%
청라1~3동	1	0.7%
가정1~3동	7	5.8%
신현원창동	1	2.9%
석남 1~3동	7	14.3%
가좌 1~4동	1	1.4%
검단동	5	11.9%
블로대곡동	3	8.3%
당하동	2	6.1%
오류왕길동	2	8.7%
마전동	0	0.0%
아라동	11	11.5%
원당동	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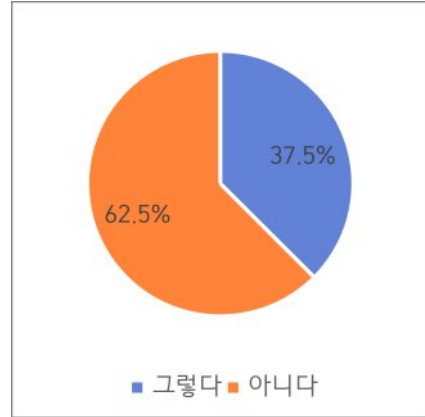
서구 고립청년의 거주지

4) 고립청년 근무 여부

- 고립청년 중 62.5%가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단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사례수(명)	18	30
비율(%)	37.5%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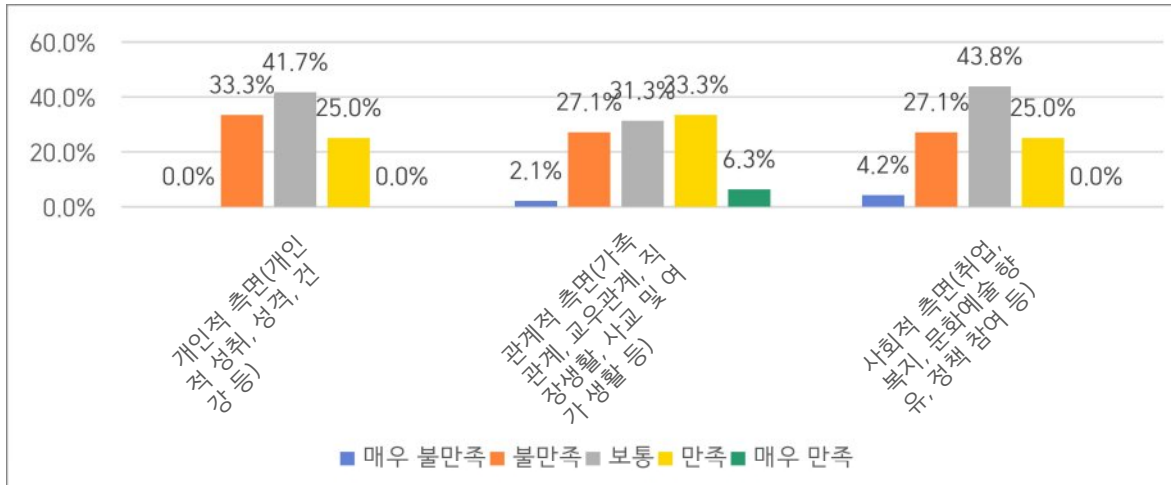


서구 고립청년의 지난 1주간 근로 여부

5) 고립청년 삶의 만족도

- 특히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구분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생활, 사고 및 여가 생활 등)	사회적 측면(취업, 복지, 문화예술 향유, 정책 참여 등)
매우 불만족	사례수(명)	0	1	2
	비율(%)	0.0%	2.1%	4.2%
불만족	사례수(명)	16	13	13
	비율(%)	33.3%	27.1%	27.1%
보통	사례수(명)	20	1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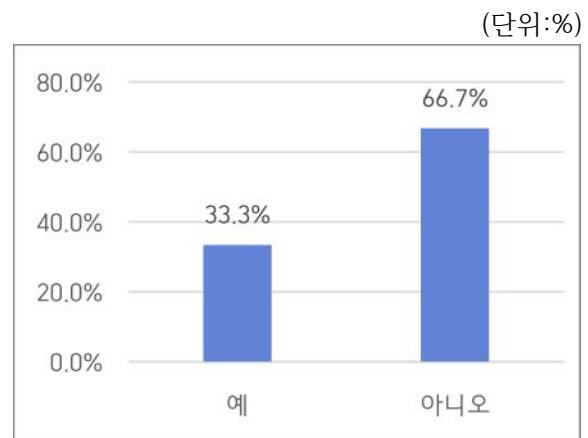
	비율(%)	41.7%	31.3%	43.8%
만족	사례수(명)	12	16	12
	비율(%)	25.0%	33.3%	25.0%
매우 만족	사례수(명)	0	3	0
	비율(%)	0.0%	6.3%	0.0%

서구 고립청년의 삶의 만족도

6) 고립청년 2주 이상 슬픔, 우울감, 절망감, 무력감 등 경험

- 지난 1년간 2주 이상 슬픔, 우울, 절망감 등을 경험한 비율도 33.3%로 서구 전체 청년들의 평균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났음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명)	16	32
비율(%)	33.3%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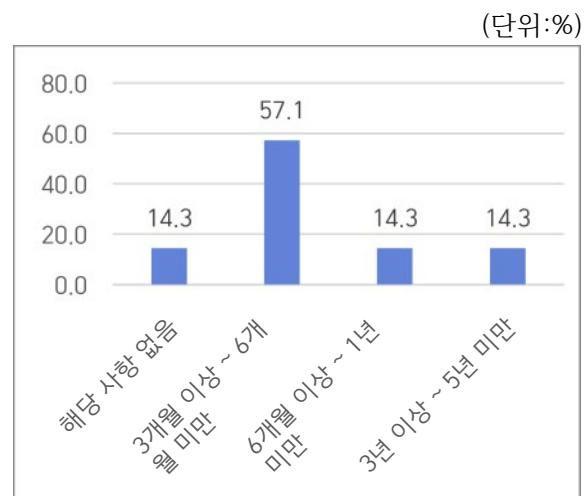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서구 고립청년의 심각한 우울감 경험

7) 고립 기간

- 고립청년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3~6개월 정도의 고립기간을 경험

구분	사례수(명)	비율(%)
해당 사항 없음	1	14.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	57.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	14.3
3년 이상 ~ 5년 미만	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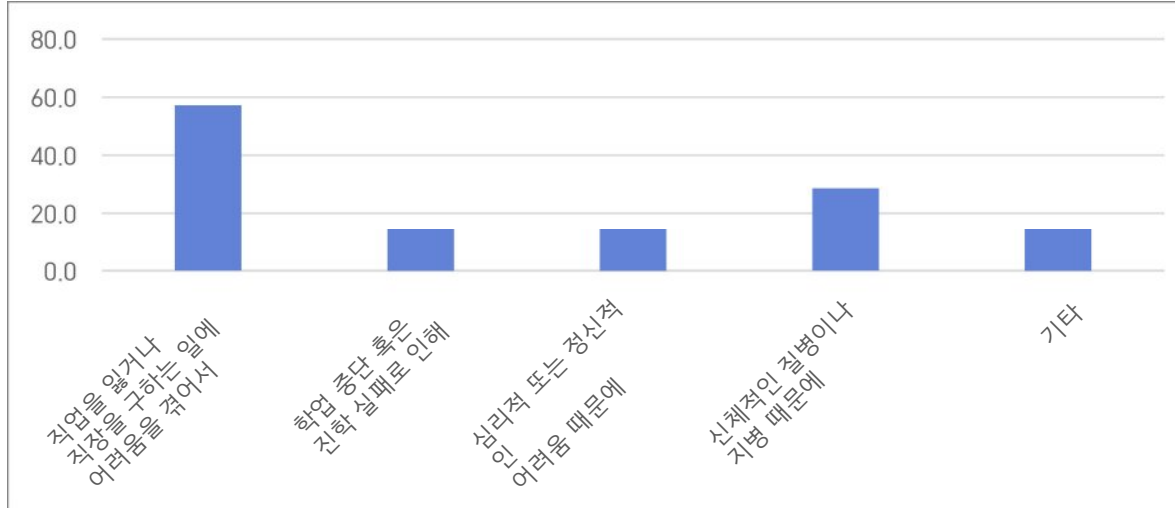


고립청년의 고립 기간

8) 고립의 계기

- 고립의 계기는 57.1%가 직업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응답

(단위:%)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서	4	57.1
학업 중단 혹은 진학실패로 인해	1	14.3
심리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때문에	1	14.3
신체적인 질병이나 지병때문에	2	28.6
기타	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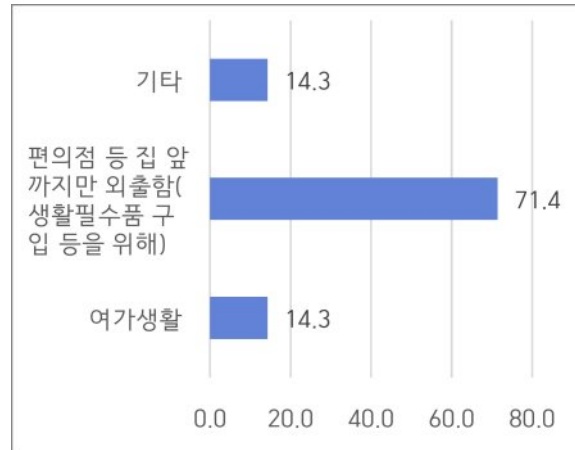
고립청년이 고립하게 된 계기

9) 학교/직장 외에 외출하는 목적

- 대부분 학교/ 직장 외에는 편의점 등 집 앞까지만 외출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여가생활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
- 고립청년이라고 해서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여가생활	1	14.3
편의점 등 집 앞 앞까지만 외출함(생활필수품 구입 등을 위해)	5	71.4
기타	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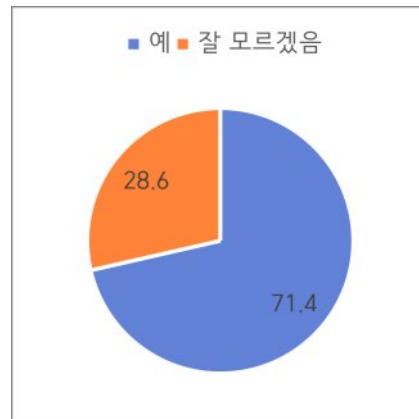
고립청년이 외출하는 목적

10) 고립에서 벗어날 의향

- 앞으로 고립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71.4%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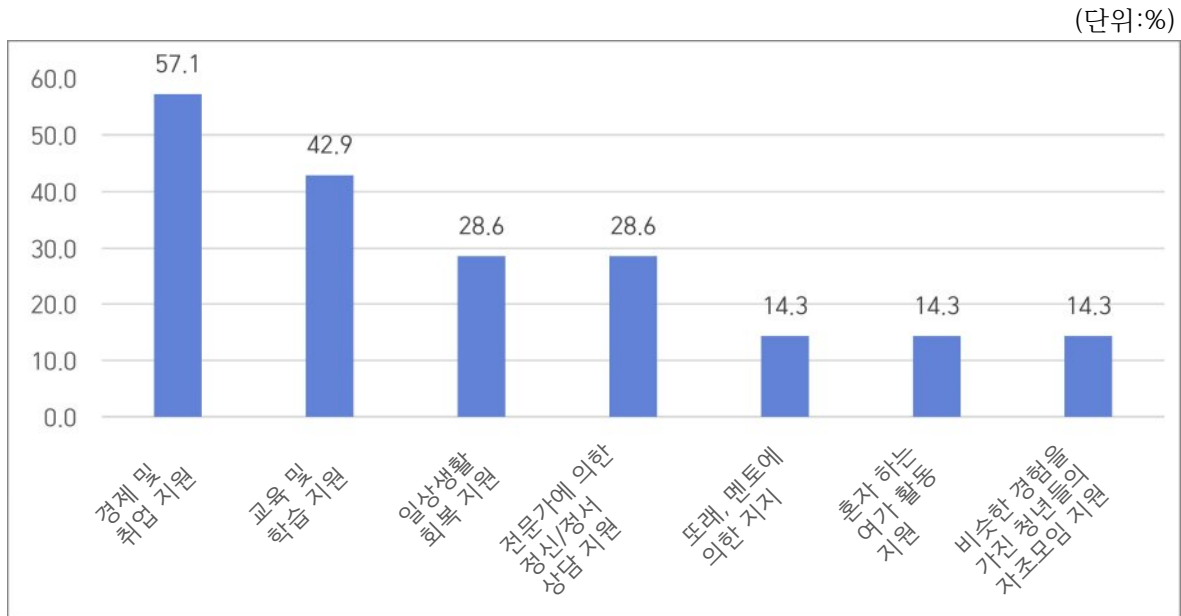
구분	예	잘 모르겠음
사례수(명)	5	2
비율(%)	71.4	28.6



고립청년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의향

11)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 고립의 계기가 취업 및 이직 과정에서의 어려움인 만큼 고립청년이 원하는 지원은 경제 및 취업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경제 및 취업지원	4	57.1
교육 및 학습지원	3	42.9
일상생활 회복지원	2	28.6
전문가에 의한 정신/정서 상담지원	2	28.6
또래, 멘토에 의한 지지	1	14.3
혼자 하는 여가활동 지원	1	14.3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의 자조모임 지원	1	14.3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II | 심층인터뷰

1. 조사 개요

가. 인터뷰 기간

- 2025년 9월~10월

나. 인터뷰 대상

- 서구에서 거주, 재학, 재직 중인 19~39세 청년
- 재직자, 창업자, 취업준비생 등 부문별 청년
- 청년협의회, 청년활동가 등 이해관계자

다. 인터뷰 방법

- 1:1 심층인터뷰 및 심층그룹인터뷰

라. 주요질문 및 검토사항

- 인천 서구에 대한 평가(인천 서구 특징점, 자랑거리, 애로사항 등)
- 인천 서구의 청년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수준
- 인천 서구 청년 생활 실태
- 인천 서구 청년정책의 방향성
- 인천 서구 청년 지원 정책 아이디어 및 수요
- 청년친화도시 인천 서구의 이미지

2. 응답

가. 경제적 자립 지원

1) 일자리

○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위한 멘토링 수요가 매우 높음

- 취업을 준비하는 서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필요로 함
- 강연형 교육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수익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멘토링이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수익이 되는 건지, 취업이 되는 스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다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많고, 진짜 써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테일이 빠져있다는 생각입니다. 강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멘토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이력서를 실제로 봐주면 좋겠어요. 쓰는 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교정하고 체크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도움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쓴 걸 전문가가 봐주는 형식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공고를 봤을 때 어떤 회사를 걸러야 하는지도요.”

“취업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건 엑셀이나 PPT 이런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적인 업무를 할 때 어차피 배워야 하니까요. 사무프로그램 쓰는 법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쓸 수 있는 교육이요.”

○ 일자리와 관련되어 서구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양질의 일자리,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임

-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서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구 외 인천이나 서울 지역까지 일자리를 찾아볼 수 밖에 없음

“청년은 서울로 일자리 많이 하고요. 서구 안에서 일하는 친구는 한 명인가? 다 타 지역에서 일을 하니까요. 청년들이 직접 공단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은 없어서 일자리를 타 지역에서 찾고 있어요.”

“엄청 큰 데(회사)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서구로 범위를 좁혀서 보다가 서울도 같이 보고요. 서구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서구만 볼 순 없으니까요. 마포구 쪽이면 버스가 한 시간이면 가니까요.”

- 청년들에게 ‘일경험’이란 단순히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습득
 - 단순히 구직으로 연결되기보다 취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걱정하는 실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램

“일머리가 자기는 없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소통할 수 있을까? 회사에 들어가서 해준 게 없는데. 일자리 쪽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무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도 회사를 한 번 경험해보면 사무직 이런 건 할 수 있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무직 인턴도 엄청 원할 것 같아요. 엑셀 다루는 거, 한글 다루는 걸 짧게 교육 받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일 경험은 구직동기 정도 되니까 채용전환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하니까요. 초년생들을 위해서 회사생활 꿀팁 같은 걸 짧게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인턴할 때 못했던 게, 단체쪽지 날리는 그런 걸로 지적받은 적 있거든요. 파일 같은 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들어가서요.”

2) 창업

- 현재 서구에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제외하면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편

“창업센터가 검단구에 생기면 여긴 창업은 없어요. 아라뱃길에 공간이 있지만 사실 누가 가서 할까 싶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구에서 사업을 하기 쉽지 않아요. 서구 구내에 창업 관련 정책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장단지가 많다 보니까 웬만큼 규모가 있으신 단지가 많아서 지원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서구 창업 안 쉬워요. 서구 말고 회사를 차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연수구, 남동구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대학 근방에서 차라리 랩실 있는 데서 시작해라...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년기업 활성화밖에 없었어요.”

- 청년이 청년에게 알려주는 창업 청년 멘토링을 통해 실무적 네트워크 확장 및 정보 교류의 기회가 증가하길 바람

- 창업 강의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인터넷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혼자 공부했어요. 지금은 많이 늘었고요. 아직 배울 건 있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취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창업도 되게 많이 경험해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창업강의 보면, 창업을 할 엄두가 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영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청년이 찾으면 좋겠어요.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게 되는데, 청년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좋지 않은가 싶어요. 청년위원회나 청참단에 있는 분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너무 바쁘셔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청년기업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신규 창업 공간에 대한 투자보다 실제로 자영업·창업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청년 창업공간도 필요하지만, 지리적 위치나 조건을 고려하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보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원이 효과적

“청년이 특화되어야 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월세지원처럼, 청년이 창업하려고 하면 비어있는 상가(n년 이상)에 월세나 관리비를 지원하면 좋겠어요. 거북시장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드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TF를 꾸리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년들도 신축 원해요. 혜택이 있어서 가는 거지, 원해서가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정서진... 차 없는 청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무상으로 해놨는데 그곳은 실효성이 없어요.”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소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안 그래도 청년몰 때문에 시장 거기를 갔는데, 임대지원밖에 뭐가 없고... 저도 장소를 보면 뭘 만들면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위치들이 정말 떠오르는 게 없는 위치예요. 음식점하기도 애매하고 유통업? 그랬던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위치장소가 아니어서 기업하는 친구들 데려갔지만...”

3) 재테크

- 청년들은 단순히 구직 및 창업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월급 관리, 투자 방법, 주택 구매 시 계약 등 생활밀착형 금융 지식에 대한 높은 수요
 - 재테크 및 금융 관련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유튜브 등 비체계적인 경로에 의존
 - 청년정책에서는 예금을 넘어선 자산 관리, 계약서 검토, 주거 관련 금융 등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테크? 이런 강의는 거의 없어요. 유튜브 빼고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작고 소중한 월급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예금 외에.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집 살 때, 재테크나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강사님이 알아서 월급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는 게 제일 안정성이 있는지. 초급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간단한 상식이요.”

“그리고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고정지출비를 할 수 있는 경제공부, 경제상식에 대한 공부, 금융 등에 대한 것들,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나. 생활기반 강화

1) 주거

- 서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
 - 교통, 생활인프라, 집값 등에 있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

“시장도 구석구석 많고 물가도 저렴하고 하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자취하기 좋은 곳이에요.”

“가성비가 좋은 동네라고 해야 하나요. 집값이 저렴한 거에 비해 인프라 나름 괜찮고요. 사람친화적인 도시예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죠. 2인 가구 사는데, 좋아요.”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서울 갈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추홀에 살 때는 힘들었는데, 서구는 공항철도, 1호선, 7호선이 있어서 7호선 타면 강남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쪽은 특히 상가가 잘되어 있어서 먹을 것도 적당히 있고 도시환경이 잘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요. 청년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공원도 아기들이 많아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검암역 근처가 교통이 편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자취하는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 합니다. 남동구나 중구나 연수구 쪽은 인천에서 인천 가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요. 수도권에서 살면서 직장도 서울로 잡고 싶다고 하면 서구 아주 추천해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주거 환경 인식이 다르지만, 구도심은 주차 및 녹지공간 등의 부족, 환경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정화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러운 것 같습니다. 송도는 계획된 도시라 시민의식이 높는데, 구도심은 덜 합니다. 서구는 빌라가 많고 오래된 곳이라 끈끈함은 있지만, 청년들보다는 나이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된 도시와 구도심의 차이가 있긴 해요. 확실히요. 신도시와 구도심의 차이요. 고용센터가 아라동에 있고, 구석에 있어서 불편하고요.”

2) 교통

- 서울 등 서구 외부로의 이동은 수월하지만, 서구 내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은 거주지에서 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
 - 공단 등 지역 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인재 채용의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음

“인프라가 나쁘지 않아요. 장학제도도 있는 편이고, 인천 2호선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서울 가기가 진짜 편해요. 교통이 좋죠. 홍대까지 한 30분이면 되니까요.”

“교통이요. 서울은 따릉이가 있는데 서구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릉이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까지 가는 데 따릉이만 이용해도 훨씬 편하니까요. 가정역 옆에 따릉이 같은 거 놔두면 정말 좋을 듯해요.”

“버스 노선이 점점 사라져요. 예전에는 버스가 많았는데 노선이 개편되고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루원시티 신도시 쪽은 정말 교통이 불편해요.”

“서구의 교통이 불편해요. 처음에 엄청 당황했어요. 부평구에서 서구 여기 오는데 차로 30분 걸리는데 버스 타고는 1시간 걸려요. 서구 내에서도 유일한 지하철이 인천지하철 2호선하고 석남역이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일단은 교통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어딜 가나 머니까...”

3) 복지

○ 자영업 및 창업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발생

- 자영업·창업 청년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청년 지원사업이 구직자 및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창업 청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창업청년들은 쉽다는 걸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청년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 지자체에선 어떤 지원도 없어요. 지자체가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육아도 마찬가지로 예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청년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4) 취약계층 대상 정책

○ 서구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돌봄 제도에 대한 선진 정책 사례 발굴과 시행이 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자치구임

- 특히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돌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대표적인 자치구
- 행정의 의지와 역량이 정책사업으로 잘 드러나고 있어서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기업, 단체, 조직 60개를 발굴해서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밀키트를 만들어주거나 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굴, 관리, 사례관리, 후속까지 단계를 체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복지 쪽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돌봄의 모델을 서구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편입니다. 고민하시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기관 협약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40개 단체가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음

- 개별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감수성은 서구도 갖추어진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 정책 사업 개발 및 발굴이 필요함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소통하고 업무분담하고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용역 형태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40개 단체가 연초에 십시일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O구는 조례 개설 이후에 자격증 지원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평이합니다. 서구는 좀 더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감수성까진 갖춰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구청장님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 청년들을 위한 효능감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청년들은 높은 재참여율을 보임

- 하나의 프로그램만 참여하기보다, 청년정책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며, 지역 청년 네트워크망을 확장해나가고 있음

“8~90% 정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재참여비율이 거의 높고, 우연한 만남에서 한두 명씩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장점이라 하면 청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은둔고립청년이 A 프로그램을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어쩌다가 구직활동하다가 이력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요. 이력서 사진이 몇만 원은 하는데 그걸 공짜로 해준다길래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친해지고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어요. 아까 말한 성장 프로젝트랑 휴먼북라이브러리라고 약간 일반인 중에서 지식 나눔을 하는 봉사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해봤고 복지재단에서 행복캠프라고 소통이 어려운 청년들과 캠프를 가는 것도 있었어요.”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신청했는데 서구 사람들이랑 소통하니까 좋더라고요. 우울감도 해소가 되었고,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있었으면 절대 혼자 안 할 텐데 할 수 있어서 좋은 느낌이에요. 센터에서 준비해주다 보니까 이것저것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느낌? 심리상담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마음건강에 대한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취약계층과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 취약계층 청년당사자 조직 및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

- 취약계층 청년들 대상의 복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적·심리

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라포 형성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공무원 및 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전문 훈련이 필요
- 역량있는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들의 조직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역할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필요

“공무원 이해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기초에 흔들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장 교육도 중요합니다.”

“민간단체, 당사자단체, 이런 민간의 역할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현장 내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당사자 조직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자립전담 요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당사자들로 구성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다. 사회적 연결 강화

1) 마음건강

○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필요

- 청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는 예방 캠페인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공간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재
- 가족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개입 체계 구축 요구

“자살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게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건강 일 수도 있고요.”

“마음건강은 정말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른 되고 나서야 10대 때 우울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스를 풀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얻는 피로감을 어떻게 분출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청년의 멘탈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거나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 좋아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투자하는 게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 실패와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 환경 조성

- 청년에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도전 의욕 저하로 연결됨
- 실패를 허용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사회적 안전망 및 심리적 지원 체계 필요
-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청년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

어릴 때 했던 코인노래방이나 좋아하는 걸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긴 했는데, 민중도 받았는데 어른이 아니라 자아가 어린 느낌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엄마 아빠 눈에 아기인가?

청년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역할을 나라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두렵지 않게 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요. 필요한 건 자립심, 홀로서기예요.

○ 청년복지 접근성 및 포용성 제고

- 청년복지포인트 등 보편적 복지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여가·치유 활동 지원 확대
- 기존 참여자 중심의 폐쇄적 커뮤니티 구조를 개선하여 신규 청년의 진입장벽 완화 필요
- 비커뮤니티 형태의 개별적·비대면 복지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참여 부담 경감

청년복지포인트 식으로 해서 그냥 카드 같은 걸 청년들이 서구에서 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복지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듯해요. 꼭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알음알음 알다 보면 애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갔을 때 느끼는 건 정말 오는 사람만 와요.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2) 문화·여가

○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필요

- 서구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이 부족한 상황
- 홍대, 연남동과 같은 청년 감성 거리가 부재하여 청년 문화 향유 기회 제한
-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청년 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필요

○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 유지 및 확대

- 청년성장프로젝트, 문화예술 협업 프로그램 등 짜임새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전문 강사진을 통한 무료 교육·체험 기회 제공이 서구 청년정책의 핵심 강점으로 작용
-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자기개발 및 문화 향유권 보장

“문화예술을 즐길 뭐가 없긴 해요. 아는 분이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데 즐길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더

라고요.”

“일단 인천 자체가, 홍대나 연남동처럼 감성 있는 그런 거리가 많은데, 인천엔 딱히 서구엔 특히 없어요. 그런 거리가 생기면 유명해지는 그런 거리가 생긴다면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거리가 생기면 많이 오지 않을까요?”

“퇴근 후 소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서구청에서 소모임을 지원하는데 딱 4팀만 지원해줬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해주거나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체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수업료가 드는데 서구에서는 그런 걸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니까 많은 걸 체험해볼 수 있어요. 교육분야가 굉장히 장점이예요. 돈을 안 들여도 시작하고 배워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요리나 요가나 주말에 건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참여가 많을 것 같아요.”

3) 네트워킹

○ 청년 소모임 지원 확대

- 현재 소모임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수용하지 못함
- 퇴근 후 영어공부, 취미활동 등 일상적 네트워킹 욕구 충족을 위한 소모임 지원 규모 확대 필요
- 관계 형성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년 자발적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강화

“퇴근 후 소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서구청에서 소모임을 지원하는데 딱 4팀만 지원해줬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해주거나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밀프랩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런닝크루를 만든다거나 모임을 만든다거나 체력증진에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이요.”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 정책 인프라 개선

1) 정책 홍보

○ 청년정책 정보 격차 해소 필요

- 기존 참여자 중심의 정보 독점 현상으로 신규 청년의 정책 접근성 제한
- 인천 장기 거주자조차 청년정책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프로그램 참여자가 고정화되어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 폐쇄적 구조 형성
- 시설 및 중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 개선 필요

○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전략 강화

- SNS 중심 홍보의 한계: 관심 있는 청년만 검색하여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 존재
- 현수막,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나 현재 활용 부족
- 대중교통 거점(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청년 생활동선 내 전략적 홍보물 배치 필요
- QR코드 활용 등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방식으로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 동시 확보

○ 지속적·반복적 홍보의 중요성

- 1회성 홍보로는 청년 유입이 어려우며, "올 때까지 계속 뿌리는" 지속적 노출 전략 필요
- 서구형 캐릭터 등 친근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 활용으로 청년 관심 유도
- 정보성 중심의 딱딱한 홍보보다 청년들이 재미있어하고 관심 가질만한 감성적 접근 효과적
- 예산 제약을 고려한 효율적 홍보 채널 선정 및 활용 전략 수립 필요

“정보 격차가 큼니다. 기존에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인천에 오래 살았는데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고,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문화기획단을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안 들어와서 고민했는데, 올 때까지 계속 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센터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수막 홍보를 안 해요. 현수막이나 포

스터가 위치했으면 좋겠는 곳이 대중교통이에요.

청라국제도시역을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에 내려서 올라오고 개찰구까지 나가는 300m 그 위치에 달렸으면 좋겠어요. 변화가같이 분산된 곳이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촌스럽지만 버스 정류장 이런 데...”

“홍보도 필요한데, 시설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보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설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청년공간 활용

○ 청년센터 접근성 불균형 문제

- 현재 청년센터 위치로 인해 참여자가 센터 주변 거주 청년으로 편중됨
- 서해구 분구 후 북쪽 집중 현상 심화로 남쪽 구도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저하 우려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권 청년 활동 거점 공간 확충 필요
- 물리적 거리로 인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공간 분산 배치 전략 수립 필요

○ 청년 문화·여가 공간 부족 및 대관 어려움

-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행사 개최를 위한 대관 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콘텐츠 및 공간 부재로 청년 활동 제약
- 지역 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청년 활동을 위한 활용 미흡
- 청년 자발적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유휴공간 발굴 및 개방형 대관 시스템 구축 필요

“지금 청년센터의 위치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주변에 살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인프라 주변에 모이게 되어있어요.”

“결국은 투자를 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하나 더, 혹은 다른 형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쪽의 구도심 청년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관이 어렵다고요. 문화행사를 하는 친구들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뭘 하면 좋겠어요.”

III | 분석 및 시사점

1. 페르소나 분석

가. 페르소나 분석 개념 및 의의

- 페르소나(Persona)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의미하며,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의 행동, 목표, 동기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을 한 개인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McGinn & Kotamraju, 2008)
-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는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 지향적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해(Matthews et al., 2012) 마케팅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페르소나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스케치,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구조화된 방법은 없으며, 페르소나 제작자의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상집 외, 2022)
- 본 연구에서는 2025년 서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주요 지역별, 유형별 청년에 대한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실제 정책 수요자인 서구 청년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정책 사업의 개발 및 우선 순위 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라동 청년 페르소나

1) 시나리오

김청라(22세)는 청라동에 가족과 함께 산 지 7년째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16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청라는 서구에 대해 깨끗하고 문화시설도 괜찮아서 살고 있는 곳으로서 만족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취미 모임에는 자주 참여하지만, 지역사회나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청년 주거 정책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청라는 자산을 형성하고 싶고, 독립을 위한 보증금을 모으고 싶습니다. 자기계발 기회와 재무상담도 필요합니다.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문화기획자의 꿈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서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이름	김청라
나이	만 22세
거주지	청라동
직업	아르바이트생
소득	월 160만원
거주기간	7년
주거형태	아파트
가구형태	4인가구 (부모님+형제+본인)
지역만족도	주거 만족도: 평균 문화 만족도: 만족 건강 만족도: 만족
지역 네트워크	친목·여가 모임 참여 활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부족
정책 이용현황	주거 및 문화예술 관련 청년 정책 이용 경험 있음

3) 정책 수요

구분	내용
가장 필요한 지원	일자리/주거/교통/문화/교육/창업
일자리	자산형성지원, 자기계발 지원
주거	보증금 보호, 목돈 대출 지원
복지	목돈마련·자산형성 지원, 재무상담
문화·여가	생활예술·취미 프로그램 개설, 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관계망·건강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고립 방지 인적 관계망 강화

다. 가정동 청년 페르소나

1) 시나리오

김가정(34세)은 가정동에서 8년째 살고 있으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월 275만 원을 벌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청년정책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예전만큼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찾고 있고,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돈 마련 상품과 저리 대출이 절실합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더 나은 일자리 정보도 알고 싶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과 운동 프로그램도 관심이 있습니다.

2)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이름	김가정
나이	34세
거주지	가정동
직업	소상공인
소득	월 275만원
거주기간	8년
주거형태	아파트
가구형태	3인가구 (배우자+자녀)
지역만족도	주거 만족도: 평균 이상 만족 문화 만족도: 평균 이상 만족 건강 만족도: 만족
지역 네트워크	친목모임 참여 / 예전보다 친목과 여가활동 부족
정책 이용현황	청년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음

3) 정책 수요

구분	내용
가장 필요한 지원	주거/ 여가·문화/ 일자리/ 가족(육아)돌봄/ 금융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주거	청년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정보 제공
복지	목돈마련·자산형성 상품, 소액 저리 대출 지원
문화·여가	생활예술·취미 프로그램 개설, 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관계망·건강	청년 건강검진 강화, 운동·취미 프로그램 확대

라. 아라동 청년 페르소나

1) 시나리오

김아라(37세)는 아라동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3인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 34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문화생활과 건강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아라는 친목 모임과 종교활동에 참여하지만, 사회참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자리와 금융 분야 청년 정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라에게는 자기계발 기회와 더 나은 일자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고, 보증금 보호도 중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고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문화공간이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휴식과 휴가 지원, 운동과 취미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2)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이름	김아라
나이	37세
거주지	아라동
직업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	340만원
거주기간	10년 이상
주거형태	아파트
가구형태	3인가구 (배우자+자녀)
지역만족도	주거 만족도: 평균 문화 만족도: 낮은 편 건강 만족도: 낮은 편
지역 네트워크	친목·여가·봉사/종교 모임 참여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부족
정책 이용현황	일자리, 금융 분야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3) 정책 수요

구분	내용
가장 필요한 지원	일자리/ 금융/ 주거/ 육아돌봄/ 문화/ 건강
일자리	자기계발 지원,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주거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증금 보호
복지	목돈마련·자산형성 지원, 소액 저리 대출 지원
문화·여가	문화공간 접근성 강화
관계망·건강	휴식·휴가 지원, 운동·취미 프로그램 지원

마. 고립청년

1) 시나리오

김고립(36세)은 아라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학업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았고, 3년째 구직 의지가 없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립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고립에게는 청년활동수당과 취업 상담,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목돈 대출 지원도
 알고 싶습니다. 실업 생활수당과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 있다면 당장의 생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
 니다.
 문화창작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무엇보다 심리상담 서비스와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인
 적 관계망이 절실합니다.

2)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이름	김고립
나이	36세
거주지	아라동
직업	없음 (학업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았고, 구직 의지 3년째 아직 없음)
소득	없음
거주기간	20년
주거형태	다세대 주택
가구형태	3인 (부모님)
지역만족도	주거 만족도: 높음 문화 만족도: 평균 건강 만족도: 평균
지역 네트워크	친목모임 참여 / 온라인 커뮤니티 활발하게 참여
정책 이용현황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음

3) 정책 수요

구분	내용
가장 필요한 지원	일자리/ 주거/ 금융/ 문화·여가/ 건강/ 관계망/ 돌봄
일자리	청년활동수당 지급,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지원
주거	공공임대주택 고급 확대, 목돈 대출 지원
복지	청년 실업자 생활수당 지원, 긴급 생활안정 자금, 목돈마련 지원
문화·여가	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관계망·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고립 방지를 위한 인적 관계망 강화

바. 돌봄청년

1) 시나리오

김돌봄(36세)은 당하동에서 15년째 살고 있으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며 월 235만 원을 벌지만,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친목과 종교 모임에 참여하지만, 온라인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 만족도가 낮고,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돌봄에게는 노동인권 보호와 더 나은 일자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부모님을 돌보면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견디고 있습니다. 목돈 대출과 보증금 보호가 필요하고, 긴급 생활안정 자금과 재무 컨설팅도 받고 싶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서 문화비 지원이 절실하고,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습니다.

2)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이름	김돌봄
나이	36세
거주지	당하동
직업	음식점업
소득	235만원, 이직 의향 있음
거주기간	15년
주거형태	아파트
가구형태	4인가구 (부모+조부모)
지역만족도	주거 만족도: 평균 문화 만족도: 평균 건강 만족도: 평균 이하
지역 네트워크	친목·여가·종교 모임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하지 않음
정책 이용현황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음

3) 정책 수요

구분	내용
가장 필요한 지원	일자리/ 금융/ 주거/ 관계망/ 문화/ 건강/ 관계망
일자리	노동인권 보호, 일자리 정보 제공
주거	목돈 대출 지원, 보증금 보호
복지	긴급 생활안정 자금, 금융(재무) 설계 컨설팅, 목돈 마련 상품 지원
문화·여가	문화·여가활동 비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관계망·건강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 운동·취미 프로그램 확대

사. 1인가구 청년

1) 시나리오

김일인(31세)은 청라동에서 혼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 2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2년 전 독립했고, 친목과 여가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봉사과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일인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 정보와 자기계발 기회가 필요합니다. 월세 부담이 커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고, 목돈 대출 지원도 필요합니다.
 주거비 지원과 목돈 마련 상품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예술과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고, 문화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운동 프로그램도 관심이 있습니다.

2)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이름	김일인
나이	31세
거주지	청라동
직업	제조업 중소기업
소득	280만원
거주기간	2년
주거형태	월세
가구형태	1인 가구
지역만족도	주거 만족도: 평균 문화 만족도: 평균 이하 건강 만족도: 평균
지역 네트워크	친목·여가모임·온라인 커뮤니티 활발하게 참여 봉사 모임 참여, 시민단체 참여
정책 이용현황	청년 정책 프로그램 참여 활발

3) 정책 수요

구분	내용
가장 필요한 지원	일자리/ 주거/ 금융/문화/가족돌봄/청년활동공간/관계망/건강
일자리	일자리 정보 제공, 자기계발 지원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돈 대출 지원
복지	주거비 지원, 목돈마련 지원
문화·여가	생활예술·취미 프로그램 개설, 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관계망·건강	청년 건강검진 참여 강화, 운동·취미 프로그램 확대

2. 시사점

가. 일자리

- 더 나은 일자리와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가 높고, 이를 위한 실무 역량과 일경험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음
 -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현장 인턴십 기회 확대 필요
 - 단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 설계 요구
- 현재 서구의 창업 관련 정책 지원은 부족한 편이며, 취업 외에 창업 등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에 대한 홍보와 알림 필요
 - 창업 지원금, 전문 멘토링 등 창업 준비부터 초기 정착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업 생태계 인프라 구축 필요
 - 취업 중심의 진로 안내에서 벗어나 창업, 프리랜서,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청년들이 실제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지원 정보를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강의식 구성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원함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청년 당사자의 고민과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선배 멘토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동종 업계 종사자, 창업 경험자 등과의 정기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경력 개발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 마련 요구

나. 자립기반

- 청년들은 서구의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지만 베드타운이라는 인식도 있음
 - 청년들은 서구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거주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집중된 타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불가피한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며, 서구 내 자생적 경제·문화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서해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검단구는 기혼의 30대 청년이 많고 자립 및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지역
 - 서해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층이 많고, 검단구는 결혼 후 독립 가구를 형성한 30대 기혼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존재
 - 두 지역 모두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많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및 자립 지원 정책 설계 필요

- 독립/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목돈 마련과 재테크 및 금융,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높음
 - 독립과 자립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주택 구입 등 목돈 마련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과 함께 재테크 및 금융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주거비 보조, 실질적인 금융 교육 및 재무 상담 서비스 등 체계적인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 마련 요구

다. 생활안정

- 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과 자조모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취약계층의 유형(은둔형 외톨이, 경제적 빈곤, 정신건강 문제, 장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들 간 자조모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청년 고립/재고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의 기회 필요
 - 형식적이거나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 아닌 취미 활동, 소모임, 자원봉사 등 일상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또래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요구

- 서해구 청년들은 신체 건강, 인적 관계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비해 검단구는 운동, 휴식 등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서해구 청년들은 규칙적인 운동 시설 이용, 건강검진, 영양 관리 등 신체 건강 증진과 함

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모임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임

- 반면 검단구 청년들은 직장 및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 휴식, 여가 활동 등 정신적·심리적 마음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지역의 서로 다른 건강 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설계 필요

라. 문화·여가

- 일자리, 주거 등 개인별 맞춤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쉼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향유와 휴식은 모든 청년의 기본적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차원의 지원 제공 필요
 - 문화예술 이용권 지급, 공공 문화시설 무료 개방 확대, 청년 대상 휴식 공간 및 힐링 프로그램 보편적 제공 등을 통해 선별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청년이 문화와 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 요구
- 호수공원, 아라뱃길 등 다양한 공공 공간은 있지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활용이 부족함
 - 호수공원, 아라뱃길 등 서구 내에 다양한 공공 공간과 자연 환경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축제,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기획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기존 공공 공간을 단순 산책로나 휴식처를 넘어 청년 친화적인 공연, 플리마켓, 야외 영화제, 스포츠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 활동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청년 문화 거점으로 재구성할 필요 있음
- 서해구 청년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검단구는 문화여가 시설 정보나 접근성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음

마. 사회참여

-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는 검단구가 낮은 편으로, 청년 참여 활동 거점이 청년정책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 활동 거점 공간 신설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체감도와 참여율 제고 필요
- SNS나 알고리즘의 한계에서 비롯된 온라인 홍보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한 재치있는 홍보 방안을 강조
 - SNS 알고리즘의 특성상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팔로우하는 청년에게만 정보가 도달하는 온라인 홍보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작 정책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청년들의 일상 동선(대학가, 지하철역, 카페 밀집 지역 등)에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위트 있고 감각적인 문구와 디자인을 활용한 현수막,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우연한 접촉을 통한 정책 인지도 확대 전략 강조
- 검단구 지역에서 정책 홍보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서해구 청년들은 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인책과 다양한 소통 창구 수요가 높음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5장

- Ⅰ.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 Ⅱ.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목표
- Ⅲ. 청년친화도시 서구 방향성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1. 서구 청년정책 조사 종합 및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한 우수한 교통·지리적 접근성으로 광역 교통망 30분대 생활권 형성
- 서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청년층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인 정착 환경 조성
-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청년인구 증가 추세로 20~30대 젊은 층의 정착지로 주목
- 바이오산업 특구, 스마트시티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 활발하고 적극적인 청년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문화 확산

나. 약점(Weakness)

- 지역 문화시설 및 여가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문화·여가 욕구 충족에 한계
- 구도심-신도심 사이의 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 격차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청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제 수혜 대상의 정보 접근성 및 참여율 저조

다. 기회(Opportunity)

- 서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등 유관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로 정책 신뢰도 및 청년 체감도 제고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 특화 청년정책 수립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기회 확대
-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포용적 청년정책 강화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라. 위협(Threat)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취업 시장 악화로 생활 안정성 저하
- 행정구역 분구로 인한 인프라 및 시설 분리로 청년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약화

강점 - Strength

-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과 인접한 교통·지리
-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
-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청년인구 증가
- 바이오산업 특구 등 첨단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 활발하고 적극적인 청년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활동

약점 - Weakness

- 지역 문화 및 여가인프라 부족
- 구도심-신도심 사이의 생활 여건 격차
- 청년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부족

기회 - Opportunity

- 서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등 유관 정책의 성과 창출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청년정책 활성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특화 정책 수립
-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위협 - Threat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난과 취업 시장 악화
- 행정구역 분구로 인한 인프라 및 시설 분리

SO 전략 - 기회활용으로 강점 최대화

-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한 구인-구직 연계 지원
-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 정책 마련
- 청년 네트워크 기반의 청년 모임 형성 및 활성화

WO 전략 - 기회활용으로 약점 보완

-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및 기관 연계를 통한 청년 문화 활동 지원
- 권역별 청년의 페르소나 파악 및 맞춤형 정책 수립
- 취약계층 청년 정책 대상자 발굴 및 정책 패키지 지원

ST 전략 - 강점을 통한 위협회피

- 청년 주거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 실무 역량 개발 지원으로 구직 및 이직 지원
- 서구 내 기관 및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연계

WT 전략 - 약점 최소화, 위협 회피

-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완화
- 다양한 청년 여가 활동 및 문화 향유의 확대

2.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가. SO전략: 기회 활용으로 강점 최대화

-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 취업 연계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마련으로 주거, 금융, 복지 등 실질적 수요 충족
- 청년 네트워크 기반의 자발적 청년 모임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문화 확산

나. WO전략: 기회 활용으로 약점 보완

-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및 기관 연계를 통한 청년 문화 활동 지원 및 창작 기회 확대
- 권역별 청년의 페르소나 파악 및 특성 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으로 체감도 높은 지원 실현
- 취약계층 청년 정책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통합적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다. ST전략: 강점을 통한 위협 회피

- 청년 주거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으로 지역 내 청년 유입 및 정착률 제고
- 실무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한 구직 및 이직 경쟁력 강화로 청년 고용 안정성 확보
- 서구 내 기관 및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연계로 통합적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라. WT전략: 약점 최소화 및 위협 회피

-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청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다양한 청년 여가 활동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주 만족도 증대

3.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 방향

가. 5대 영역으로 재구성

-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의 정책 방향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21~'25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기존 계획의 미흡한 부분 보완 및 신규 청년 수요 반영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중앙-광역-기초 단위 청년정책 간 중복 방지 및 역할 분담을 고려한 차별화된 영역 설정
- 지역 특성 및 청년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서구 맞춤형 정책 영역 및 과제 도출

나. 영역별 방향 설정

- 일자리, 자립기반, 생활안정, 문화여가, 사회참여 5대 영역별 정책 방향성 설정
- 각 영역별 중장기적 목표 제시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영역 간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청년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착 지원 강화

다. 2026~2030년 단계별 전략 수립

- 2026~2030년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및 체계적 목표 달성 기반 마련

II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목표

1.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 비전: 일하고 살고 꿈꾸는, 청년의 서구

- 서구를 청년들이 단순히 거쳐 가는 곳이 아닌, 일터와 삶터,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
- ‘일하고’의 의미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청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구에서 돕겠다는 의미를 담음
- ‘살고’의 의미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합리적인 생활 여건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서구가 되겠다는 의지임
- ‘꿈꾸는’의 의미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과 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문화·여가 향유 및 자기계발의 기회가 있는 서구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음
- ‘청년의 서구’는 청년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행복 실현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구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제시

비전		일하고 살고 꿈꾸는, 청년의 서구			
목표		생애이행주기 맞춤형 지원	청년 생활 기반 지원	청년 네트워크 확대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기반 구축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마련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영역 및 전략	일자리	자립기반	생활안정	문화·여가	사회참여
	재직·창직·창업 기반조성	건강한 자립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여가로 삶의 질 향상	교류 및 관계망형성 기회 확대
	1-1 양질의 지역 일자리 정보 및 일경험 기회 제공	2-1 생애주기별 주거·독립 비용 지원	3-1 사각지대 없는 청년 복지 실현	4-1 서구 청년 여가공동체 활성화	5-1 청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1-2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 및 환경조성	2-2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3-2 청년 생활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	4-2 서구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 활동 참여 촉진	5-2 청년생태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1-3 청년 창업 촉진 및 정착 지원					

2.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목표 및 영역별 전략

가. 3대 목표

- 생애이행주기 맞춤형 지원: 청년의 사회진입과 자립기반 구축
 - 청년기는 학교에서 사회로, 부모 의존에서 경제적 독립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생애이행 시기로, 각 단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초기 청년(19~24세)의 사회 첫 진입 단계부터 중기 청년(25~29세)의 경력 형성, 후기 청년(30~39세)의 안정적 정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정책 설계
 -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지원, 주거 안정, 금융 교육 등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독립적 생활 역량 강화
 - 생애이행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 안정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생활기반 지원: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마련
 - 청년층의 경제적 취약성 및 불안정한 고용 형태 증가에 따른 포괄적 생활 안전망 구축 필요
 - 소득, 주거, 건강 등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체계 마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느린학습 청년 등)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실질적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다층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청년 네트워크 확대: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한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으로 지역 내 청년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사회적 자본 축적
 -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만남과 협업 기회 제공을 통한 상호 정보 공유, 협력 관계 구축 및 집단 역량 강화
 - 청년 네트워크 기반의 자치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청년들이 정책 수요자를 넘어 지역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나. 영역별 전략

1) 일자리: 재직·창직·창업 기반 조성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정보 및 일경험 기회 제공
 - 서구 내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효과적인 매칭 지원
 - 인턴십, 현장실습, 직무체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 및 환경 조성
 -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공간, 창업 지원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 강화
- 청년 창업 촉진 및 정착 지원
 - 창업 교육부터 자금조달 지원, 멘토링, 공간 지원까지 단계별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초기 창업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2) 자립기반: 건강한 자립 지원

- 생애주기별 주거·독립 지원
 -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맞춰 원룸, 신혼부부 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 독립 준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 주거 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립 기반 강화 및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
-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운영 및 금융 교육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장기적 재무 안정성 확보

3) 생활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 생활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

- 청년의 진로 고민 해소 및 사회 적응 지원으로 성장 기반 마련
- 육아 청년을 위한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생활비용 지원을 통한 청년의 실질적 생활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 사각지대 없는 청년 복지 실현

- 저소득,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 긴급 위기 상황 청년을 위한 신속 지원체계 구축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자립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실현

4) 문화여가: 문화여가로 삶의 질 향상

○ 청년 여가공동체 활성화

- 청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서구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활동 참여 촉진

- 서구 내 문화예술 시설 및 지역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청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회 확대

5) 사회참여: 교류 및 관계망 형성 기회 확대

○ 청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청년정책 예산 확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안정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체계 확립

○ 청년생태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 청년 참여 플랫폼 및 소통 채널 확대로 청년 간, 청년-지역사회 간 관계망 강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영역별 전략 및 정책 과제

영역	전략 및 정책과제	과제 구분	연차별 실행계획					
			'26	'27	'28	'29	'30	
일자리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연속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	연속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확대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서구 청년 커피챗 & 멘토링	신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 및 환경조성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 시행	연속						
	서구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인증제	신규						
	청년 창업 촉진 및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연속						
	청년창업 인프라조성	확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						
	창업 청년 대출 이자 지원	신규						
	청년 창업 지원 거점 공간 마련	신규						
	대학연계 청년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자립 기반	생애주기별 주거·독립 비용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속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서구 청년 세어하우스		신규						
서구 청년 이사 및 중개보수비 지원		신규						
1인 가구 청년 주택관리 지원		신규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서구 청년 자산 및 재무 관리 지원		신규						
청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규						

영역	전략 및 정책과제	과제 구분	연차별 실행계획					
			'26	'27	'28	'29	'30	
생활 안정	청년 생활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연속	■	■	■	■	■	
	서구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신규	■	■	■	■	■	
	전환기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신규		■	■	■	■	
	초등입학기 직원 양육 시간 지원	신규			■	■	■	
	우리동네 상호돌봄 모임	신규			■	■	■	
	서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규				■	■	
	사각지대 없는 청년 복지 실현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 협력 네트워크	신규	■	■	■	■	■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마음건강 케어	신규	■	■	■	■	■	
	고립·은둔 청년 1시간 알바	신규		■	■	■	■	
	느린 학습 청년 직업 역량 강화	신규			■	■	■	
	문화 여가	청년 여가공동체 활성화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	■	■
청년주간운영		연속	■	■	■	■	■	
청년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		신규			■	■	■	
서구 청년 동네친구 모임 지원		신규		■	■	■	■	
서구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활동 참여 촉진								
서구 예술활동 지원사업(청년부문)		연속	■	■	■	■	■	
청년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연속	■	■	■	■	■	
서구 공공 공간 활용 사업 공모 및 지원		신규	■	■	■	■	■	
사회 참여		청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서구 청년센터 운영	연속	■	■	■	■	■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찾아가는 홍보	신규	■	■	■	■	■	
	청년생태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서구1939 커넥티드 스팟	신규		■	■	■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운영	연속	■	■	■	■	■	
	서구 청년 마일리지	확대	■	■	■	■	■	

III | 청년친화도시 서구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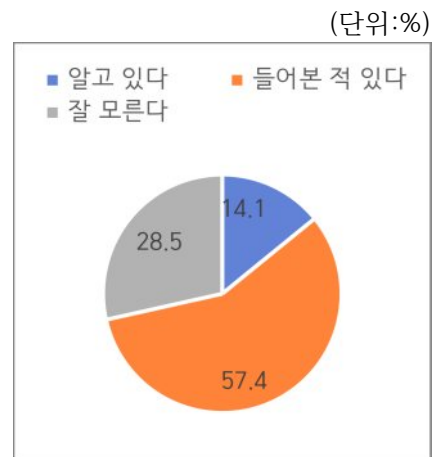
1. 청년친화도시 서구 배경

가. 청년친화도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청년친화도시 제도 인지 여부

- 서구 청년들은 청년친화도시 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7.4%,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1%로 조사됨

구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사례수(명)	113	459	228
비율(%)	14.1	57.4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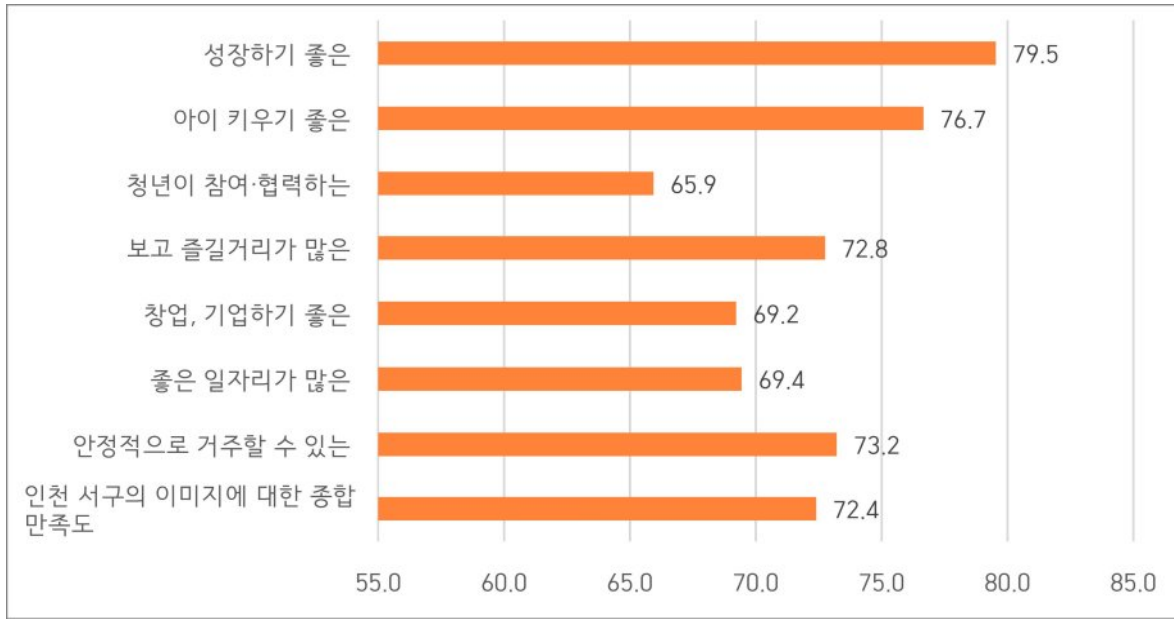


서구 청년의 청년친화도시 제도 인지도

2) 인천 서구의 이미지

- 서구 청년들에게 서구의 이미지는 '성장하기 좋은 서구'가 100점 만점 중 7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76.7점이었음
- 가장 점수가 낮은 이미지는 청년이 참여·협력하는 서구로 65.9점이었음

(단위:%)



구분	1점 (낮음)	2점	3점	4점	5점 (높음)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0.0	1.0	22.9	58.4	17.8
좋은 일자리가 많은	0.0	2.3	35.8	44.0	18.0
창업, 기업하기 좋은	0.0	2.5	38.3	39.1	20.1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	0.0	0.8	26.4	54.0	18.9
청년이 참여·협력하는	0.0	1.3	44.1	44.3	10.4
아이 키우기 좋은	0.1	1.1	19.9	49.8	29.1
성장하기 좋은	0.0	1.3	14.1	49.9	34.8

서구 청년들이 생각하는 서구의 이미지

3) 5년 후 희망하는 서구의 이미지

- 서구 청년이 5년 후 희망하는 서구의 이미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서구’가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구’가 35.8%
- 반면 청년이 참여·협력하는 서구는 13.6%, 창업·기업하기 좋은 서구는 17.8%로 낮았음

(단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는서구	286	35.8
좋은 일자리가 많은서구	406	50.8
창업, 기업하기 좋은서구	142	17.8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서구	245	30.6
청년이 참여·협력하는서구	109	13.6
아이 키우기 좋은서구	184	23.0
성장하기 좋은서구	189	23.6
기타	2	0.3

서구 청년이 5년 후 희망하는 서구의 이미지

나. 청년친화도시 서구의 이미지

○ 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성장가능성·개발 잠재력'과 '교통접근성'이 가장 높았음

- 서구 청년들이 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16.9%의 청년들은 '성장'을 선택하였고,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의견이 16.2%로 나타나 서구에 대해 발전 잠재력과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서구 청년들의 의견은 서구가 미래 지향적 성장과 현재의 실용적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외에도 일자리, 환경, 인프라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5-1] 서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 서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환경오염·대기질’, ‘교통 혼잡·주차난’이 가장 높았음

- 서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환경오염·대기질이 1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통 혼잡·주차난이 19.2%였음
- 이 외에도 주거 불편, 일자리 부족, 지역불균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서구의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환경 문제와 도시 인프라의 부족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저해
- 서구가 청년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 청년 인프라 확대 및 지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가 필수적임



[그림5-2] 서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2. 청년친화도시 서구 기본방향

가. 청년의 안전망이 있는 청년친화도시

-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
-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프리랜서, 1인 가구 등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의료·심리 상담 등 생활 전반의 지원을 강화
-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그물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든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기반은 서구가 단순히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이자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음

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친화도시

- 청년들이 인식하는 서구의 성장 가능성은 서구가 정체된 도시가 아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역동적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청년들이 서구를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장소로 바라보고 있으며 청년들의 긍정적 평가는 서구가 청년친화적 정책과 환경 조성의 기초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반영
-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체계적인 청년 성장 지원 정책을 통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회복탄력적 환경을 조성
- 서구는 취업, 창업, 주거, 문화·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기회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지향

다. 어디서나 다가갈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 서구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양질의 생활환경을 누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함
-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통해 서구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안정적 주거, 가까운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3. 청년친화도시 서구 추진전략

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청년 안전망 구축

-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프리랜서, 1인 가구 등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
- 주거·의료·심리 상담 등 생활 전반의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 여가활동 지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회복탄력적 시스템 마련

다. 청년 성장 기반 조성 및 기회 확대

- 취업 정보 제공, 창업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체계적인 청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
-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교육·취업·문화 활동 기회 확대
- 청년들의 시도와 도전을 지원하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환경 구축

라. 지역불균형 해소와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 청년친화공간 조성을 통한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 문화·여가 시설, 청년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지역별로 균등 배치하여 서구 전역을 청년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제6장

- I. [일자리] 재직·창직·창업기반 조성
- II. [자립기반] 건강한 자립지원
- III. [생활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 IV. [문화여가] 문화·여가로 삶의 질 향상
- V. [사회참여] 교류 및 관계망형성 기회 확대

I | [일자리] 재직·창직·창업기반 조성

1.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기회 제공

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구직 및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은 필수 스펙이지만, 응시료 부담으로 인해 취득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청년의 자기계발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에 대한 공공 지원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층의 자격증 취득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자격증 취득을 통한 청년 고용률 향상 및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문화 조성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19~39세 미취업청년 중 자격시험 응시 청년
- 사업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어학 등 응시료 실비 지원 (10만원 한도 내, 횟수제한 없음)

4) 기대효과

- 소득 격차에 따른 자격증 취득 기회 불평등 해소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지역 내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및 청년 친화적 정책 이미지 제고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12,000	12,000	14,000	12,000	16,000	68,000

나.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구직 청년들은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취업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은 신입 채용 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미스매치 발생
-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필요
- 정책 수요조사 결과, 청년들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전문 분야 실무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원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청년의 실무 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 지역 기업의 청년 인력 채용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촉진
- 청년 실업률 해소 및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는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공공기관 행정 인턴 근무를 통한 경력 형성 및 청년인턴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층의 실무 경험 축적 및 직무 적응력 향상으로 취업 성공률 제고
- 지역 기업의 우수 청년 인재 확보 기회 제공 및 인력난 해소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28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1,600,000

다.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은 학업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활비 및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이 필요하지만, 양질의 단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
- 공공기관의 행정 보조 수요와 청년의 단기 일자리 수요를 연계하여 청년에게 안정적인 근로 경험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필요

2) 사업 목표

- 구직 및 학업 병행 청년에게 안정적인 단기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통한 청년의 직무 이해도 향상 및 사회 진출 준비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등
- 사업내용
 - 동·하계 청년 공공기관 근무를 통한 임금 지원
 - 인천광역시 주관 사업 위탁 운영

4) 기대효과

-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성 제고
- 공공기관 업무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함양 및 향후 취업 준비 과정에 실질적 도움 제공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460,000	480,000	500,000	520,000	540,000	2,500,000

라. 청년성장프로젝트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또래 청년 및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청년 전용 공간을 통해 구직-취업-유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카페 운영을 통한 구직-취업-유지 전 과정의 밀착형 통합 지원
-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직장 생활 적응력 제고
- 청년 간 네트워킹 및 상호 지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구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관내 15~39세 청(소)년
- 사업내용
 - 청년카페 운영을 통해 구직-취업-유지 전반의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추진
 - 구직활동 지원, 실무교육, 일상지원, 네트워킹 등

4) 기대효과

- 청년의 구직 활동 효율성 향상 및 취업 성공률 제고
-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 체계 구축 및 고립감 해소
- 지역 내 청년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마. 서구 청년 커피챗 & 멘토링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구직 및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실무 및 현장 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 실무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청년 개인이 만들기는 매우 어려움
- 특히 정책 수요조사 결과, 서구 청년들은 일반적인 구직 관련 강의 및 교육 외에 또래 청년의 경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원함

2) 사업 목표

- 업종별 현직 종사자와 취업,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간의 상호학습 및 교류 기회 마련
- 구직 및 이직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서구 거주 또는 관내 활동 청년(만 19세~39세) 중 구직자, 이직 준비자, 또는 실무 네트워크 형성을 희망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업종별(기획·마케팅,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현직자와의 그룹 멘토링 및 커피챗 운영
 - 이직·구직 청년 대상 실무 워크숍(이력서 피드백, 포트폴리오 클리닉 등)
 -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간 지속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4) 기대효과

- 청년층의 업종별 실무 이해도 향상 및 진로 방향 구체화
- 현직자와의 교류를 통한 현실적 정보 습득 및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기반의 상호 지원 구조 형성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사업 목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배'청년 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 삶 공유
- 사업 내용
 - 지역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확장
 - 지역 청년 경험 및 청년 삶 실태에 대한 아카이빙
- 사업 대상
 - 세종시 거주 청년

2.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 및 환경조성

가.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체육시설, 휴게공간, 교육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복리후생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재정적·공간적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우수 시설을 공유하는 상생 협력 모델 구축 필요

2) 사업 목표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리후생 시설 접근성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인력 유출 방지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사업내용
 - 대기업 등 공유가능 시설 연계 제공

4)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리후생 수준 향상 및 직무 만족도 제고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리후생 격차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이직률 감소 및 우수 인력 정착 유도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나. 서구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인증제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수요조사 결과, 서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구인 기업 정보임
- 특히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소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신력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기업 취업을 유도

2) 사업 목표

- 서구 관내 기업 중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서구청이 인증하고 해당 기업의 청년 구인에 대한 우선적인 홍보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제공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서구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인증제 운영: 생활임금 지급 여부, 고용안정성, 복지수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서구 생활임금 기업'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 인증기업 혜택: 서구청 및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내 인증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청년 구인공고 시 우선 홍보 및 매칭 지원, 취업연계 프로그램 우대참여, 언론·SNS 홍보 지원
 - 사후관리: 매년 재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 점검 및 우수기업 포상

4) 기대효과

- 청년 구직자에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생활임금 지급 기업의 가시화로, 지역 내 임금 수준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유도.
- 서구 내 청년층의 지역 정착률 제고 및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	-	-	-

3. 청년 창업 촉진 및 정착 지원

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초기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청년 창업 농가

○ 사업내용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4) 기대효과

-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률 향상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
-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마련 및 농촌 고령화 문제 완화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나.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청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청년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가의 도전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성장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기업에 대한 공식 인증을 통해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인증 청년기업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19세 ~ 39세 청년 대표가 운영하는 관내 기업
- 사업내용
 - 청년기업 인증제도 실시
 - 청년기업 인증 혜택 제공

4) 기대효과

- 청년기업의 사회적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시장 진입 기회 확대
- 공공구매 우대,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한 청년기업 성장 촉진
-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	-	-	-

다. 창업 청년 대출 이자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초기 창업 청년들은 자금 조달 시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사업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금리 변동기에 이자 부담이 매출·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사업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림

2) 사업 목표

- 창업 청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초기 정착을 지원
-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3)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
- 사업내용
 - 약정이자율 중 연 1~2%를 페이백으로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4) 기대효과

- 창업 청년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	250,000	300,000	550,000

라. 청년 창업 지원 거점 공간 마련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 준비~초기 단계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이 부재하여 분절적·단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음
- 검단 지역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의 지리적 위치,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창업공간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서구의 균형잡힌 지역성장 및 창업지원을 위해 서해구 지역에 창업 지원 거점 공간 마련이 필수적

2) 사업 목표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거점을 구축하여 창업 준비 및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구도심·신도심의 균형 있는 활성화 기반 마련

3)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관내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만 19~39세)
- 사업내용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지원 거점 공간' 조성
 - 전문 창업 컨설팅(사업계획, 재무·마케팅, 법률 등) 제공
 - 공동 작업공간(Co-working)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청년 간·전문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구축

4) 기대효과

- 유휴공간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신도심 활력 제고
- 네트워크·자원·지식 기반을 갖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50,000	500,000	100,000	650,000

case & insight

도봉구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 사업 목적: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기반과 연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
- 사업 내용
 - 초기 창업 기업이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
 - 전담/전문 멘토링
 - 창업상담 서비스 등
- 사업 대상
 - 창업한 3년 이내의 청년(19~45세) 기업
- 센터 시설
 - 교육실
 - 다목적스튜디오
 - 스마트회의실
 - 입주기업 공유사무실

마. 대학 연계 청년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제조업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장비·공간·기술 지원이 부족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큼
- 제조업 분야는 시제품 제작·기술 실험 공간이 필수적이므로, 산학 협력 기반의 메이커스 지원 체계가 필요

2) 사업 목표

- 대학의 제조 인프라와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제조창업 초기 진입 장벽을 완화
- 시제품 제작과 기술 검증이 가능한 메이커스 환경을 제공해 제조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3)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만 19~39세) 사업자
- 사업내용
 -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3D프린터, CNC, 레이저커터, 목공·금속 장비 등 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메이커스 공간 제공
 - 시제품 제작 지원, 실험·파일럿 테스트 공간 운영
 - 창업 컨설팅, 지식재산권 교육, 제조형 창업 특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4) 기대효과

- 제조 기반 창업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술 검증 기회 확대
- 기술창업 기반 강화로 지역 산업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창업 촉진 청년 창업자의 네트워크 확장 및 혁신 역량 강화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50,000	500,000	100,000	650,000



- 사업 목적: 지역사회,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사업 내용
 - 디지털 제조 기술과 AI·DX(디지털 전환) 기반 역량 강화 교육
 - 3D 프린터와 머시닝 센터(금형 사출)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제작 지원
 -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협력 프로젝트 진행
- 사업 대상
 - 지역주민
 - 학생
 - 지역 기반 기업, 산업체
- 센터 시설
 - 라운지
 - 회의실, 강의동
 - 메이킹룸
 - 시제품제작실
 - 워크스테이션실(3D 모델링 교육)
 - 금형 사출 제작 센터

II | [자립기반] 건강한 자립지원

1. 생애주기별 주거·독립 비용 지원

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의 독립 생활 및 자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를 강요받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례 증가
-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에게 독립적인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2) 사업 목표

- 주거급여수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의 독립적인 생활 기반 마련 및 자립 지원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사업내용
 - 주거급여 수급 부모와 거주를 달리 하는 청년층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급사업

4) 기대효과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 및 생활 여건 개선
- 주거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청년 주거 복지 형평성 제고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나. 청년월세 지원사업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높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의 저축, 자기계발, 결혼 등 미래 준비를 어렵게 하며, 청년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정착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서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실질적인 월세 지원 필요

2) 사업 목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서구 청년에게 월세 지원
- 사업내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서구 청년에게 월세 지원
 - 월 최대 20만원, 24개월(회)

4) 기대효과

- 청년의 월세 부담 경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생활 안정성 확보
- 청년의 저축 및 미래 준비 여력 확대를 통한 장기적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 서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1,05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850,000

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은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마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화되면서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및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의 전세보증료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비 완화
- 청년의 안정적인 전세 계약 지원 및 주거 안정성 확보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지속
- 사업대상: 무주택 임차인
-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의 전세보증료 부담 경감을 통한 초기 주거비용 완화
- 안정적인 전세 계약 체결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성 향상

5) 추진 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31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10,000

라. 서구 청년 세어하우스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주거비 상승과 1인가구 증가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절실
- 구도심 중심, 청년 주거와 지역 재생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2) 사업 목표

- 지역 내 빈 건물을 활용한 청년 주거공간(세어하우스) 조성
- 청년의 주거비 최소화·주거 안정성 강화
- 지역 재생 및 도심 공간 활용 촉진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지역 내 유휴 건물(빈 상가, 단독주택, 공실 건물 등)의 리모델링·인테리어 시공
 - 2~6인 규모의 공공형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
 - 월세·관리비를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책정
 - 입주 청년 대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안전 점검, 주거 품질 기준, 운영 관리 체계 구축

4) 기대효과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주거 기반 확보
- 구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 청년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정착률 향상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20,000	250,000	100,000	370,000



- 사업 목적: 청년 1인가구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큰바위 얼굴)가 서대문구청과 함께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
- 사업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상 기재)이면서 무주택(단독세대주) 청년가구(출생일 1984.07.23.~2005.07.22.)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면서 총 자산가액 2억4천1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인 자(LH,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준용)
 - 졸업예정자(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놓은 자)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 센터 시설
 - 공용시설: 층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밥솥,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정수기, 인터넷, 커뮤니티실(1층 / 냉장고, 에어컨, 빔 프로젝트 구비), 테라스 (4층)
- 세어하우스 특징
 - 공동체 생활 및 협동조합 내 커뮤니티 활동 참여 필수

마. 서구 청년 이사 및 중개보수비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은 주거 이동 시 초기 비용(이사비, 중개보수비 등) 부담이 커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
- 특히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는 목돈 지출로 이어져 경제적 취약성을 높이며, 지역 내 청년의 정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됨

2) 사업 목표

- 청년의 주거 이동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서구 내 청년 유입·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임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로 전입 또는 관내 이동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실비 지원
 -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
 - 전입신고·계약서·영수증 제출 시 지원금 지급

4) 기대효과

-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률 향상
-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증대
- 안정적 주거 기반으로 생활·경제·사회 활동 활성화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바. 1인 가구 청년 주택관리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1인가구 청년은 주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기술·시간이 부족해 일상적 불편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소규모 주거 개선은 생활 만족도와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워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

2) 사업 목표

- 1인가구 청년의 주거환경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기본적인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강화
-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률 증대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 내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
- 사업내용
 - 도배·장판 보수, 방충망 설치·교체, 수전·수도꼭지 교체, 문고리·경첩·손잡이 등 생활 불편 요소 개선
 - 기타 경미한 주거 보수(10만~40만 원 규모의 소규모 작업 중심)

4)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 생활 안정성 향상
- 지역 내 청년의 주거 만족도 및 정착 의지 강화
-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주거 안전 개선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2.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가. 청년내일저축계좌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의 경우 주거 마련, 결혼, 창업 등 생애 주요 시점에서 목돈이 필요하나, 자산 축적 기회 부족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산 격차 해소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청년의 저축 습관 형성 및 장기적 재무설계 역량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
- 사업내용
 - 중위소득 50% 이하 매달 30만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달 10만원 적립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의 저축 습관 형성 및 장기적 재무관리 역량 강화
- 주거 마련, 결혼, 창업 등 생애 주요 시점에서의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청년층 자산 격차 완화 및 경제적 자립 달성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나. 서구 청년 자산 및 재무관리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재무관리 교육 및 지원체계가 부족함
- 단편적인 금융교육이나 일회성 강의에 그쳐, 실질적인 자산형성과 재무설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
- 전문가 컨설팅과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 사업내용
 - 1:1 전문 재무설계 컨설팅 제공(자산관리, 저축·투자 전략, 부채 관리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회초년생, 결혼준비, 창업 등)
 - 금융 사기 예방 및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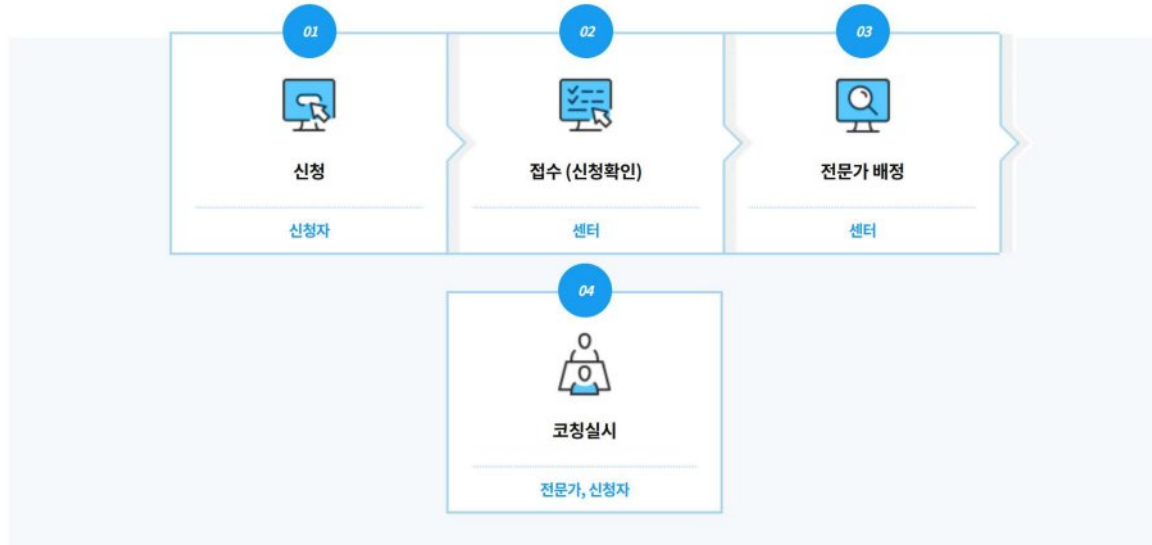
4) 기대효과

- 청년들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합리적 소비 문화 확산 및 청년층 금융 안정성 제고
-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신청 접수



- 사업 개요: 라이프사이클(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에 맞는 적절한 재무목표를 달성 및 채무위험 예방을 위한 재정설계 최대 2회 실시
- 사업 내용
 - 가계 재무내역, 재정상태 진단
 - 재무목표별 목적자금 설계
 - 가계 재무구조(현금흐름, 자산) 개선방안
 - 내집마련, 교육자금, 은퇴자금 등 재무목표 달성방안
 - 급여관리, 지출관리, 소득공제 등 교육
- 사업 대상
 - 인천시민
 -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재직자 선착순 95명

다. 청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자영업자는 폐업, 질병, 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소득 보장 체계가 없어 생계 위협에 직면함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으나,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함

2) 사업 목표

- 청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폐업·휴업 등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득 안정망 확보
-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청년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여건 조성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자영업을 운영 중인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내용
 - 청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2년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폐업·휴업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창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연계

4) 기대효과

-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
-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로 위기 상황 대응력 향상 및 생계 불안 해소
- 안정적인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유지 및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III | [생활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1. 청년 생활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

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단순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직업교육, 근로능력 향상, 심리·사회적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필요

2) 사업 목표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직업 역량 및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자립 의지 고취 및 자존감 회복
- 당사자 참여형 운영 구조를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마련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업내용

4) 기대효과

- 수급자 및 자활청년의 직업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 성공률 제고 및 소득 증대
- 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당사자 주도형 자립 문화 조성
- 실질적인 자립 달성을 통한 수급 탈피율 향상 및 복지 의존도 감소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나. 서구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등으로 청년층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 되는 사례가 빈번함

2) 사업 목표

-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촉진
- 조기 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청년 1인당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회당 5만 원, 최대 5회)
 - 관내 전문 상담기관 및 심리상담센터와 협약을 통한 이용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우울, 불안, 대인관계, 진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상담 제공

4) 기대효과

-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회복력 강화
- 조기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문제 악화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0,000	70,000	100,000	100,000	120,000	440,000

다. 전환기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과 20대 초반 청년은 진로 탐색의 핵심 전환기에 있으나, 또래 기반 멘토링이나 실제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함
- 청소년과 초기 청년의 맞춤형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참가자들의 지역 청년 네트워크 참여 유도 필요

2) 사업 목표

- 배 청년과 후배 청년 간 세대 연결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및 사회 적응 지원
- 전환기 청년들의 성장 경험 공유와 또래 네트워크 형성으로 건강한 사회 진입 기반 마련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서구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 사업내용
 - 업·진로 분야별 청년 멘토-멘티 매칭 및 1:1 또는 그룹 멘토링 운영(3~6개월)
 - 진로 고민, 취업 준비, 대학생활, 사회 적응 등 생애 전환기 주제별 워크숍 개최
 - 멘토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비 지원
 - 멘토링 우수 사례 공유회 및 청년 네트워킹 행사 운영

4) 기대효과

- 전환기 청년들의 진로 탐색 시행착오 감소 및 자기 이해 증진
- 세대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청년 간 유대감 형성 및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실질적인 사회 적응력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 진입 및 조기 정착 지원

5)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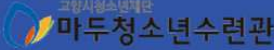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14,000	21,000	28,000	35,000	98,000

2022년 청소년진로지원동아리

'아띠' 5기 모집

'아띠'란? 대학생 및 청년들로 구성된 진로멘토링 동아리입니다.
고양시 관내 중학교로 진로멘토링을 나가며, 고양시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031-995-4155 이진솔

<p>모집 기간 및 세부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2. 1. 17.(월) ~ 2. 11(금) - 1차 합격자 발표: 22. 2. 18.(금) - 면접: 22. 2. 23.(수) 14:00~ - 최종 합격자 발표: 22. 2. 25.(금) *OT 및 발대식: 22. 3. 5.(토) 13~17시 <p>모집 대상</p> <p>만 19~24세 후기청소년 16명 (고양시 거주, 휴학생 우대)</p> <p>지원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글폼 or 네이버폼 택 1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구글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네이버폼</p> </div> </div>	<p>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관내 중학교 멘토링 출강 - 정기회의, 온오프라인 기획활동 - 워크숍 및 상하반기 평가회의 - 수련관 소속 동아리 연합활동 참여 <p>활동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멘토활동비 지급 - 활동 수료증 발급(멘토링 연 5회 출강 시) - 봉사시간 지급(멘토활동비와 중복지급 불가)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모임 필수 참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 11시~13시 (정기모임: 월별 정기회의, 상하반기 평가회의, 워크숍)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p>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p> </div>
---	---

- 사업 개요: 후기 청소년(초기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진행하는 진로지원 멘토링
- 사업 내용
 - 중학교 멘토링 출강
 - 멘토 대상 교육 및 워크숍
 - 동아리 연합활동 참여
- 사업 대상
 - 청년 16명
 - 청소년 16명

라. 초등입학기 직원 양육 시간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생활 리듬 변화와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핵심 시기이나, 청년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이 심각함
- 청년층은 직장 내 경력 초기 단계로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워, 양육과 경력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

2) 사업 목표

-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청년 부모에게 유연한 양육시간을 보장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부모의 경력 유지를 동시에 지원
- 청년층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및 청년 정주 여건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중 초등학교 입학 자녀(1학년)를 둔 부모
- 사업내용
 - 초등입학기 직원의 양육시간 보존 지원
 - 10시 출근제를 통한 근무시간 단축 또는 보육 휴가 지원
 - 학부모 직원의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보육휴가비 월 2회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
-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청년 세대의 일·가정 양립 만족도 제고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인구 유입 기반 마련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50,000	50,000	50,000	150,000

내 일어 빛나는 **광주**
기회도시

1시간 늦어도 괜찮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초등학교 학부모 직원에게 10시출근제
(1시간 근로단축)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p>초등학교(1학년~6학년) 학부모직원이 근무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등</p>	<p>1시간 근로단축에 따른 총 2개월 지원금 748천원 지원 (2개월×374,000원)</p> <p><small>*학부모 직원 2개월간 임금삭감없는 1근로시간 단축(출근시간 10시연장 등)</small></p>	<p>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광주아이키움 통합포탈 www.광주아이키움.kr</p> <p>2024. 6. 12(수). 14시 부터 통합300건 지원 예산소진시까지</p>
---	--	--

- 사업 개요: 초등학교 학부모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중 1시간 근로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총 2개월 지원금 748천원 지원
- 사업 내용
 -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

마. 우리 동네 상호돌봄 모임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맞벌이 부부는 저녁 시간대(17~20시) 긴급 돌봄 공백이 발생하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 지원 체계가 부족함
- 가족 돌봄 네트워크가 부재한 청년 부부는 긴급 상황이나 야근 시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사업 목표

- 지역 내 청년 부부 간 상호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녁 시간대 긴급 돌봄 공백 해소
- 이웃 간 신뢰 기반의 공동체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정착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청년 부부
- 사업내용
 - 동일 생활권 내 청년 부부 5~10가구를 매칭하여 상호돌봄 모임 구성
 - 저녁 시간대(17~20시) 1~2시간 단위 상호돌봄 지원(타임 बैं크 운영)
 - 상호돌봄 운영 가이드 제공 및 부모 교육(아동 안전, 응급처치 등)

4) 기대효과

- 저녁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금전 교환이 아닌 시간 교환 기반의 공동체적 상호지원 문화 확산
- 지역 단위 관계망 회복 및 청년·부모 간 신뢰 형성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50,000	50,000	50,000	150,000

바. 서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은 경제적 자립 초기 단계로 교통비 부담이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타 지역 대비 청년 교통비 지원정책이 부재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경제활동 유인이 약한 상황임

2) 사업 목표

- 서구 거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 및 지역 내 활동 반경 확대 지원
-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의 서구 정착 기반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서구 내 마을버스 및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일부 지원
 - 월 정액 교통비를 서구 지역화폐로 환급
 - 월 최대 지원 한도 설정(예: 월 5천 원)

4) 기대효과

- 청년의 이동 비용 부담 경감
- 청년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교통환경 개선 효과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	50,000	2,000,000	2,050,000



신청

2023년 3월 28일 ~ 5월 31일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만 19~24세 서울 거주 청년에게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로 지급
 문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44-9241

- **공 고 문**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공고 | 대중교통비 검색
- **자격요건** 연 령 1998.1.1.~2004.12.31. 출생자
 주 소 신청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타사업 유사 사업에 중복참여 중이지 않은 자
- **중복지원 불가사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서울청년수당
 2023년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 개요: 경제적 자립도가 낮지만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환급
- 사업 내용
 -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를 상·하반기 연 2회(연 최대 10만원 한도) 교통마일리지로 지급
 -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
 - 참여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체결 카드사는 티머니,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사

2. 사각지대 없는 청년 복지 실현

가.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 협력 네트워크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들이 정보 부족과 낙인 우려로 지원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위기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 부재하여,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2) 사업 목표

- 공공과 민간을 아우른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
-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 개개인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 및 사회 복귀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청, 지역 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지역 가족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유관 기관 등
- 사업내용
 - 공공과 민간, 청년 자조모임을 아우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가족센터 등 기초수급 및 1인가구 청년 등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지원

4) 기대효과

-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년 조기 발견 및 선제적 개입으로 위기 악화 예방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연속적 지원으로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및 사회 복귀 촉진
-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청년 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case & insight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 사업 개요: 지역 내 편의점, 미용실 등을 복지 사각지대 민간신고센터로 지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사업 내용
 - 편의점, 미용실 등 지역의 생활 밀착형 상점을 '다 있는 가게'로 지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민간신고센터로 활용
 - 주변 이웃 중 고립되어 있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네트워크 구축

나.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마음건강 케어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취약계층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낮은 자존감 등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하지만, 비용 부담과 낙인 우려로 인해 적기에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취약계층 청년 집단 상담 및 마음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증진
- 또래 지지 그룹 형성과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력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취약계층(돌봄/고립/자립) 청년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청년 대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 예술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 또래 지지 그룹 및 자조 모임 구성 지원으로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 환경 조성
 - 위기 청년 긴급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4) 기대효과

- 취약계층 청년의 정신건강 회복 및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또래 지지 네트워크 형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자존감 회복 지원
- 심리적 안정 기반 마련을 통한 자립 의지 강화 및 건강한 사회 복귀 촉진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다. 고립·은둔 청년 1시간 알바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고립·은둔 청년은 장기간의 사회 단절로 인해 일상적 사회활동조차 큰 심리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 일반적인 취업 지원만으로는 사회 복귀가 어려움
- 기존 일자리 정책은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고립·은둔 청년이 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일경험 기회 제공
- 단계적 사회 복귀 경로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존감 회복 및 일상 회복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자영업을 운영 중인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내용
 - 1일 1시간 단위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 제공(주 2~3회, 3~6개월)
 - 청년 특성에 맞는 저부담 업무 발굴
 - 참여 단계별 근무시간 확대 옵션 제공(1시간 → 2시간 → 4시간 등)
 -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4) 기대효과

- 고립·은둔 청년의 점진적 사회 복귀 및 일상 회복력 강화
- 소규모 성공 경험 축적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사회 참여 의지 증진
-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50,000	70,000	100,000	100,000	220,000



- 사업 개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도쿄도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 복귀를 위해 소규모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자점
- 사업 내용:
 - 도쿄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과자점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최저임금(시간 당 1072엔)을 받으면서 최소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최소 15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근무가능
 - 풀타임 근무에 부담을 느끼는 은둔형 외톨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최저시간 근무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경험 및 최저 생계비 지원

라. 느린 학습 청년 직업 역량 강화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경계선지능 청년은 일반 교육·훈련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고, 장애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직업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느린 학습 청년은 반복 학습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나, 기존 직업훈련은 이들의 학습 속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 수행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안정적 고용 기반을 마련
- 개인별 학습 속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유지 및 경제적 자립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경계선지능(느린 학습자) 청년
- 사업내용
 - 개인별 인지 수준 및 적성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계획 수립
 - 반복 학습 및 실습 중심의 직업 기술 교육(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무 보조, 물류 관리 등)
 - 협력 사업장 발굴 및 현장 실습 기회 제공(3~6개월)
 -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최대 1년)

4) 기대효과

- 느린 학습 청년의 직업 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
- 안정적 고용 유지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50,000	70,000	100,000	320,000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프로젝트 2기

미래를 여는 나만의 한걸음

모집개요

모집기간 8.4.(월) ~ 모집완료 시
선발방법 개별유선통보
모집인원 75명 (2기예정 25명)

관	역	복	부	등	남	서	남
교육장소	교	양	방	인	성	남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1993년 ~ 2006년생
- 전체과정에 전부 참여 가능한 청년 *8월 ~ 11월까지 영일 진행

제출서류

공 통 주민등록등본,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선 택 3가지 검사지 중 택 1 *검토지 발급 유료: 한16세부터의 검사 결과지

▶ 종합심리검사지
 ▶ 특출능력검사 (성인)
 ▶ 성인 경계선 지적기능 산별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결과지
 ▶ 종합심리검사 또는 특출능력검사(성인용) 기준 FSIQ70 ~ 89
 ▶ 성인 경계선 지적기능 산별 체크리스트 기준 72점 이상

지원내용

- 1과정** | 진로컨설팅 *양방향 진로 설계
- 2과정** | 기본소양교육 *직업생활, 의사소통, 시간관리 등 전공직무교육 *OA사용법 등 실무형 직업훈련
- 3과정** | 일 경험 및 그룹코칭

1과정 진로컨설팅	8월 20일 (수) ~ 8월 28일 (목)
2과정 기본소양교육 전공직무교육	9월 3일 (수) ~ 10월 29일 (수) 9월 15일 (토) ~ 11월 14일 (금)
3과정 일 경험 및 그룹코칭	11월 2주 ~ 12월 1주 / 4주간

* 8월 27일 이후 접수자 2과정 교육, 재조모임 진행(1,3과정 참여불가)

선발절차

서류 및 유선 확인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 확인

지원방법 및 관련문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이메일 or 구글폼
 *hh76@ggyic.kr
방문 접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영양사 5관 (주말세)
관련문의 청년교육팀 *031-247-8932 (8936)
 문의 메일 *hh76@ggyic.kr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사업 개요: 경계선지능 청년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일 경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사업 내용:
 -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받은 청년에게 진로컨설팅, 역량강화, 일 경험처 연계, 성과 공유회 제공
 - 기본소양 및 직무 교육, 진로코칭, 실무형 직업 훈련(OA사용법 등) 등 교육
 - 일 거경험 매니저가 동행하는 일 경험 인턴십(4주) 제공
 - 참가자는 종합심리검사 또는 웨슬러지능검사 또는 성인 경계선 지적 기능 체크리스트 결과 제출 필요

IV | [문화여가] 문화·여가로 삶의 질 향상

1. 서구 청년 여가공동체 활성화

가.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 내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지역 평생학습 문화 조성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역량 개발 지원
- 장애인 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 청년 대상
- 사업내용
 - 서구 특성화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중 청년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사회적 경제활동, 인생설계 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인천시민대학 서구캠퍼스 운영 사업

4) 기대효과

- 청년의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 장애인 청년의 평생학습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 지역 내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친화적 학습 문화 확산 및 지역 교육 역량 강화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0,000	70,000	100,000	100,000	120,000	440,000

나. 청년주간운영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인식 제고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의 날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의 날 기념을 통한 청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및 청년 정책 인식 제고
- 청년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및 청년 문화 확산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청년
- 사업내용: 청년의 날 기념 청년 프로그램 운영

4) 기대효과

-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한 청년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인정 분위기 확산
- 청년 간 네트워킹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공동체 의식 강화
-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년의 정책 참여 의지 고취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다. 청년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이 낮아, 삶의 질 저하 및 정신건강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취업 준비,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 접근성이 제한적임

2) 사업 목표

- 청년들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및 삶의 활력 증진
- 관내 문화·체육 시설 및 민간 사업자와 연계하여 청년 친화적 여가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자원 활성화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청년 1인당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연 5만 원)
 - 관내 시설 중 청년 대상 여가 프로그램 제공 업체 모집 후 프로그램 제공(공연·전시, 체육활동, 취미교실, 힐링 프로그램 등)
 - 참여 업체 네트워크 확대 및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의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청년 친화적 문화·여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	-	60,000	120,000	180,000

광진구 청년을 위한 2025년 신규사업!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QR CODE SCAN

1차 모집
2025. 4. 1. ~ 4. 15.

2차 모집
2025. 7. 1. ~ 7. 15.

지원대상 ※ 1996 ~ 2001년생 (생일 무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24~29세 청년
※ 가구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소득판정기준은 공고문 참고
※ 인원을 초과할 경우, 인당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문화누리카드(가소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유사 서비스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광진구 내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취미, 공유공간 등 관련 시설 이용비

지원금액
1인당 연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인원 ※ 4월 250명, 7월 250명 모집 예정
총 500명

지원기간 ※ 기간 내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2025. 5.(카드발급일) ~ 11. 30.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참여소통 > 구민의견/참여 >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 > '2025년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업로드(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가구 상황별 제출서류 상이
(공고문 확인 후 해당 자료 제출)

문의사항
02-450-7047 (광진구청 청년정책팀)

- 사업 개요: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광진구 내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취미, 공유시설 등 관련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사행성 게임장, 유흥시설 제외)
- 사업 내용:
 - 문화예술, 체육시설, 진로 및 체험 등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 광진구 거주 청년에게 광진구 내에 소재한 문화, 예술, 체육, 공유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
 -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은 광진구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라. 서구 청년 동네친구 모임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서구는 전국에서 이주 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이주 청년이 서구 지역에 정착·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이해도 향상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서구로 이주해 온 청년들은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여 정착 과정에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서구 외부에서 이주해 온 청년과 서구 거주 청년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또래 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소속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자영업을 운영 중인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내용
 - 관심사·취미 기반 청년 소모임 구성 지원(문화·운동·취미·스터디 등, 5~10인)
 - 모임별 운영비 지원
 - 서구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맛집 투어, 역사 탐방, 핫플레이스 체험 등)
 - 이주 청년-기존 거주 청년 매칭 프로그램 및 교류 행사 개최

4) 기대효과

- 이주 청년의 지역 적응력 향상 및 사회적 고립 해소
- 청년 간 자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 청년층의 서구 정착률 제고 및 청년 친화적 지역 이미지 구축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 사업 개요: 강릉 이주민과 강릉 거주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탐방을 통해 이주민의 지역 정착을 지원
- 사업 내용:
 - 강릉 초기 이주민(이주관심자 포함) 및 기존 거주민이 멘토링 및 정보 공유 네트워킹
 - 지역탐색 및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강릉살이 관련 정보 가이드북 제공

2. 서구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활동 참여 촉진

가. 서구 예술활동 지원사업(청년부문)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예술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창작 활동 중단 및 예술계 이탈로 이어지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서구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 안정화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작 활동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2) 사업 목표

- 서구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 활동 지속성 확보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 거주 청년예술가 (39세 이하)
- 사업내용
 - 서구 예술활동지원사업 중 청년 부문 운영
 - 청년예술인 선발 및 활동비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작품 활동 여건 조성
- 서구 지역 내 청년 예술 작품 창작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다양성 확대
-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예술 인재 정착 유도를 통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95,000

나.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존 활동가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균형 있는 참여 및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청년을 마을지원활동가로 양성하여 세대 간 균형 있는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지속 가능한 마을 활동 생태계 구축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30~39세)의 마을 활동 참여 확대 및 마을지원활동가 양성
- 세대 간 균형 있는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청년 친화적 마을 활동 모델 구축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30~39세 청년
- 사업내용
 - 마을지원활동가 선발 시 청년(30~39세) 포함 적극 고려

4) 기대효과

- 청년의 지역 사회 애착도 향상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 지속 가능한 마을 활동 생태계 구축 및 마을지원활동가 후속 세대 육성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다. 서구 공공 공간 활용 사업 공모 및 지원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라호수공원, 아라뱃길 등 지역 내 공공 공간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저조
-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 공간 활용 기회가 부족하여, 청년 주도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사업 목표

- 서구 내 공원·수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참여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자발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 공공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청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자영업을 운영 중인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내용
 - 서구 내 공원·수변·광장 등 공공 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도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 야외 공연, 마켓, 전시, 체험활동, 커뮤니티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수 사업 선정 및 지속 운영 지원, 청년 기획자 네트워킹 행사 개최

4) 기대효과

- 유휴 공공 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 공간의 가치 재창출
- 청년 주도 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청년 친화 도시 이미지 구축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V | [사회참여] 교류 및 관계망형성 기회 확대

1. 청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가. 서구 청년센터 운영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전용 공간 조성 및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 제공하는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 전용 공간 제공을 통한 청년 활동 기반 마련
- 취·창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
- 청년 간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 생태계 조성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 거주 청년
- 사업내용
 - 공간대관, 프로그램(청년활동지원/청년역량강화/문화예술·건강) 운영, 취·창업 교육 등

4) 기대효과

- 청년 전용 공간 제공을 통한 청년의 활동 편의성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창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의 실무 역량 및 취업 경쟁력 강화
- 청년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 커뮤니티 형성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200,000	25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나.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찾아가는 홍보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정책 인지도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지역 특화 홍보 필요
- 온라인 중심의 홍보 방식으로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 탐색에 소극적인 청년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2) 사업 목표

- 서구 전역에 걸친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청년 정책 인지도의 지역 간 격차 해소
- 청년들의 생활 환경 내에서 직접 만나는 홍보 방식으로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센터 이용 활성화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 거주민
- 사업내용
 -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현수막 홍보 진행
 - 주요 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부착 광고 진행
 - 청년센터를 통해 기존 청년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원스톱 안내 체계 구축 및 지원.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정책 연계 안내(예: 난임치료 지원 등)

4) 기대효과

- 서구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에 대한 인지도 증대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2. 청년생태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가. 서구1939 커넥티드 스팟 **신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센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서구를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청년공간 확보를 통해 서구 전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책에 접근하기 쉽도록 정책 접근성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프로그램 활용성 증대 필요

2) 사업 목표

- 서구 민간 공간 중 청년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청년 친화 공간으로 지정
- 지역 전역에 청년 활동 거점을 확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자원과 연계한 청년 지원 생태계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구 관내 청년 프로그램 운영 가능 공간을 보유한 민간 사업체 및 청년
- 사업내용
 - 서구 내 민간 공간(카페, 서점, 공유오피스, 문화공간 등) 중 청년 친화 공간 '서구1939 커넥티드 스팟' 지정
 - 지정 공간에 대한 공간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최 지원금 제공
 - 커넥티드 스팟 통합 안내 지도 제작우수 운영 공간 인증 및 홍보 지원

4) 기대효과

- 청년 활동 공간의 지역 내 확산을 통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청년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청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	10,000	20,000	25,000	25,000	80,000

2023년 하반기
인천 서구 권역별
청년친화공간 조성사업
**참여공간 or
청년기획자
대모집**

| 접수기간 |
2023. 7. 21.(금) ~ 8. 7.(월)
18:00까지

신청자격
청년 대상 프로그램(공방, 채육, 음악 등)을 개최 가능한 민간공간 또는 청년기획자*
* 청년기획자: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19~39세 청년(지방자치단체와 계약가능한 자)

지원규모
총 9개소 선정(경단/연희/검암/청라/가좌 각 권역별 1~4개소)

지원내용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비 최대 250만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ahran1431@korea.kr)

|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동체험치과 (☎032-560-0883)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 확인바랍니다.

- 사업 개요: 민간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공간을 청년모임, 활동에 필요한 ‘청년 친화공간’으로 연계, 활용하여 지역청년 간 교류확대 도모
- 사업 내용:
 - 서구 권역별 청년친화공간 발굴 및 지정
 - 청년친화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서구 청년 참여 프로그램 자체 운영
 -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비 2,500천원 지원

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운영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필요

2) 사업 목표

- 청년 당사자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 및 수립
-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청년 친화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 정책 체감도 향상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 사업내용
 - 청년정책 발굴 지원 및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4) 기대효과

- 청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통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정책 발굴 및 수립
-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정책 거버넌스 강화
- 청년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 향상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다. 서구 청년 마일리지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감 가능한 인센티브 체계 필요
- 기존 청년주간, 청년센터 중심으로 활용되었던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2) 사업 목표

- 청년의 정책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 활성화
- 청년 활동을 지역 내 자산으로 순환시키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

3)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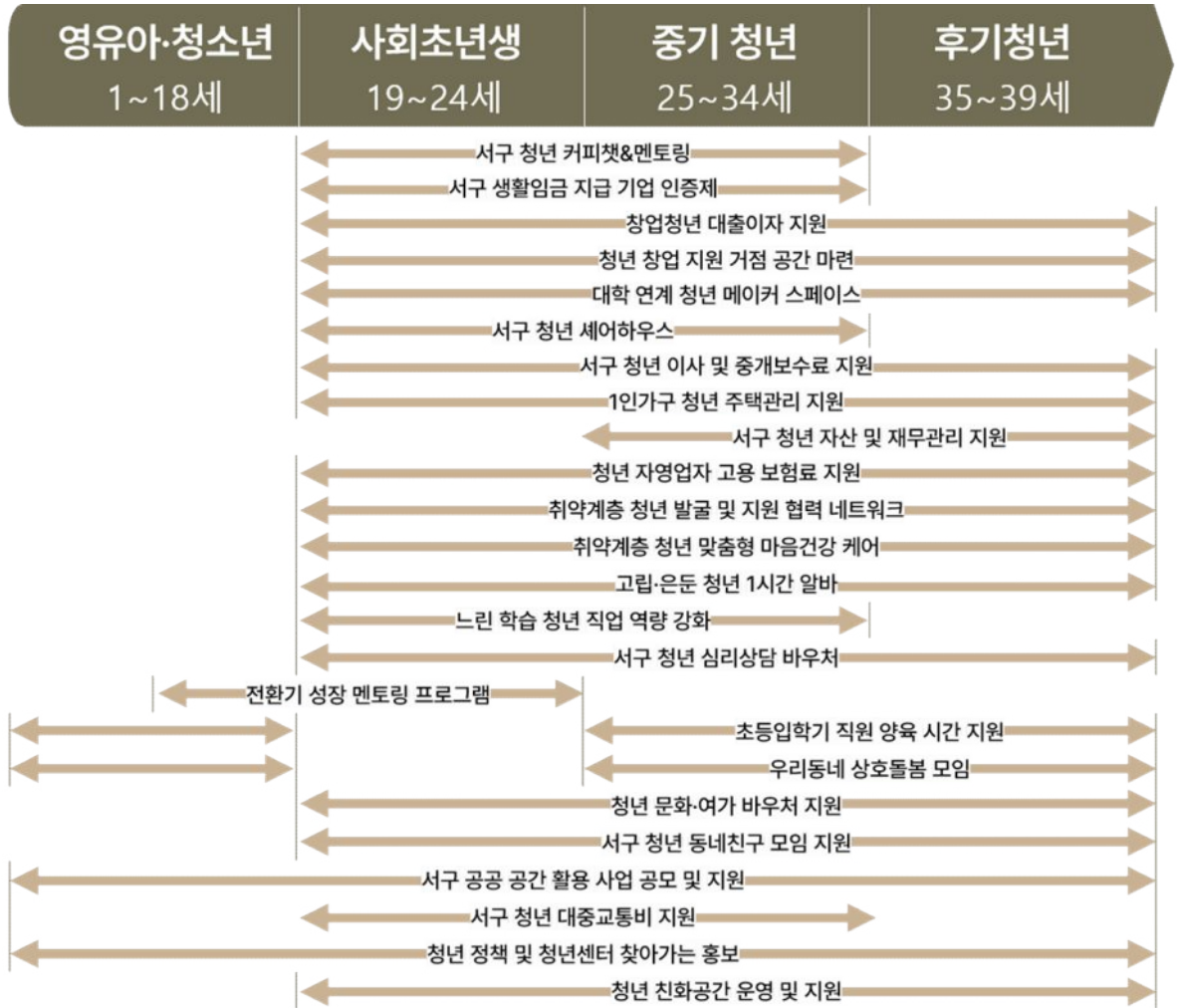
- 사업대상: 서구에 거주하거나 서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 사업내용
 - 서구 청년 정책 프로그램 참여(교육, 워크숍, 봉사, 정책토론회 등) 시 마일리지 적립
 - 서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위원회 등) 시 가중 마일리지 제공
 - 적립된 마일리지는 복지포인트처럼 활용: 민간 공유 탈것 등을 연계하여 청년 접근성 및 마일리지 활용 극대화

4) 기대효과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청년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참여·기여가 보상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청년 공동체 활성화
- 지역 내 청년 활동 확대와 공동체 참여 문화 정착

5)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예산 (천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그림6-1] 서구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사업

예산 및 자원조달 계획

제7장

I. 예산 계획

II. 예산 확보 방안

I | 예산 계획

사업명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2,000	12,000	14,000	14,000	16,000	68,000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	28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1,600,000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460,000	480,000	500,000	520,000	540,000	2,500,000
청년성장프로젝트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서구 청년 커피챗 & 멘토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중소기업 청년복지 공유제 시행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서구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인증제	-	-	-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	-	-	-	-
창업 청년 대출 이자 지원				250,000	300,000	550,000
청년 창업 지원 거점 공간 마련	-	-	50,000	500,000	100,000	650,000
대학연계 청년 메이커 스페이스	-	-	50,000	100,000	100,000	250,000
일자리 소계	988,000	1,078,000	1,270,000	2,110,000	1,852,000	7,298,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청년월세 지원사업	1,05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850,0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1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10,000
서구 청년 세어하우스	-	-	20,000	250,000	100,000	370,000
서구 청년 이사 및 중개보수비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1인 가구 청년 주택관리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청년내일저축계좌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서구 청년 자산 및 재무 관리 지원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청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자립지원 소계	5,700,000	5,990,000	6,010,000	6,240,000	6,090,000	30,030,000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 협력 네트워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마음건강 케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고립·은둔 청년 1시간 알바		50,000	70,000	100,000	100,000	320,000
느린 학습 청년 직업 역량 강화	-		50,000	70,000	100,000	220,000
청년자립도전사업단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서구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50,000	70,000	100,000	100,000	120,000	4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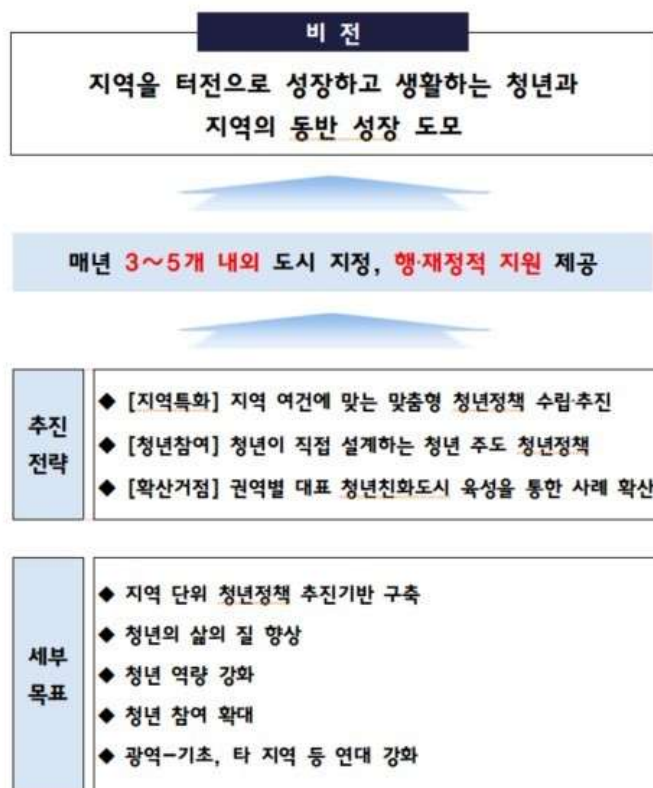
전환기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	14,000	21,000	28,000	35,000	98,000
초등입학기 직원 양육 시간 지원	-	-	50,000	50,000	50,000	150,000
우리동네 상호돌봄 모임	-	-	50,000	100,000	100,000	250,000
서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	-	50,000	2,000,000	2,050,000
생활안정 소계	460,000	544,000	751,000	908,000	2,915,000	5,578,000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청년주간운영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청년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				60,000	120,000	180,000
서구 청년 동네친구 모임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서구 예술활동 지원사업(청년부문)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95,000
청년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서구 공공 공간 활용 사업 공모 및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문화여가 소계	400,000	445,000	445,000	505,000	565,000	2,360,000
서구 청년센터 운영	200,000	25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찾아가는 홍보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청년 친화공간 운영 및 지원		10,000	20,000	25,000	25,000	80,000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운영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서구 청년 마일리지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사회참여 소계	330,000	390,000	450,000	455,000	455,000	2,080,000
전체 합계	7,878,000	8,447,000	8,926,000	10,218,000	11,877,000	47,346,000

II | 예산 확보 방안

1. 중앙정부 및 공공 연계

1)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운영취지: 청년친화적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중앙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모범사례 조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정단위: 특별자치시(세종)·도(제주, 강원, 전북), 시·군·자치구(226개)
- 지원방안: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교육 및 청년친화도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운영 예산 지원 검토
- 지정절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지자체), 조성계획 검토 및 심의(심의위원회 등), 지정 및 공표(국무총리)의 3단계로 진행



[그림7-1]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 목적: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7대 유형: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등
- 지원 개요
 - 예비창업트랙: 창업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총 40명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기창업트랙: 사업 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 총 130명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3)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목적: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팀별 과업수행비(8백만원) 지원,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요 활동 홍보 지원, 청년 공동체간 교류·협력 지원
- 지원 개요
 - (공모대상)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4)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

- 목적: 주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참여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공간 조성 및 혁신활동 지원
 - 거점공간 조성,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및 아카이브 등

○ 지원 개요

- (공모대상) 광역, 기초, 광역+기초 지자체
- (지원금액) 3년간 보조금 심의를 통해 국비 연 10억원 지원(보조율 50%)

5) 고향사랑기부제

- 개요: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고, 2022년 9월 동법 시행령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시민은 현재 거주지 외 지방정부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을 모금한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의 필요한 사업 추진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500만원 16.5% 공제
- 지방정부는 기부금 유치를 위한 답례품 개발을 강화. 특히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지역 브랜드 및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 제공이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에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로컬벤처 등의 주체가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기부금 유치 및 공동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2. 민간 연계 및 시민사회 조달

가. 임팩트 투자

-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확산해나가는 목적이 있음
- 국내 임팩트 투자 운용 규모는 증가추세임. 2021년 기준 약 7,3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규모임. 2019년부터 도시재생, 환경, 로컬 등 특정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³⁾
- 청년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한 로컬창업 시, 청년의 지역 생활 수요 반영 및 참여, 공동체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음. 이러한 창업 아이템을 임팩트 투자와 연계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 크라우드 펀딩, 시민펀딩

-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이지만 자금이 부족한 제품, 사업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행하는 방법임
- 경쟁력 있는 청년 활동을 기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활동을 확산할 수 있음. 이를 위한 청년 창업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IM.Lab(2021). 2021 착한 자본은 지금.

부록

참고문헌

서구 청년 실태조사 설문조사지

[문헌자료]

IM.Lab(2021). 2021 착한 자본은 지금.

Isabelle Le Mouilour,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21.12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5.09.22.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2.02.1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2022). 2022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

인천광역시 서구(2021), 1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인천광역시(2021), 인천 청년정책 수정계획

인천광역시(2025),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202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202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전주시(2018)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2018~2022)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수원청년포털 (<https://www.swyouth.kr/>)

울산시청 홈페이지 (<https://ulsan.go.kr>)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https://www.seo.incheon.kr/>)

제주더큰내일센터 홈페이지 (<https://www.jdnc.or.kr>)